

2022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 동유라시아 물품의 복합성: 문명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다

-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10:0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회의실(444호)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주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유라시아실크로드연구소
- 후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2022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동유라시아 물품의 복합성: 문명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다

-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10:0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회의실(444호)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주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유라시아실크로드연구소
- 후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NRF-2020S1A6A3A01054082)
- © 본 자료집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2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 '동유라시아 물품의 복합성: 문명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다'의 발표문을 모아 발간하였음.



공동주최 학술대회 일정  
2022년 9월 16일(금)

동유라시아 물품의 복합성 : 문명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다

10:00~10:05	개회사   서인범(동국대 문화학술원장/HK+사업단 단장)
10:05~10:10	축사   이창숙(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1부 발표 사회   황재문(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10~10:35	<b>【제1발표】</b> 「신라촌락문서」의 관갑(貫甲)과 신라의 피혁 가공 발표   이승호(동국대) 토론   고태진(서울대)
10:35~11:00	<b>【제2발표】</b> 몽골에서 온 달라이 라마: 4대 달라이 라마의 회사(回賜) 물품 연구 발표   최소영(동국대) 토론   김성수(서울과기대)
11:00~11:10	휴식
11:10~11:35	<b>【제3발표】</b> 목활자(木活字) 사용과 민간 족보의 활성화: 조선시대 족보와 중국 명청대(明清代) 족보의 비교 발표   권기석(동국대) 토론   박현순(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35~12:00	<b>【제4발표】</b> 대몽골국 초기(1219~1259년) 고려-몽골 간 물품의 이동과 복합성 발표   김장구(동국대) 토론   권용철(단국대)
12:00~13:05	점심식사

2부 발표

사회 | 이해진(동국대)

13:05~13:30

【제5발표】

칸들의 선물, 황제의 은혜:  
청(淸) 초기(初期) 만·몽(滿·蒙) 관계와 예물(禮物)

발표 | 이선애(경상국립대)

토론 | 임경준(동국대)

13:30~13:55

【제6발표】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佐久間甚八報告書)>를 통해 본  
18세기 후반 조일무역과 물품교류의 실태

발표 | 이승민(동국대)

토론 | 장순순(전주대)

13:55~14:20

【제7발표】

2차 캘리코 논쟁, 1719-21:  
직조공 로비와 젠더, 사치

발표 | 김대륜(대구경북과학기술원)

토론 | 김철기(경희대)

14:20~14:30

휴식

14:30~14:55

【제8발표】

1598년 스페인인의 광둥(廣東) 정주 시도와 중국 무역

발표 | 남민구(동국대)

토론 | 장혜진(가톨릭관동대)

14:55~15:20

【제9발표】

임진왜란 시기 조선에 유입된 조총의 경향성

발표 | 노영구(국방대)

토론 | 이왕무(경기대)

15:20~15:30

휴식

종합토론

좌장 | 정호훈(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5:30~17:25

【종합토론】

발표자·토론자·방청객

17:25~17:30

폐회사 | 노대환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부단장)

# 목 차

<b>【제1발표】 이승호(동국대)</b>	
「신라촌락문서」의 관갑(貫甲)과 신라의 피혁 가공 .....	11
<b>【제2발표】 최소영(동국대)</b>	
몽골에서 온 달라이 라마:	
4대 달라이 라마의 회사(回賜) 물품 연구 .....	27
<b>【제3발표】 권기석(동국대)</b>	
목활자(木活字) 사용과 민간 족보의 활성화:	
조선시대 족보와 중국 명청대(明清代) 족보의 비교 .....	47
<b>【제4발표】 김장구(동국대)</b>	
대몽골국 초기(1219~1259년) 고려-몽골 간 .....	73
물품의 이동과 복합성	
<b>【제5발표】 이선애(경상국립대)</b>	
칸들의 선물, 황제의 은혜:	
청(淸) 초기(初期) 만·몽(滿·蒙) 관계와 예물(禮物) .....	97
<b>【제6발표】 이승민(동국대)</b>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佐久間甚八報告書)>를 통해 본 .....	129
18세기 후반 조일무역과 물품교류의 실태	
<b>【제7발표】 김대륜(대구경북과학기술원)</b>	
2차 캘리코 논쟁, 1719-21: .....	145
직조공 로비와 젠더, 사치	
<b>【제8발표】 남민구(동국대)</b>	
1598년 스페인인의 광둥(廣東) 정주 시도와 중국 무역 .....	165
<b>【제9발표】 노영구(국방대)</b>	
임진왜란 시기 조선에 유입된 조총의 경향성 .....	175



【제1발표】

「신라촌락문서」의 관갑(貫甲)과 신라의 피혁 가공

이승호(동국대)



# 「신라촌락문서」의 貫甲과 신라의 皮革 가공

이승호(동국대)

1. 머리말
2. 「신라촌락문서」의 貫甲
3. 皮革의 수급과 가공·활용
4. 맺음말

## 1. 머리말

1933년 일본 正倉院에서 이른바 「신라촌락문서」(이하 「촌락문서」)가 발견된 뒤로 문서를 둘러싸고 다방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문서의 작성 연대, 문서의 성격과 용도, 9등호제 시행과 호등 산정 기준, 計烟 산출 방식·목적과 수취제도, 토지제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연구가 활발하였다. 다만,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문서에 대한 연구가 정체기에 접어든 듯 보이기도 하는데, 단일 문서에 대한 오랜 연구사 끝에 현재 그 이상의 새로운 접근이나 견해가 도출되기 어려운 연구 환경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촌락문서」를 주제로 두 차례의 학술회의가 개최되면서, 문서에 대한 기왕의 논의가 한 차례 정리되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sup>1)</sup>

한편, 이처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서의 연구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연구자 간에 견해가 분분하거나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 본 발표에서 다루는 “貫甲”도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貫甲”은 「촌락문서」의 이른바 A촌, “當縣 沙害漸村” 기재 내용의 14행에 보인다. “貫甲”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의 12행부터 15행까지는 乙未년에 沙害漸村의 烟을 다시 조사할 때[乙未年烟見賜節] 파악된 인구와 가축 자산[牛·馬]의 감소 상황을 기재한 부분에 해당한다. “貫甲”은 沙害漸村의 인구 감소분과 牛·馬 감소분 사이에 “貫甲” 1구를 팔았다[賣如白貫甲一]고 기재되어 있다.

그동안 “貫甲”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먼저 초창기 문서의 연구를 주도한 旗田巍는 “貫甲”이 기재된 위치가 인구 변동 사항을 기재한 12~14행에 속하므로, 곧 “貫甲”은 인간이며 또 팔리는 인간이니 私奴婢일 것으로 파악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武田幸男은 문서상 모든

1) 2020.10.31. 개최 “신라 촌락문서의 재검토”(전국역사학대회 신라사학회 기획발표회) ; 2022.9.2. 개최 “신라촌락문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청주시·충북대학교박물관)

2) 旗田巍, 「新羅の村落Ⅰ」-正倉院にある新羅村落文書の研究-, 『歴史學研究』 1958·12(NO.226), 1958,

사람에 대한 정보는 丁부터 小子까지 연령 구분이 예외 없이 표기되어 있음에 반해, “貫甲”의 경우에는 그런 표기가 보이지 않으므로 奴婢와 같은 사람으로 보기에 심스럽다고 반박하였다.<sup>3)</sup> 兼若逸之 또한 “貫甲”에 대한 서술이 人과 牛馬 사이에 있으므로 노예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貫甲”이라는 말 자체에 연령 구성과 관련된 뜻이 있다면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이라면 문서의 서식상 노예가 된다고 하였다.<sup>4)</sup>

이후 “貫甲”의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연구자는 이영훈이었다. 이영훈은 문서의 “貫甲”을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 보이는 貫甲과 관련지어 이것이 갑옷 제작에 쓰이는 사슴 가죽이었을 것으로 보았는데,<sup>5)</sup> 남풍현 또한 이를 지지하였다.<sup>6)</sup> 하지만 이후로도 “貫甲”을 사람에 대한 표기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김창석은 “貫甲”을 甲冑 등 전투 용구 제조와 관련된 특수한 役을 지고 있었던 수공업자로 이해하였다.<sup>7)</sup> 하지만 그렇게 되면 촌락에서 누군가 수공업자 계층 1인을 팔았다는 뜻이 되는데, 이러한 이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최근 박남수는 貫甲을 사고팔 수 있는 물품으로서 가죽으로 꿰어 만든 甲冑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A촌의 死合人 9명 가운데 포함된 丁 1명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입던 ‘貫甲’을 팔았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sup>8)</sup>

이처럼 각양각색의 견해가 제기되었지만, 크게는 이를 특정 계층의 사람[노비 혹은 수공업자]에 대한 표기로 보는 시각과 [사슴]가죽 혹은 갑옷 등의 물품으로 파악하는 시각으로 대별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 의지하여 「촌락 문서」에 보이는 “貫甲”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貫甲”을 가죽으로 甲札을 꿰어 만든 갑옷으로 보는 견해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실마리 삼아 문서 작성 당시 신라의 皮革 수급 및 가공 과정의 일면을 관찰해볼 것이다.

## 2. 「신라촌락문서」의 貫甲

먼저 「촌락문서」에 기재된 “貫甲”과 그 전후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2~13쪽.

- 3) 武田幸男, 「新羅の村落支配」, 『朝鮮學報』 81, 1976, 253쪽 미주 11번.
- 4) 兼若逸之, 「新羅 《均田成冊》의 研究」, 『한국사연구』 23, 1979, 77~78쪽. 兼若逸之는 덧붙여 “貫甲”의 ‘甲’은 갑옷이나 軍士, 집 등을 뜻하지만, 군사는 팔 수 없고, 갑옷이나 집은 팔 수 있으나 서식 항목 중에 그들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고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5) 이영훈, 「貫甲」, 『古文書研究』 13, 1998, 148쪽.
- 6) 남풍현, 『吏讀研究』, 태학사, 2000, 266쪽.
- 7) 김창석, 「신라 촌락문서의 용도와 촌락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한국고대사연구』 21, 2001, 64~65쪽 각주 38번.
- 8) 박남수, 「신라촌락문서의 연령구분과 촌락사회」, 『신라촌락문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학술회의 자료집)』, 청주시·충북대학교박물관, 2022, 115~116쪽.

사료 (가) : 沙害漸村 12행 ~ 15행

12행	乙未年烟見賜節公[才]前及白他郡中妻追移去[因][教]合人五
13행	<p style="text-align: center;">七</p> <p style="text-align: center;">追子一 小子一 丁女一 十</p> <p>以丁一 小子一 丁女一 列廻去合人㉔ 以丁二 小女子一 死合人㉕ 以丁一 小女子一 除母一 丁婢一</p>
14행	小子三 以奴一 丁女一 小女子一 除母一 老母三 <u>賣如白貫甲一</u>
15행	合无去因白馬二 並死之 死白牛四
<해석>	
12행	을미년(乙未年)에 연(烟)을 살펴보니, 이때[節] 공동(公等) 앞에 이르러 아뢰길[白] 타군(他郡)에 있는 처를 좇아 이사 간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교(教)를 내려 [허락한] 사람을 합하면 5명이다.
13행	정 1명, 소자 1명, 정녀 1명, 소녀자 1명, 제모 1명 [연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列] [촌을] 떠나간[廻去] 사람을 합하면 3명 7명이다. 정 2명, 소녀자 1명, 정비 1명, <추자 1명, 소자 1명, 정녀 1명> 죽은 사람을 합하면 9명 10명이다. 정은 1명,
14행	소자는 3명, 노 1명 정녀는 1명, 소녀자는 1명, <제모는 1명> 노모는 3명이다. <u>팔아버렸다고[賣如] 아뢰[白] 관감(貫甲)이 1개이다.</u>
15행	없어진 것이 확실하여 아뢴 말을 합하면 2마리이다. 모두 죽은 것. 죽었다고 아뢴 소는 4마리이다.
* < > 안에 기재된 내용은 追記	

앞서 언급하였듯이 “貫甲 1구를 팔았다[賣如白貫甲一]”는 구절이 포함된 12행부터 15행까지는 乙未年에 沙害漸村의 연을 다시 조사할 때[乙未年烟見賜節] 파악된 인구와 가축 자산[牛·馬]의 감소 상황을 기재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貫甲”은 촌락의 인구 및 가축 자산[牛·馬] 등과 함께 상급 행정기관에서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할 핵심 정보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貫甲” 기재 내용에 이어지는 없어진[죽은] 말이 2마리와 죽은 소가 4마리라고 보고하는 부분에 주목해보자. A촌[沙害漸村]의 경우와 달리 C촌의 경우 없어진 말이 4마리였는데 그중 3마리는 팔았고 1마리는 죽었다고 하였으며, 죽은 소는 1마리라고 기재되어 있다.<sup>9)</sup> 또 D촌[西原京 ○○○촌]의 경우에는 없어진 말이 3마리로 그중 1마리는 팔았고 1마리는 죽었으며 남은 1마리는 돌아간 연[廻烟]이 가져

9) 合无去因白馬四 <以賣如白三 死白一> 死牛一.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없어진 소는 6마리인데 1마리는 팔았고 돌아간 연[廻去烟]이 가져간 소가 1마리 죽은 소가 4마리라고 한다.<sup>10)</sup>

즉 “貫甲”과 마찬가지로 牛馬 또한 팔 수 있었으며, D촌에서 “廻烟馬一”이라고 했던 부분이나 “廻去烟牛一” 등의 기재 내용을 통해 보면 문서상의 牛馬는 기본적으로 烟의 소유였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물론 문서상에 기재된 인구수에 비해 우마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은 이들 촌락의 성격과 우마의 私有 문제를 두고 여러 논의를 발생시켰지만,<sup>12)</sup> D촌에서 “廻烟馬一”이나 “廻去烟牛一”이라고 한 것은 그에 앞서 “을미년에 연을 살펴보니 그 상연이 없어져 돌아간 공이 1[연]으로 [돌아간 연의] 사람을 합하면 6명이다. <정 2명, 정녀 2명, 소녀자 2명>”<sup>13)</sup>라고 하였던 부분에 보이는 다른 곳으로 진출 간 烟 소유의 牛馬로 이해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기재된 牛馬는 烟의 소유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 단위로 牛馬의 감소 상황을 문서를 통해 세심하게 보고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 烟이 소유한 牛馬라도 그 관리 및 활용은 일정정도 官의 관여와 통제 속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소의 畜力은 촌 단위로 공유하며 牛耕을 통한 효과적인 畝 경영을 도모하였을 것이며, 말의 경우 驛馬·軍馬 등으로 차출되어 활용되었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貫甲”에 대한 검토가 중심이 되므로 牛馬에 대해 더 논의할 여유는 없지만, - 후술 - 일단 貫甲과 함께 기재된 牛馬가 烟의 소유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의 변동 사항을 官에 보고해야 할 만큼 중요한 자산이었다는 점만 우선 지적해두고자 한다.

貫甲과 함께 기재된 牛馬에 대해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貫甲도 일단 烟의 소유물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貫甲은 烟이 소유하였으며 내다 팔수도 있었으나, 그 변동 사항만큼은 官에 보고해야만 했던 중요한 자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貫甲은 무엇일까. 동시기 고대 한국 문헌에서는 貫甲에 대해 「촌락문서」 외에 다른 사례를 찾기 어렵다. 다만 중국측 사서를 검색해보면 “貫甲”과 관련하여 몇 개의 기사를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 갑옷·甲冑 그 자체를 뜻하거나 갑주를 꿰다 혹은 꿰뚫다는 식의 서술로 보일 뿐, 貫甲 그 자체가 고유명사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용례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貫甲과 관련하여 의외로 조선시기 문헌, 즉 『조선왕조실록』에서 주목할 만한 용례가 보인다. 아래의 사료 (나)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검토된 기사이지만,<sup>14)</sup> 貫甲의 구체적인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 다시 살펴

10) 合无去因白馬三 <以賣如白一 死白馬一 廻烟馬一> [合无去因白牛六] <以賣如白牛一 廻去烟[牛一 死白四]>.

11) 이인재, 「신라통일기 조세 수취기준과 등급연(等級烟)」, 『역사와 현실』 11, 1994, 201쪽 ; 이인철, 『新羅村落社會史研究』, 일지사, 1996, 277쪽.

12) 예컨대 이태진은 문서상에 인구수 대비 우마의 숫자가 많은 이유를 두고 이들 촌들이 왕실 직속 지이기 때문에 생긴 특수 사례로 보고, 이들 촌의 주민들에게 왕실 소유의 말을 사육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畝의 경작을 위해 축력으로 소를 제공하여 많은 수의 말과 소가 기재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李泰鎮, 「新羅 村落文書의 牛馬」,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碧史李佑成教授 停年紀念論叢-』 上, 1990, 125~150쪽).

13) 乙未年烟見賜以彼上烟亡廻去孔一 以合人六 <以丁二 丁女二 小女子二>.

14) 이영훈, 「貫甲」, 『古文書研究』 13, 1998.

보기로 한다.

사료 (나)-1.

軍器少監 宋居信을 과직하였다. 居信이 貫甲鹿皮 2장을 사사로이 가졌는데, …(하략)…<sup>15)</sup>

사료 (나)-2.

江界의 歲貢인 淸蜜과 甲州의 貫甲皮를 감면하였으니, 대개 전과 같이 貂皮를 採捕하여 바치게 하고자 함이었다.<sup>16)</sup>

사료 (나)-3

전라도 海道察訪 韓雍이 各浦의 事宜를 올려 아뢰기를, “各浦의 萬戶·千戶·領船頭目이 해상의 방어를 餘事로 여기고, 軍器監에 바치는 貫甲皮와 內廂에서 月課하는 貫甲皮를 마련[辦備]한다 칭하고 領船軍을 거느리고 항상 사냥하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만일 혹시 적을 만나게 되면 패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內廂의 月課와 軍器監에 바치는 貫甲皮를 일체 모두 면제하여 오로지 방어에 전력하게 하소서. 1. 해변의 烽卒은 왜적의 왕래를 정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虎狼과 함께 처하여 死生을 돌보지 아니하고 고생하며 立役하는데, 內廂節制使가 無孔大鹿皮와 天鵝眞羽를 責納하게 하여 해마다 常例를 삼으니, 배나 되는 값으로 이를 貿易하여 큰 폐단이 됩니다. 內廂에서 연례로 거두는 大鹿皮와 天鵝眞羽를 모두 면제[蠲免]하소서.”라고 하였다. 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해 아뢰기를, “軍器監에 바치는 貫甲皮 이외의 그 나머지는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대로 따랐다.<sup>17)</sup>

위의 사료 (나)를 보면 貫甲鹿皮·貫甲皮 등의 용어가 확인된다. 먼저 사료 (나)-1은 太宗代 軍器少監이었던 宋居信이란 인물이 貫甲鹿皮를 사사로이 취하다가 과직되었다는 기사인데, 사슴가죽으로 보이는 貫甲鹿皮가 당시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사료 (나)-2는 甲州에서 歲貢으로 바치던 貫甲皮를 감면하는 한편, 貂皮에 대한 歲貢을 늘리고자 하였다는 기사인데, 이로 보아 貫甲皮는 官에 歲貢으로 상납되는 물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료 (나)-3에서는 두 가지 사안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전라도 해안을 방어하는 軍官들이 상납할 貫甲皮를 마련하기 위해 사냥을 자주 하므로 해안 방어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니 貫甲皮 상납을 면제하자는 건의이고, 두 번째는 해변을 지키는 烽卒이 內廂節制使에게 상납하

15) 『太宗實錄』 1권, 태종 1년 3월 20일 기묘, “罷軍器少監宋居信職. 居信私貫甲鹿皮二張, …(下略)…”.

16) 『太宗實錄』 14권, 태종 7년 8월 6일 정해, “蠲江界歲貢淸蜜、甲州貫甲皮. 蓋欲使依前採捕貂皮以獻也.”

17) 『太宗實錄』 15권, 태종 8년 5월 11일 기미, “全羅道 海道察訪韓雍, 進各浦事宜. 啓曰, “各浦萬戶、千戶、領船頭目, 以海上防禦爲餘事, 率領軍船, 稱爲備辦軍器監納貫甲皮、內廂月課貫甲皮, 常以收獵爲事, 如或遇賊, 不無敗衄. 其內廂月課及軍器監納貫甲皮, 一皆蠲除, 專委防禦. 一, 海邊烽卒伺察倭賊來往, 不分晝夜, 與虎狼相雜, 不顧死生, 艱苦立役. 內廂節制使, 却令責納無孔大鹿皮、天鵝眞羽, 歲以爲常, 倍價貿易, 至爲巨弊. 其內廂年例所收大鹿皮、天鵝眞羽, 盡行蠲免.” 下議政府擬議. 政府議得, “軍器監納貫甲皮外, 其餘乞依所啓施行.” 從之.”

는 大鹿皮와 天鵝眞羽를 마련하기 위해 貿易을 하여 큰 폐단이 되고 있으니 內廂에서 연례로 거두는 大鹿皮와 天鵝眞羽를 모두 면제하자는 건의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軍器監에 바치는 貫甲皮 이외에는 모두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貫甲皮는 大鹿皮, 즉 사슴 가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貫甲皮의 용도는 아래의 기사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사료 (다)-1

上이 말하기를, “가죽으로 갑옷을 켤 것[貫甲]은 여러 해가 지나면 끊어져버리니, 또 수선하도록 하면 그 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다. 또 鹿皮를 재촉하여 바치게 하는데, 그 수도 적지 않다. 내가 생각건대, 鐵로써 켤다면 썩지 않고 단단할 것이니, 폐단도 따라서 없앨 수 있다.”<sup>18)</sup>

사료 (다)-2

王世子가 繼照堂에 앉아서 百官의 朝參을 받고, 書筵에서 講하는데, 輪參官 判中樞院事 李順蒙이 아뢰기를, “軍器監에 군기가 해가 오래 되어 貫甲의 가죽[貫甲之皮]이 해지고 떨어져서 쓰지 못할 것이 3분의 2나 됩니다. 전번에 使臣 吳良이 왔을 때에 군사가 갑옷을 받은 것이 부족하였고, 또한 떨어지고 해진 것이 많아서 修補하는 데에 소요되는 皮革을 반드시 많이 준비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오나 우리나라에서는 貫甲皮革이 희귀하운데, 이제 倭人이 피혁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 貿易하여 저축하게 하소서.” …(하략)…<sup>19)</sup>

사료 (다)-3

鐵로 札을 만들고, 水銀을 끼얹고, 靺韋를 사용하여 엮어 만든 것은 水銀甲이라 한다. 그을린[烟] 鹿皮를 사용하여 엮어 만들고, 검은 칠을 한 것은 柳葉甲이라 한다. 生豬皮로 札을 만들고, 그을린 鹿皮를 사용하여 엮어 만든 것은 皮甲이라 한다. 鐵絲로 小環을 만들어 서로 켤 것은 鑲子甲이라 한다. 鐵札과 鐵環을 서로 사이하여 엮은 것은 鏡幡甲이라 한다. 종이를 접어서 札을 만들고, 鹿皮로 엮어 만들어, 검은 칠을 한 것은 紙甲이라 한다.<sup>20)</sup>

사료 (다)-1에서는 鹿皮로 甲札을 꿰어 갑옷을 만들면 여러 해가 지나면 끊어져버리니 차라리 鐵로 꿰자는 태종의 의견이다. 물론 이후로도 갑옷의 가죽 끈이 닳아서 끊어졌다는 기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태종의 제안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것 같다.<sup>21)</sup> 어쨌든 이를 통해 당시 鐵甲을 제작할 때에 甲札을 꿰는

18) 『太宗實錄』 28권, 태종 14년 11월 4일 癸卯, “上曰, 以皮貫甲經數年則斷絕, 又令修補, 其弊無窮. 且催納鹿皮, 其數不少. 予思之, 以鐵貫之則不朽而堅, 弊隨除矣.”

19) 『世宗實錄』 103권, 세종 26년 1월 10일 庚申, “王世子坐繼照堂, 受百官朝參, 講書筵. 輪參官判中樞院事李順蒙申曰, “軍器監軍器年久貫甲之皮損毀不用者, 三分之二. 前此使臣吳良來時, 軍士授甲不足, 亦多破毀, 修補所入皮革, 必須多備. 然我國貫甲皮革稀貴, 今倭人多齎皮革而來, 請貿易儲畜.” …(下略)…”

20) 『世宗實錄』 133권, 五禮, 軍禮序例, 兵器, 甲·靑, “甲. 以鐵爲札, 灌以水銀, 用靺韋編成曰水銀甲. 用烟鹿皮編成, 黑漆曰柳葉甲. 以生豬皮爲札, 用烟鹿皮編成曰皮甲. 以鐵絲作小環相貫曰鑲子甲. 鐵札及鐵環相間以綴曰鏡幡甲. 摺紙爲札, 以鹿皮編成, 黑漆曰紙甲.”

21)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41쪽.

데에 鹿皮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貫甲”은 가죽으로 甲札을 꿰어 갑옷을 만드는 작업 방식을 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3을 보면 이처럼 “貫甲”을 할 때에는 주로 鹿皮를 사용하게 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 연구에서는 “貫甲”을 곧 사슴가죽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지만,<sup>22)</sup> 문맥 상 “貫甲”은 어디까지나 가죽으로 甲札을 꿰는 행위를 말한다. 사료 (다)-2에서 “貫甲之皮”, “貫甲皮革” 등의 표현은 ‘甲札을 꿰는 데에 사용되는 가죽’으로 풀이되는데, 이를 통해 보아도 貫甲은 가죽으로 甲札을 꿰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따라서 “貫甲”을 곧 사슴가죽이라고 풀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시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료 (라)-1

禮曹에서 大闕 儀式을 啓하기를 “...(중략)... 大闕日이 되면, 날이 밝기 전 十刻에 군사들은 모두 엄중히 장비[裝備]하는데, 騎兵과 步兵은 모두 갑옷[貫甲]을 입고 각기 곧은 陣을 하고서 기다리고, ...(하략)...”<sup>23)</sup>

사료 (라)-2

大闕의 儀注에, “...(중략)... 闕日이 되면, 날이 밝기 전 十刻에 군사들은 모두 엄중히 장비[裝備]하는데, 騎兵과 步兵은 모두 갑옷[貫甲]을 입고 각기 곧은 陣을 하고서 기다리고, ...(하략)...”<sup>24)</sup>

사료 (라)-3

병조 판서(兵曹判書) 장순손(張順孫)이 사장(辭狀)을 올려 아뢰기를, “...(중략)... 또 그 장기(瘴氣) 어린 안개에 몸이 상하여 왼팔을 잘 쓰지 못하므로 갑옷[貫甲]을 입고 호위하는 것은 더욱 견딜 수가 없습니다.”<sup>25)</sup>

위의 사료 (라)에서는 모두 “貫甲”이 곧 군사들의 갑옷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조선시대에 “貫甲”이라는 말은 갑옷을 뜻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貫甲은 가죽으로 甲札을 꿰어 만든 갑옷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국 사고팔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貫甲”은 사슴 등의 가죽으로 甲札을 꿰어 만든 갑옷을 뜻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다시 「춘락문서」의 “貫甲”으로 돌아와 보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貫甲”, 즉 갑옷을 팔 수 있었다는 것은 해당 갑옷이 孔烟 혹은 특정 丁男의 소유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지적되었듯이 아마도 “賣如白貫甲一” 바로 앞에 기재된 인구 감소 내용 “죽은 사람을 합하면 9명[10명]이다. 丁은 1명, 小子는 3명, <奴 1명> 丁女는

22) 이영훈, 「貫甲」, 『古文書研究』 13, 1998.

23) 『世宗實錄』 12권, 세종 3년 6월 1일 壬辰, “禮曹啓大闕儀曰, “...(中略)... 大闕日, 未明時十刻, 軍士皆嚴備, 騎徒皆貫甲, 各爲直陣以相候, ... (下略)...”

24) 『世宗實錄』 25권, 세종 6년 9월 24일 丙申, “大闕儀注, “...(中略)... 大闕日, 未明十刻, 軍士皆嚴備, 騎徒皆貫甲, 各爲直陣以相俟, ... (下略)...”

25) 『中宗實錄』 32권, 중종 13년 2월 2일 辛未, “兵曹判書張順孫上辭狀曰, “...(中略)... 又襲瘴霧, 左臂不健, 貫甲扈衛, 尤所不堪.”

1명, 小女子는 1명, <除母는 1명> 老母는 3명이다.”<sup>26)</sup>에서 확인되는 죽은 丁男의 소유였을 것이다.<sup>27)</sup>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팔았음을 보고해야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갑옷은 정남의 軍役과 관련되어 官으로부터 지급되었고, 따라서 그 보존 여부를 官에 보고해야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우선 문서에 보이는 “貫甲”이 가죽으로 甲札을 꿰어 만든 갑옷이라고 이해할 때, 그 甲札을 철제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가죽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현재까지 보고된 한국 고대 갑주는 대부분 철제 갑주이지만, 군역을 지는 일반 백성에게까지 철제 갑주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시대에도 일반 步軍의 경우 사슴[鹿]·노루[獐]·돼지[豬]·소·말 등의 짐승 가죽으로 만든 皮甲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할 때,<sup>28)</sup> 문서에 보이는 “貫甲” 또한 皮甲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피갑의 경우에도 앞서 사료 (다)-3에서 보듯 가죽으로 제작한 甲札을 다시 鹿皮 등의 貫甲皮로 꿰어 엮어 만들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皮甲의 경우 水銀甲·柳葉甲·紙甲 등과 만드는 제도가 같았다고 하므로,<sup>29)</sup> 이러한 皮甲 또한 “貫甲”으로 불렸다고 보아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처럼 제작에 다량의 皮革이 요구되는 “貫甲”을 일반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결국 문서에 보이는 “貫甲”은 당시 관에서는 군역을 지는 丁男에게 지급한 가죽갑옷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된 관갑은 孔烟 내에 군역을 지는 丁男의 소유가 되었으며, 軍役이 끝나거나 軍役을 져야 할 丁男이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孔烟의 다른 구성원이 이를 팔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貫甲” 재고의 변동 상황은 官에서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3. 皮革의 수급과 가공

앞서와 같이 “貫甲”은 가죽으로 제작한 여러 개의 甲札을 鹿皮 등의 貫甲皮로 꿰어 엮어 만든 일종의 皮甲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貫甲이 軍役을 지는 일반 丁男에게 모두 지급되었다면, 정말 막대한 양의 皮革 자원이 필요했을 일이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는 이러한 막대한 양의 皮革 자원을 어떻게 수급하였을까.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던 문서상 牛馬의 숫자이다. 문서에 보이는 西原京 예하의 4개 촌락의 烟 대비 牛馬의 수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를 보면 烟數 대비 牛馬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서상의 촌락을 왕실의 직속촌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sup>30)</sup>

26) 死舍人⑩[十] 以丁一 小女子三 <以奴一> 丁女一 小女子一 <除母一> 老母三

27) 박남수, 「신라촌락문서의 연령구분과 촌락사회」, 『신라촌락문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학술회의 자료집)』, 청주시·충북대학교박물관, 2022, 115~116쪽.

28)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45쪽.

29)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47쪽.

표 <1>. 「촌락문서」 4개 촌의 烟과 牛馬[전식년 수치]

村名	戶數	仲下	下上	下仲	下下	等外	奴婢數	馬數	牛數	戶當 牛數 평균치	戶當 馬數 평균치
A촌	11	4	2		5		9	25	22	2.0	2.3
B촌	15	1	2	5	6	1	7	18	12	0.8	1.2
C촌	11		3	1	6	1	0	8	11	1.0	0.7
D촌	10			1	9		9	10	8	0.8	1.0

촌락의 성격을 어떻게 보든, 문서상의 촌락이 牛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이들 촌락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모든 牛馬가 烟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烟數에 牛馬의 숫자를 그대로 대비해 보면 A촌의 경우는 호당 소와 말을 각각 2마리씩 사육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중에는 국가에서 해당 村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軍馬 및 驛馬의 관리를 위해 村 단위로 분급한 牛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신라의 중앙 정부가 지방 관사에 대한 재정 지원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주요한 교통수단이자 군사자원인 말을 정책적으로 사육하기 위해 전국 교통로상의 주요 지점에 牛馬를 집중적으로 분여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그 대상으로 문서상의 촌과 같이 小京 인근의 촌락이 우선적으로 주목받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sup>31)</sup>

A·B·C·D촌에서 보유한 牛馬의 숫자에 대해 이처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들 촌락의 경우 그만큼 皮革의 수급도 상대적으로 용이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乙未年 조사 시기에 4개 촌에서 죽은 牛馬의 숫자를 합하면, - 해당 내용이 결실된 C촌은 제외 - 총 말 4마리와 소 9마리가 죽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촌에서는 이처럼 죽은 가축들로부터 皮革을 채취하여 비축하였다가 일부는 국가에 공납으로 상납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문서상 牛馬의 자연 증가율이 매우 낮음을 주목하고 6년마다 牛馬가 국가에 공납으로 바쳐졌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견해도 있다. 특히 牛馬로부터 얻은 가죽 등의 자원은 雜調로 상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32)</sup>

그렇다면 이렇게 확보한 皮革 자원을 村 단위 혹은 그보다 상위 행정 단위에서 수합하여 貫甲을 제작하였고, 이것을 다시 軍役을 지는 영내 丁男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문서가 작성되던 시기 신라 전역에 걸쳐 丁男에게 이러한 貫甲이 지급되기는 역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牛馬를

30) 李泰鎭, 「新羅 村落文書의 牛馬」,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 碧史李佑成教授 停年紀念論叢 -』上,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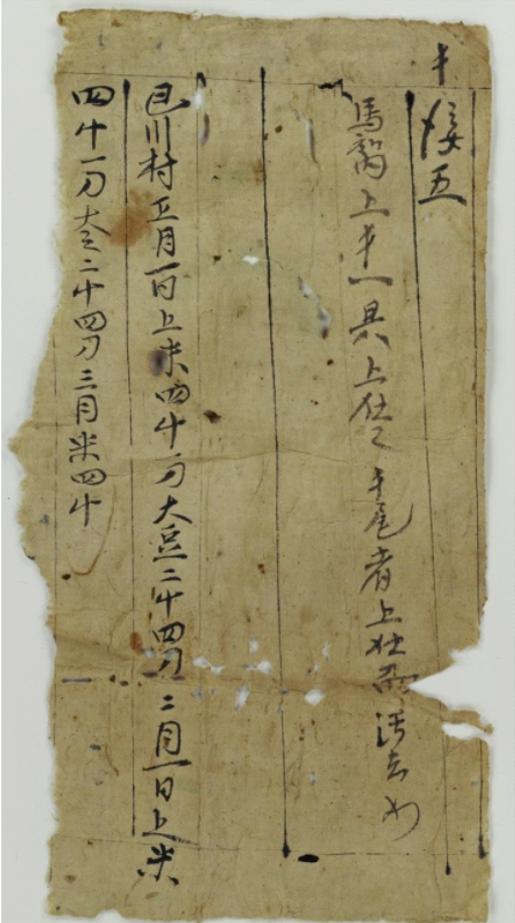
31) 김창석, 「신라 촌락문서의 용도와 촌락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한국고대사연구』 21, 2001, 64쪽.

32) 이인철, 『新羅村落社會史研究』, 일지사, 1996, 279쪽.

보유하였기에 피혁 수급도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西原京 소속 4개촌의 성격 또한 당시 신라 사회에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官에서 지방에서 사육하는 牛馬로부터 皮革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또 한편, 조선시대 貫甲皮로 주로 활용되었던 사슴가죽이나 그밖에 고급 모피 자원의 경우는 어떨까.

자료 (마) : 正倉院 소장 佐波理 加盤 부속 문서 [앞면]



<원문>  
 牛 接五  
 馬於內上 一具上仕之 牛尾者上仕 而汚去如

-----

巴川村 正月 一日上米四斗 一刀大豆二斗 四刀 二月 一日上 米 四斗 一刀大豆二斗 四刀 三月 米 四斗

<해석>  
 牛 接 5  
 馬於內에서 上等의 牛 [가죽을] 바쳤다. 牛尾도 바쳤으나 더럽혀졌다.

-----

巴川村에서 正月 1일에 上米 4말[斗] 1되[刀]와 大豆 2말 4되를, 2월 1일에 상미 4말 1되와 대두 2말 4되를, 3월에 米 4말을 [바쳤다.]

위에 제시한 佐波理 加盤 부속 문서 앞면<sup>33)</sup>에는 모종의 동물로 보이는 牛과 그 꼬리[牛尾] 등의 모피 자원, 쌀·콩[大豆] 등의 곡물과 이를 진상한 지역 및 진상 시기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신라 시대 지방에서 올라온 貢進物을 官 혹은 內省에서 집계하여 기록한 장부의 초안이라고 이해되고 있다.<sup>34)</sup> 그리고 皮革과 관련하여서는 여기에 보이는 “牛”이라는 표기를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雁鴨池에서 발견된 목간 가운데 ○坪에서 진상한 “牛” 121품에 대한 내용이 서사된 목간도 발견된 바 있다.<sup>35)</sup>

33) 한편, 여기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문서의 뒷면에는 세 사람의 관인 이름이 보이고, 각각의 관인에게 上米 등의 곡물이 지급된 사실을 적고 있어 관료들에 대한 녹봉 지급에 관한 문서로 추정되고 있다(鈴木靖民, 『正倉院佐波里加盤付屬文書の基礎的研究』, 『朝鮮學報』 85, 1977).

34) 윤선대, 『正倉院 所藏<佐波理加盤附屬文書>의 新考察』, 『國史館論叢』 74, 1997 ; 이성시,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문서의 “𧇧”에 대해서는 ‘짐승’ 혹은 “損”의 이체자일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뒤,<sup>36)</sup> 짐승의 모피나 가죽의 일종일 것으로 보아 『買新羅物解』에 기재된 “干皮”를 관련지어 ‘담비[가죽]’일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sup>37)</sup> ‘스라소니[土豹]’나 ‘삿피’를 포함하는 광의의 표범가죽으로 보는 견해,<sup>38)</sup> “豹[土豹=스라소니]”나 “狐[여우]”의 이체자로 보는 견해,<sup>39)</sup> “𧇧”가 아닌 “毛”의 이체자로 보는 견해<sup>40)</sup>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일단 “𧇧尾”라는 표현으로 보아 “𧇧”은 모피동물에 대한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특히 꼬리까지도 상품성이 있었던 동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담비가죽이 신라보다 발해의 특산품이었다는 점, 그리고 스라소니의 꼬리는 짧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𧇧”은 여우[狐]나 표범[豹]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우나 표범의 경우 고급 모피 자원으로서 “𧇧尾”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시 신라 중앙에서는 “𧇧尾”와 같은 고급 모피 자원을 각 지방으로부터 오는 貢物로서 수합하고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밖에 牛皮나 馬皮 등의 자원은 앞서 살펴보았듯 牛馬를 사육하는 각 촌락으로부터 貢納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수합된 피혁의 가공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사료 (바)

毛典. 景德王이 聚毳房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후에 예전대로 돌려놓았다.

皮典. 景德王이 鞞人房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후에 예전대로 돌려놓았다.

鞞典.

皮打典. 景德王이 鞞工房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후에 예전대로 돌려놓았다.

磨典. 景德王이 梓人房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후에 예전대로 돌려놓았다.

鞞典.

鞞典.

打典.

麻履典.<sup>41)</sup>

위의 기록을 보면, 毛典·皮典·鞞典·皮打典·鞞典·鞞典·打典 등 그 명칭으로 미루어 모피 및 피혁의 가공과 관계된 관사들로 생각된다. 여기서 毛典[聚毳房]은 모직물 관계의 일을 맡은 관사로, 皮典[鞞人房]은 “鞞人房”이라는 명칭으로 미루어 가죽을

35) 윤선태,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86~88쪽.

36)鈴木靖民, 『正倉院佐波里加盤付屬文書の基礎的研究』, 『朝鮮學報』 85, 1977.

37) 윤선태, 『正倉院 所藏<佐波理加盤付屬文書>의 新考察』, 『國史館論叢』 74, 1997.

38) 윤선태,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39) 권인환, 『正倉院藏 ‘第二新羅文書’의 正解를 위하여』, 『구결연구』 18, 2007.

40) 박남수, 『「新羅內省毛接文書」(「佐波理加盤付屬文書」)와 신라 內省의 馬政』, 『신라문화』 54, 2019.

41) 『三國史記』 卷39, 雜志 8, 職官 中, “毛典, 景德王改爲聚毳房, 後復故. 皮典, 景德王改爲鞞人房, 後復故. 鞞典. 皮打典, 景德王改爲鞞工房, 後復故. 磨典, 景德王改爲梓人房, 後復故. 鞞典. 鞞典. 打典. 麻履典.”

다루는 관사로 이해된다. 그 다음 鞞典은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가죽으로 말 고들개를 제작하는 임무를 담당한 관사로, 皮打典[鞞工房]은 “鞞工房”이라는 명칭으로 미루어 가죽으로 북류[鼓類]를 생산하는 관사로 볼 수 있다. 또 이밖에 가죽신과 가죽장화를 제조하는 鞞典과 靴典, 가죽을 무두질하는 打典이 보인다.<sup>42)</sup> 즉 신라 중앙에서는 지방으로부터 貢進된 각종 피혁 자원을 수합하여 위와 같은 관사를 통해 가공하였고, 각종 가죽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촌라문서」에서 보이듯 貫甲을 팔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만큼 貫甲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급한 병장구가 그대로 다른 이에게 매입되어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貫甲이 가죽으로 제작한 갑옷이었다면, 해당 가죽을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기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도 이러한 가죽제품의 가죽을 재활용하여 그 피혁 자재를 일상생활에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끝으로 신라의 皮革 활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해 두고 싶은 자료는 「周防國正稅帳」이다.

자료 (사) : 스오국정세장[周防國正稅帳] - 第1·2紙에서 발췌

.....	
交易御履料牛皮貳領 價稻壹伯柒拾束	一領九十束 一領八十束
交易鹿皮壹拾伍張 價稻陸拾壹束	五張別五束, 七張別四束, 二張別三束, 一張 二束
耽羅方脯肆具 價稻陸拾束	具別十五束
.....	

위의 자료는 일본 천평(天平) 10년(738)에 작성된 「周防國正稅帳」의 일부이다. 이 문서에는 당시 周防國에서 여러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이는 “交易御履料牛皮”·“交易鹿皮”·“耽羅方脯” 등은 738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級漚 金想純을 비롯한 147명의 신라 사신단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sup>43)</sup> “交易御履料牛皮”는 임금의 신발[御履]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소가죽[牛皮]으로 보이며, “交易鹿皮”는 말 그대로 사슴가죽이다. 즉 당시 신라 사신단은 다양한 피혁 자재를 일본 측에 판매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신라 조정은 지방으로부터 貢進된 가죽[皮] 자재를 1차 가공한 다음[革] 이를 대외무역에 활용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 4. 맺음말

42)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1996, 112쪽.

43)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 『濟州島史研究』 3, 1994 ;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 [참고문헌]

- 『太宗實錄』 『世宗實錄』 『中宗實錄』  
「신라촌락문서」 「正倉院 소장 佐波理 加盤 부속 문서」 「周防國正稅帳」
- 남풍현, 『吏讀研究』, 태학사, 2000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1996  
이성시,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이인철, 『新羅村落社會史研究』, 일지사, 1996
- 兼若逸之, 「新羅 《均田成冊》의 研究」, 『한국사연구』 23, 1979  
권인환, 「正倉院藏 ‘第二新羅文書’의 正解를 위하여」, 『구결연구』 18, 2007  
김창석, 「신라 촌락문서의 용도와 촌락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한국고대사연구』 21, 2001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박남수, 「『新羅內省毛接文書』(『佐波理加盤付屬文書』)와 신라 內省의 馬政」, 『신라문화』 54, 2019  
박남수, 「신라촌락문서의 연령구분과 촌락사회」, 『신라촌락문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학술회의 자료집)』, 청주시·충북대학교박물관, 2022  
윤선태, 「正倉院 所藏<佐波理加盤附屬文書>의 新考察」, 『國史館論叢』 74, 1997  
윤선태,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이영훈, 「貫甲」, 『古文書研究』 13, 1998  
이인재, 「신라통일기 조세 수취기준과 등급연(等級烟)」, 『역사와 현실』 11, 1994  
李泰鎭, 「新羅 村落文書의 牛馬」,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碧史李佑成教授 停年紀念論叢-』 上, 1990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 『濟州島史研究』 3, 1994  
박남수,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 旗田巍, 「新羅의 村落[ I ] -正倉院にある新羅村落文書の研究-」, 『歷史學研究』 1958·12(NO.226), 1958.  
武田幸男, 「新羅의 村落支配」, 『朝鮮學報』 81, 1976.  
鈴木靖民, 「正倉院佐波里加盤付屬文書の基礎的研究」, 『朝鮮學報』 85, 1977



【제2발표】

몽골에서 온 달라이 라마:  
4대 달라이 라마의 회사(回賜) 물품 연구

최소영(동국대)



# 몽골에서 온 달라이 라마: 4대 달라이 라마의 회사(回賜) 물품 연구

최소영(동국대)

序論
I. 최초의 달라이 라마의 사망과 ‘轉世’
1. 찹치알 회동과 겔룩파의 발전
2. 轉世 靈童
II. 몽골에서 온 달라이 라마
1. 布施
2. 回賜
結論

## 序論

1588년 티베트 불교 겔룩派(dge lugs pa)의 최고 사원 대뽕('bras spungs) 사원의 좌주였던 3대 달라이 라마 쇠남 가초(bsod nams rgya mtsho, 1543-1588)가 몽골리아에서 사망했다. 그는 1578년 몽골 투메드(Tümed) 부의 알탄 칸(Altan Khan, 1507-1582)의 초청을 받아 칭하이(Chinghai)의 찹치알에서 그와 만나 관정을 주고 그로부터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를 받은, 사실상의 初代 달라이 라마였다. 쇠남 가초는 알탄 칸과의 만남 후에도 바로 티베트로 돌아가지 않고 암도와 감, 그리고 몽골리아에서 겔룩파의 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다가 사망한 것이었다. 그런데 겔룩파는 그가 티베트가 아니라 몽골에서 傳世했다고 선언하였다. 그 轉世 靈童은 바로 쇠남 가초 사망 다음 해(1589)에 태어난, 알탄 칸의 증손자로 나중에 윤뎨 가초(yon tan rgya mtsho, 1589-1617)라고 불린 인물이다. 1601년 간뎨(dga' ldan) 사원의 린뽀체가 검중단을 보내 그 어린이를 쇠남 가초의 전세로 공인하였고 다음 해 호송단은 새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라싸에 도착했다.

몽골 출신 4대 달라이 라마의 즉위는 겔룩派의 역사는 물론 티베트 역사 전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는 남겨진 사료 기록 자체가 많지 않은데 이는 그가 30세가 안 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가 생전에 종교적인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못한데다가 그의 전대와 후대 달라이 라마들이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3대 달라이라마는 실제 初代 달라이 라마로, 중앙티베트를 넘어 암도(a mdo) 즉 칭하이 지방, 그리고 몽골리아까

지 겐룩파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으며, 후대인 5대는 까르마파 등 당시 강력했던 교파들을 압도하고, 호쇼드 몽골의 도움을 받아 겐룩파를 티베트 고원의 지배자로 만들었다, 그의 영향력은 티베트 뿐 아니라 몽골인들, 그리고 만주인들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5대”라고 불렸던 것이다.

그러나 4대 달라이 라마의 재위기는 몽골 여러 부가 본격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이며 그러므로 중앙티베트의 정치와 사회에 몽골제국 시기 이후 거의 사라졌던 몽골 세력의 영향력이 다시 일어난 중요한 때다. 또한 이와 함께, 보시라는 이름 아래 중앙티베트로의 대규모 재화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때이기도 하다. 3대 달라이 라마 쇠남 가초는 처음 알탄 칸의 초청을 받았을 때는 물론, 이후 참치알에서 양측이 만나 설법과 관정을 주었을 때, 그리고 알탄 칸의 병을 치료했을 때에 계속해서 금, 은, 비단은 물론 보석이나 각종 진귀한 佛具 등 대규모 보시를 받았다. 그가 설법이나 관정, 치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은 대량의 보시가 겐룩파 승단의 유지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를 이어서 몽골 출신인 인물이 달라이 라마가 된, 4대 달라이 라마 시기는 어땠을까. 그 전대에 중앙티베트로의 몽골 세력 유입 재개와 더불어 몽골이 바친 보시물자도 유입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달라이 라마 자신이 몽골인인 시대는 어땠을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4대 달라이라마 온뎀 가초에 대하여는 재위 기간에 대한 기록 자체가 매우 적고, 그러므로 그가 받은 보시에 대한 기록도 전대와 후대에 비하여 그 양은 대단히 적다. 그러나 티베트 사료 기록의 소략함을 당시 몽골 사료 기록으로 보완하여, 그의 시기에 보시는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몽골 출신의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I. 최초의 달라이 라마의 사망과 ‘轉世’

### 1. 참치알 회동과 겐룩파의 발전

16세기 몽골 투메드부의 알탄 칸(1508-1582)은 다얀 칸의 손자로서, 세력을 확대하여 서로는 오이라드, 동으로는 몽골 세력은 물론 명까지 위협하였으며 또한 청해호 일대로 남진하여 티베트로 접근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아쟁 라마라는 인물로부터 중앙티베트의 겐룩파 승려 쇠남 가초의 명성을 전해 들었다. 쇠남 가초의 전기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에 쇠-양해(1571)에 알탄(al than) 왕이 佛法의 현현이 다소 생겨, 그 쪽으로 조게 아쟁 라마(‘Dzo dge A seng bla ma)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갔고, [알탄 칸이] 질문을 하니 [아쟁 라마가] 쇠남 가초 그 분의 身·語·意가 모두 대단한 것 등을 상세히 설명하니 [알탄 칸에게] 여름 날 호수와 같은 동요하지 않는 믿음이 자라났다. 북

방의 큰 땅(즉 몽골)으로 와야 한다고 청하러 大臣 나췌오(na gtso bo)가 이끄는 金字 사신들이 몸을 정하시도록 도착하여 왕의 초청장과 대량의 보시를 바쳤다. [쇠남 가초는] 그들에게 수승한 법의 묶을 내려 주셨다. 그 곳의 業의 문이 열릴 때였다.<sup>1)</sup>

쇠남 가초가 초청에 응한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이 변방의 왕에게 갈 필요가 없다고 말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겐룩派는 까르마派(karma pa)와 까르마派를 후원하는 데시 쟁빠(sde srid gtsang pa) 세력에 의해 위축되고 있었고 외부 세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으며 아마도 그런 이유로 쇠남 가초는 알탄 칸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알탄 칸은 쇠남 가초를 처음 초청할 때는 물론, 그가 중앙티베트를 떠나 청해로 이동할 때에도 단계 별로 자신의 권속들을 마중하도록 보냈고 그 때마다 대규모 보시를 바쳤다.<sup>2)</sup> 1578년 드디어 참치알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이에

1) de yang sngon lcags lug gi nang du al than rgyal po chos kyi snang ba cung zad skyes te/ phyogs der 'dzo dge a seng bla ma zhes bya ba zhig 'ongs pa la/ dri ba byas par/ rje 'di nyid kyi sku gsung thugs kyi rnam par thar pa sogs zhib tu bshad pas/ 'phrog tu med pa'i dad pa dbyar mtsho ltar 'phel te/ byang phyogs kyi sa chen por phebs dgos pa'i snyan gsan du/ blon po na gtso bos thog drangs gser yig mngags pa sku gzhogs su 'byor/ rgyal po'i zhu yig dang 'bul ba rgya cher phul/ de dag la dam pa'i chos kyi bgo skal stsal/ phyogs de'i 'phrin las kyi sgo dus la bab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Rje btsun thams cad mkhyen pa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dngos grub rgya mtsho'i shing rta (pu N+ya pAda rnam thar)* Pecin: Krung go'i bod rig pa'i dpe skrun khang, 2010. pp. 542-543). 『알탄 칸傳』 즉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orosiba*은 초청 사자 파견에 대해 “금, 은, 보석, 가죽 등 완벽하게 갖춘, 비교할 수 없는 모두를 기쁘게 할 보시품을 가지고 티베트로 갔다”고 적고 있다.(김성수, 『16~17세기 내륙아시아의 禮儀와 선물』, 明清史學會 하계연도회 및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연합학술대회 2022 발표문, p. 81.

2) 기록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날 용시에부(yong sha bu)의 바르구 타이지(bar gu tha'i ji)와 카탄 바투르(kha than bA thur) [알탄 칸] 왕이 맞이하러 보낸 첫 사자로 투메드(mthu med) 부의 마신 박시(ma zin pakShi) 등이 이끄는 기병 약 8백명이 이르러서 쇠남 가초에게 비단(gos dar)과 보석(rin po che) 종류 등 물품을 헤아릴 수 없이 바쳤다. (sang nyin yong sha bu'i bar gu tha'i ji/ kha than bA thur/ mthu med kyi ma zin pakShi rnam kyis gtsos pa'i rta pa brgyad brgya skor rgyal pos gdan 'dren gyi dang por mngags pa 'byor/ gos dar dang/ rin po che'i rigs sogs zang zing gi 'byor pa dpag tu med pa phul/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앞의 책. p.552).”

두 번째로 맞이하러 온 기록은 다음과 같다. “그곳에서 사원의 설법을 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영접단인 오르도스('ur bsodus) 왕족 세첸 홍타이지(se chen hong tha'i ji)와 투메드(mthu med)의 왕족 다얀 노얀(da yan no yon)을 필두로 한 기병 3천 명이, 금, 은, 비단, 안장과 고삐로 장식한 말 등을 가지고서, 초청을 위해 또다시 이르렀다. 홍타이지는 四手大悲觀音이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希求法('dod chos)을 설하여 주었다. 3월에는 에뵐(as dpal, 아바이) 노얀의 部(sde)에 이르러 [四]面 호법신에게 食子를 풍성하게 바치셨다. 그곳에서 관세음보살의 적정존 분노존 등의 회구법을 많이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부드러운 비단(dar zab)과 보석 등으로 장식했고 기둥이 여섯 개인 방이 있는 漢式 천막이 있는 건물과, 안장과 고삐를 갖춘 말 천 필 그리고 야크(spu nag)와 양 등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바쳤다. 그들의 수령이 大 나발(dung chen) 열 개를 바쳤다. (der dgon pa'i zhal bkod gnang ba'i skabs/ gdan 'dren gnyis par 'ur bsodus rgyal rigs se chen hong tha'i ji dang/ mthu med kyi rgyal rigs/ da yan no yon gyis gtsos pa'i rta pa stong phrag gsum tsam/ gser dngul gos dar/ rta sga srab kyis brgyan pa sogs phyag rten khyer nas gdan 'dren bskyar mar slebs/ hong tha'i jis/ thugs rje chen po phyag bzhi par mthong/ der tshogs pa rnam la 'dod chos stsal/ nag pa zla ba'i nang du/ as dpal no yon gyi sder phebs/ mgon po zhal gyi mchod gtor rgyas par mdzad/ de la thugs rje chen po zhi khro sogs 'dod chos mang gnang/ khang pa ka drug ma tsam gyi rgya gur gyi nang du dar zab rin po che sogs kyis bkang ba dang rta sga srab dang bcas pa stong phrag tsam spu nag lug sogs bgrang ba las 'das pa dang/ de dag gi do dam pa dung chen bcu phrag tsam phul/ Ngag

대해 쇠남 가초의 전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루를 가니, 영원한 하늘의 힘에 기대어 투쟁시(rtsod dus)의 바퀴를 굴리는 자인 알탄 칸 그가 변원의 無知한 땅을 밝게 할 것을 분명히 하며 흰 옷을 입고 만 명의 권속과 왔고 그의 妃도 역시 수많은 권속과 함께 왔다. 복전과 시주가 만남을 기념하는 연회에서 먼저 은 500냥으로 만든 만달라(maNDala), 위(dbus) 지역의 단위로 1 데(bre) 만큼을 넣을 수 있는 금으로 된 사발을 보석으로 가득 채운 것, 흰색, 금색, 붉은 색과 청색 비단을 각각 20필씩, 보석으로 만든 안장과 고삐로 장식한 백마 열 필을 비롯하여 말 100 필. 사람들을 압도할(khrom zil gnon) 오색으로 된 비단(gos chen) 열 필, 은 1000 냥(srang), 綿布(ras dar) 등을 바쳤다.<sup>3)</sup>

알탄 칸은 쿠빌라이의 전례에 따라 쇠남 가초로부터 헤바즈라 탄트라 灌頂을 받고, 신하들에게 무익한 살생의 금지를 명하는 등 불교도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서약하게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와 범왕 혹은 전륜성왕 칭호를 주고받았고 그 의식에서 알탄 칸은 또 쇠남 가초에게 무수한 보시를 바쳤다.

그 후 땅의 브라흐만인 그(알탄 칸)가 수많은 다양한 민족의 가운데서 칭호를 바치고, 금으로 만든 머리 장식, 향아리, 다섯 종류의 法器, 향아리 등 灌頂 도구들, 금 500냥으로 만든, 발톱 다섯 개 용으로 장식한 金印(tham ga) - 그 표면에 “金剛持 달라이라마의 印(rdo rje 'chang ta la'i bla ma'i tham ka)”라고 하는 세 몽골문으로 있는 것 - 그 표면은 은으로 만들었다. 진주로 만든 袈裟, 日傘(bla bre), 금으로 만든 발톱

---

dbang Blo bzang rgya mtsho, 앞의 책, p.553)”

3) tsha khad gcig tsam phebs pa na/ tshe ring gnam gyi she mong la brten nas rtsod dus kyi 'khor los sgyur ba/ al than rgyal po nyid/ mtha' 'khor mun pa'i gling dkar por byas pa'i brda chad du/ gos dkar po gsol/ 'khor khri phrag tsam de nyid kyi btsun mo'ang 'khor mang po dang bcas te 'ongs nas/ mchod yon mjal ba'i dga' ston gyi thog mar/ dngul srang lnga brgya las grub pa'i maNDala/ gser gyi phor pa yul dbus kyi bre tshad shong ba zhir rin po ches bkang pa/ gos yug dkar ser dmar dang sngon po rmams nyi shu re/ rta dkar po rin po che'i sga srab kyis brgyan pa bcus thog drangs pa'i rta brgya/ khrom zil gnon gyi gos chen sna lnga pa yug bcu/ dngul srang stong phrag gcig/ ras dar sogs phul/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앞의 책, p.554)

쇠남 가초는 이후에도 계속 대규모의 보시를 받았다. 그 중 하나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연회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袈裟 세벌을 비롯한 의복 백 벌, 다섯 가지 색깔의 비단 백 필, 보석을 꿰 꾸러미를 비롯한 꾸러미 백 개. 부드러운('bol rgan) 가죽 제품 백 개, 진주로 가득 채운 황금 대 사발. 용이 둘러싸고 있는 은잔 일곱 세트, 은 천 냥으로 만든 술, 금 모자(금관)와 의복 전체 등 왕 자신의 의상, 각각 은 세 냥으로 만든 사발(ca sne)과 접시 일곱 세트, 말발굽(rta rmig) 모양과 양굽(lug rmig) 모양의 은 5백 냥. 면으로 만든 러그(ras zam) 천 개, 보석으로 만든 안장과 고삐를 갖춘 백마 세 필을 비롯한 말 백 필 등 셀 수 없이 많은 보시를 바쳤다. dga' ston la khrom zil gnon gyi sku ber gsum gyis gtsos pa'i gos bzo ma brgya/ kha dog sna lnga pa'i gos yug brgya/ rin po che'i 'phreng bas gtsos pa'i 'phreng ba brgya/ 'bol rgan sogs pags rigs brgya/ gser gyi phor pa chen po mu tig gis gang ba dngul dam 'brug 'khor yod pa bdun tshar/ dngul srang stong las grub pa'i khog ma/ gser gyi zhwa dang na bza' cha tshang sogs rgyal po rang nyid kyi chas/ dngul srang gsum re las grub pa'i ca sne dang sder ma bdun tshar rta rmig lug rmig gi dbyibs can srang lnga brgya/ ras zam stong phrag gcig/ rta dkar po rin po che'i sga srab kyis spras pa gsum gyis gtsos pa'i rta brgya sogs 'bul ba grangs kyis mi lang ba phul/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앞의 책, p.557).”

다섯 개 용이 있는 따홍(tA hung, 大紅) 외투-그 안쪽은,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었다- 금으로 만들었고 그 안은 銀鼠(byi ba dkar po)의 가죽으로 만든 따홍(tA hung), 그에 걸맞는 의자 덮개(khri khebs), 쿠션(stan 'bol), 베개(snye 'bol), 장수새(bya tshe ring) 깃이 있는 좌석, 여러 가지 색으로 수놓은 비단(ding phon), 등받이 덮개(rgyab yol khri khebs), 앞치마(pang khebs), 보석으로 만든 안장과 고삐로 장식한 백마 다섯 필, 또 다른 말 열 필, 銀으로 만든 기구 천 개. 또한 20명 이상의 사람이 지고 온 비단, 면포 등과 함께 “달라이 라마 바즈라다라(bdzra dha ra Sans. Vajradhara)라고 하는 遍主(khyab bdag) 도르제 창(tA la'i bla ma bdzra dha ra zhes khyab bdag rdo rje 'chang)”의 칭호를 바쳤다. [달라이 라마도] 왕에게 “범왕, 신들 중의 대 브라흐마(Brahma)(chos kyi rgyal po lha'i tshangs pa chen po)”라고 하는 호칭을 주었다.<sup>4)</sup>

“달라이 라마 바즈라다라” 칭호를 받은 쇠남 가초는 자신의 스승인 겐뉘 가초(dge 'dun rgya mtsho, 1475-1542)와 그 스승 겐뉘 둑빠(dge 'dun grub pa, 1391-1474)를 각각 2대와 1대로 추존하고 자신은 3대 달라이 라마로 칭했다. 그가 받은 보시 기록은 여기 열거한 것 외에도 더 있으며, 기록에 남지 않은 보시까지 더하면 청해와 내몽골에서 그가 받은 재화는 꺄록과가 데시 짱빠나 그가 지원하는 까르마 까귀派에 맞설 수 있는 부를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알탄 칸에게 처음 쇠남 가초를 소개한 아싱 라마는 “성스럽고 위대한 칸이시여, 만약 불교를 이끌고자 한다면 옛날 꺄빠 라마와 세첸 칸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조오·린포체를 비롯한 모든 불상을 섬기면서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승려들에게 음식물, 熬茶(manja) 등을 보시하십시오. 달라이 라마를 정중히 초대하고 완벽히 갖춘 보시품을 널리 보내십시오. 활불들이 세운 크고 작은 사원에서 공덕으로 만든 간주르와 단주르를 비롯한 모든 경전을 모셔 오십시오.”라고 했다.<sup>5)</sup> 알탄 칸은 쇠남 가초를 만나기로 하면서 그 준비를 위해 말을 팔아 대량의 茶를 사고자 西寧에 큰 시장을 열어줄 것을 명에 요청했다. 명 조정에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4) “de nas sa'i tshangs pa de nyid kyis mi rigs mi gcig pa du ma'i dbus su las ka phul ba ni/ gser las grub pa'i dbu rgyan/ bum pa/ rigs lnga'i phyag mtshan/ bum pa sogs dbang chas kyi rigs/ gser srang brgya las grub pa'i tham ga 'brug sder mo lngas mtshan pa/ kha ris la/ rdo rje -558- 'chang ta la'i bla ma'i tham ka rgyal zhes hor yig gsar du yod pa/ de'i shubs dngul las byas pa/ mu tig gi snam sbyar/ bla bre/ sku ber tA hung gser gyi 'brug sder mo lnga yod pa'i nang 'bol rgan gyi pags pas byas pa/ tA hung gser ma'i bar 'dam nang byi ba dkar po'i pags pas byas pa/ de'i cha 'grig gi khri khebs stan 'bol/ snye 'bol/ bya tshe ring spu btags kyi bzhus stan/ ding phon tshon tshogs kyi bla bre/ rgyab yol khri khebs/ pang khebs/ chibs pa dkar po rin po che'i sga srab kyis brgyan pa lnga/ gzhan yang rta bcu/ dngul gyi spyad pa stong phrag tsam/ gzhan yang gos dar/ ras zam la sogs kyi mi khur nyi shu lhag pa dang bcas/ tA la'i bla ma bdzra dha ra zhes khyab bdag rdo rje 'chang gi las ka phul/ rgyal po la'ang chos kyi rgyal po lha'i tshangs pa chen po zhes mtshan gnang ngo//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앞의 책, pp.557-558).” 알탄 칸이 쇠남 가초에게 준 보시에 대하여, 쇠남 가초의 전기와 『알탄 칸傳』의 기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알탄 칸傳』에 기반한 이때의 보시에 대한 연구는 김성수, 앞의 글, pp.77-94; 최주봉, 『『알탄 칸傳』에 나타난 16세기 우익 몽골에서의 물품 유통』, 『東國史學』, vol.74, 2002, pp.107-155 참고.

5) 김성수, 앞의 글, p.81.

에 대해 兵部尙書 王崇古(1515-1588)는 알탄이 군사 작전을 위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茶는 그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서 행할 의식에 필요한 것이니 그에게 1,000포 정도의 차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허락되었다.<sup>6)</sup> 티베트 사료인 쇠남 가초의 전기는 알탄 칸이 보낸 茶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는데 몽골어로 쓰인 알탄 칸 전기는 1577년 6월 쇠남 가초를 초청하기 위해 라싸에 도착한 알탄 칸의 사신들이 서신과 함께 많은 보시품을 전달했는데 그 중 “ciyulyan-u cai” 즉 “모임의 茶”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아싱 라마가 말한 熬茶(manja, Tib. mang ja)일 것이다. 즉 왕숭고의 찬성 하에 명이 알탄 칸에게 제공한 차가 알탄 칸에게서 다시 티베트로 전해진 것이다.<sup>7)</sup>

참치알에서의 회동 이후 쇠남 가초는 중앙 티베트로 돌아가지 않고 압도, 캄에 이어 내몽골로 가서 겐룩파 전교에 힘썼고 결국 1588년 내몽골에서 사망했다. 알탄 칸과 쇠남 가초의 회동은 그 당시에도 의미가 작지 않았으나 후에 쇠남 가초의 계승자인 5대 달라이라마 아왕 롱상 가초(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시기 겐룩파가 티베트의 지배 교파가 되고 달라이 라마가 군주가 됨에 따라 그 의의가 대단히 커졌다. 쇠남 가초의 전기를 쓴 5대 달라이 라마는 알탄 칸과 쇠남 가초가 각각 쿠빌라이(1215-1294)와 팍빠(‘phags pa, Ch. 八思巴, 1235-1280)의 轉世라고 적었고, 달라이 라마의 始原을 팍빠에 둔 이 주장은 신흥 교파인 겐룩파에게 시대를 뛰어넘는 전통과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이었다.<sup>8)</sup>

## 2. 轉世 靈童

初代 달라이 라마, 공식적으로는 3대 달라이 라마가 사망하자 그의 전세자를 찾아야 했는데 쇠남 가초는 바로 몽골 투메드부에서 환생했다고 선언되었다. 이는 투메드부에서 원한 것이라고도 하고 겐룩파의 神託 사원인 네충 사원에서 그렇게 점괘가 나왔다고 얘기되기도 한다. 달라이 라마가 몽골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겐룩파 안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이 어린이는 부친의 영지에서 태어나서 3년을 지내고<sup>9)</sup>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라싸로 가지 않고 후호호트(呼和浩特)로 가서 지냈다. 겐룩파 측은 1601년이 되어서야 검증단을 파견하였고 알탄 칸의 전기는 몽골 땅에 도착한 티베트 대표단이 “의심스러워하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승리자의 현현인 달라이 라마의 환생인가, 아닌가?’라고 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 어

6) Henry Serruys, *Trade Relations: the Horse Fairs (1400-1600)*,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75, pp.162-254 참고.

7) pp.148-149; 김성수, 위의 글, p. 82.

8) 팍빠는 몽골제국 이후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인물 중 하나이며, 이전에 겐룩파가 여러 교파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때에는 자신들의 좌주가 팍빠의 환생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1642년 호쇼드부의 구시 칸의 도움을 얻어 티베트의 覇者가 된 5대 달라이 라마는 자신들의 활발 전통의 始原을 팍빠에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몽골제국 이후 중앙유라시아에서 팍빠를 前世로 선언하는 관행에 대한 내용은 최소영, 「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동양사학연구』, 155, 2021, pp.127-200 참고.

9) 4대 달라이 라마의 탄생지와 初年에 대하여는 曹永年, 「四世達賴喇嘛云丹嘉措生地考」, 『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社版』, 34-5, 2005, pp.18-21 참고.

린이가 분명하게 전제자인 증거를 보이고 모두를 위엄으로 제압하자 그 앞에 예경하고 기도하며 모두 그를 존경하고 축복했다는 것이다.<sup>10)</sup> 새 달라이 라마는 다음해 대규모 몽골군의 호송을 받으며 라싸로 왔고 온뎨 가초(yon tan rgya mtsho)라는 범명을 얻었다.

대뽕 사원의 주지가 몽골 귀족으로 환생한 것은, 신생 겔룩파와 당시 몽골 초원의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였던 투메드 부 사이의 벽을 일거에 무너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민족과 언어와 전통의 차이가 무색해지고, 그 전에 몽골인들이 티베트 일부 지역에 끼쳤던 해악도 잊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1)</sup> 또한 일찍이 알탄 칸과 3대 달라이 라마의 만남은 몽골 사회에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즉 몽골제국 분열 이후에도 칭기스 칸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계는 여전히 존중되었으나, 알탄 칸을 쿠빌라이의 전생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권위가 차하르왕가를 능가했다고 보고 4대 달라이 라마에 와서는 轉生 사상이 가계의 품격 뿐 아니라 민족의 차이까지 없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를 통해 몽골인은 티베트인과 일체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2)</sup>

이 때 중앙티베트는, 몽골제국 시기 사까派를 이기고 패권을 장악한 팍모두派의 일파였던 데시 짱빠(sde srid gtsang pa)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은 紅帽派(Tib. zhwa dmar pa)라고 불리는 까르마 까귀파(karma bka' brgyud pa)를 지지하고 겔룩파 적대하고 있었다. 몽골인 달라이 라마가 라싸에 도착하자 홍모파의 6대 좌주인 가르왕 최기 왕축(gar dbang chos kyi dbang phyug, 1584 - 1630)은 예의를 갖추어 축하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달라이 라마에게 “깊이 공부하라”는 충고가 들어 있었다. 겔룩파는 이에 분개하였다.<sup>13)</sup> 사실 10살이 넘어서야 라싸로 와서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일반적인 轉世靈童으로서는 늦은 것이었고 실제로 그는 불교 교학 보다는 의례에 더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온뎨 가초는 달라이 라마로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전임자들의 관행대로 중앙티베트를 순회하였으며 매년 정초에 있는 뽀람 첸모(smon lam, 대 기원법회)를 주재하였다.

---

10) Johan Elverskog, 위의 책, pp.205-206.

11) Giuseppe Tucci, “Central Tibetan Conflict in the Sixteenth Century,” Gray Tuttle and Kurtis R. Schaeffer ed., *The Tibetan History Reader* Gray Tuttle and Kurtis R. Schaeffer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p.284.

12) 이시하마 유미코 「티베트 불교 세계의 형성과 전개」, 이평래 역, 고마츠 히사오 외,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2005, pp.288-289.

13) Giuseppe Tucci, 위의 글, p.287.

## II. 몽골에서 온 달라이 라마

### 1. 布施

앞에서 본 대로, 율토편 가초에 대한 기록은 전대와 후대에 비하여 대단히 적고 당연히 보시 관련 기록도 적는데 그것이 실제로 보시가 적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기록 자체를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 율토편 가초가 어느 해 뉘람첸모(smon lam chen mo, 대 기원법회)를 주재하고 난 뒤의 상황에 대해 그의 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뉘람의 대가로 師徒(dpon slob)들과 각계각층의 대중(gzhung sger)들과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이 熬茶(mang ja)와 비단, 금, 은, 茶(ja), 布 등의 보시를 무수히 보내오니, 야차의 창고에서 누리는 것처럼 되었다.<sup>14)</sup>

熬茶로 번역한 “mang ja”는 “많은-茶”의 뜻으로, 대규모 차 보시를 뜻하나 위의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일반적인 茶葉(ja) 보시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5대 달라이 라마 시기의 한 기록은 짧지만 熬茶 보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40일 정도까지 승려들이 아침과 낮 두 차례에 熬茶(mang ja)를 두 번이나 세 번 끓여 주고, 카닥, 만쯔(sman tse, 중국 강남 지역)의 茶葉, 은으로 대표되는 보시 물품을 바쳤다.”<sup>15)</sup> 즉 차를 대량으로 가져와서 직접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승려와 사원에 차를 끓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기사의 ‘승려들’은 켈룩과가 이전에 알탄 칸의 部인 몽골 투메드부에 傳敎를 위해 파견했던 승려 샹둥 잠빠가 티베트로 데리고 온 몽골인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처음 5대 달라이 라마를 알현하고 값진 보시를 하였고, 그 품목이 江南 지역의 차엽, 은 등임을 알 수 있다. 이 기사가 중요한 것은 오차 보시란 몽골인들이 5대 달라이 라마에게 수십일 동안 계속해서 “차를 끓여주” 바치는 것임을 보여주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따로 차엽도 바치고 있는데 이는 “만쯔(sman tse)”<sup>16)</sup> 産이며 즉 아마도 사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투메드 몽골인들이 암도(청해) 지역에서 구입하여 다시 중앙티베트로 가지고 간 것이라 생각된다.<sup>17)</sup>

이 5대 달라이 라마 기사와 달리 위의 4대 달라이 라마 보시 기사는 정확히 어떤

14) “smon lam gyi rin tshogs su dpon slob gzhung sger/ 'debs 'byar gyi 'grul pa khag nams dang bcas pas mang ja dang/ gos dar gser dngul ja ras sogs kyi 'gyed grangs med pa btang bas/ gnod sbyin gyi bang mdzod la longs spyod pa lta bur gyur/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Jig rten dbang phyug thams cad mkhyen pa yon tan rgya mtsho dpal bzang po'i rnam par thar pa nor bu'i 'phreng ba*. Pecin: Krung go'i bod rig pa'i dpe skrun khang, 2010. p.630).”

15) “de nas bzung zhag bzhi bcu tsam gyi bar ser mo ba nams kyis tshogs chen du gdan gung gnyi gar mang ja nyis skol sum skol kha btags sman tse ja dngul gyis mtshon pa'i 'gyed.”

16) 金, 元代에 강남 지방을 가리키던 일종의 멸칭. 북중국인들이 남쪽을 蠻子라고 부르던 것에서 기원했다고 본다.

17) 茶는 명 황제의 하사품이기도 했고 몽골인들의 明과의 互市에서 말을 팔아 살 수 있는 물품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몽골인들은 자신들이 음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주로 티베트 승려들에게 바치기 위해 차를 구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순례객 집단이 熬茶 보시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티베트 승려들은 몽골인이거나 이후 만주인이 바친 熬茶 보시 혹은, 단순히 茶葉 보시를 통해 차를 손에 넣기도 하고, 캄 지역의 티베트인들로부터 직접 차 보시를 받기도 했다. 그러므로 4대 달라이 라마의 핀람 주재에 대해 熬茶 보시를 하여 차를 끊여준 것은 몽골인일 수도 있고 캄(khams) 즉 사천성과 운남성 일부 지역의 티베트인일 수도 있다.<sup>18)</sup> 그런데 같이 나열되어 있는 비단, 금, 은, 포 등의 보시 품목은 티베트인이 아니라 몽골 상층 집단이 주로 명으로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받은 품목이므로 이 보시들은 대부분 몽골인이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오차 순례는 여러 몽골 집단과 티베트인 뿐 아니라 만주인의 淸朝까지 포함하는, 중앙유라시아 전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이는 1720년대에 청이 쿠쿠노르의 호쇼드 몽골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고 몽골인들이 중앙티베트로 가려면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갈단 보속투 칸(Galdan Boshugtu Khan, 1644 - 1697) 이후 준가리아와 타림분지를 손에 넣으며 승승장구한 준가르는 갈단 체링(Galdan Tshereng, ?-1745) 시기에 “佛法의 전파를 돕고자 라싸의 승려들에게 熬茶(Mong. manja)를 바치러 가게 해달라”고 청하였고 당시 청 황제 옹정제는 “준가르는 서북 귀퉁이에 있는 작은 부족에 불과한데, 그대들이 만자를 하는 것과 불법을 전파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며 냉정하게 거절하였다. 이는 준가르 국가를 여타 몽골 및 티베트인들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하는 청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739년 건륭제 때가 되어서야 청은 준가르와 협정을 맺었고 서녕을 지나는 길을 따라 준가르가 티베트 승려들에게 熬茶를 공양하는 것을 허락했다.<sup>19)</sup>

18) 캄(khams) 지역은 몽골 이전에도 중앙티베트에 차를 공급하는 지역이었다. 14세기 티베트 史書 『홍책』은 가르마파의 종조인 뒤숨 칸빠(Dus gsum mkhyen pa, 1110 - 1193)가 캄에서 전교 활동을 하면서 茶, 가축 등을 보시로 받아 중앙티베트로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다. “[뒤숨 칸빠는] 캄 지역에 이르렀고, 55세에 감뽀 거주지 안에 머물면서 茶, 조(mdzo, 야크 수놈과 일반 암소의 혼종) 50 두 등의 보시품을 위짱(dbus gtsang, 중앙 티베트)으로 보냈다.(khams su byon/ lnga bcu rtse lnga la sgam po gnas nang du bzugs/ ja mdzo lnga bcu dang bcas pa'i 'bul ba dbus gtsang du bskur/ Tshal pa Kun dga' rdo rje, *Deb ther dmar po (Hu lan deb ther)*, Mi rigs dpe skrun khang, Beijing, 1981; 中譯 陳慶英, 周潤年 譯, 『紅史』, 西藏人民出版社, 2002)

19) 최소영, 『라마를 위한 차(茶): 17-18세기 몽골인들의 티베트 오차(熬茶, Tib. mang ja) 순례』, 전남 대역사문화 연구센터 학술발표회 발표문, 2022; 피터 C. 퍼듀 저, 공원국 역, 『중국의 서진』, 길, 2014. 熬茶 순례는 즉 몽골인들이 티베트 승려들에게 종교적인 공양을 하면서 교역도 병행하는 순례기행이었다. 티베트와의 熬茶 교역은 준가르인들이 티베트 사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청의 입장에서는 그들과의 국경 무역보다 더 민감한 사안이었다. 청은 의례적 물품 증여의 외양을 띤 이 교역을 통해 몽골을 티베트 불교 교단 아래 놓치게 하고 그 티베트 교단을 청의 후원 아래 종속시키고자 했다. 이 교역은 불교에 대한 후원과 상업이 어떤 식으로 안보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피터 C. 퍼듀 저, 공원국 역, 위의 책, pp.336-337. 熬茶 사절은 18-19세기에도 이어졌다. 그 정점은 불가강 주변으로 이주해 갔던 토르구트인들이 몽골 및 청과 계속 접촉해 오다가 熬茶 사절을 티베트에 보내는 것을 허락받은 것이다. 1698년 아유기 칸의 아들 아랍주르는 청의 허가를 받아 5천 명의 사절단을 라싸로 데리고 갔다. 1771년 건륭제는 토르구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청은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 이번원에 통보한 후 티베트로 오차 사절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했다. 준가르가 독립국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오차 사절을 통제하는 것이 청의 강력한 수단이었고 이제 그 방법은 토르구트를 불확실한 경계를 떠나 옛 땅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다. 熬茶 보시는 승려에게 공양을 위한 차를 끊여 접대하는 것이지만 후에는 넓게 티베트 불교 사원의 종교행사를 의미하게 되었고 또한 거

이상에서 4대 달라이 라마가 아마도 몽골에서 온 순례객들에게 받은 보시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4대 달라이 라마에 대한 나머지 소수의 ‘보시’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그 전에 짱(gtsang) 지역의 데시(sde srid) 쉰축 남꺄(phun tshogs rnam rgyal)의 아내인 뵤사 야르꺄마조(yar rgyab ma jo)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른 김에 대꺄 사원으로 순례를 오셔서 法語를 듣고 [달라이 라마 4세에 대하여] 마음에 특별한 신심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그때 그 데꺄와(쉰축 남꺄) 장로들이 무엇을 하여도 상관없이 뵤사 母子 둘은 스스로 [4대 달라이 라마를] 존경하고 받들려 생각하였고, 시간이 없어서 중(rdzong, 데꺄와 뵤사 거주하는 곳)으로 초청하지는 못 하였으나 茶를 제공하고 솔(gzan)과 장작(me shing) 등 모든 좋은 일용품을 바쳤다.<sup>20)</sup>

데시 쉰초 남꺄은 짱꺄 권력의 우두머리였고 反 꺄꺄 정책을 꺄 인물이었다. 그 아내는 4대 달라이 라마에 신앙심이 생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茶, 솔, 장작 등 좋은 일용품을 바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작은 가치가 높지 않으나 나무 자체가 귀한 티베트에서는 귀한 물품이다. 茶와 승려용 솔, 장작은 승려의 생활에 중요한 품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사는 율뺄 꺄초가 티베트를 순회할 때 위(dbus) 지역에서 그를 맞이한 티베트 승려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위dbus 지역에 말을 몰고 오는 길에 꺄꺄르 데첸에 왔다. 꺄꺄와의 일꺄부 講院이 다투어 꺄의를 꺄하였다. 구르꺄와 리뺄꺄 두 사원이 꺄(gar 'chams) 무용의 꺄 공연을 바쳤다. 데꺄 꺄꺄와는 茶를 바쳤고 내닝에서 꺄꺄(zhabs drung) 악기왕꺄(ngag gi dbang po) 叔姪은 [4대 달라이 라마를] 초대하여 문수보살의 꺄답을 꺄꺄로 한 내외 도량의 불꺄리들을 상세히 보여 드렸다.”<sup>21)</sup> 즉 이 기사는 승려들이 율뺄 꺄초에게 차를 바친 꺄 짧은 꺄록 외에 모두 티베트 불꺄 무용꺄인 꺄(

기에서 더 나아가 사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꺄요한 비용을 꺄리꺄게 되었다(岩田 啓介, 「ラサン=ハンによる新ダライ=라마六世ガワン=イエシェー=ギャムツォ擁立の背景: ラサン=ハンと青海ホシュート部首長層の抗争との關連から」, 『內陸アジア史研究』 27, 2012, pp.10-13). 熬茶에 대한 꺄꺄로는 呂文利, 『嵌入式互動: 清代蒙古入藏熬茶研究』, 北部边疆歷史与現狀研究文庫, 內蒙古大學, 2017가 있어 꺄꺄할 꺄하다.

20) “de snga gtsang sde srid phun tshogs rnam rgyal gyi yum dpon sa yar rgyab ma jo mjal dang gnyen phrad la 'byon pa'i zhor du 'bras spungs kyi gnas mjal mdzad bka' chos gsan pas thugs dad khyad par can 'khrungs pas/ 'di res sde pa bgres pa rnams ji ltar mdzad kyang/ dpon sa yum sras gnyis rang gus 'dud lhur len rtsis la/ dpon sa sku tshes ma zin par brten/ rdzong du gdan 'dren ma zhus kyang/ ja zhus dang gzan me shing gi mthun rkyen gang legs ”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Jig rten dbang phyug thams cad mkhyen pa yon tan rgya mtsho dpal bzang po'i rnam par thar pa nor bu'i phreng ba*. Pecin: Krung go'i bod rig pa'i dpe skrun khang, 2010. p.640)”

21) “dbus su chibs kha bsgyur ba'i lam zhor dpal 'khor bde chen du phebs/ dge lugs kyi grwa tshang khag bdun gyis bsnyen bkur bzang 'gran zhus/ gur pa dang ri lding pa gnyis kyi gar 'chams kyi gzigs mo rgyas par phul/ sde pa rgyal rtse bas ja 'dren zhus/ gnas rnying du zhabs drung ngag gi dbang po khu dbon gyis spyang drangs/ rgya 'jam dpal gsang ba'i sku gdung bzhugs pa'i gser gdung gis thog drangs phyi nang gi gnas gzigs rnams zhib par mdzad/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위의 책. p.641)”

처럼) 공연을 한 것이라거나 사원 내의 금탑 등을 둘러보게 한 것을 적고 있다. 그렇다면 율첸 가초에게는 다른 달라이 라마에게처럼 일반인의 보시가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에 더해, 율첸 가초에 대한 보시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가 티베트인들에게 큰 규모의 회賜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의 기사들을 같이 보자.

## 2. 回賜

다음의 기사는 4대 달라이 라마가 어떤 ‘삽둥(zhabs drung)’ 즉 고위 라마들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자들 형제의 보시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身•語•意의 의지처를 비롯한 대량의 보시를 하였고 [달라이 라마는] 삽둥 형제에게 “命馬 合一(tshe rta zung 'brel)”의 관정과, 漢地와 몽골의 물품을 선물로 내려주었다.<sup>22)</sup>

삽둥 형제가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시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달라이 라마 역시, 품목이 적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한지(ryga)와 몽골(hor)”의 물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기사도 역시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4대 달라이 라마는] 토번 군주의 후예인 데빠 라가리(lha rgya ri)인들의 초대를 받았고 율채까르(rol chad dkar)와 에레고최(e re sgo chos) 종의 上下 장원에서 시봉과 적합한 대규모 보시를 받으셨고 데빠 숙질에게 그들이 바라는 법을 설하고서, 마음을 뺏는 漢地와 몽골의 대량의 물품을 선물로 주셨다. 에권뉘(e dgon bdun) 사원을 비롯한 그 지역의 꺄록, 닝마, 늑내래派 등 구별 없이 모든 大小 사원에 설법과 이익이 큰 물품들을 내려 주셨다.<sup>23)</sup>

역시 그가 토번 군주의 후예인 티베트인으로부터 어떤 보시를 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는 이번에도 그것에 대해 그들에게 “한지와 몽골의 물품”을 대량으로 선물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사에는 거기에 “마음을 뺏는(thugs yid rang dbang med par 'phrog pa)”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품목은 알 수 없으나 가치가 큰 물품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다음 기사에서 우리는 그가

22) “sku gsung thugs rten gyis sna drangs pa'i 'bul ba sogs rgya cher mdzad/ zhabs drung sku mched la tshe rta zung 'brel gyi bka' dbang dang/ gnang sbyin rgya hor gyi dngos spyad kyi skyes stsal/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위의 책, p.634)”

23) “bod btsan po'i gdung brgyud/ sde pa lha rgya ri pas gdan drangs/ rol chad dkar dang/ e re sgo chos rdzong ste gzhis gong 'og rnams su zhabs tog dang 'bul chen yang dag pa mdzad/ sde ba khu dbon la ji ltar bzhed pa'i chos dang/ thugs yid rang dbang med par 'phrog pa'i rgya hor gyi spyad pa mang po'i gnang sbyin mdzad/ e dgon bdun gyis gtsos pa'i phyogs de'i dge lugs/ rnying lugs/ smyung gnas ras pa sogs/ ris med kyi dgon che chung thams chad la chos dang zang zing gi phan pa rgya chen po stsal/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위의 책, p.636)”

티베트인들에게 回賜하고 있는 “한지와 몽골의 물품”이 차와 비단을 위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모인 무리에게 <까담서(bka' gdams glegs bam)>을 설법하고 두 달 간에 대 보시(mang 'gyed)가 있는 등 두 방식의 끝없는 연회가 열렸다. 짱라(lcang ra), 둔다(gru mda'), 방림빠(bang rim pa) 등 닥뽀(dwags) 안의 僧俗이 배알하러 왔고 내부인과 외부인 모두에게서 방대한 선물을 얻었다. 그들에게 각자가 바라는 法을 무엇이든 강설하셨고 또한 茶, 비단의 좋은 가피를 주셨다.<sup>24)</sup>

이 기록이 아마도 특별한 回賜에 대한 기록은 아닐 것이며 위의 “한지와 몽골의 좋은 물품”은 위 기사대로 차와 비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은뎨 가초는, 기사에 의하면, 보시가 없어도, 俗衆에게 설법도 하고 물품도 주고 있다.

[4대 달라이 라마는] 라식 미이 왕뽀(ha gzigs mi'i dbang po)에게 “수명-말(馬) 합일(tshe rta zung 'brel)”의 설법과 한지, 몽골의 심벌즈(sil snyan)와 종(subub chol) 등의 물품 종류를 대규모로 대량으로 보내고 바쳤다.<sup>25)</sup>

이 일은 은뎨 가초가 1604년 중앙티베트 전역을 순회하다가 일어났고 라식 미이 왕뽀는 겐룩파에 우호적이던 팍모두파의 세속 수령이다.<sup>26)</sup> 은뎨 가초는 그의 초청을 받아 갔고 설법을 한 후 이것에 대하여 보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지, 몽골의” 물품을 오히려 그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 이것은 미이 왕뽀가 겐룩파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교파의 좌주가 민간에게 설법을 행한 후 세속 물품을 대량으로 선물해 주는 것은 겐룩파는 물론 다른 교파의 종교 영수들에게도 없었던 관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뎨 가초가 반복적으로 티베트인들에게 回賜 혹은 賜를 주고 있는 것은 그가 티베트인들에게 施主로 여겨져 오던 “몽골인”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은뎨 가초가 티베트인들에게 回賜한 물품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는 티베트 사료에는 기록이 없지만 몽골 사료인 알탄칸 전기에는 기록이 남아 있다. 처음 그가 티베트로 오기 전에 투메드부의 나무다이 세첸 칸과 중겐 카툰은 그에게

24) “tshogs su bka' gdams glegs bam gyi gsung chos dang/ zla sbrel gyi bar du mang 'gyed sogs lugs gnyis kyi dga' ston mtha' klas pa byung/ lcang ra/ gru mda'/ bang rim pa sogs dwags nang gi skya ser rnams mjal bar 'ongs te/ gzhi byes tshang mar bsnyen bkur rgya cher bsgrubs/ de dag rnams la so so'i 'dod chos ci rigs pa dang/ ja gos dar kyi gngang sbyin bzang ba mdzad/ slar skyid shod du chibs kha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위의 책, pp.632-633.”

25) “lha gzigs mi'i dbang por tshe rta zung 'brel gyi bka' chos dang/ rgya hor gyi sil snyan subub chol sogs dngos spyad kyi rigs rnams che ba mang po sku skyos kyi tshul dang 'bul ba gngang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위의 책, p.630).” 한편 약기는 몽골인들이 명으로부터 받는 물품 목록에 자주 보이는 품목이기도 하다. 다만 이 기록의 심벌즈와 종이 명으로부터 몽골을 거쳐 티베트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6) 미이 왕뽀는 “人主”의 뜻이다.

1천 5백냥의 은으로 만든 만달라와 ‘각종 珍寶 財物’을 주었다. 또한 1602년 라싸로 올 때에는 ‘아름다운 의복, 천막, 수레, 낙타, 말, 나귀 등 기승용 동물과 ’산더미 같이 쌓은’ 진귀한 재물, 금 그릇과 은 그릇에 황금을 가득 채운 것, 그리고 섬부주에서 비할 데가 없는 용품’들을 그에게 바쳤다.<sup>27)</sup> 온뎨 가초가 자신에게 설법을 청하거나 초청한 티베트인들에게 준 물품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며 이후에도 투메드부 사람들이 중앙티베트로 와서 온뎨 가초에게 더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료의 기록은 3, 4대 달라이 라마때부터 몽골인들의 대규모 출가가 시작되고 5대 달라이 라마 시기가 되면 귀족 출신의 몽골인들 다수가 중앙티베트의 겔룩 사원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들도 역시 티베트 라마들에게 물품을 보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5대 달라이 라마 아왕 룽상 가초의 자서전에 실린 기록 중 하나이다.

쇠-토끼해 신년을 지낸 후 뎨람 첸모(smon lam chen mo)에 갔다. 잠양 활불(‘jam dbyangs sprul sku), 넬 궁낭 제빠 法主(gnyal gung snang mdzes pa chos rje), 깎쭈 최조르(dka’ bcu chos ’byor), 데고롱(de go long) 등이 [나에게] 비단, 금, 은, 茶, 綿을 천가지 바쳤다.<sup>28)</sup>

잠양은 대뽕 사원을 세운 잠양 최제(‘Jam dbyangs chos rje, 1379-1449)를 말하며 여기서 잠양의 환생자 잠양 활불은 바로 1대 제쥘 담빠 후투투(rje btsun dam pa hu thug tu)인 자나바자르(Öndör Gegeen Zanabazar, 1635-1723)를 가리킨다. 그는 조낭파(jo nang pa)의 저명한 승려 타라나타(Tāranātha Kun dga’ snying po, 1575 - 1634)의 환생으로 선언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잠양 최제의 환생자’로 선언되었다가 나중에 ‘타라나타의 환생자’로 선언된 것으로 보이나 시기에 대하여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sup>29)</sup> 그는 일반 몽골인이 아니라 티베트 저명 라마의 환생자로 선언된 인물인데도 달라이 라마에게 비단, 금, 은, 면포 등을 바치고 있다. 이 물품들은 몽골인들이 바치는 보시 물품 중 가장 가치가 크고 또한 자주 보이는 품목이다.<sup>30)</sup> 비단은 주로 강남 지역에서 왔고, 보시에 대한 티베트 기록에서 그것을 강조하여 “만쯔(sman tse)의” 비단이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도 있다.<sup>31)</sup>

27) Johan Elverskog, 앞의 책, p.203; p.207.

28) “lcags yos lo gsar grub nas smon lam chen mor phyin/ ’jam dbyangs sprul sku/ gnyal gung snang mdzes pa chos rje/ dka’ bcu chos ’byor/ de go long mams kyis gos dar gser dngul ja ras kyi stong ’bul bstar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Za hor gyi ban de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i ’di snang ’khrul pa’i rol rtsed rtogs brjod kyi tshul du bkod pa du kU la’o gos bzang*, Lhasa: Bod 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1989, p.310).”

29) 관련 내용은 Agata Bareja-Starzyńska, “The Mongolian Incarnation of Jo nang pa Tāranātha Kun dga’ snying po: Öndör Gegeen Zanabazar Bio bzang bstan pa’i rgyal mtshan (1635-1723): A case study of the Tibeto-Mongolian Relationship”, *The Tibet Journal, Autumn 2009-Summer 2010*, Vol. 34/35, No. 3/2, Special Issue: THE EARTH OX PAPERS (Autumn 2009-Summer 2010), pp. 243-261 참고.

30) Henry Serruy는 명에서 몽골로 간 물품들 중 명 조정이 조공에 대한 回賜나 賜로 준 것은 비단, 금, 은 등 가치가 높은 것이고, 몽골인들이 互市에서 말을 팔아 사 간 것은 일상 용품들이 많았다고 보았다.

의복에 대하여도 “漢地(rgya nag)의” 의상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는 티베트인과 몽골인이 명에서 온 물품의 질이 좋다고 여긴 것을 보여준 동시에, 몽골인들이 티베트에 바친 많은 물품이 여러 루트로 명에서 몽골인에게 건너갔다가 다시 티베트로 이동된 물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몽골 출신의 제원 담빠 후투투가 자신도 활발이면서 고위 라마에게 비단 등을 바친 것처럼 4대 달라이 라마도 ‘티베트 라마들의 施主’인 몽골 출신으로서 그러한 모습이 기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結論

티베트 불교에 대해 몽골인들은 늘 施主였다. 그들은 티베트 승려들의 설법을 듣고 灌頂을 받고, 기도회에 참가하고 나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다양한 보시를 해 왔고 이는 티베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은 양이었다. 그런데 17세기가 시작될 때, 초대 달라이 라마의 轉世가 몽골인 귀족 중에 발생한 것으로 선언이 되었고 이 몽골인 활발은 달라이 라마로 티베트에 와서도 티베트인들에게 물품을 주었다. 보시를 받고나면 ‘한지와 몽골’의 물품을 回賜하였고 보시가 없는 경우에도 티베트의 주요 세속 수령에게 좋은 ‘한지와 몽골’의 물품을 주었다. 그것은 금이나 은, 비단과 같이 명 조정에서 몽골인들이 빈번히 받는 물자였다.

티베트 출신의 다른 종교 영수들도 신자들에게 回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개 모직천을 위주로 한 티베트 특산물이었다. 5대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설법을 들으러 와서 보시를 바친 몽골 수령들에게 남(snam)과 푼(phrug)을 선물했다. 남 혹은 남부(snam, snam bu)는 손으로 짠 모직물이며 의류는 물론 담요, 카페트, 부츠, 가방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인 직물로, 티베트 전역에서 생산된다. 짱(Gtsang) 지역의 것이 가장 질이 좋다고 알려졌고 지역마다 그 이름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양털을 모으고 나서 부스러기나 열 잔여물을 제거한 후 세척, 건조, 방적하는데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염색을 할 때는 천연 염료로는 식물의 뿌리나 잎 등을 이용했다. 푼(phrug) 역시 티베트에서 많이 생산되는 두꺼운 모직물을 가리키며 한문으로 氍毹라고 음역되었다.<sup>32)</sup> 이러한 티베트 특산물을 신도들에게 나누어

31) 이는 구시 간의 한 카툰이 병이 들었을 때의 기록이다. “小 왕비가 큰 병환이 들어 기도를 위해 각 隨許法을 전수하고 時法性(dus kyi chos nyid)으로 변하는 죽음(tshe 'pho ba)의 기도를 했다. 선업을 위해 [왕비는]조오 석가모니불(조강 사원의 불상)에 램프와 카닥(snyan shal)을 바치고, 우리(겔룩파)를 비롯한 티베트의 대부분의 대 라마들에게 회향 예물을 보냈다. 세라, 대뽕, 간넨 세 사원을 필두로 한 사원 132개소에 대량 보시를 생활 용품으로 비단(gos chen) 傘蓋 20점, 비단(gos dar) 커튼 7점, 漢地 의상 31점, 피륙 80필, 카카르(kha 'khyar) 300점, 강남(sman tse) 지역의 비단 39필, 카카르 80점, 진주 170 온스(dbus zho), 도자기 11점, 홍보석(padma rA ga)과 몽골 수정 7점, 삼각 상자(sum sgroms) 6점, 녹송석 16점, 漢地 벨벳과 남쪽의 면을 합친 직물 42점, 얇고 품질 좋은 金 안장 세트 10점, 그와 같은 銀 안장 3점, 은 도장 그릇 11점, 술 36점, 몽골 부츠 7점, 담요 10점, 말 77필, 곡식 합쳐서 2만 5천 켈에 이르렀다. 곡식 보시로 청보리 5100켈을 얻었다.

32) 관련 내용은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주는 것은 납득이 가는 일이다. 그러나 4대 달라이 라마는 보시가 없는 경우에도 세속 수령에게 물품을 주고 있으며 또한 그 품목도 금, 은, 비단 등의 “한지와 몽골의 좋은 것들”이었다. 이는 그의 출신 때문인 것이다.

은뎨 가초는 1617년 티베트에서 사망했다. 그가 사망하자 투메드부는 다시 그의 靈塔을 위한 財源을 보냈다.

青城(mkhar sngon po)<sup>33)</sup>에서 투메드의 왕족이고 군사 14만의 수령인 윈뽀 흥타이지(dbon po hung tha'i ji)가 존자 은뎨 가초의 은탑을 위한 자금을 바치러 울치드 낭소(ul chid nang so), 피꼬르 윈충, 타쁘나 세 사람을 보냈다. 약 1천명 분을 꿔일 수 있는 은으로 된 술을 비롯하여 은 10,000냥 가까이, 그리고 비단, 금, 보석류도 역시 대량으로 바쳤다.<sup>34)</sup>

은 10,000냥과 비단, 금, 보석류가 영탑의 財源일 것이고, 1000명 분을 꿔일 수 있는 술은 熬茶 보시를 하러 온 신도들이 찻물을 꿔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35)</sup> 사망 후의 영탑도 투메드부가 실질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쇠남 가초의 轉世를 몽골 투메드부에서 선택함으로써 겐룩파와 투메드부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는 겐룩파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轉世者 은뎨 가초는 몽골인으로서 티베트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가 반복적으로 내린 한지와 몽골의 좋은 물품인 回賜品들은 몽골인 활발로서의 그의 존재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인문화사, 2022, pp.46-47 참고.

33) Mo. Kōkegota, 즉 현 내몽골 呼和浩特市.

34) “mkhar sngon po nas thu med kyi rgyal rigs dmag khri tsho bcu bzhi'i bdag po dbon po hung tha'i jis rje yon tan rgya mtsho'i dngul gdung gi thebs 'bul bar ul chid nang so/ stod skor dbon chung/ tha po na gsum mngags/ mi stong phrag tsam gyi ja khol ba'i dngul khog chen mos gtsos dngul srang khri tshor nye ba dang gos dar gser rin po che'i rigs kyang mang du bstar/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1989, p.79).”

35) 다만 술은 명대 몽골에 대한 관매나 전달이 금지와 해제가 반복된 물품이었다. 주된 이유는 쇠술을 가져다가 몽골이 녹여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王崇古는 이에 대해 술을 녹이면 2분의 1 혹은 3분의 1밖에 안 되므로 관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동 술은 예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5대 달라이 라마가 받은 물품 중에 청동 술이 보이기도 한다. 관련 내용은 Henry Serruy, 1975, pp.162-163 참고.

## [참고문헌]

-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Rje btsun thams cad mkhyen pa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dngos grub rgya mtsho'i shing rta (pu N+ya pAda rnam thar)* Pecin: Krung go'i bod rig pa'i dpe skrun khang, 2010.
-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Jig rten dbang phyug thams cad mkhyen pa yon tan rgya mtsho dpal bzang po'i rnam par thar pa nor bu'i 'phreng ba*. Pecin: Krung go'i bod rig pa'i dpe skrun khang, 2010.
- 陳慶英 馬連龍 譯, 『達賴喇嘛三世·四世傳』,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1992.
-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Za hor gyi ban de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i 'di snang 'khrul pa'i rol rtsed rtogs brjod kyi tshul du bkod pa du kU la'o gos bzang*, Lhasa: Bod 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1989,
- Elverskog, Johan,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경인문화사, 2022.
- 呂文利, 『嵌入式互動: 清代蒙古入藏熬茶研究』, 北部边疆歷史与現狀研究文庫, 內蒙古大學, 2017.
- Serruys, Henry, *The Tribute System and Diplomatic Missions (1400-1600)*, 1967.
- Serruys, Henry, *Trade Relations: the Horse Fairs (1400-1600)*,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75.
- 김성수, 「16~17세기 내륙아시아의 禮儀와 선물」, 명청사학회 하계연토회 및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연합학술대회 2022 발표문, pp.77-94.
- 岩田 啓介, 「ラサン=ハンによる新ダライ=ラマ六世ガワン=イエシェ=ギャムツォ擁立の背景: ラサン=ハンと青海ホシュート部首長層の抗争との関連から」, 『内陸アジア史研究』 27, 2012, pp. 1-18.
- 曹永年, 「四世達賴喇嘛云丹嘉措生地考」, 『內蒙古師範大學學報: 哲社版』, 34-5, 2005, pp. 18-21.
- 최소영, 「대칸의 스승: 콕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동양사학연구』, 155, 2021, pp.127-200.
- 최소영, 「라마를 위한 차(茶): 17-18세기 몽골인들의 티베트 오차(熬茶, Tib. mang ja) 순례」, 전남대역사문화 연구센터 학술발표회 발표문, 2022.
- 최주봉, 「『알탄 칸傳』에 나타난 16세기 우익 몽골에서의 물품 유통」, 『東國史學』, vol.74, 2002, pp.107-155.
- 이시하마 유미코 「티베트 불교 세계의 형성과 전개」, 이평래 역, 고마즈 히사오 외,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2005, pp.277-308.

Bareja-Starzyńska, Agata, “The Mongolian Incarnation of Jo nang pa Tāranātha Kun dga’ snying po: Öndör Gegeen Zanabazar Bio bzang bstan pa’i rgyal mtshan (1635-1723): A case study of the Tibeto-Mongolian Relationship”, *The Tibet Journal, Autumn 2009-Summer 2010*, Vol. 34/35, No. 3/2, Special Issue: THE EARTH OX PAPERS, Autumn 2009-Summer 2010, pp. 243-261.

Tucci, Giuseppe, “Central Tibetan Conflict in the Sixteenth Century,” Gray Tuttle and Kurtis R. Schaeffer ed., *The Tibetan History Reader* Gray Tuttle and Kurtis R. Schaeffer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pp.278-300.



【제3발표】

목활자(木活字) 사용과 민간 족보의 활성화:  
조선시대 족보와 중국 명청대(明清代) 족보의 비교

권기석(동국대)



# 木活字 사용과 민간 족보의 활성화: 조선시대 족보와 중국 明清代 족보의 비교

권기석(동국대)

1. 머리말
  - 1.1. 문제제기: 동아시아 활자 인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족보
  - 1.2. 기존 연구 성과와 연구 방법, 서술 방향
2. 명청대 및 조선시대 족보의 인쇄 방식과 통계적 추이
  - 2.1. 중국 족보의 시기적 간행 추이와 인쇄 방식
  - 2.2. 한국 족보의 시기적 간행 추이와 인쇄 방식
  - 2.3. 양국 족보의 시기적 추이 비교
3. 목활자 선택의 이유: 공통점과 차이점
  - 3.1. 소량 인쇄와 한정된 유통
  - 3.2. 지속적인 증보로 인한 목판 재활용 가능성의 제한
  - 3.3. 계보 조작 가능성의 차단
  - 3.4. 목활자를 활용한 인쇄업자의 출현
  - 3.5. 목활자 인쇄술의 발달의 '지역적 기반' 성장
4. 역사적 배경: 18~19세기 동아시아 활자 교류
  - 4.1. 활자의 대중화: 국가적 활자본 간행사업의 국제교류와 민간에 끼친 영향
  - 4.2. 효율적 서체: 인서체의 국제적 보급
  - 4.3. 목활자본 족보의 인서체 도입
5. 맺음말

## 1. 머리말

### 1.1. 문제제기: 동아시아 활자 인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족보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주된 인쇄 도구로 사용된 물품은 木板과 活字이다. 일반적으로 지면 전체를 통째로 새기는 목판인쇄보다는 낱글자를 조합해서 만드는 활자인쇄 쪽이 더 진일보한 인쇄수단이라고 여기기 쉽다. 실제로 유럽에서 구텐베르크의 활자인쇄기는 효율적인 인쇄와 지식의 보급에 기여했고 심대한 사회 변동도 불러왔다. 그러나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의 인쇄문화를 뒤돌아보면, 활자가 그

와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와 같이 목판이 활자를 완전히 대체하지도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동아시아 서적에서 주로 사용된 문자인 漢字가 表語文字로서 多種의 활자를 필요로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마음 놓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수 만 자에서 수십 만 자의 활자 세트를 갖추어 놓아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활자인쇄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진입 장벽’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인쇄문화에서 활자의 제작과 운용은 국가 수준의 사업이나 재력가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활자가 신속한 조판에 유리하기는 했으나, 인쇄기술의 한계로 대량의 연속 인쇄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목판 인쇄에는 활자로는 구현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었다. 목판은 인쇄매체인 동시에 하나의 기록매체로서 한번 새겨놓으면 언제든지 종이와 먹을 준비해서 새로운 책자를 계속해서 다시 印出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래서 유교나 불교의 경전 또는 선현의 문집 같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내용을 보존하고 꾸준히 읽어야 할 문헌을 목판에 새겨놓고 藏板을 위한 전각을 지어서 소중히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목판을 잘 보존하여 지속적으로 서적 생산에 이용한다면, 목판의 최초 제작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活版은 한 번 인쇄 후에 그대로 해체되기 때문에 再版을 찍으려면 새로 조판을 하기 위한 재료비와 공임과 이중으로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활자 인쇄는 단기적 수요에 따라 다양한 책자를 그때그때 소량 인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각기 장단점이 있는 목판과 활자라는 두 가지 인쇄 방식이 양립하는 상황에서, 인쇄 방식의 특성이나 보급 대상을 고려하여 어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야 하는 ‘전략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또한 어떤 물질을 활자의 재료로 사용할지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었다. 활자는 금속, 점토, 나무 등 다양한 재질이 가능했지만, 재료의 성질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 이 또한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졌고,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대개 금속(구리)이나 목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필자는 인쇄 수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族譜’라는 문헌의 간행에 대해서 집중 고찰하고자 한다. 성씨 단위로 同族 집단의 계보를 정리한 족보는 인쇄물 형태로 다수의 族人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는 간행물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전근대 족보도 또한 목판 또는 활자 등의 전통적인 인쇄술에 힘입어 간행되었다. 그렇기에 족보라는 인쇄물의 특성이나 배포 수량 및 목적에 맞게 인쇄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족보편찬자들 또한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전략적 선택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명청대 중국 족보와 조선시대 한국 족보를 비교하여 인쇄방식의 선택과 효과라는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2. 기존 연구 성과와 연구 방법, 서술 방향

족보는 중국에서 그 격식이 유래하여 중국, 일본, 琉球(류큐), 베트남 등 주변국에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편찬된 족보의 간행 과정에서 나타난 인쇄 수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 족보의 간행 과정과 인쇄 방식에 초점을 둔 연구는 주로 고문헌의 일종으로서 족보 자료의 書誌的 현황을 검토한 것들이 많았고,<sup>1)</sup> 족보의 印出 방식인 木板이나 活字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명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sup>2)</sup>

중국 족보의 간행에 대해서 현존하는 중국 족보 자료를 망라하고 그 특징을 전반적으로 개관한 多賀秋五郎의 연구가 있으며,<sup>3)</sup> 중국 인쇄사를 개관한 張秀民의 저서에서도 清代 목활자본 족보의 인쇄와 그 특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다.<sup>4)</sup> 그밖에도 중국에서 인쇄술이 족보 간행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고찰한 연구가 많은데,<sup>5)</sup> 그 중에는 절강·복건 등 족보 인쇄가 활발했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경우도 있다.<sup>6)</sup> 필자가 본고를 통해 조명하고자 하는,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세계의 인쇄 기술 및 문화의 교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sup>7)</sup>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과 중국에 현존하는 족보의 시기별 분포, 그리고 인쇄 방식에 따른 版種別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필자가 조사하거나 재정리한 내용을 추가하려 한다. 한국과 중국의 동시대, 즉 조선시대와 明·清代를 다루면서 목활자 사용과 족보 간행의 시기적 추이와 상호 연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동아시아 인쇄기술의 공유와 출판문화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지 검토할 것이다.

필자는 족보 간행을 위한 효과적 인쇄 도구로 ‘목활자’를 주목하면서 관련된 통계를 집계해 보고, 동아시아 출판문화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중국과 한국 족보의 시기적 간행 추이를 통계적으로 분석

- 1) 이창수, 2002, 「계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권 3호 ; 장인진, 2007, 「한국 족보의 문헌적 고찰」 『古典籍』 3, 韓國古典籍保存協議會 ; 장인진, 2011,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족보의 현황과 善本」 『한국학논집』 44,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 2) 옥영정, 2010,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族譜, 童蒙書, 地誌, 日記類 등 책판의 성격과 가치」 『대동문화연구』 70 ; 옥영정, 2011, 「조선후기 족보의 인쇄문화사적 접근」 『한국학논집』 4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3) 多賀秋五郎, 1982, 『中國宗譜の研究』,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 4) 張秀民, 2006, 『中國印刷史』, 浙江古籍出版社 (姜始妹 옮김, 『중국인쇄사』, 2016, 세창출판사)
- 5) 吳展, 2006, 「中國古代家譜印刷中的木活字應用」, 『北京印刷學院學報』 14-4,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 6) 후술할 바와 같이 浙江·福建·江蘇省 일대는 중국의 목활자본 족보가 집중적으로 간행되던 지역이었다. 丁紅, 2005, 「溫州家譜文化的歷史与現狀」, 『圖書館雜誌』 24-8, 杭州: 浙江圖書館古籍部 ; 丁紅, 2006, 「浙江家譜版本特征分析」, 『圖書館理論与實踐』 1, 杭州: 浙江圖書館 ; 丁紅, 2008, 「木活字印刷文化在浙江家譜中的傳承与發展」, 『圖書館雜誌』 27-2 ; 黃富連, 2008, 「光澤縣木活字印刷術遺存探究」, 『圖書館雜誌』 27-2
- 7) 변인석, 1976, 「사고전서와 한국인 부총재 김간에 대하여」 『동양사학연구』 10, 동양사학회 ; 金斗鍾, 1983, 「韓國印本の 中國 및 日本과의 交流」 『민족문화논총』 4 ; 千惠鳳, 1983, 「韓中兩國의 活字印刷과 그 交流」 『민족문화논총』 4 ; 조형진, 1997, 「한중 양국 활자인쇄기술 교류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4 ; 이재정, 2010, 「正祖의 生生字·整理字 제작과 中國活字 購入」 『韓國史研究』 151, 韓國史研究會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족보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족보를 표본이 될 수 있는 자료군으로 삼아 집계하였고, 중국 족보는 일본 학자 多賀秋五郎가 본인의 저서<sup>8)</sup>에서 제시한 족보 목록과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多賀본인이 집계한 통계 수치도 활용하였지만, 시기별 판종 통계는 그가 시도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의 저서에 포함된 현존 족보 목록을 바탕으로 필자가 새로 집계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어서 3장에서는 목활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양국의 족보를 상호 비교 검토하고,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일까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활자 선택의 이유는 계보의 검증과 문중의 결속을 위해서 기능했던 족보라는 기록물의 발간 목적과 함께, 간행 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 배경은 양국 족보의 통계 분석이 후술할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同調’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같은 시기 양국 간에 있었던 간행물이나 인쇄문화의 상호 교류 속에서 족보 간행 또한 영향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명청대 및 조선시대 족보의 인쇄 방식과 통계적 추이

### 2.1. 중국 족보의 시기적 간행 추이와 인쇄 방식

多賀秋五郎는 일본, 미국, 중국 등지의 여러 기관에 소장된 족보의 종합 목록을 본인의 저서에 정리한 바 있고, 나름대로의 통계 분석을 다수 내놓았다. 현존 족보는 대부분이 清代 이후의 것이고, 明代 족보는 소수에 불과하다. 多賀가 정리한 종보 목록에 따르면 일본의 公的 機關에 현존하는 宗譜<sup>9)</sup> 중 명대의 것은 14종, 청대의 것은 889종, 民國 연대는 317종이었다.<sup>10)</sup> 청대 족보도 대체로 19세기 이후인 嘉慶 연간(1796~1820) 이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咸豐(1851~1861) 연간에는 太平天國軍이 봉기한 여파로 일시 침체기를 겪기도 하지만, 光緒(1875~1908) 및 宣統 연간(1909~1911)에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었다.<sup>11)</sup> 多賀가 집계한 연호별 현존 종보 종수와 연평균 간행 건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19세기 후반에 족보 간행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8) 多賀秋五郎, 앞의 책

9) 중국에서는 ‘族譜’보다는 ‘宗譜’나 ‘家譜’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10) 多賀秋五郎, 앞의 책, 上卷 44쪽. 多賀가 미국 공적 기관에 현존한 종보에 대해서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명대 14종, 청대 786종, 민국 317종으로 일본 현존 족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1) 多賀秋五郎, 앞의 책, 上卷 44~45쪽. 함풍 연간의 修譜 침체는 중국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족보 편찬이 비교적 활발했던 江西·湖南·安徽·江蘇·浙江의 宗族이 태평천국군에게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호	연대	일본현존종보		미국현존종보	
		종수	연평균	종수	연평균
순치	1644-1661	3	0.17	1	0.06
강희	1662-1722	21	0.34	15	0.25
옹정	1723-1735	4	0.31	3	0.23
건륭	1736-1795	65	1.08	52	0.87
가경	1796-1820	65	2.60	42	1.68
도광	1821-1850	118	3.93	104	4.47
함풍	1851-1861	33	3.00	35	3.18
동치	1862-1874	97	7.46	88	6.77
광서	1875-1908	434	12.76	395	11.62
선통	1909-1911	49	14.85	51	15.45

[표 1] 청대 현존 족보의 시기별 종수와 연평균 간행 건수  
(多賀秋五郎, 『中國宗譜の研究』, 上卷 44쪽)

그렇다면 족보의 인쇄 방식을 보여주는 판종은 시기적으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多賀의 저서에서 제시한 현존 중국 족보의 판종별 수량과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木活本	鐫刻本 (목판본)	鉛印本	石印本
일본 현존 宗譜 (총 1,252종)	623종 (49.8%)	367종 (29.3%)	111종 (8.9%)	47종 (3.8%)
미국 현존 종보 (총 1,238종)	573종 (46.3%)	363종 (29.3%)	160종 (12.9%)	48종 (3.9%)

[표 2] 현존 중국 족보의 판종별 수량 및 비율 (출전: 多賀秋五郎,  
『中國宗譜の研究』, 上卷 32쪽)

多賀의 분석을 통해서 목활자본의 비중이 절반에 가깝고, 목판본이 그 다음으로 뒤따르며, 19세기 후반부터 도입된 근대식 인쇄기술인 鉛活印本이나 石印本 등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5세기 明代부터 20세기 전반 民國연대(1912년 이후)까지 포괄하는 多賀의 족보 목록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만으로는 시기에 따른 판종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의 연구에는 시기별 판종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多賀가 일본 공공기관<sup>13)</sup>에 소장된 중국 족보의 목록을

12)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필사본인 鈔本과 銅活印本, 油印本, 影印本 등은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13) 소장처는 東洋文庫, 國立國會圖書館,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筑波大學 附屬圖書館,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嘉靖堂文庫, 慶應義塾大學 中國文學研究室, 中央大學 東洋史學研究室, 天理大學圖書館, 尊經閣文庫, 牧野文庫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한 「日本公機關現存宗譜目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역대 年號 별로 관중별 수치와 비율을 집계해 보았다. 다만 근대 이후인 民國 연간(1912년~) 이후의 족보는 제외했고, 이어서 수록된 「米國公機關現存宗譜目錄」과 「中國公機關現存宗譜目錄」은 작업 분량이 과다해지고 작성 서식도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乾隆 이전 시기만 따로 정리하기로 한다.

시기	연대	필사본	목판본	목활자본	기타	합계
成化	1465-1487	0	1	0	0	1
嘉靖	1522-1566	0	4	0	0	4
隆慶	1567-1572	0	3	0	0	3
萬曆	1572-1620	3	6	0	0	9
天啓	1621-1627	0	1	0	0	1
崇禎	1628-1644	0	1	0	0	1
明代	연대 불분명	1	0	0	0	1
淸初	연대 불분명	0	2	0	0	2
順治	1644-1661	1	2	0	0	3
康熙	1662-1722	11	11	0	0	22
雍正	1723-1735	2	3	0	0	5
乾隆	1736-1795	11	44	6 (9.6%)	1 (銅活)	62
嘉慶	1796-1820	6	28	33 (49.3%)	0	67
道光	1821-1850	10	47	61 (51.7%)	0	118
咸豐	1851-1861	5	10	17 (51.5%)	1 (銅活)	33
同治	1862-1874	12	29	57 (57.6%)	1 (鉛印)	99
光緒	1875-1908	23	120	276 (64.2%)	11 (鉛印6/石印5)	430
宣統	1909-1911	2	11	27 (60.0%)	5 (鉛印3/石印2)	45
淸代	연대 불분명	1	0	1	0	2
淸末	연대 불분명	0	0	1	0	1
합계		88	323	479	19	909

[표 3] 중국 족보의 연대별 관중 추이 (출전: 多賀秋五郎, 『中國宗譜の研究』, 下卷 143 ~257쪽, 일본 현존 족보에 한정, 民國 이후 시기는 제외)

위 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명대부터 청대 옹정 연간 이전에는 목활자본 족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로 건륭 연간부터 목활자본 족보가 출현하기 시작하지만 대체로 건륭 후반기이고,<sup>14)</sup> 그 비율도 10% 이내에 불

과하다. 셋째로 가경 연간을 기점으로 목활자본의 비중이 다른 판종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며, 19세기 후반인 동치 연간 이후로는 간행 종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목활자의 비율은 60% 전후까지 올라가면서 더욱 뚜렷한 우세를 보이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함풍 연간에 족보 간행 건수에서 부진이 있기는 했으나 목활자 비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넷째로 근대식 인쇄술의 도입에 따라 출현한 연활자본이나 석인본과 같은 새로운 판종은, 위 표의 '기타'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동치 연간에 처음 출현하여 광서 이후로는 소수이지만 눈에 띄는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다섯째로 전근대 활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속활자는 극소수의 사례 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건륭 연간의 1건, 함풍 연간의 1건이 전부인데,<sup>15)</sup> 동활자 기술이 18세기 이전부터 존재하기는 했으나, 중국의 민간 족보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후술할 조선 족보에서 금속활자가 사용되는 빈도보다 훨씬 희소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건륭 이전 족보는 사례수가 많지 않으므로, 앞서의 통계에 반영하지 못한 미국과 중국의 공기관 현존 족보 목록도 이어서 분석해 보았다.

시기	연대	필사본		목판본		목활자본	
		미국목록	중국목록	미국목록	중국목록	미국목록	중국목록
天順	1457-1464	0	1	0	1	0	0
成化	1465-1487	0	0	1	1	0	0
弘治	1488-1505	0	1	0	1	0	0
正德	1506-1521	1	0	2	1	0	0
嘉靖	1522-1566	1	0	6	19	0	0
隆慶	1567-1572	0	0	0	4	0	0
萬曆	1572-1620	0	4	4	12	0	0
天啓	1621-1627	0	1	0	1	0	0
崇禎	1628-1644	2	0	0	5	0	0
明代	연대 불분명	0	6	0	4	0	0
順治	1644-1661	0	1	2	2	0	0
康熙	1662-1722	3	4	11	10	1	1
雍正	1723-1735	1	0	2	0	0	0
乾隆	1736-1795	5	9	37	18	9	1

[표 4] 중국 족보의 연대별 판본 추이 (乾隆 연간 이전)

(출전: 多賀秋五郎, 『中國宗譜の研究』, 『米國公機關現存宗譜目錄』(下卷 259~370쪽), 『中國公機關現存宗譜目錄』(下卷, 369~447쪽)

14) 건륭 연간에 6건의 목활자본 족보가 확인되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인 『京江嚴氏宗譜』도 건륭 44년(1768)이고, 그 중 4건은 건륭 57년(1792) 이후이다.

15) 건륭 23년(1747)의 『黃氏宗譜』와 함풍 8년(1858)의 『徐氏宗譜』의 사례가 있다.

다른 소장처에 대해서 조사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다. 다만 목활자본의 출현 시기를 앞서 살펴본 일본 소장본 목록보다 이른 강희 연간까지 앞당길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소장본 목록에서 강희 58년(1719)에 간행된 『明經胡氏宗譜』는 鑄刻과 木活字가 모두 사용된 사례로 되어 있고, 중국 소장본 목록에서도 강희 53년(1714)에 간행된 『徐氏宗譜』가 활자본으로 되어 있다. 건륭 이후로 목활자본의 출현이 현저히 눈에 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2.2. 한국 족보의 시기적 간행 추이와 인쇄 방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족보는 목활자로 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현존 족보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18세기 후반 건륭 연간부터 목활자본 족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 이후로 더욱 비중이 커져간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동시대인 조선시대 족보의 판종별 비중과 시기적 변화 추이는 어떠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성씨별 족보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규장각 소장 족보는 조선후기 국가적으로 수집되어온 자료(주로 청구기호 ‘奎’로 시작)에 1910년 이후 경성제국대학이나 해방 후 서울대학교에서 수집한 자료(주로 청구기호 ‘古’로 시작)가 추가되어 있으며, 50여 개 姓貫의 족보가 포함되어 있어서<sup>16)</sup> 조선시대 족보 간행의 추이를 추정할 수 있는 표본 자료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장각 소장 족보의 사례수가 64종 정도로 많지 않고, 史庫에 奉安된 족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 국가적으로 수집된 자료인 만큼 명문가 위주의 족보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자료적 약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910년 이후 수집된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가세가 한미한 성관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래서인지 인쇄상태가 조악한 경우가 조선시대 수집된 자료들에 비해서 눈에 많이 띄는 편이다. 이러한 여러 특성을 감안하여 규장각 소장 족보를 조선후기 족보의 간행 추세를 반영하는 자료로 조심스럽게 활용하고자 한다.

규장각 소장 족보의 판종과 간행 시기를 분석하여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판종은 필사본·목판본·목활자본·금속활자본으로 나누었는데, 금속활자본 중에는 목활자와 혼용된 경우도 있으나 편의상 금속활자의 사례로 집계하였다. 조사 대상 족보의 간행 시기는 앞서 중국 족보에서 그 하한을 淸朝가 무너지는 宣統 연간(1909~1912)까지로 한 것처럼, 일제 강점으로 조선왕조(대한제국)가 종결된 1910년까지로 하였다. 연대는 왕대별로 정리하기에는 사례수가 많지 않고, 재위기간도 일정하

16) 청구기호로 ‘奎’와 ‘古’가 부여된 족보 자료 사이에는 눈에 띄는 성격 차이가 있는데, 청구기호가 ‘奎’인 경우는 18~19세기 대표적인 京華閥閥 성관의 족보가 다수 포함된 반면, ‘古’인 경우는 여러 성씨의 계보를 모은 종합족보인 ‘萬姓譜類’가 많고 상대적으로 家勢가 前者의 성관에 못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서는 권기석, 2011, 『족보와 조선 사회 - 15~17세기 계보의식의 변화와 사회관계망』, 태학사, 343쪽 <부표 1> 참조

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례가 집중된 17세기 이후로 50년 단위로 나누었다.

	16세기 이전 (~1600)	17세기 전반 (1601~1650)	17세기 후반 (1651~1700)	18세기 전반 (1701~1750)	18세기 후반 (1751~1800)	19세기 전반 (1801~1850)	19세기 후반 ~20세기초 (1851~1910)	합계
필사본	0	0	0	1	0	1	0	2
목판본	1	1	2	5	6	2	1	18
목활자본	0	0	0	1	3	8	23	35
금속활자본	0	0	0	0	1	3	5	9
합계	1	1	2	7	10	14	29	64

[표 5] 규장각 소장 족보의 시기별 판종 분포 현황

위 표에서 집계한 64건의 족보에 수록된 ‘舊譜’ 서발문을 바탕으로 현재의 규장각 소장본 이전의 修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구보로 언급된 수보 사례에 해당하는 족보 실물을 규장각 외의 다른 기관에서 소장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판종이나 간기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sup>17)</sup>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16세기 이전 (~1600)	17세기 전반 (1601~1650)	17세기 후반 (1651~1700)	18세기 전반 (1701~1750)	18세기 후반 (1751~1800)	19세기 전반 (1801~1850)	19세기 후반~ 20세기초 (1851~1910)	합계
필사본	1	2	0	1	0	2	0	6
목판본	2	4	7	12	10	2	1	38
목활자본	0	0	1	3	7	12	24	47
금속활자본	0	0	1	0	2	4	5	12
미확인	10	5	5	10	12	9	1	52
합계	13	11	14	26	31	29	31	155

[표 6] 규장각 소장 족보의 舊譜까지 포함한 시기별 판종 분포 현황

위에서 제시한 두 표에서 나타난 판종별 수치와 그 시기적 추이를 다음과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18세기 후반까지는 목판본이 목활자본보다 우세하다가, 19세기 전반 이후로 목활자본이 주류를 이루게 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족보 간행에 대한 연구에서도 18세기 이후로 활자본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sup>19)</sup> 특히 19세기에는 중국에서보다 현저히 목판본 족보의

17) <https://www.nl.go.kr/korcis/>

18) 규장각 소장본과 舊譜序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한 타 기관의 소장본 족보의 종합 목록은 다음 논고에 附表로 실릴 예정이다. 권기석, 2022, 「조선후기 족보에서 목활자(木活字) 사용의 확대 - 규장각(奎章閣) 소장 족보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98, 한국사연구회 (2022년 9월 30일 게재 예정)

19) 옥영정, 2011, 앞 논문에 따르면, 17세기말부터 목활자본 족보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다른 저작류보다 비교적 늦은 18세기부터 활자본의 증가추세를 보이게 되었고, 특히 20세기인 1910~1930년대 까지도 목활자본 족보가 대거 간행되었다고 한다.

비중이 줄어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규장각 소장 족보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조선에서 목활자 인쇄가 더욱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인지는 이 시기 족보의 간행 사례를 더 많이 수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로 활자본은 17세기 후반에 첫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18세기에 꾸준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활자 인쇄는 조선전기부터 이미 사용되어 왔던 기술이었지만, 임진왜란을 비롯한 여러 전란으로 기존의 활자 등 인쇄도구와 서적이 소실되자, 17세기 이후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功臣都監, 訓練都監 등의 국가 기구에서 주도적으로 목활자를 만들고, 이를 계기로 지방관아와 민간의 목활자도 발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0)</sup> 족보에서 목활자 인쇄가 도입된 계기도 이러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금속활자본 족보도 상당수 보이지만 목활자가 우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문 등 일부분에만 금속활자를 사용한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sup>21)</sup> 목활자의 비중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족보에 사용된 금속활자로 丁酉字, 校書館印書體字 등 관청에서 사용되었거나, 奎史字처럼 당대의 별열 가문인 潘南朴氏 출신의 朴宗慶<sup>22)</sup>이 주조한 활자가 주로 보인다. 이처럼 족보에서 금속활자를 사용하는 것은 관용 활자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스스로 활자 주조가 가능할 정도의物力을 갖춘 특권적 가문들이 누릴 수 있었던 호사였던 걸로 보인다.

조선에서 금속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이 그리 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비해서는 확연히 금속활자본 족보가 많이 보이는 편이다. 그 이유로 중국보다 한국의 인쇄사에서 금속활자의 사용이 더욱 활발했고,<sup>23)</sup> 무엇보다도 15세기부터 국가 주도의 금속활자 주조와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졌던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에서는 개국 초기인 태종·세종대부터 癸未字(1403년)나 甲寅字(1434년) 같은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서적을 인출하였고, 이들 활자는 전란이나 화재 등의 재난으로 소실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조선후기까지도 꾸준히 유지·관리되고 오랜 사용으로 마모될 경우 후속활자의 주조도 이루어졌다.<sup>24)</sup>

20) 옥영정, 2015, 「16세기 후반~17세기 조선의 목활자 인쇄와 출판문화적 의미」, 『한국문화』 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1) 예컨대, 1784년 간행된 『慶州金氏世譜』(국립중앙도서관, 古2518-10-955)는 서문에서만 丁酉字를 쓰고, 계보 본문은 목활자를 썼으며, 1800년 간행된 『海平尹氏世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848)는 권수·권말의 序跋·凡例 등은 정유자를 쓰고 본문은 목활자를 썼다.

22) 순조의 생모 수빈박씨의 외숙부로서 이조판서, 훈련대장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그의 소속 가문인 潘南朴氏의 족보(『潘南朴氏世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929)에도 奎史字가 활용된 바 있다.

23) 한국과 중국의 인쇄술 연구자들은 활자 인쇄가 중국보다 한국에서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천혜봉은 중국은 지역이 넓고 독서 인구가 많아서 대량인쇄를 할 만큼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활자 인쇄보다는 목판 인쇄가 성행한 데 비해서, 조선은 영토가 좁고 일부 양반으로 독서 인구가 한정되어 한정된 부수를 수시로 간편하게 찍어내는 데 적합한 활자 인쇄가 적합했다고 보았다(千惠鳳, 1983, 「韓中兩國의 活字印刷와 그 交流」, 『민족문화논총』 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張秀民은 활자인쇄가 중국인쇄문화의 주류가 되지 못하였고, 활자본의 수량은 목판본의 1~2%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15세기 이래로 서양의 印本이 전부 活字印이고, 조선에서 활자본이 목판본보다 우세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평가하였다(張秀民, 앞의 책, 1431쪽).

24) 천혜봉, 2012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범우 ; 청주고인쇄박물관 편, 2009 『한국의 옛 인쇄문화』, 청주고인쇄박물관 ; 청주고인쇄박물관 편, 2012 『한국의 금속활자』, 청주고인쇄박물관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명대에 민간의 장서가들이 금속활자를 주도하여 소량의 서적을 찍은 정도였고 국가적 차원의 금속활자 주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5)</sup> 관청에서 금속활자로 인쇄사업을 추진한 것은 청대 康熙~雍正 연간에 편찬된 『古今圖書集成』에 이르러서였는데, 이 책은 1728년(옹정 6) 銅活字로 인쇄되었다. 그러나 이때 사용된 동활자는 다음 세대에 계승되지 못하고 동전을 만들기 위해 녹여버리고 말았고, 이 때문에 건륭 연간에는 국가적 간행사업을 위해 ‘武英殿聚珍板’이라 불린 목활자를 새로 만들어야 했고 이것으로 『四庫全書』를 인쇄했다.<sup>26)</sup> 청대의 동활자가 동전 주조를 위해 사라지게 되었고, 명대에도 구리라는 금속 재료의 수급에 따라서 동활자 인쇄의 盛衰가 좌우되었다는 설명이 있는 것을 보면,<sup>27)</sup> 금속활자의 제작과 활용도는 같은 재료를 공유하는 금속화폐의 사용과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넷째로 같은 성관의 사례들을 추적할 경우, 初刊 당시에는 목판본을 선택했다더라도 후속 족보에서 활자로 전환한 경우만 확인되고, 반대로 목활자본에서 목판본으로 전환한 경우는 단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다.<sup>28)</sup> 조선시대 족보의 인쇄 방식은 목판에서 목활자로의 전환이 뚜렷한 대세였던 것이다.

### 2.3. 양국 족보의 시기적 추이 비교

이상의 현존 족보에 대한 통계들에서 보이듯, 중국에서는 강희·옹정 연간에 목활자본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건륭 연간에 상대적 소수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다가, 가경 이후로는 목활자본이 목판본을 능가하고 인쇄본 족보의 주류가 된다. 조선에서도 18세기 전반부터 목활자본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19세기에는 목활자가 주류적인 족보 인쇄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 검토한 사례들이 양국의 전체 족보를 얼마나 대표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목활자본 족보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거의 유사한 시기적 변화를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족보는 주로 해당 가문 내에서만 유통되는 사적 기록물이라서 지역간 혹은 국가간 서적 유통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 현상이다.

25) 명대의 금속활자는 사대부이자 인쇄가였던 華氏·安氏 집안에서 인쇄 작업을 하던 곳인 會通館, 蘭雪堂, 桂坡館에서 주도하여 사용한 銅活字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江蘇省 無錫縣 일대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米山寅太郎, 2007(平成 19), 『図説中國印刷史』, 汲古書院; 張秀民, 앞의 책, 1346쪽 참조

26) 천혜봉, 앞 논문; 이재정, 2010, 「正祖의 生生字·整理字 제작과 中國活字 購入」, 『韓國史研究』 151, 한국사연구회; 張秀民, 앞의 책, 1349~1350쪽 참조. 강희 연간에 『고금도서집성』을 찍은 동활자가 사라지게 된 사유가 재미있는데, 인쇄가 끝난 동활자를 武英殿에 놓아두었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 도둑맞아 없어지고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담당자는 자신의 과실이 될까 두려운 나머지 건륭 초기에 연경에 돈이 귀해지자 동활자를 전부 녹여 동전을 주조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청하였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결국 동활자 전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27) 張秀民, 앞 책, 1346쪽에 따르면, 명대의 동활자는 弘治·正德·嘉靖 연간(1488~1566)에 성행하였으나, 萬曆 연간 이후(1573~)로 구리 생산이 줄어들고 광산 세금이 가혹해 지면서 쇠퇴하게 되고 대신 목활자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28)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조선후기 木版本 족보 간행의 발흥과 쇠퇴 - 奎章閣 소장 족보를 중심으로-」라는 논고에서 다룬 예정이다.

한편 양국 족보의 통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첫째로 명청대 족보 중에는 필사본의 사례가 적지 않은데, 조선시대 족보는 필사본이 매우 드물다. 이는 필자가 조사한 규장각 족보의 사례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둘째로 청대 족보는 가정 연간 이후로 목활자가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목판본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유지하지만, 조선시대 족보는 19세기에 들어와 목판본을 찾기가 힘들어질 지경이 되었다는 점도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 또한 규장각 족보의 수치가 크지 않아 전체적 대세를 판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중국보다 조선에서 활자인쇄 문화가 더 활성화되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3. 목활자 선택의 이유: 공통점과 차이점

이상의 통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활자본 족보가 18세기 이후 청과 조선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면 주류적인 족보 간행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양국의 족보편찬자들이 목활자라는 인쇄 수단을 선택하게 된 사유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 3.1. 소량 인쇄와 한정된 유통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활자 인쇄는 대량의 간행물을 생산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한 방식이 아니었다. 상업적인 서적 출발이 더 활발했던 중국보다 오히려 조선에서 활자의 생산과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선에서 국가 주도로 다품종 소량의 간행 사업을 많이 벌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sup>29)</sup> 동일 서적의 대량 보급을 위해서는 목판이 더 적합한 인쇄수단이었는데, 조선에서 중앙의 간행물을 각도와 각 군현에 많은 수량을 보급할 때는 초기 간행본이 활자본이더라도 목판으로 飜刻하는 방식을 활용했고,<sup>30)</sup> 중국에서 대량으로 간행되어 유통되던 민간의 출판물들도 활자 인쇄의 부진을 감안할 때 대부분 목판본이었던 것을 것으

29) 명대 華氏와 安氏가 간행한 동활자본은 많은 종류의 책을 인쇄하여 소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재판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청대의 『고금도서집성』이나 『武英殿聚珍板叢書』 같이 권질이 수백에서 수천 권에 이르는 대형 서적과 같이 거질을 적은 부수로 인쇄할 때도 활자로 편리하였다. 張秀民은 조선 정부가 鑄字所를 설치하고 활자 인쇄를 중시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서적을 입수하면 바로 인쇄하여 널리 전하는 데 있어서 목판보다 활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張秀民, 앞 책, 1431쪽 참조.

30) 조선후기 국왕이 저술한 御製書나 綸音을 지방 군현에 널리 보급하고자 할 때는 중앙정부의 초판본이 활자본일지라도 지방 군현에서 목판으로 飜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방 사회에서 목활자 인쇄 역량이나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량의 인출과 보급을 위해서는 목판본이 더 적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권희, 2013 「목판과 활자 인쇄를 통해본 전통시대 지식과 정보의 소통」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6, 18-20면; 남권희, 2014 「(여는 글) 목판과 지식문화」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38-41면; 權奇奭, 2018, 「英祖 御製書의 頒布 대상과 간행 방식」 『韓國史研究』 182, 한국사연구회; 권기석, 2018, 「正祖 綸音의 印出과 對民 보급」 『한국문화』 8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참조

로 생각된다.

비교적 소량의 인쇄만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족보는 활자로 인쇄하기에 적합한 인쇄물이었다. 족보는 가문 내에서만 유통되는 기록이므로 그 수요는 매우 한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함부로 열람해서는 안 될 대외비 기록이자 조상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존엄한 기록이기도 했다. 실제로 족보의 인쇄 수량은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그리 많지 않았다. 청대 족보의 인쇄 부수는 40~50부 정도이고 100부를 넘는 경우는 드물었다.<sup>31)</sup> 조선의 족보는 기록상 100여 부 정도를 인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sup>32)</sup>

### 3.2. 지속적인 증보로 인한 목판 재활용 가능성의 제한

인쇄 수량이 적다는 것 이외에도 족보가 목판 인쇄와 잘 맞지 않는 점은 또 있었다. 목판 인쇄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기존의 목판을 잘 보존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재인쇄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족보는 세대마다 새로운 구성원이 추가되고 그에 따라 계보를 재편집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목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즉 큰 비용을 들여 목판을 조성한 뒤 이를 보존하라고 하더라도 추후의 활용 가능성이 적었다. 이렇게 인쇄 수량 자체가 적은 1회성 간행물인 족보의 특성은 저렴한 목활자로 조판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sup>33)</sup>

실제로 청대 족보편찬자들은 30~50년 간격으로 重刊이 이루어질 때마다<sup>34)</sup> 새로 조판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목활자 인쇄 채택을 효율적인 것으로 여겼다. 인쇄 부수가 적고 前譜의 목판을 재활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특징 외에도, 족보 특유의 투식이나 輩行(行列字) 사용 등의 이유로 동일한 글자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도 활자 인쇄의 이점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sup>35)</sup> 表語文字라는 한자의 특성상 한 세트의 활자를 갖추려면 20여 만 자 정도를 만들어 두어야 여유있게 책을 찍을 수 있었는데, 청대 족보를 전문적으로 찍은 인쇄업자들은 불과 2만여 자의 목활자로 보유할 뿐이었다.<sup>36)</sup> 하지만 중국에서도 명대 이전의 족보는 목판본이 주류였기 때문인지 목판본이 아닌데도 ‘~~藏板’ 등으로 刊記를 기재한 예가 보인다.<sup>37)</sup> 본래는

31) 多賀秋五郎, 앞 책, 5장 ‘修譜と印刷’

32) 권기석, 앞 논문에 따르면, 배천조씨 1759년본 족보의 刊記에는 134帙, 같은 성관의 1880년본은 100질, 반남박씨 1825년본은 205질, 전의이씨 1754년본은 126질, 동래정씨 1859년본은 140질을 인출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반남박씨의 경우 각처의 족인들이 값을 보내주어 추가 인출한 것이 있어서 비교적 수량이 많다.

33) 족보가 활자 인쇄에 여러 모로 적합한 인쇄 수단이라는 점은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柳鐸一, 1979 『嶺南地方 現存木活字와 그 印刷用具』, 『奎章閣』 3, 서울대학교 도서관 ; 張秀民, 앞 책, 1431쪽

34) 중국 족보의 경우 수보 간격은 통상 30년이라고 하지만, 20~50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었다(多賀秋五郎, 앞 책, 5장 ‘修譜と印刷’). 조선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지만, 작업의 지연이나 간행 비용의 부족 등의 이유로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35) 多賀秋五郎, 앞 책, 5장 ‘修譜と印刷’

36) 張秀民, 앞 책, 1371쪽

37) 중국의 鐫刻本[목판본] 족보는 속표지 등에 ‘某宗祠藏板’이나 ‘某宗祠珍藏’ 등으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표기가 인쇄 이후 판을 해체했다고 생각되는 목활자본에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목을 소장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행처를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관습적 표기인 것으로

다른 간행물들처럼 목판에 새겨 문중의 사당 등에 전승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족보 간행도 처음 시도되는 단계에서는 목판 인쇄를 기본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조선 족보는 15~16세기에 간행본을 내놓은 安東權氏나 文化柳氏 같은 일부 선구적 사례를 제시하고는 17세기 이후에야 첫 간행본 족보인 ‘初刊譜’를 내놓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수보를 주도하거나 이미 작성된 필사본 草譜가 있는 일부 계파만을 수록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책자의 분량이 많지 않아서 목판에 새기더라도 후대에 비해서 부담이 크지 않았다. 예컨대 초기 족보의 선구적 사례로 손꼽히는 『安東權氏成化譜』(1476년)는 3권 3책에 張數로는 189장 정도였는데, 후대의 안동권씨 계파 중 소수만이 포함되어 있었다.<sup>38)</sup>

또한 조상을 존승하는 의미에서 간행 후의 목판도 ‘譜閣’ 등의 시설을 세워 소중히 간직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조선의 경우 보각은 간행지 또는 관향과 가까운 곳이나, 전란시에 안전한 곳에 두는 경우가 많았고, 사찰 곁에 두고 승려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 승려가 각수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도 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면, 창녕성씨 1709년본 족보의 목판과 인쇄본 책자를 興海 泉谷寺 곁에 둔 ‘藏譜室’에 두었는데, 壬辰·丙子の 병화가 미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해당 사찰의 승려 致眼이 해당 족보의 도각수를 맡은 적이 있어서 추후 목판의 관리와 보수 작업까지 맡길 수 있는 책임자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되었다.<sup>39)</sup> 중국 족보에서 사당이 주된 인쇄 작업 및 장판 장소가 되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는 현상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사례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목활자가 민간에 널리 보급되는 추세 속에서, 수보 回次가 거듭될 때마다 곱절로 늘어나는 계보의 분량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목활자 인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져갔다. 東萊鄭氏 족보의 경우 1655년본의 목판은 153장이었는데, 1716년본은 409장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sup>40)</sup> 豐壤趙氏 족보는 1826년본의 목판은 909장이었는데, 1826년본은 1,356장이 되었다.<sup>41)</sup> 이런 가운데 몇몇 족보는 분량 증가에 따른 물력의 부족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수록 대상을 특정 계파로 제한하는 派譜를 만들거나, 활자 인쇄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한 사례로 東萊鄭氏 1859년본<sup>42)</sup>과 潘南朴氏 1825년본 족보<sup>43)</sup>가 있다.

### 3.3. 계보 조작 가능성의 차단

인쇄 이후에는 판면을 다시 날글자로 해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조판하지

보인다. 多賀秋五郎, 앞 책, 제4장 ‘清代以後における宗譜の盛行についての研究’

38) 후대에 정립된 안동권씨 10世 15派 중에서 3개 파만이 수록되어 있었다. 宮島博史, 2008, 『안동권씨 성화보』를 통해서 본 한국 족보의 구조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62, 205~206쪽

39) 『昌寧成氏族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9798), 『藏譜室記』

40) 『東萊鄭氏派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860) 『族譜刊印』

41) 『豐壤趙氏世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824) 趙曦 발문(1760년); 趙寅永 발문(1826년)

42) 『東萊鄭氏派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860) 『東萊鄭氏派譜凡例』(1859년) “前譜中數派 已不入乙西譜 舊佚乙未丙申六十二年 卷帙已數倍 丙申至今一百四十餘年 浩繁難慎 議定派譜 活字印行”

43) 『潘南朴氏世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929) 『凡例』

않고서는 재인쇄가 불가능하다는 활자의 특성은, 수보 이후에 무단 인출을 통한 계보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족보편찬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면이 있었다. 즉 간행 이후에도 남겨지는 족보의 목판은 농간을 부리려는 자들에 의해서 변조되어 재인쇄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엄중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추가적인 인출 수요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예 목판 자체가 남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청대 족보 편찬자들은 실제로 변조된 족보의 인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었고, 족보 기록의 외부인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족보가 목판본인 경우 그 板木을 私藏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각 종족은 해당 宗祠나 義莊 등에 이를 보관하여 도난이나 盜刷를 방지했다.<sup>44)</sup> 그러나 목활자를 채택할 경우 인쇄후 남은 목판이 잘못 관리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활자 인쇄를 담당한 장인들인 譜師는 보유한 활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인쇄한 부분의 판을 해체하여 다음 부분의 조판에 바로 사용하였기에 盜版이나 盜刷를 허락하지 않는 宗族의 방침과 합치하게 된 것이다. 인쇄후 版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 없는 宗人이 사당으로부터 목판을 몰래 반출하여 마음대로 改削하여 重刊할 가능성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대신에 목활자를 사용하여 족보를 찍어주는 인쇄업자 ‘譜師’가 혹시라도 자신의 편리대로 인쇄하려는 자들과 결탁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했다.<sup>45)</sup>

조선시대 족보에서도 유사한 우려와 조치가 확인된다. 목판본 족보일 경우 기성의 목판을 소중히 보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목판이 악용될 가능성도 방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목판의 보존 공간인 譜閣을 문중의 有司에게 맡겨 엄중히 관리하도록 하면서, 목판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허락 없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풍양조씨 1760년본 족보의 譜閣 節目에 改板을 하려면 서울의 문중[京宗]에서 聯名發通한 뒤에 譜閣有司가 고쳐서 인쇄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하고, 印本 1건을 보각에 두면서 閣門 밖으로 반출을 금하며 차후 印冊할 때 이것으로 校準하도록 하였다.<sup>46)</sup> 보각에 보관된 목판이나 족보가 계보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표준이 되는 ‘正本’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가 목활자본이 족보의 대세가 되어 목판 자체가 남지 않게 되자 藏板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약화되었다. 기존의 목판을 변조하여 새로 인쇄하는 방식은 자행되기 어려워졌으나, 신속하게 원하는 지면을 조합하여 찍어낼 수 있다는 활자의 특성은 족보 위조에도 편리하게 활용되었다. 완성된 족보에 거짓된 내용의 冊張을 추가로 찍어내어 끼워 넣는 ‘添刊’이라는 행위가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조작을 행하는 자들이 주로 활자를 사용하였고,<sup>47)</sup> 그 때문에 조정에서는 민간에서 활자를 사용하

44) 多賀秋五郎, 앞 책, 제4장 제3절 ‘宗譜成立の地域事情に關する考察’

45) 多賀秋五郎, 앞 책, 序章 제5절 ‘修譜と印刷’에 의하면, 江蘇省의 晉陵奚氏는 인쇄후 原板을 제거하여 私印을 막는 조치를 취했고, 같은 지역의 金壇江氏는 譜師에게 茶酒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경계했는데 이 또한 무분별한 인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46) 『豐壤趙氏世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830) 「譜閣節目」

47) 『英祖實錄』 104권, 40년(1764) 10월 19일 정유

는 것을 사적으로 鑄錢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sup>48)</sup> 이러한 상황에서 계보 조작이나 冒錄을 막기 위한 조치는, 완성된 족보에 거짓된 내용의 冊張을 추가로 끼워 넣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집중되었다. 간행 이후에 추가로 끼워 넣은 책장이 譜單을 늦게 제출한 특정 계파 자손 외에는 절대 없다고 凡例에 명시한 순흥안씨 1824년본 족보가 그러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sup>49)</sup>

### 3.4. 목활자를 활용한 인쇄업자의 출현

족보는 국가적인 기록이 아니라 여러 가문에서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편찬·간행한 사적 기록물이었다. 그런 만큼 족보에서 활자를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인쇄 문화에서 활자 인쇄술이 널리 보급되어 있어야 했고, 민간의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한 비용을 받아 물자와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쇄업자들과 그들의 활동으로 구축된 인쇄 산업이 형성되어 있어야 했다.

청대 목활자 족보는 ‘譜師’ 등으로 불리는 인쇄업자들이 활자를 휴대하여 각 문중을 방문하여 조판 및 인쇄 작업을 해냈다고 한다. 이들은 활자의 휴대성을 이용하여 주로 농한기에 활자 등 인쇄재료를 담은 짐을 메고서 각지를 돌아다니며 족보를 만들었다. 보사는 宗祠나 義莊에 체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문중의 譜局으로부터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제공 받았다.<sup>50)</sup>

조선시대에도 19세기에는 ‘活字主人’이라는 존재가 均字匠, 粧纒 기술자 등 여러 작업자들을 거느리면서 보수를 받고 족보를 만든 사례가 확인된다. 동래정씨 1859년본에는 활자주인 이하 작업자에게 제공한 1,158여 냥에 달하는 비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印出 및 粧纒에 들어간 공임과, 재료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51)</sup> 여러 족보의 사례에서 族人의 私邸에 ‘譜所’를 차려놓고 편찬과 인쇄 작업을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sup>52)</sup> 조선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문중에 의해서 고용된 출판업자들이 활자를 휴대하고 문중을 방문하여 비용과 숙식 등을 제공 받고 족보 책자를 주문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5. 목활자 인쇄술의 발달의 ‘지역적 기반’ 성장

다음으로 활자 인쇄를 위한 인력과 물자가 갖추어진 인쇄문화의 중심지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도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상업적인 출판을 위한 인쇄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족보를 비롯한 인쇄물을 생산하기 위한 전국적인 수요를 감당하는 간행 작업의 중심지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족보 자체가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책자는 아니었지만, 간행 작업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고 물자를 조달할

48) 『承政院日記』, 1806책, 23년(1799) 3월 30일 무자

49) 『順興安氏族譜』(규장각, 奎12636) 「凡例」, “修譜後 多有冒俗改張之患 以又字添張 此爲亂眞難卜之實 今此修譜 絶無又字張矣 貞愍公子孫 晚到於刊役幾畢之際 故不得已獨於此派 有又字二張 覽者詳悉焉”

50) 張秀民, 앞 책, 1431쪽, 1524쪽 ; 多賀秋五郎, 앞 책, 제4장 제3절 ‘宗譜成立の地域事情に關する考察’

51) 『東萊鄭氏派譜』(규장각, 奎860), 「印譜後錄」(1859년)

52) 권기석, 앞 논문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이 필요했다.

중국 족보의 간행지가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해당 지역에서 宗族의 성장이나 문중 조직의 활성화를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인쇄출판의 중심지가 형성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多賀秋五郎의 통계에 따르면, 명청대 족보의 77%가 江蘇·安徽·浙江 등 長江 이남의 3개성에서 간행되었고, 북쪽으로 인접한 山東·河北, 남쪽으로 인접한 江西·廣東을 합하면 90%에 달한다고 한다.<sup>53)</sup> 목활자본 족보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는데 강소·절강·안휘·강서·호북·호남에 압도적으로 많았다.<sup>54)</sup>

張秀民도 청대 목활자 족보는 江蘇·浙江 두 성이 압도적 수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浙江 紹興府와 江蘇 常州府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은 같은 씨족끼리 모여 살아 族權이 발달하여 마을마다 사당이 있고 성마다 족보가 있었는데, 譜匠 또는 譜師라고 불리는 족보 인쇄 기술자가 盛業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sup>55)</sup>

목활자 족보의 중심지였던 3개성(강소·안휘·절강)도 처음부터 목활자가 주류였던 것은 아니었다. 절강 지역 족보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현존하는 명대 절강 족보 103종 중에서 13종만이 목활자본이었다가 청대에 들어와 6,430종 중에서 목활자본이 5,100종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었다.<sup>56)</sup> 목활자가 족보 인쇄의 주된 수단인 것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청대 이후의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들 지역은 宗族 활동도 활발했지만, 일찍부터 출판인쇄 문화가 발흥했던 곳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중국에서 활자 인쇄술을 최초로 발명했다고 전해지는 畢昇이 北宋 慶曆 연간(1041~1048)에 膠泥活字를 절강의 杭州에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최초로 목활자를 만든 王禎은 안휘 旌德縣尹으로서 원대 元禎 2년(1296)에 『農書』를, 大德 2년(1298)에 『旌德縣志』를 인쇄하였다. 통상 강남 지역으로 불리는 이들 지역은 청대에도 출판 문화가 융성했던 곳으로, 18세기 후반 조선의 사신들이 강남에서 배로 실어온 서적을 북경의 琉璃廠에서 구입하고자 했던 사실이나, 국왕 正祖가 중국본 서적에 관심을 가지면서 浙江 지역의 書目<sup>57)</sup>을 들여온 사실 등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sup>58)</sup>

목활자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쇄 도구를 쉽게 휴대할 수 있어서 인쇄 기술자가 서적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거처를 방문하는 것이 용이했고, 그 결과

53) 多賀秋五郎, 앞 책, 序章 제6절 ‘問題の提起’

54) 多賀秋五郎, 앞 책, 제4장 제3절 ‘宗譜成立の地域事情に關する考察’에 따르면, 그가 미국 및 일본의 공적 기관에 대해 조사한 족보 중에서 목활자본은 각각 47% 및 49%인데, 省別로 보면 江蘇가 60%, 浙江이 58%, 安徽가 70%, 江西가 68%, 湖南이 50%, 湖北이 70%로서 전체 평균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들 지역이 타지에 비해 목활자 인쇄가 유난히 왕성했음을 보여준다.

55) 張秀民, 앞 책, 1371쪽

56) 丁紅, 2008, 앞 논문

57) 청대 건륭 연간에 수집된 도서 목록인 『浙江採集遺書總錄』(奎中4564)은 현재 규장각 도서로 소장되어 있으며, 책 첫 면에 정조의 藏書印이 찍혀 있어서 매우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58) 정호훈, 2015, 「규장각이 모은 외국 서적: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활용하다」, 네이버캐스트 ‘규장각, 세계의 지식을 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0055&cid=59020&categoryId=59026>

인쇄지와 수요지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른 인쇄 기술은 이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참고로 鉛印本과 石印本 같이 19세기 후반에 도입된 신식 인쇄기술로 간행된 족보는 목활자 인쇄와 달리, 印刷地가 印刷地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貴州·雲南의 족보가 北京이나 天津에서 인쇄되거나 湖南의 족보가 廣州나 香港(홍콩)에서 인쇄된 경우가 있는데, 목활자본은 인쇄업자가 문중을 방문하는 방식이었으나 연인·석인본은 인쇄시설이 갖추어진 遠隔의 공장에 맡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sup>59)</sup>

조선의 족보는 간행지와 수요자의 소재지와 비교해 볼 때, 목판본과 목활자본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목판본 족보는 많은 경우 지방관 출신의 자손이 부임지의 인력과 물력을 관권으로 동원하여 간행하는 관행이 있었기에 지방 관아가 간행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자손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sup>60)</sup>

그에 비해 목활자본 족보는 族人的 私家 등 거처에 譜所를 두고 간행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다. 간행을 주도한 인물들의 자택이나 회합 장소에 인쇄 기술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조사한 규장각 소장 족보의 경우 譜所가 설치된 장소는 漢城 즉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인 경우가 많았다.<sup>61)</sup> 그렇다면 중국의 강남 지역처럼 조선에서 문중활동과 출판문화의 중심지가 서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필자가 조사한 규장각 소장 족보의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다. 필자의 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지방 거주 족인의 집에 보소가 차려지는 경우도 있었고, 목활자 인쇄 문화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발흥하고 있었음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sup>62)</sup>

그렇기는 하지만 당시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력과 인력을 동원하기 쉬운 곳일 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족인들이 연락하기에도 지리적 여건이 유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휴대성이 용이한 활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문중의 연락거점이 곧 활자인쇄의 작업장이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조선에서 활자 인쇄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 쉬운 인쇄문화의 중심지가 서울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후술할 바와 같이 금속활자본 족보 중 중국의 印書體를 본받은 尙史字를 사용한 예가 다수 보이는 것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최신 활자를 주조하고 향유한 京華士族의 족보 참여를 반영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59) 多賀秋五郎, 앞 책, 제4장 제3절

60) 필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규장각 소장 목판본 족보 38종 중에서 23종이 지방관 주도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지방 관아에서 간행된 것은 19건이다. 전체의 60%가 지방관 주도로 간행되었고, 50% 정도는 지방 관아에서 간행된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추후 「조선후기 木版本 족보 간행의 발흥과 쇠퇴 - 奎章閣 소장 족보를 중심으로-」라는 별도의 글로 정리할 계획이다.

61) 필자가 규장각 소장 족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29건의 사례 중에서 16건이 서울과 인근 지역, 6건이 경기 이외의 지방, 7건이 지역 미상으로 파악된다. 권기석, 2022, 앞 논문 참조

62) 유탁일, 1979, 앞 논문 ; 옥영정, 2015, 앞 논문 ; 玉泳晟, 2002 「地方木活字에 의한 文集의 印出에 관한 일고」, 『書誌學報』 26, 韓國書誌學會 ; 옥영정, 2010 「湖西地方 木活字本の 현황과 木活字 유형연구」, 『한국서지학회』 36

#### 4. 역사적 배경: 18~19세기 동아시아 활자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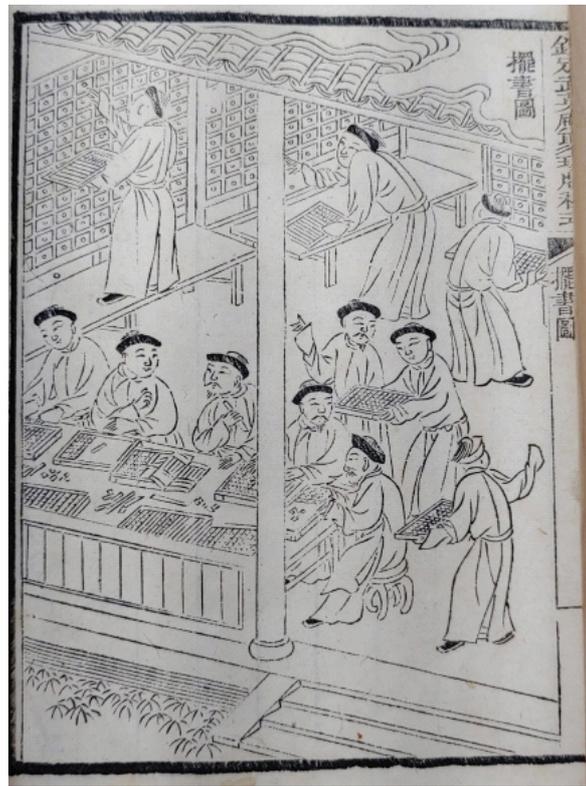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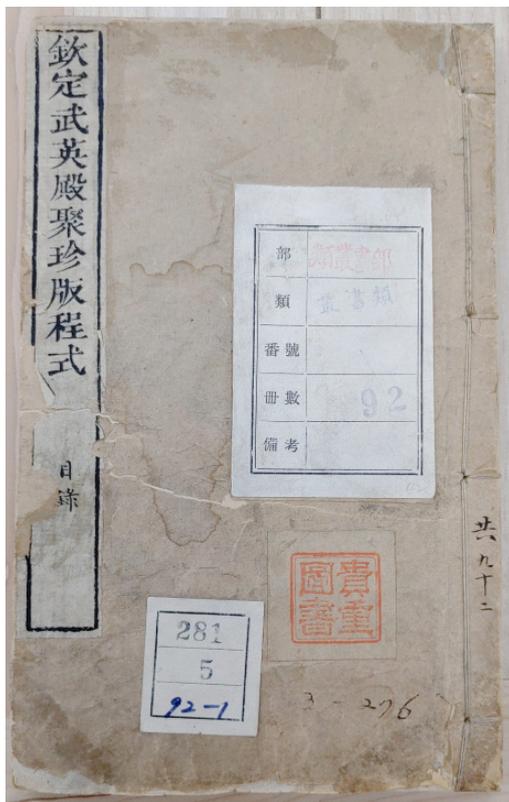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시대의 중국과 한국 족보에서 목활자가 확산되는 추세나 목활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족보라고 하는 동종의 기록물과 목활자라고 하는 동일한 기능의 인쇄수단의 결합이기에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목활자 족보의 발흥이라는 측면에서 同調 현상을 보이는 것은 양국 사이에 있었던 서적 및 기록문화의 교류와도 어떤 관련성을 찾아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 4.1. 활자의 대중화: 국가적 활자본 간행사업이 국제교류와 민간에 끼친 영향

목활자본 족보의 확산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동시대 문화교류 현상으로, 조선후기와 청대에 있었던 국가적인 활자 조성 사업과 민간에 끼친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선에 비해 활자 인쇄의 비중이 적었고 국가적인 활자 제작 노력도 부진했지만, 청대에는 옹정 4~6년(1726~1728)에 『古今圖書集成』을 동활자로 인쇄하고, 건륭 연간(1726~1795)의 四庫全書 간행을 위해 목활자를 만든 뒤 ‘聚珍板’이라 명명하고, 건륭 39년(1774) ‘武英殿聚珍板全書’ 등을 펴낸 것은 전대에 비해서 활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던 轉機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건륭 41년(1776) 『武英殿聚珍板程式』이라는 이름으로 최신의 목활자 인쇄 기술을 정리한 책자는 조선에도 유입되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sup>63)</sup> 활자 기술 뿐만 아니라 ‘燕賀木字’라 불린 중국의 목활자 실물이 국왕 정조의 이름으로 燕京으로부터 수입되어 정조의 명으로 제작된 목활자 生生字와 생생자를 모델로 구조한 금속활자 整理字 등 조선의 활자를 제작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試製品이 되었다.<sup>64)</sup>

63) 이 도서는 조선후기 국가전적이 수집되어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中540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C3-276) 등에도 소장되어 있어서 조선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4) 이계정, 2010, 「正祖의 生生字·整理字 제작과 中國活字 購入」 『韓國史研究』 151, 韓國史研究會 ; 국립중앙박물관 편, 2016 『활자의 나라, 조선』, 2016년 테마전 도록. 이때 수입된 중국 목활자는 순수한 참고용으로서 조선의 서적 간행에 전혀 사용된 예가 없으며, 敦煌에서 발굴된 13세기 위구르 문 목활자를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국 목활자 실물이라고 한다.



[그림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그림 2] 『흠정무영전취진판정식』에 수록된 조판 작업에 대한 그림, 「擺書圖」

비슷한 시기 양국에서 동시에 나타난 국가 주도의 활자 사업은 민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대 옹정~건륭 연간의 관찬 서적의 활자 인쇄는 민간에서도 본받아 활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sup>65)</sup> 일례를 들면 중앙의 취진판 서적을 각 지방에서 翻刻한 것을 ‘外聚珍板書’라고 불렀는데 목활자본을 저본으로 雕板(목판)에 다시 새긴 것이기에 실질적인 활자 인쇄의 보급은 아니지만, 私家 목활자의 활성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sup>66)</sup>

조선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소실된 활자인쇄의 기반을 17세기 이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교서관 등 중앙관청뿐만 아니라, 중앙의 관료나 사족들도 사적으로 활자를 속속 제작하였다.<sup>67)</sup> 18세기에 들어서면 학자군주로 일컬어지는 영조와 정조가 정력적으로 문물과 법제를 재정비하고 간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활자를 계속 제작하고 많은 서적을 인출하였다. 그 결과 19세기에 이르면 국가적 간행 사업이 아닌 민간의 문집이나 족보에서도 금속활자 또는 목활자의 사용이 보편화되는데, 국가적 인쇄 기술이 민간에까지 확산되는 추이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65) 張秀民은 간단하고 쉬운 활자본 도서 간행법을 소개한 『武英殿聚珍板程式』의 영향으로 각지의 관아와 사가에서 이를 모방하였는데, ‘위에서 좋아하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욱 성행’한다고 설명했다. 張秀民, 앞의 책, 1431쪽 참조

66) 張宗茹·宋忠芳, 2000, 「論清代武英殿聚珍版印書之鑒定」 『山東師範大學報(人文社會科學版)』 45-4

67) 옥영정, 2015, 앞 논문

있다.

#### 4.2. 효율적 서체: 인서체의 국제적 보급

단순히 양국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국가적 간행 사업이 각국의 민간 영역에 영향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양국의 인쇄문화가 보다 긴밀히 소통하였음을 보여주는 현상의 하나가 ‘印書體’의 도입이었다. 인서체란 송나라 때부터 판각공들이 글자를 새기는 데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약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인쇄용 서체로서, 붓으로 쓴 글씨체에 가깝게 새긴 ‘筆書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인서체는 세로획이 굵고 가로획이 가늘며 직선 위주로 디자인 되어 판각 작업에 용이하게 디자인되어 있다.<sup>68)</sup>

송대의 인서체는 통상 ‘宋朝體’로 불리다가 명대에 이르면 ‘明朝體’로 불리게 되었다. 청대 강희 연간에 간행된 한자사전인 『康熙字典』의 인서체는 조선에도 영향을 주어 18세기 중반 洪啓禧(1703~1771)가 사적으로 주조한 ‘栗谷全書字’가 이 글자체로 제작되었다.<sup>69)</sup> 『사고전서』와 『무영전취진판전서』의 ‘취진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조가 목활자 생생자 등을 만드는 데 큰 참고가 되었는데, 정조는 생생자에 도입된 인서체 특유의 모난 글자체가 圓厚한 뜻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서체를 후속 활자인 금속활자 정리자에까지 도입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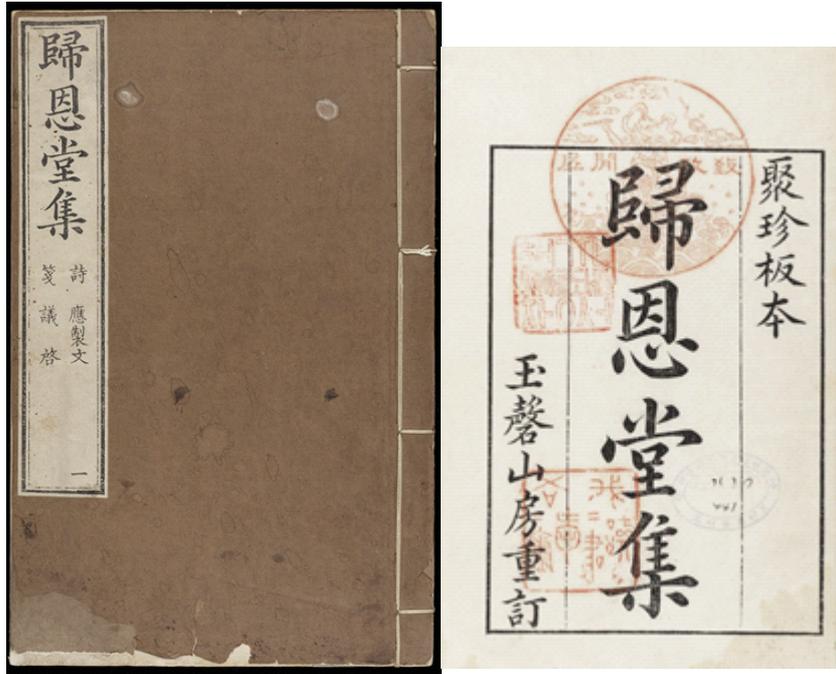
중국의 인서체 도입은 국가 정책 뿐 아니라 조선의 관료 지식인이 私人 차원에서 도 지향하고 있었다. 남공철은 『歸恩堂集』<sup>70)</sup> 등 자신의 문집을 自編하면서, 그 서문을 중국 학자에게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책에 중국 종이를 사용하며 중국식 제본 방법인 四針線裝을 사용하는 등 중국의 인쇄문화에 심취하는 면모를 보였다. 무엇보다 문집의 인쇄 방식으로 목활자를 사용하면서 이를 ‘취진자’라고 불렀다. 취진자는 청대에 국가적으로 조성한 목활자를 부르기 위해 황제가 명명한 이름인데,<sup>71)</sup> 이를 조선의 지식인들도 따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68) 중국의 인쇄용 서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이재정, 2010, 앞 논문 ; 장수민, 앞의 책, 1403쪽

69) 인서체는 조선후기 지방의 민간 활자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유탁일, 1979, 앞 논문 ; 옥영정, 2010, 앞 논문 참조

7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5286 참조

71) 건륭제는 四庫全書副總裁이자 吏部尙書를 지낸 조선인을 조상으로 둔 문신 金簡(?~1794)의 주청에 따라 목활자를 만들면서 활자판이라는 명칭은 우아하지 못하다고 하며 ‘聚珍’이라 이름을 정하고 御製로 ‘題武英殿聚珍板十韻詩’를 지었다고 한다. 張秀珉, 앞 책, 1349~1350쪽 참조



[그림 3] 4침으로 제본된 남공철의 [그림 4] '취진판본'이라 명시한 자편문집 『歸恩堂集』 『귀은당집』의 刊記

#### 4.3. 목활자본 족보의 인서체 도입

인서체는 조선의 활자본 족보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규장각 소장 족보 중에 금속활자가 사용된 예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주목되는 것이 全史字이다. 이 활자는 純祖의 외숙부인 朴宗慶(1765~1817)이 주조한 것으로서 19세기의 많은 서적에서 사용된 바 있다. 청나라의 활자 '무영전취진판'으로 간행된 『二十一史』의 글자를 字本으로 주조한 것으로서 이 또한 중국의 인서체를 도입한 활자라 할 수 있다.

박종경의 소속 가문인 潘南朴氏를 비롯한 다수의 성관에서 족보 간행에도 활용되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규장각 소장 족보 또는 관련된 舊譜 중 금속활자가 일부라도 사용된 경우는 총 12건이며 丁酉字, 筆書體鐵活字, 校書館筆書體字, 校書館印書體字 등의 사용이 소수 확인된다. 그런 가운데 전사자가 쓰인 경우는 驪興閔氏 1889년본, 密陽朴氏 1873년본, 潘南朴氏 1825년본, 海平尹氏 1851년본, 龍仁李氏 1869년본, 新安朱氏 1903년본 등 6건 정도 확인되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72)</sup>

청에서 인서체로 제작된 활자가 오래지 않아, 조선의 족보 인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使行 등을 통해서 적지 않은 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양국의 인쇄문화는 매우 밀접한 영향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국의 족보에서 목활자 사용의 확대라는 공통적 현

72) 권기석, 2022, 앞 논문

상이 비슷한 시기에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전사자로 인쇄한 1831년본 『[그림 6] 『반남박씨세보』의 刊記: ‘辛卯京城活印’ 潘南朴氏世譜』 서문

## 5. 맺음말

한국과 중국의 족보에서 인쇄 방식이 변화해 가는 추이를 주로 명청대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주로 일정한 영향관계 하에서 공통점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하였지만, 양국의 인쇄문화의 전개에는 차별성도 적지 않다. 그러한 차이에 주목한 비교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주목해야 할 측면을 제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로 조선은 관영 인쇄는 물론이고 민간이 주도한 사족층의 각종 간행물(문집, 족보 등)도 영리 추구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즉 서적의 수요자들이 이윤 추구와 관계없이 국가적 사업이나 선현이나 선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인쇄업자들에게 서적에 대한 주문 생산을 맡기는 양상이었다. 그에 비해 상업적 출판과 서적의 생산(간행), 유통(매매), 소비(독서)가 활발했던 중국은 인쇄문화의 환경이나 양상이 크게 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족보는 양국 공히 營利나 流通과는 거리가 먼 간행물이었기에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업적 인쇄의 활성화 여부가 족보에는 어떤 다른 영향을 끼쳤을지 좀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조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활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국보다 돋보였다. 활자본 족보의 비중이 급증하는 大勢 자체는 양국이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금속활자의 사용 빈도가 조선 쪽이 더 높다든지, 목활자가 목판본을 압도하는 정도가 조선이 더 뚜렷하다든지 하는 차이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중국의 경우 多賀秋五郎가 정리한 중국 족보 목록을 바탕으로 충분한 표본 자료군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조선의 경우는 비교적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규장각 소장 족보에 국한되어 있고, 주로 서울 지역에서 수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규장각 족보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여지가 적지 않다. 향촌 사족이 주도하여 지방에서 간행한 족보의 사례들이 보다 많이 수집되어야 조선시대 족보 간행의 전체상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로 본고는 한국 족보에 대해서는 필자가 직접 실물을 열람하였으나, 중국 족보는 기존에 구축된 목록과 서지사항을 종합 정리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향후 원본 자료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목록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물질적 특징을 이해하고, 조선의 족보와 제대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조선시대 목활자본 족보의 경우도 실물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할 과제가 있다. 족보의 권수·권말과 계보도 부분에 각기 다른 크기와 배열로 사용된 서체들을 비교하고, 어떤 종류의 활자가 어느 족보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 동일한 활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족보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여러 족보에 사용된 목활자의 계통과 사용 양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4발표】

대몽골국 초기(1219~1259년) 고려-몽골 간  
물품의 이동과 복합성

김장구(동국대)



# 대몽골국 초기(1219~1259년) 고려-몽골 간 물품의 이동과 복합성

김장구(동국대)

- I. 머리말
- II. 칭기스 칸 시기(재위 1206~1227년)
- III. 우구데이~구육 카안 시기
- IV. 몽케 카안 시기(재위 1251년 6월~1259년 7월)
  - 1. 우구데이 카안 시기(재위 1229년 여름~1241년 11월)
  - 2. 구육 카안 시기(재위 1246년 7월~1248년 3월)
- VI. 맺음말

## I. 머리말

13세기 세계사는 칭기스 칸이 이끄는 몽골의 발흥과 ‘대몽골국’의 성립, 몽골군의 유라시아 정복으로 인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칭기스 칸의 잔혹성과 몽골군의 강력한 전투력에 의한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도시의 파괴를 비롯한 정주세계 문명의 후퇴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칭기스 칸과 몽골에 대해 동시대인들이 갖게 된 ‘야만’의 이미지는 후대에도 계속 재생산되면서 확산되었다.

한편, 칭기스 칸과 대몽골국에 대한 연구는 최근 30여 년간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그들이 세계사에서 행한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칭기스 칸의 대몽골국 성립과 뒤를 이은 후계자들의 일관된 정책에 따른 ‘세계사의 통합과 유라시아에 걸친 장기 지속적 교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몽골의 세계 정복전쟁이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과 도시의 파괴, 인구의 감소, 농경지의 황폐화 등을 초래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 범위의 원거리 물품 교역과 이동, 종교의 확산과 문화기술의 교류와 발전 등을 이룩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칭기스 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단순히 영토의 확장과 해당 지역 정권의 파괴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당시 몽골 유목민 사회에 필요한 물품을 정주세계로부터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며, 아울러 당시 몽골의 영향 하에 있던 각 지역 정권들이 서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통치 환경의 조성을 기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쟁에서 포로가 된 기술자와 농경민들을 몽골 초원을 비롯한 제국 각지에 안치시켜 다양한 수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몽골국의 세계정복 과정에서 독특한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되는 고려의 대응 양상과 그 과정 중에서 몽골 측이 요구했던 물품과 전쟁을 통해 약탈해 간 다양한 물품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사료에 보이는 거의 모든 물품은 대몽골국의 대칸들이 고려의 항복과 그 조건으로 내건 것들이며, 그 때마다 고려의 왕과 통치 계층들은 대칸의 대리인인 몽골 장군들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통해 최대한 고려의 국익과 운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자세를 취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아울러 고려에서 보낸 물품을 분석해봄으로써 당시 대몽골국 초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칭기스 칸 시기(재위 1206~1227년)<sup>1)</sup>

칭기스 칸 재위시기에 몽골과 고려 관계는 고려 高宗 五(1218)年 十二月, 거란의 유종(遺種)이 몽골과 동진국 군대에 쫓겨 고려 국경을 넘어오면서 시작되었다.<sup>2)</sup> 이에 다음 해(1219년) 一月에 고려의 조충과 김취려 등이 몽골과 동진국 군사와 더불어 강동성에 있던 거란 군사들을 항복시켰다. 뒤이어 몽골 장수 카친(哈眞)이 포리대완(蒲里岱完) 등 10명을 사신으로 보내 고려 측이 조서(詔書)를 가지고 와서 화친을 맺기를 청하였다.<sup>3)</sup> 이후 몽골 측 사신이 돌아갈 때 선물로 **금은 그릇[金銀器], 명주와 베[紬布], 수달피(水獺皮)**를 차등 있게 주었다.<sup>4)</sup> ... 몽고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일부는 **은(銀)**을 주고 고려 장수들의 **말[馬]**을 많이 빼앗아 갔다.<sup>5)</sup>

이 때 몽골과 고려가 맺은 화친을 ‘형제맹약(兄弟盟約)’으로 표현하지만, 그 실상은 강대국 몽골과 약소국 고려가 맺은 ‘항복 조약’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원사(元史)』에는 분명히 ‘고려왕 왕철(王暉, 高宗)이 드디어 항복하고 세공(歲貢)과 방물 바치기를 요청하였다.’고 기록하였다.<sup>6)</sup> 따라서 이후 몽골은 지속적으로 고려에게 ‘세공(歲貢)’을 바치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sup>7)</sup>

이어서 高宗 八(1221)년에 다시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 등이 와서<sup>8)</sup> 고려왕이 대관전(大觀殿)에서 조서를 맞이하였는데, 그들은 몽골 황태제(皇太弟)의 군지(鈞旨)

1) 고려 고종 원년(1214)~14년(1227)

2) 『고려사』 권22 세가 권제22 高宗 五年 十二月 己亥朔 蒙古元帥哈眞及札剌, 率兵一萬, 與東眞萬奴所遣完顏子淵兵二萬, 聲言討丹賊, 攻和·猛·順·德四城, 破之, 直指江東城.

3) 『고려사』 고종 6년 1월 庚寅; 『원사』 권208 열전95; 『원고려기사』 [태조황제] 1219(태조 14)년조.

4) 『고려사』 고종 6년 1월 辛卯; 『고려사절요』 권15 고종2 高宗 6년 1월

5) 『고려사절요』 권15 고종2 高宗 6년 2월

6) 『元史』卷1 本紀1 太祖13年 戊寅

7) 『고려사』 고종 6년 8월 壬辰; 『고려사절요』 권15 고종2 高宗 6년 8월

8) 『고려사』 고종 8년 8월 己未; 『원고려기사』 [태조황제] 16(1221)년 ; 『원사(元史)』 「외이전(外夷傳)

를 전하고, 수달피[獺皮] 10,000장, 가는 명주[細紬] 3,000필, 가는 모시[細苧] 2,000필, 솜[綿子] 10,000근, 용단먹(龍團墨) 1,000정, 붓 200자루, 종이 100,000장, 자초(紫草) 5근, 홍화(紅花)·남순(藍筍)·주홍(朱紅) 각 50근, 자황(雌黃)·광칠(光漆)·동유(桐油) 각 10근을 요구하였다.

저고여(著古與) 등이 군지를 전달한 다음 대관전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자 품속에 있던 물건을 꺼내어 왕 앞에 던져버렸는데, 모두 작년에 주었던 거친 명주[麤紬布]였다. 그리고는 결국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원수(元帥) 잘라[札刺]와 포흑대(蒲黑帶)의 서한을 한 통씩 꺼내놓았는데 모두 수달피, 가는 명주, 솜 등의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었다.<sup>9)</sup>

뒤이어 몽골은 高宗 十一(1224)年 一月에도 저고여(札[扎]古也=著古與) 등 사신을 보내 공납품을 바치도록 요구했으며, 몽골 사신들은 고려로부터 받은 예물[國贖禮物] 중에서 수달피[獺皮] 등 귀중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만 가져가고 나머지 비단[紬布] 등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갔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같은 해 十一月에도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 등 10명이 다시 사신으로 와 함신진(咸新鎭)에 이르렀다가<sup>11)</sup> 다음 해(1225) 一月에 몽골 사신이 서경(西京)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면서 다만 나라의 예물[國贖]인 수달 가죽[獺皮]만 가지고 가고 그 나머지 비단[紬布] 등의 물품은 모두 들에 버리고 갔는데, 도중에 도적에게 살해당하게 되자 몽골에서 도리어 고려를 의심하여 마침내 국교가 끊어지게 되었다.<sup>12)</sup>

이후 몽골과 고려 사이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몽골은 끊임없이 고려를 의심하여 압박하였고, 고려는 지속적으로 동진 변경민의 소행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몽골이 곧바로 고려를 침략하지 못한 것은 당시 몽골군이 중앙아시아 호레즘 원정에 진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칭기스 칸이 사망하고 뒤를 이어 대칸으로 즉위한 우구데이는 고려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응징을 목적으로 새로운 사령관인 살리타이[撒禮塔]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 툴로이 감국 시기(1227~1229)<sup>13)</sup>

### Ⅲ. 우구데이~구육 카안 시기

#### 1. 우구데이 카안 시기(재위 1229년 여름~1241년 11월)<sup>14)</sup>

高宗 十二(1225)年 一月에 저고여가 살해당하자 몽골은 끊임없이 고려를 압박하

9) 『고려사』 고종 8년 8월 甲子; 『고려사절요』 권15 고종2 高宗 8년 8월

10) 『고려사』 고종 11년 1월 丙午; 고종 11년 1월 癸丑; 『고려사절요』 권15 고종2 高宗 11년 1월

11) 『고려사』 고종 11년 十一月 乙亥; 『고려사절요』 권15 고종2 高宗 11년 11월; 『원고려기사』 [태조 황제] 19(1224)년

12) 『고려사』 고종 12년 1월 癸未; 『고려사절요』 권15 고종2 高宗 12년 1월

13) 고려 고종 14~16년

14) 고종 16년~28년

여 항복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바치라고 추궁하였다. 이에 고종은 백관들에게 명령을 내려 국가의 예물[國贐]을 보조하게 하였다.<sup>15)</sup>

칭기스 칸 시기에는 중앙아시아 원정과 뒤이은 탕구트[西夏] 원정 등으로 고려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229년 우구테이가 대칸으로 즉위한 이후, 1231年 八月에 살리타이[撒禮塔]를 군사사령관으로 파견하여 고려에 대한 침략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sup>16)</sup>

고려 원정군 총사령관인 살리타이는 곧 홍복원과 함께 아직 귀부하지 않은 주군을 공격하고 또 아르토[阿兒禿]로 하여금 홍복원과 함께 왕경(王京)에 가서 그 군주 왕철(王徹, 高宗)을 부르게 하니, 왕철이 그 동생 회안공(淮安公) 왕정(王旌)을 보내어 화친을 요청하므로, 허락하였다.<sup>17)</sup>

뒤이어 11월에는 원수(元帥) 포도(蒲桃), 적거(迪巨), 당고(唐古) 등이 이끄는 몽골군이 침략하자,<sup>18)</sup> 이에 어사(御史) 민희(閔曦)를 파견하여 몽골군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화친을 맺었다. 그때 살리타이[撒禮塔]는 안북도호부(安北都護府)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역시 사신 3인을 보내와 강화를 설득하였다. 왕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위로하였다.<sup>19)</sup>

배례(拜禮)가 끝나자 연회를 베풀어 몽골 측 사신과 군사들을 위로하고, 금은 그릇과 비단·모시 등의 물품을 세 원수에게 보내주고, 또 사자에게도 차등 있게 주었다. 회안공(淮安公) 왕정(王旌)을 보내 살례탑에게 토산물을 진하였다. 또 사람을 보내어 당고(唐古)·적거(迪巨) 및 살리타이의 아들에게 은(銀) 각 5근, 모시 10필, 추포(麤布) 2,000필, 말다래, 말 가슴걸이[馬纓] 등의 물건을 진하였다.<sup>20)</sup>

이외에도, 몽고 사신 8인이 와서 송골매와 암컷 새매[鷹鶴]를 요구하였으며,<sup>21)</sup> 또 살리타이[撒禮塔]는 그의 사자와 고려의 장군 조숙창(趙叔昌)을 보내 첩을 전하여 이르기를, “황제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고려에서 사신 저고여(著古與)를 죽인 이유 등 몇 가지 일을 묻게 하셨다.”라고 하였다. 인하여 말 20,000필, 동남동녀 수천인, 자주색 비단 10,000필, 수달피 10,000장과 군사의 의복을 요구하였다. 백관에게 차등 있게 옷을 내게 하였다.<sup>22)</sup>

아울러 봉황을 가득 새긴 뚜껑 있는 술주전자[滿鏤鳳盖酒子]와 술잔 받침[臺

15) 『고려사』 권79 「지」 권제33 食貨2 과립, 高宗 18년(1231)

16) 『고려사』 고종 18년 8월 壬午; 『원사』 권2 본기2 태종(太宗)·정종(定宗); 『원사』 권154 열전41; 『원고려기사』 [태종황제] 3(1231)년; 태종 3년(1231) 신묘 9월

17) 『元史』卷208 列傳95 外夷1 高麗 (元)太宗 3年 8月

18) 『고려사』 고종 18년 11월 辛亥;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18년 11월; 『원고려기사』 [태종황제] 3(1231)년 신묘 11월 29일

19) 『고려사』 고종 18년 12월; 『원사』 권208 열전95 (太宗三年) 十二月一日

20) 『고려사』 고종 18년 12월 乙卯;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18년 12월 蒙兵分屯京城四門外, 攻興王寺. 復遣閔曦犒之, 結和親. … 時, 撒禮塔屯安北都護府, 亦遣使來諭講和. … 王乃南面. 拜訖, 宴慰之, 以金銀器紬紵布等物, 贈送于三元帥, 又贈使者有差. 遣淮安公旌, 以土物, 遣撒禮塔. 又遣人, 遣唐古迪巨及撒禮塔之子銀各五斤紵布十匹麤布二千匹馬韉馬纓等物.

21) 『고려사』 고종 18년 12월 辛酉 蒙使八人, 來求鷹鶴;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18년 12월

22)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18년 12월 … 仍索馬二萬匹童男女數千人紫羅一萬匹水獺皮一萬領及軍士衣服. 令百官出衣有差.

蠶] 1벌, 가는 저포(紵布) 2필, 적색 말[駢馬] 1필, 은도금으로 장식한 말안장[鞍橋子], 수를 가득 놓은 말다래를 몽골의 당고트[唐古] 원수(元帥)에게 보내었다.<sup>23)</sup>

1231(고종 18)년 12월 갑술, 장군(將軍) 조숙창(趙叔昌)이 살리타이[撒禮塔]가 보낸 몽골 사신 9인과 함께 첩(牒)을 가지고 왔다. 첩에 이르기를,

몽고대조국(蒙古大朝國) 황제의 성지(聖旨)로 살리타이[撒里打] 코르치[火里赤]에게 명하여 대군을 이끌고 고려국에 나아가서, “어찌하여 저고여 사신을 살해하였는가”를 묻게 하였다. 삼가 성지를 받들어, 내가 명령을 내려 전초 기마병을 보냈고, 사신이 도착하니 항복하였다. … 내가 원하는 좋은 金銀, 좋은 진주, 수달피, 鵝嵐, 좋은 의복을 보내라. … 너희가 금·은과 의복을 보낼 때 많은 경우 이만 필을 말에 실어 보내고, 적을 경우 일만 필을 말에 실어 보내라. 우리 대군(大軍)은 집을 떠난 지 오래 되어 입은 옷이 모두 헤어졌으니 일백 만명의 군인의 옷을 너희가 참작하여 보내오라. 그밖에 너는 진품의 자색비단[眞紫羅] 일만 필을 진상해야 할 것이다. 네가 보낸 수달피 230장은 좋다. 그와 같은 것들을 보내라. 이제 좋은 수달피 이만 장을 가지고 오라. 너희는 관마(官馬) 중에서 선별하여 대마(大馬) 일만 필, 소마(小馬) 일만 필을 가지고 오라. 공주(公主)·대왕(大王) 등과 군주(郡主)들은 남아(男兒) 일천 명을 황제에게 진상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대관인(大官人)들의 여아(女兒)들도 역시 보내야 할 것이다. 너의 태자(太子)·장령(將領)·군(君)들의 아들[令子], 아울러 대관인의 남아 일천 명을 요구한다. 여아 역시 일천 명을 황제에게 인질로 진상해야 할 것이다. 네가 이 일을 함당하게 빨리 처리하고 네가 이후에 이 일을 일찍 끝내면 너의 백성과 강토가 평온하고 화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sup>24)</sup>

이후 몽골 사신이 나라의 예물로 황금 70근, 백금 1,300근, 유의(襦衣) 1,000벌, 말 170필을 가지고 돌아갔다. 장군 조시저(曹時著)를 보내 황금 19근, 백금 460근, 은병 116개와 사라(紗羅)·금수(錦繡) 등의 비단옷, 말안장 및 말 150필, 명주옷 2,000벌, 수달피 75장을 살리타이[撒禮塔]에게 주고, 또 황금 49근, 백금 1,420근, 은병 120개, 저포(紵布)·수달피·사라(紗羅)·유의(襦衣), 안장 갖춘 말 등의 물건을 휘하의 부하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조숙창(趙叔昌)에게 대장군의 관직을 더하여 주고, 함께 가서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저고여(著古與)를 죽인 일 등을 해명하게 하였다.<sup>25)</sup>

아울러 장군(將軍) 조시저(曹時著)를 파견하여 황금 12근 8냥과 금으로 만든 각종 술그릇으로 무게 7근, 백은 9근, 은으로 만든 각종 술그릇과 식기로 무게 437근, 은병(銀瓶) 160구, 수놓은 비단 옷 16벌, 자주색 비단으로 만든 옷 2벌, 은

23) 『고려사』 고종 18년 12월 丁丑 以滿鍍鳳蓋酒子·臺盞各一副, 細紵布二匹, 駢馬一匹, 銀鍍金粧鞍橋子, 滿繡轡, 遣唐古元帥;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18년 12월; 以金銀器鞍馬等物遣唐古.

24) 『고려사』 고종 18년 12월 甲戌

25) 『고려사』 고종 18년 12월 庚辰;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18년 12월; 蒙使齊國贖黃金七十斤白金一千三百斤襦衣一千領馬百七十四匹而還. 遣將軍曹時著, 以黃金十九斤白金四百六十斤銀瓶一百十六口紗羅錦繡衣鞍子及馬百五十四紵布衣二千領獺皮七十五領遣撒禮塔, 又以黃金四十九斤白金一千四百二十斤銀瓶一百二十口紵布獺皮紗羅襦衣鞍馬等物分贈麾下將佐.

으로 도금한 허리띠 2개, 명주 저고리 2,000벌, 수달가죽 75장, 금으로 장식한 안장을 갖춘 말 1필, 안장이 없는 말[散馬] 150필을 살리타이[撒禮塔]에게 보냈다. 또 금 49근 5냥과 은 341근, 은으로 만든 술그릇으로 무게 1,080근, 은병 120구, 가는 저포(紵布) 300필, 수달가죽 164장, 비단 저고리[綾紗襦衣], 안장을 올린 말 등의 물건을 처자(妻子) 및 휘하의 장수와 보좌관[將佐]인 14명의 관인에게 나누어 주었다.<sup>26)</sup>

여름 4월 임술 상장군(上將軍) 조숙창(趙叔昌)과 시어사(侍御史) 설신(薛愼)을 파견하여 몽고에 가게 하여 신하를 칭하는[稱臣] 표문을 올리고, 나(羅)·견(絹)·능(綾)·주(紵) 각 10필과 각종 금은으로 만든 술그릇[酒器], 그림을 그린 말다래[畫韉], 그림을 그린 부채[畫扇] 등의 물건을 바쳤다. 또 살리타이[撒禮塔]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금은으로 만든 그릇[金銀器皿], 비단[匹段], 수달 가죽[獺皮], 그림을 그린 부채[畫扇], 그림을 그린 말다래[畫韉] 등을 주고 휘하의 관원 16명에게까지 또한 차등 있게 주었다. 살리타이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르기를,

전에 보낸 바, 황제께 진상할 물건 가운데 수달피(水獺皮) 1,000장으로 좋은 것을 보내라 하였는데 … 오히려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겨우 977장을 바치니 널리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선 서한에서> 언급했던 국왕(國王)과 제왕(諸王), 공주(公主), 군주(郡主), 대관인(大官人)의 어린 남자아이[童男] 500명과 어린 여자아이[童女] 500명을 반드시 보내라 한 건에 관해서는, … 또 나라가 좁고 작기[褊小] 때문에 신료(臣僚) 가운데 조정의 반열에 있는 자 또한 많지 않고, 그들이 취한 아내도 1명의 처에 불과하니 소생이 없거나 있더라도 많지 않습니다. … 또 언급했던 여러 종류의 공장(工匠)을 보내라는 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공장(工匠)은 예로부터 부족합니다. … ”라고 호소하였다.<sup>27)</sup>

갑자 교위(校尉) 송득창(宋得昌)이 지의심(池義深) 일행[行李]에서 도망쳐 와서 이르기를, “지의심이 살리타이[撒禮塔]의 진영에 이르자 살리타이 노하여 말하기를, ‘예전에 보냈던 공문[文牒]에 있는 것들을 어찌하여 준비해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몽고> 황제가 있는 곳으로 지의심을 잡아 보내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가두었습니다.”라고 하였다.<sup>28)</sup> 얼마 후, 살리타이[撒禮塔]가 처인성(處仁城)을 공격하였는데, 병란을 피해 성 안에 있던 한 승려가 활을 쏘아 살리타이를 죽였다.<sup>29)</sup>

26) 『고려사』 고종 18년 12월 遣將軍曹時著, 以黃金十二斤八兩, 多般金酒器重七斤, 白銀二十九斤, 多般銀酒食器重四百三十七斤, 銀瓶一百十六口, 紗羅錦繡衣十六, 紫紗襖子二, 銀鍍金腰帶二, 及紵布襦衣二千, 獺皮七十五領, 金飾鞍子具馬一匹, 散馬一百五十四, 遣撒禮塔. 又以金四十九斤五兩, 銀三百四十一斤, 銀酒器重一千八十斤, 銀瓶一百二十口, 細紵布三百匹, 獺皮一百六十四領, 綾紗襦衣, 鞍馬等物, 分贈妻子, 及麾下將佐十四官人.

27) 『고려사』 권23 세가 권제23 고종 19년 夏四月 壬戌;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19년 4월; 이후 高宗은 十九(1232)年 五月 의복과 음식, 그릇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고려사』 권85 지 권제39 刑法2 금령 高宗十九年五月, 禁衣食器皿華侈.

28) 『고려사』 권23 세가 권제23 고종 19년 6월 甲子

29) 『고려사』 권23 세가 권제23 고종 19년 12월 미상(음) 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之; 『元史』卷2 本紀2 太宗4年 壬辰 8月 미상(음)

이후에도 몽골은 끊임없이 사신을 파견하여<sup>30)</sup> 고려를 압박하는 동시에 고려 왕의 입조(入朝)를 요구하였다.<sup>31)</sup> 이에 고려는 몽골에 사신을 보내 표문(表文)을 바치며,<sup>32)</sup> 동시에 준비해 간 토산물을 바쳤다.<sup>33)</sup> 결국 二十六年 十二月과 三十二年 十月에는 신안공(新安公) 왕전(王佺)을 파견하였고, 二十八(1241)年 여름 四月에 왕의 조카[族子]인 영녕공(永寧公) 왕준(王綽)을 왕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몽골에 들어가 투르카[禿魯花, 볼모]이 되게 하였다.<sup>34)</sup> 아울러 고려에 온 몽골 사신들이 돌아갈 때는 금, 은, 모피, 비단을 선물하였다.<sup>35)</sup>

몽골은 우구데이 카안 재위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고려를 압박하며 고려왕의 친조와 예물, 공납품을 요구하고 약탈해갔으며, 군사 원정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고려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고, 외교적 위기도 고조되었다.

\*투레게네 카툰 감국 시기(1242년1월~1246년7월)<sup>36)</sup>

## 2. 구육 카안 시기(재위 1246년 7월~1248년 3월)<sup>37)</sup>

1241년 11월에 우구데이 카안이 사망하자 유라시아에 걸쳐 원정을 수행하고 있던 모든 몽골군은 일시에 원정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칸을 선출하기 위해 몽골 초원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결국 오랜 쿠빌타이 끝에 어머니인 투레게네 카툰의 도움으로 1246년 7월에 구육이 대칸으로 추대되었다. 대칸의 자리에 오른 구육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대외원정을 계속하였으며, 또한 고려 원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1247년 가을 7월. 몽골 원수 아모간(阿母侃)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염주(鹽州)에 주둔하였으며,<sup>38)</sup> 지난 해(1246년) 겨울에는 몽골인 400인이 북쪽 변방의 여러 성(城)으로 들어와 수안현(遂安縣)에 이르기까지 수달을 잡는다는 핑계를 대며 산천의 구석진 깊숙한 곳까지 몰래 엿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sup>39)</sup>

한편, 고려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신을 보내 몽골 측의 정세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40)</sup> 그러는 와중에 <기유> 36년(1249) 봄 정월 무신 북계병마사(北界兵馬使)가 몽고 황제가 죽었다고 급히 보고하였는데, 이 사람이 구육(定宗)이

30) 『고려사』 고종 26년 4월

31) 『고려사』 고종 27년 秋九月 新安公佺, 與蒙古多可·坡下道·阿叱等十七人, 賫詔來, 復諭入朝;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27년 秋九月.

32) 『고려사』 고종 26년 六月

33) 『고려사』 권23 세가 권제23 고종 30년 春正月 庚子;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30년 1월

34) 『고려사』 고종 28년 (辛丑)二十八年 夏四月 以族子永寧公綽稱爲子, 率衣冠子弟十人入蒙古, 爲禿魯花. 遣樞密院使崔璘, 將軍金寶鼎, 左司諫金謙伴行, 禿魯花華言質子也; 『원사』 권120 열전7; 『원사』 권166 열전53;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28년 夏四月.

35) 『고려사』 권23 세가 권제23 고종 29년 12월 庚午;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29년 十二月.

36) 고려 고종 29~33년

37) 고려 고종 33~35년

38) 『고려사절요』 권16 高宗3 高宗 34년 秋七月; 『원고려기사』 [정종황제] 2(1247)년 丁未

39) 『고려사』 고종 34년 8월; 『고려사』 고종 35년 10월

40) 『고려사』 고종 35년 (戊申)春二月; 『고려사』 고종 35년 10월

다.41)

그런데, 이 기록은 1년 정도 늦은 것으로, 구육 카안은 이미 1248년 3월경에 중앙아시아 원정 도중에 사망했던 것이다. 이후 몽골 조정은 구육 카안의 부인 오굴 카이미시 카툰이 감국으로 1248년 3월경부터 1251년 6월에 몽케가 다음 대칸으로 선출될 때까지 칭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고려 측에서는 구육 카안이 사망한 뒤에도 몽골의 정세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계속 사신을 파견하였다.42) 1250년 3월 계미에는 최장저(崔章著)가 몽고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몽고[北朝]가 종친(宗親)과 홍복원(洪福源) 아버지를 입조(入朝) 하라고 한다고 하였다.43)

(1250년)경자 몽고 사신 다가(多可)와 무로손(無老孫) 등 62인이 와서 〈고려가〉 출륙(出陸)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승천부관(昇天府館)에 도착하여 왕이 강화도 밖으로 나와 맞이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왕이 나가지 않고 신안공(新安公) 왕전(王侗)을 보내어 〈몽고 사신을〉 강도(江都)로 맞아들였다.44)

그러자 병진에 몽고 사신 홍고이(洪高伊) 등 48인이 와서 승천관(昇天館)에서 말하기를, “왕의 강화에서 나와서 맞이하는 것을 기다려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였다.45) 기미 왕이 제포궁(梯浦宮)에서 〈몽고 사신을〉 맞이하였다.46)

〈신해〉 38년(1251) 봄 정월 임술 초하루 왕이 제포궁에서 홍고이(洪高伊)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홍고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북쪽 변방이 매우 심하게 파괴되어서 마치 집에 울타리가 없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옛 수도를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강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굳게 지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니, 제가 돌아가서 **황후**께 아뢰어 고려가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그를 후하게 대접하였다.47)

여기서 홍고이가 언급한 **황후**가 바로, 사망한 구육 카안의 미망인이며 당시 몽골의 감국(監國)인 오굴 카이미시 카툰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굴 카이미시 카툰 감국(1248년3월~1251년 6월)48)

41) 『고려사』 고종 36년 1월; (己酉)三十六年 春正月 戊申 北界兵馬使馳報, 蒙古皇帝崩, 是爲**定宗**.

42) 『고려사』 고종 36년 4월 庚戌; 『고려사』 고종 36년 6월 癸丑; 『고려사』 고종 37년 (庚戌)春正月 癸巳; 『고려사』 고종 37년 2월 己未; 『고려사』 고종 37년 7월; 『고려사』 고종 38년 2월 癸丑

43) 『고려사』 고종 37년 三月 癸未

44) 『고려사』 고종 37년 6월 庚子

45) 『고려사』 고종 37년 12월 丙辰

46) 『고려사』 고종 37년 12월 己未

47) 『고려사』 고종 38년 (辛亥)春正月 壬戌朔 王在梯浦宮, 宴洪高伊. 高伊謂王曰, “國之北鄙, 殘破已甚, 如家無藩籬, 何可復都舊京? 宜據江以自固, 我當歸奏**皇后**, 無令東擾.” 王悅待之彌厚.

48) 고종 35~38년

#### IV. 몽케 카안 시기(재위 1251년 6월~1259년 7월)<sup>49)</sup>

우여곡절 끝에 1251년 여름에 대칸으로 즉위한 몽케는 남송(南宋) 정벌과 함께 고려 또한 복속시키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여<sup>50)</sup> 정세를 살피고<sup>51)</sup> 뒤이어 예쿠[也古~耶虎]를 사령관으로 하여 몽골군을 파견하였다.<sup>52)</sup>

고려 측에서는 왕이 재추(宰樞) 및 4품 이상 문무 관료에게 명령하여 몽고의 조서(詔書)에 회답하는 문제를 의논하게 하였고<sup>53)</sup> 고종 39년(1252) 봄 정월에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이현(李峴)과 시랑(侍郎) 이지위(李之蔚)를 몽골로 파견하였다.<sup>54)</sup>

이어 몽골에서는 고종 39(1252)년 7월에 사신 다가(多可)와 아토(阿土) 등 37인을 파견하였다. 몽고 황제가 다가 등에게 비밀스럽게 명하기를[勅], “네가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왕이 육지로 나와 맞이하면 비록 백성들은 〈육지로〉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군대를 내어 토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가 등이 오자 왕은 신안공(新安公) 왕전(王侁)을 〈육지로〉 내보내어 몽고 사신을 맞이하게 하고, 몽고 사신에게 체포관(梯浦館)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고서 왕이 나와 맞이하였다. 연회가 끝나기도 전에 다가 등은 왕이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승천관(昇天館)으로 돌아갔다.<sup>55)</sup>

다음해인 1253년 5월에 몽고 야굴(也窟, 예쿠) 대왕이 보낸 아두(阿豆) 등 16인이 왔다. 왕이 체포궁(梯浦宮)에서 맞이하고 금·은과 포백(布帛)을 차등 있게 선물로 주었다.<sup>56)</sup>

그러나 두 달 후인 7월에 북계병마사(北界兵馬使)가 보고하기를 “몽고군이 압록강(鴨綠江)을 건넜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5도(道) 안찰사(按察使) 및 3도 순문사(巡問使)에게 이첩(移牒)하여 거주민[居民]을 독려하여 산성(山城)과 바다 섬으로 입보(入保)하게 하였다.<sup>57)</sup>

뒤이어 8월 무오에 몽고 원수(元帥) 예쿠[也窟]가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조서(詔書)를 전하였다. 그 조서에서 여섯 가지 일로써 책망하여 말하기를,

“짐은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무릇 백성들이 있으면 모두 편안히 즐겁게 하려 하는데, 너희들이 명을 거역하는 까닭에 황제의 숙부[皇叔]인 예쿠에게 명하여 군대를 통솔하여 가서 너희를 토벌하게 하였다. 만약 명을 받아 성심으로 복종[納款]한다면 군대를 파하여 되돌리겠으나 만약 명을 거역한다면 짐은 절

49) 고려 고종 38~46년

50) 『고려사』 고종 38년 10월 戊申; 『고려사절요』 권17 高宗4 高宗 38년 冬十月.

51) 『원사』 권167 열전54 歲辛亥

52) 『元史』 卷3 本紀3 憲宗2年 壬子 冬10月; 『元史』 卷3 本紀3 憲宗3年 癸丑 冬12月

53) 『고려사』 고종 38년 10월 丙辰

54) 『고려사』 고종 39년 (壬子)春正月 丙午

55) 『고려사』 고종 39년 7월 戊戌

56) 『고려사』 고종 40년 丙申; 『고려사절요』 권17 高宗 40년 五月. 蒙古也窟大王遣阿豆等十六人來. 王迎于梯浦宮, 贈金銀布帛有差.

57) 『고려사』 고종 40년 7월 甲申

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58)</sup>

이에 고려왕은 낭장(郎將) 최동식(崔東植)을 예쿠의 진영에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나라[小邦]가 신하로써 상국(上國)을 섬긴 이래 한 마음일 뿐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힘을 다해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왔으며[供職], <상국의> 보살핌에 힘입어 만세토록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천자의 군대가 저희나라[弊邑]에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온 나라가 경계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삼가 대왕께서는 나의 간절한 성의를 믿고 가엽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예쿠는 토산(土山)에 있었는데 국서(國書)를 받자 사람을 시켜 최동식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는 국왕이 노병(老病)을 핑계로 입조(入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왕이 올 것인지 아닌지를 6일 이내에 다시 와서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최동식이 대답하기를, “전쟁 중인데 주상께서 어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예쿠가 말하기를, “그대는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였다.<sup>59)</sup>

위의 사료를 보면, 몽골 측에서는 고려왕이 친조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고려 측에서는 이러저러한 다양한 핑계를 대며 입조를 거부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몽골군은 군사력을 이용해 고려를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고려의 항복을 받기 위해 성을 함락한 다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갔다.<sup>60)</sup>

고려 측은 9월에 대장군(大將軍) 고열(高悅)을 보내어 예쿠[也窟]대왕에게 서한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나라[小邦]에서는 황제의 뜻을 감히 어길 수 없어 이미 승천부(昇天府) 백마산(白馬山) 아래에 성곽을 쌓고 궁궐(宮室)을 지었습니다. 다만 동북계(東北界)의 수달을 사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두려워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군(大軍)이 국경으로 들어오니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궁핍히 살피셔서 군사를 되돌리신다면 우리 백성[東民]들은 모두 안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내가 직접 신료를 데리고 <육지로> 나가 황제의 명령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신 한두 명을 보내 살펴보신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금은으로 만든 술그릇[金銀酒器]과 비단[羅紬], 모시베[紵布], 수달피[獺皮], 삿갓과 허리띠[笠帶] 등의 물건을 보내 장수인 아모간(阿母侃) 등에게도 모두 주었다. 예쿠가 고열과 최동식(崔東植)을 억류하고 이송무(李松茂)를 보내 이르기를,

58) 『고려사』 고종 40년 8월 戊午

59) 『고려사』 고종 40년 8월 己未

60) 『고려사절요』 권17 高宗4 高宗 40년 8월

“너희 나라의 모든 성에서 항복하는 문서[降牒]를 받아 오라.”라고 하였다. 재추(宰樞)가 회의한 뒤 대답하기를, “대군(大軍)이 만약 돌아간다면 임금과 신하가 육지로 나갈 것인데, 주현(州縣)이야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하였다.<sup>61)</sup>

고열(高悅)이 돌아와 말하기를, “예쿠[也窟]가 말하기를, ‘국왕이 조서(詔書)에서 말한 것처럼 〈육지로〉 나와 항복한다면 당연히 군사를 돌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전(一戰)을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sup>62)</sup>

결국 고려 측에서는 10월 신미에 재추(宰樞)로 치사(致仕)한 관료 및 문·무 4품 이상 관료에게 명령하여 몽고군을 철수시킬 계책을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가 말하기를, “태자(太子)가 육지로 나가서 항복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 왕이 노여움을 조금 풀고 말하기를, “재추들이 잘 도모하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sup>63)</sup>

예쿠[也窟]가 충주(忠州)에 있던 중 병이 들었는데, 점쟁이가 말하기를, “〈여기에〉 오래 머물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예쿠가 아모간(阿母侃)과 홍복원(洪福源)을 남겨 두어 지키게 하고 정예기병 1,000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영안백(永安伯) 왕희(王僖) 등이 개경[舊京] 보정문(保定門) 밖까지 쫓아가 국신예물(國贖禮物)을 주며 군대의 철수를 간청하였다. 예쿠는 꾸짖으며 말하기를, “국왕이 강화도 밖으로 나와서 나의 사신을 영접하면 군사도 철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몽골타이[蒙古大] 등 10인을 보내왔다.<sup>64)</sup>

11월 무인 영안백(永安伯) 왕희(王僖)와 복야(僕射) 김보정(金寶鼎)을 보내 예쿠[也窟]와 아모간(阿母侃), 우열(于悅), 왕만호(王萬戶), 홍복원(洪福源) 등에게 편지를 보내고 토산물[土物]을 전하였다.<sup>65)</sup>

같은 달 신묘일에 왕이 강화도에서 나와서 승천부(昇天府)의 새 궁궐에서 〈몽고 사신을〉 영접하였으며 야별초(夜別抄) 80인이 갑옷[衷甲]을 입고 따랐다. 몽골타이[蒙古大]가 왕에게 말하기를

“대군(大軍)이 고려 땅에 들어온 이래 하루에 죽는 이가 몇 천, 몇 만을 헤아리는데, 왕은 어찌 자기 한 몸만 아껴서 만민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왕이 만약 일찍 〈육지로〉 나와 맞이했다면 어찌 무고한 백성들이 간과 내장을 땅에 쏟아내며 죽었겠습니까? 예쿠[也窟] 대왕의 말은 곧 황제의 말씀이고, 내 말은 곧 예쿠 대왕의 말입니다. 지금부터 만세토록 화친을 맺는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61) 『고려사』 고종 40년 9월 戊寅; 『고려사절요』 권17 高宗4 高宗 40년 9월; 九月. 遣大將軍高悅致書也窟曰, “小邦不敢違忤聖旨, 已於昇天府白馬山下築城郭營宮室. … 惟大王矜恤班師, 俾我東民悉皆按堵, 則當明年躬率臣僚, 出迎帝命. …” 仍遣金銀酒器羅紬紵布獺皮笠帶等物. 其諸將阿母侃等亦皆贈遺. …”

62) 『고려사』 고종 40년 9월 甲辰

63) 『고려사』 고종 40년 10월 辛未

64) 『고려사』 고종 40년 11월

65) 『고려사』 고종 40년 十一月 戊寅

마침내 흥겹게 술을 마시고 돌아갔고 왕은 강도(江都)로 돌아왔다.<sup>66)</sup> 정유(也窟, 예쿠)이 사람을 보내어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을 설치하는 것과 성을 헐어버리는 일에 대해 말하였다. 그 관인(官人)인 호화(胡花)는 또 **금은(金銀)**과 **수달피[獺皮]**, **모시베[紵布]** 등의 물건을 요구하였다.<sup>67)</sup>

11월 무술, 왕이 야굴(也窟, 예쿠)에게 보낸 답서에서 말하기를,

“전에 복야(僕射) 김보정(金寶鼎還)이 돌아올 때 대왕께서는 만약 〈육지로〉 나와서 사신을 맞이한다면 즉시 회군(回軍)하겠다고 하시고 그에 따라 몽고대(蒙古大, 몽구다이) 등 10인을 보내 왔습니다. 생각해보건대 국왕이 직접 나가 사신을 영접하는 것은 근래 그러한 예가 없었고, 하물며 날씨가 춥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늙고 병든 몸으로 어찌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대왕의 편지[明教]를 받아 보니 군대 일만 명을 잔류시키고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설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청하건대 이 일을 중지하여 우리 백성들[東民]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을 허무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 즉시 허물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sup>68)</sup>

〈몽고〉 관인(官人) 호화(胡花)에게 보낸 답서에서 말하기를

“필요하시다고 한 **금은(金銀)**은 예로부터 우리나라[小邦]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공납(貢納)으로 바치는 것은 여전히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달피[獺皮]**와 **모시베[紵布]**는 전쟁이 일어난 이후 백성들이 모두 놀라고 숨어버려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소략하나마 신뢰의 표지로 별지(別紙)에 적은 바와 같이 갖추어 보냅니다.” 라고 하였다.<sup>69)</sup>

12월 임신,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淸)을 파견하여 몽고로 가게 하고,<sup>70)</sup> 다음해(1254년) 1월 정축,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淸)이 몽고 진영에서 잔치를 열어 음악을 연주하면서 군사를 대접하니 아모간(阿母侃, 아무간)이 군대를 철수하였다.<sup>71)</sup> 윤6월 기묘 중서사인(中書舍人) 김수정(金守精)을 파견하여 몽고로 가게 하였다.<sup>72)</sup> 안경부 전첨(安慶府典籤) 민인해(閔仁解)가 몽고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몽고황제가 **잘라이르타이[車羅大]**에게 고려[東國]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sup>73)</sup>

66) 『고려사』 고종 40년 11월 辛卯

67) 『고려사』 고종 40년 11월; 丁酉 也窟遣人來, 言置達魯花赤, 及坼城子事, 其官人胡花亦索**金銀·獺皮·紵布**等物.

68) 『고려사』 고종 40년 11월 戊戌

69) 『고려사』 고종 40년 11월; 答胡花官人書曰, “其所須**金銀**, 自昔不產於小邦, 其於納貢, 猶未易辦, **獺皮·紵布**, 自興兵以來, 民皆驚竄, 難以做辦. 今略爲信, 具如別紙.”

70) 『고려사』 고종 40년 12월 壬申

71) 『고려사』 고종 41년 1월 丁丑

72) 『고려사』 고종 41년 윤6월 己卯

73) 『고려사』 고종 41년 7월 安慶府典籤閔仁解還自蒙古言, “帝使車羅大主東國.”

무오 몽고 사신 다가(多可) 등 50인이 문서[文牒]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국왕은 이미 육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중(侍中) 최항(崔沆)과 상서(尙書) 이응렬(李應烈)·주영규(周永珪)·유경(柳璈) 등은 나오지 않았으니 이것이 진짜 항복한 것인가?” 라고 하고는 이어 항복한 성의 관리들을 죽인 일을 질책하였다. 왕이 조방언(趙邦彦)과 정신단(鄭臣旦)을 역마[乘傳]로 서울로 불러들여 다가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sup>74)</sup>

다가(多可)가 돌아가는데 그 편에 표문(表文)을 붙여 보내어 이르기를,

“황제의 사신(王人)이 갑자기 내려와 황제(聖訓)의 말씀을 전하니 온 나라가 황공하여 하늘을 우리러 울부짖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우리 같은 노여움을 누그러뜨리시고 해와 달 같은 밝은 눈으로 직접 보고 간 사신들의 보고를 들으시며 참소하는 자들의 망령스런 소리[妄訴]를 잘 살펴주십시오. 국경을 넘어 온 날랜 기병들을 일시에 모두 철수시키셔서, 강을 건너 육지로 나온 우리나라[弊封]를 만세토록 영구히 보존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때 다가가 속여 말하기를, “내가 돌아가면 대병(大兵)도 철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라에서는 이 말을 믿고 주현(州縣)에서 그를 호송(護送)하게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온 고을이 약탈당한 곳이 많았다.<sup>75)</sup>

기축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淸)이 몽고에서 돌아왔는데, 몽고 사신 10인도 함께 왔다. 왕이 제포(梯浦)에 행차하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몽고 사신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신(臣) 등에게 명하시기를 안경공을 보호하여 함께 가라 하였으므로 일만 리의 험한 길[萬里風塵]이 평안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오늘 다행히 무사하게 귀국하였으니 우리들은 매우 기쁩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 술잔을 올리겠다고[獻酌] 요청하므로 왕이 허락하였다.<sup>76)</sup>

임진 대장군(大將軍) 이장(李長)에게 명령하여 몽고군 주둔지인 보현원(普賢院)으로 가서 잘라이르타이와 여속독(余速禿), 보파대(甫波大) 등 원수(元帥)들과 영녕공(永寧公) 왕준(王綽), 홍복원(洪福源)에게 **금은으로 만든 술그릇[金銀酒器]**과 **가죽과 비단**을 차등 있게 주게 하였다. 이장이 아뢰기를, “잘라이르타이가 말하기를, ‘군신과 백성이 육지로 나오면 그 머리를 모두 깎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국왕을 데리고 돌아갈 것이다. 따르지 않는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군대는 돌아갈 기약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sup>77)</sup>

기유 어사(御史) 박인기(朴仁基)를 보내 잘라이르타이[車羅大] 주둔지에 **술과 과일 및 비단**을 선물로 주었다.<sup>78)</sup>

74) 『고려사』 고종 41년 7월 戊午

75) 『고려사』 고종 41년 7월

76) 『고려사』 고종 41년 8월 己丑

77) 『고려사』 고종 41년 8월 壬辰 命大將軍李長, 詣蒙兵屯所普賢院, 贈車羅大·余速禿·甫波大等元帥, 及永寧公綽·洪福源, **金銀酒器·皮幣**, 有差; 『고려사절요』 권17 高宗4 高宗 41년 8월

78) 『고려사』 고종 41년 9월; 己酉 遣御史朴仁基, 至車羅大屯所, 贈**酒果及幣**.

갑오 최린(崔麟)이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섬주(陝州)의 단계(丹溪)에서 잘라이르타이[車羅大]를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최항(崔沆)이 왕을 모시고 육지로 나온다면 군대를 철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하였다.<sup>79)</sup>

이 해(1254년)에 몽고군에 포로가 된 남녀는 무려 206,800여 인이었고, 살육당한 사람들은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몽고군이> 지나가는 주군(州郡)은 모두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으니 몽고 군사의 난이 시작된 이래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sup>80)</sup>

평장사(平章事) 최린(崔麟)을 파견하여 몽고로 가서 토산물[方物]을 바치게 하고 이어서 군대의 철수를 간청하였다. 그 표문(表文)에서 말하기를,

“황제의 위엄이 먼 곳까지 다다르고 황제의 훈계가 자주 내려오니 몸 둘 곳을 몰라 사실대로 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황제폐하께서는 하늘같이 큰 도량을 베푸셔서, 작은 실수를 큰 잘못으로 꾸며 말하는[貝錦] 참소를 살피시어 속히 군대를 철수하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다들 어진 교화를 받들어 새 삶을 얻어 <육지로> 나가 살 것이며, 후손들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히 직책을 수행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81)</sup>

정미 북계(北界)에서 몽고 기병 300여 명이 용강현(龍岡縣)과 함종현(咸從縣) 등지로 쳐들어와 농민들의 소와 말을 약탈해갔다고 보고하였다.<sup>82)</sup>

갑술 시어사(侍御史) 김수강(金守剛)과 낭장(郎將) 유자필(庾資弼)을 파견하여 몽고로 가서 토산물[方物]을 바치게 하였다.<sup>83)</sup>

임신 신집평(愼執平)이 몽고군 진영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잘라이르타이[車羅大]와 영녕공(永寧公)이 말하기를, ‘만약 국왕이 육지로 나와 사신을 맞이하고 왕태자가 황제가 있는 곳으로 친히 입조(入朝)한다면 군대를 철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을 <근거로> 군대를 철수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차라대와 영녕공은 담양(潭陽)에 주둔하고 있었고, 홍복원(洪福源)은 해양(海陽)에 주둔하고 있었다.<sup>84)</sup>

5월. 신집평(愼執平)이 나주(羅州)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잘라이르타이[車羅大]가 노하여 말하기를, ‘만약 화친하고자 한다면 너희 나라는 어찌 우리 병사들을 많이 죽이느냐. 죽은 자는 어쩔 수 없지만 생포된 자는 돌려보내라.’라고 하고, 또 30인을 동반해서 가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승천부(昇天府)의 궁궐에서 연

79) 『고려사』 고종 41년 12월 甲午

80) 『고려사』 고종 41년 미상; 是歲, 蒙兵所虜男女, 無慮二十萬六千八百餘人, 殺戮者, 不可勝計. 所經州郡, 皆爲煨燼, 自有蒙兵之亂, 未有甚於此時也; 『고려사절요』 권17 高宗4 高宗 41년 12월(미상)

81) 『고려사』 고종 42년 1월

82) 『고려사』 고종 42년 5월 丁未

83) 『고려사』 고종 42년 6월 甲戌

84) 『고려사』 고종 43년 4월 壬申

회를 베풀고, 금은(金銀)·포백(布帛)·주기(酒器) 등의 물건을 주었다.<sup>85)</sup>

(1256년) 9월에 몽고 황제[몽케 카안]가 서지(徐趾)를 보내와 군대를 철수하라고 명령하였고,<sup>86)</sup> 이에 잘라이르타이[車羅大] 등이 군대를 거두어 북쪽으로 돌아갔다.<sup>87)</sup>

10월 갑신, 잘라이르타이[車羅大]의 휘하[管下]인 동경총관(東京總管) 송산(松山)이 아내와 하인[僉從] 5인을 데리고 와서 투항하였다. ... 이에 **집 1채[區]**와 **미곡(米穀)**, **그릇[器物]**, **포백(布帛)**, **남자 종과 여자 종을 각각 3구씩** 하사하였다.<sup>88)</sup>

병진 재추(宰樞)가 의논하여 몽고가 해마다 병란을 일으키니 힘을 다해 섬겨도 이익이 없으므로 봄에 정기적으로 보내던 **공물을 정지**하였다.<sup>89)</sup>

몽고군이 남경(南京)까지 가자 이응(李凝)을 보내 군대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보파대(甫波大)가 말하기를, “떠날 것인지 머물 것인지는 차라대(車羅大, 자릴타이)의 처분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sup>90)</sup>

임신 김식(金軾)이 잘라이르타이의 진영인 안북부(安北府)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잘라이르타이가 말하기를, ‘왕이 만약 친히 나온다면 나는 즉시 군대를 철수할 것이다. 또한 왕자로 하여금 입조(入朝)하게 한다면 영원히 후환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sup>91)</sup>

재추(宰樞) 등이 왕자를 파견하여 몽고와 강화를 맺자고 요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다가 최자(崔滋)와 김보정(金寶鼎)이 힘껏 청하자 허락하였다. 재추가 먼저 종친을 파견하여 상황을 살펴본 후에 <왕자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아뢰었으므로, 이에 영안공(永安公) 왕희(王僖)를 보내 잘라이르타이[車羅大]에게 **은병(銀瓶) 100개와 술과 과일** 등의 물품을 주었다.<sup>92)</sup>

영안공(永安公) 왕희(王僖)가 잘라이르타이 진영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잘라이르타이가 묻기를 ‘어찌 왔는가?’하기에 대답하기를, ‘대인께서 남하한 군대를 불러들이고 또 곡식을 짓밟지 못하도록 금지하시니 국왕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신을 보내 술 1잔[觴]을 올리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차라대가 말하기를 ‘태자가 도착하는 날 진영을 봉주(鳳州)로 물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sup>93)</sup>

무자 재추(宰樞)가 태자를 보내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자고 아뢰었으나 왕은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였다. 재추가 또 김식(金軾)을 보내 잘라이르타이[車羅大]에게 고하기를 “대군(大軍)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태자가 황제가 있는 곳으로 친조(親朝)

85) 『고려사』 고종 43년 5월; 壬寅; 『고려사절요』 권17 高宗4 高宗 43년 五月; 『고려사』 고종 43년 5월; 甲辰 王幸昇天闕, 宴客使, 仍贈金銀·布帛·酒器等物有差.

86) 『고려사』 고종 43년 9월

87) 『고려사』 고종 43년 9월 庚戌

88) 『고려사』 고종 43년 10월 甲申... 於是, 賜宅一區及米穀·器物·布帛·奴婢各三口.

89) 『고려사』 고종 44년 1월 丙辰 宰樞議以蒙國連歲加兵, 竭力事之無益, 停春例進奉.

90) 『고려사』 고종 44년 6월

91) 『고려사』 고종 44년 7월 壬申

92) 『고려사』 고종 44년 7월 ... 乃遣永安公僖, 贈車羅大銀瓶一百·酒果等物; 『고려사절요』 권17 高宗4 高宗 44년 7월

93) 『고려사』 고종 44년 7월

를 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차라대가 허락하며 말하기를 “회군(回軍) 한 후 왕자는 송산(松山) 등과 함께 와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승천부(昇天府), 갑곶강(甲串江) 밖 및 여러 섬에 있는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을 금하였다.<sup>94)</sup>

임신 김수강(金守剛)이 몽고에서 돌아왔다. 김수강이 〈몽고 황제에게〉 군대의 철수를 간청하자 황제가 그것을 허락하고 이에 사신을 파견하여 김수강과 함께 오게 하였다.<sup>95)</sup>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滄)과 좌복야(左僕射) 최영(崔永)을 파견하여 몽고로 가게 하였다.<sup>96)</sup>

5월 갑인 왕이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바다를 건너 승천부(昇天府)의 궁궐에 거둥하여 잘라이르타이[車羅大]가 보낸 사신 파양(波養) 등 9인을 접견하였다.<sup>97)</sup>

기축 몽고 여수달(余愁達)과 보파대(甫波大) 등이 각각 기병 1,000명을 이끌고 와가주(嘉州)와 곽주(郭州)에 주둔하였다.<sup>98)</sup>

을미 잘라이르타이[車羅大]가 파호지(波乎只) 등 6인을 보내왔다.<sup>99)</sup> 병신 왕이 제포관(梯浦館)에 행차하여 파호지(波乎只)를 접견하였다. 〈파호지가〉 잘라이르타이[車羅大]의 말을 전하기를, “황제께서 명령하시기를, ‘고려국이 육지로 나와서 항복하려는 것이 틀림없다면 비록 닭이나 개라 할지라도 한 마리도 죽이지 말라. 그렇지 않다면 섬을 공격하여 파괴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국왕과 태자가 서경(西京)으로 나와 항복한다면 곧바로 군대를 철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늙고 병들어서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영안공(永安公) 왕희(王僖)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보정(金寶鼎)을 파견하여 차라대 진영으로 가게 하였다.<sup>100)</sup>

갑진 몽고 척후기병이 염주(鹽州)와 배주(白州) 등지에 이르렀고, 여수달(余愁達)의 군대는 평주(平州) 보산역(寶山驛)에 주둔하였다. 김보정(金寶鼎)이 여수달이 보낸 사신 8인과 함께 왔다.<sup>101)</sup>

정미 왕이 제포관(梯浦館)으로 행차하였다. 김보정(金寶鼎)이 아뢰기를, “여수달(余愁達)이 신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 고려에 관한 일을 나와 잘라이르타이[車羅大]에게 맡긴 것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 나는 당신네 나라의 항복 여부에 따라 떠날 것인지 머물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국왕이 비록 육지로 나와 맞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태자를 보내 군사들 앞에서 항복하면 그날로 군대를 철수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대를 풀어서 남쪽 지역으로 진격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대답하기를 ‘태자께서 당연히 와서 만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

94) 『고려사』 고종 44년 8월 戊子

95) 『고려사』 고종 44년 9월; 壬申 金守剛, 還自蒙古. 守剛懇乞回軍, 帝許之, 仍遣使與守剛偕來.

96) 『고려사』 고종 44년 12월; 遣安慶公滄, 左僕射崔永如蒙古.

97) 『고려사』 고종 45년 5월 甲寅

98) 『고려사』 고종 45년 6월 己丑

99) 『고려사』 고종 45년 6월 乙未

100) 『고려사』 고종 45년 6월 丙申

101) 『고려사』 고종 45년 6월 甲辰

고 하였다.<sup>102)</sup>

무오 여수달(余愁達)이 사신을 보내와서 말하기를, “국왕이 끝까지 육지로 나와 맞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자가 와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나는 군대를 철수하려고 하였소. 그러나 사신이 서너 차례 왕복하면서도 태자가 오지 않으니 이는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오. 이제는 일전을 벌이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또 사신을 보내니 국왕은 그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역시 육지로 나와 맞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거부하였다.<sup>103)</sup>

무술 잘라이르타이[車羅大]가 보낸 몽고대(蒙古大) 등 15인이 왔다.<sup>104)</sup>

겨울 10월 기묘 전광재(全光宰)를 파견하여 잘라이르타이[車羅大]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군대의 철수를 요청하였다.<sup>105)</sup>

이 해에 전국의 곡식이 모두 몽고군에게 약탈되었다.<sup>106)</sup>

임자 별장(別將) 박천식(朴天植)이 잘라이르타이[車羅大]의 사신 온양가대(溫陽加大) 등 9인과 함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박희실(朴希實)과 조문주(趙文柱)가 차라대 주둔지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단지 권신의 손아귀에 들어있었던 관계로 황제의 명령을 어긴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이제 최의(崔瑄)를 죽였으니 장차 개경[舊都]으로 갈 것이며, 태자를 보내 친조[朝見]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잘라이르타이 등이 기쁜 얼굴로 ‘만약 태자가 온다면 4월 초 길일(初吉)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sup>107)</sup>

계축 왕이 온양가대(溫陽加大) 등을 강안전(康安殿)에서 접견하였다. 온양가대가 태자(太子)의 입조시기를 물었다. 왕이 ‘5월’이라고 대답하자 온양가대는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우리 군대의 진퇴는 태자의 사행[行李]이 더디냐 빠르냐에 달려 있는데 5월까지 기다린다니 어찌 그리 늦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부득이하여 4월로 약속하고 이어 **금은과 포백(布帛)**을 주었다. 온양가대가 또 말하기를, “태자를 만나 얼굴을 보고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sup>108)</sup>

갑오 태자(太子) 왕전(王僂)을 파견하여 표문(表文)을 받들고 몽고로 가게 하였다. 참지정사(參知政事) 이세재(李世材)와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김보정(金寶鼎) 등 40인이 따라갔으며, 백관이 도성 밖[郊]에서 태자를 전별하였다. 문무 4품 이상 관료는 각각 **은 1근**을 내고 5품 이하는 차등 있게 **포**를 내어 경비에 충당하였다. 국가

102) 『고려사』 고종 45년 6월 丁未

103) 『고려사』 고종 45년 7월 戊午

104) 『고려사』 고종 45년 8월 戊戌

105) 『고려사』 고종 45년 冬十月 己卯

106) 『고려사』 고종 45년(미상) 是歲, 諸道禾穀, 盡爲蒙兵所獲; 『고려사절요』 권17 高宗 45년 12월

107) 『고려사』 고종 46년 3월 壬子

108) 『고려사』 고종 46년 3월 癸丑; 『고려사』 고종 46년 3월 丙子; 『고려사절요』 권17 高宗4 46년 三月 … 王不得已約以四月, 仍贈**金銀布帛**. …

의 예물[國贖]을 말 300여 필에 신는데 말이 부족하여 길에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강제로 샀으므로 양반(兩班) 중에 말을 타는 사람이 적었다. 표문에서 이르기를,

“우리나라[小邦]는 일찍이 군대를 통수하는 권신(權臣)이 오랫동안 군대를 거느리고 나랏일을 마음대로 지휘하였으므로 이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상국을> 응대하고 받드는 것에 잘못된 것이 제법 많았습니다. … 아, 소신(小臣)은 노병(老病)이 이미 깊은 것을 황제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친조(親朝)하지 못하고 태자에게 가서 뵈게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 뜻을 밝게 헤아려 주시고 <태자가> 올리는 모든 말을 받아주셔서 소국(小國)을 보살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제후로서의> 충성스런 직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sup>109)</sup>

기축년(1229)에 <왕영조(王榮祖)에게> 북경등로정행만호(北京等路征行萬戶)를 제수하고 금호부로 교체하였다. 고려(高麗)를 정벌하여 그 왕경(王京)을 포위하니, 고려왕이 힘이 다하여 그 형 회안공(淮安公)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공물을 바쳤다. … 고려를 정벌하는 데에 다시 따라가서 10여 성을 격파하니, 고려 <왕이> 아들 왕준(王綽)을 질자로 들여보내었다. 황제가 비단옷을 하사하고 그 공을 정표하였다. 또 제왕 예쿠[也忽]를 따라서 삼한(三韓)을 공략하여 천룡(天龍)의 모든 보(堡)를 함락시켰는데, 모두 사납게 약탈하는 것을 금지하니 민이 기뻐하며 그에 복종하였다. … 황제가 그 공을 가상히 여기어 금폐(金幣)를 하사하고 그 아들 왕흥(王興)에게 천호(千戶)의 관직을 주고 이어서 그 부곡(部曲)을 상으로 주었다. 고려 평양(平壤)으로 옮겨 지키니[移鎮], 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그를 효유하여 말하기를, “저 작은 나라가 험함을 믿고 스스로 지키고 있으나 가마솔 안의 물고기라서 오래지 않아 스스로 죽을 것이니, 완급을 조정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대가 마땅히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였다. 왕영조가 이에 민을 모집하여 진을 치고 지키며[屯戍] 일천리의 땅을 개척하고 모든 도서(島嶼)와 성루(城壘)를 얻으니, 고려에서 그 세자 왕전(王僊)을 보내어 나와서 항복하고 마침내 왕전으로 조정에 들어와 조회하였다.<sup>110)</sup>

병오 북계병마사(北界兵馬使)가 보고하기를, “잘라이르타이[車羅大]가 갑자기 죽자 황제가 사신을 보내와서 아두(阿豆)와 잉부(仍夫), 삼미(三彌) 등 3인을 잡아 갔습니다.”라고 하였다.<sup>111)</sup>

경자 몽고 원수 여수달(余愁達, 예쉬데르)과 송길(松吉) 대왕이 파견한 주자(周者)와 도고(陶高) 등이 참지정사(參知政事) 이세재(李世材)와 함께 왔다. 이세재가 아뢰기를,

“5월 16일 태자가 호천(虎川)에 도착하였는데 큰 비가 내려 물이 불어 넘쳤습니다. 호종하는 신하들이 모두 유숙(留宿)하면서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자고 요청하였지만 태자는 듣지 않고 출발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 동경(東京)에 도착하였는데, 동경 사

109) 『고려사』 고종 46년 4월 甲午; 『고려사절요』 권17 高宗4 高宗 46년 4월

110) 『元史』卷149 列傳36 王珣 子 榮祖 己丑(1229년) 미상(음)

111) 『고려사』 고종 46년 5월 丙午

람들이 말하기를, ‘내일 대병(大兵)이 고려로 향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태자가 신(臣)과 김보정을 보내어 각자 백은(白銀) 50근, 은주전자[銀尊] 1개, 은항아리[銀缸] 1개, 술과 과일 등의 물품을 원수 여수달과 송길 대왕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19일에 태자께서 송길 대왕을 만났습니다. 송길이 말하기를, ‘황제께서는 송(宋)을 친정(親征)하러 가셨고, 우리들에게 그대 나라를 정벌하는 일을 위임하셨기에 이미 군대를 보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왔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태자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황제와 <송길> 대왕의 덕에 의지하여 근근이 숨을 보전하고 있는 터라 장차 대왕 및 여러 관인(官人)들에게 술잔을 드린 연후에 황제를 뵙기 위해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 태자가 말하기를, ‘대왕이 일찍이 말하기를 태자가 입조하면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온 것이요.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 숨을 것이니 나중에 잘 설득한다 하더라도 누가 다시 말을 듣고 따르겠으며 대왕의 말을 어찌 믿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송길 등이 그럴 것이라고 여기고 군대를 <동경에> 머무르게 하고 출발시키지 않았으며, 이에 주자 등을 보내 와서 성곽(城廓)을 무너뜨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sup>112)</sup>

기축 안경공(安慶公)에게 명하여 <몽고> 사신들을 전별케 하고 금은과 포백(布帛)을 매우 많이 주었다.<sup>113)</sup>

갑신. 태자가 몽고(蒙古)의 사신 속리대(束里大)와 함께 개경(開京)에 들어갔다. 속리대는 태자의 의중을 떠보고자 먼저 가기를 청하였다. 태자는 그를 믿고 먼저 승천궐(昇天闕)에 들어갔다. 속리대는 크게 노하여 나가서 별관에 주둔하였다. 태자가 성에 들어오기를 청하니 속리대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피차간의 뜻이 다르니, 나는 돌아가고자 하오.”라고 하였다. 을유(乙酉)에 다시 오산(烏山)으로 물러나 주둔하니, 태손(太孫)이 강화(江華)에서 와서 만났다. 다음날 태손이 속리대가 주둔한 곳에 가서 청하면서 앵무잔(鸚鵡盞)과 백금(白金) 30근(斤)을 뇌물로 주었다. 속리대가 이에 허락하였다. … 헌종(憲宗)이 붕어하고 아릭부케[阿里孛哥]가 북방 지역을 군사로 막으니 인심이 걱정하고 의심하여 어디를 따를지 몰랐다. 그때 황제의 아우 쿠빌라이[忽必烈]가 강남(江南)에서 군대의 위세를 보이다가 군사를 돌려 북상하였다. 태자가 폐물을 받들어 길가에서 배알하니, 황제의 아우가 놀라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高麗)는 만 리(萬里)의 나라이다. 당(唐) 태종(太宗)이 몸소 정벌했으나 복속시킬 수 없었는데, 지금 세자가 스스로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내 더욱 칭찬하며 함께 개평부(開平府)에 이르렀다. 강희선무사(江淮宣撫使) 조양필(趙良弼)이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소국이지만 산과 바다의 험준함에 의지하니, 나라에서 20여 년간 군사를 동원하였어도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 마땅히 관사와 음식을 후하게 하여 번왕(藩王)의 예로써 대우해야 합니다. … ”라고 하였다. 섬서선무사(陝西宣撫使) 염희헌(廉希憲) 또한 그렇게 말하니, 황제의 아우가 옳다고 여겼다. 그날로 관사를 바꾸고 대우를 더욱 후하게 하였다. 이에 다루가치[達

112) 『고려사』 고종 46년 6월 庚辰 … 太子, 遣臣及金寶鼎, 各以白銀五十斤, 銀尊一, 銀缸一, 酒果等物, 遣元帥余愁達·松吉大王. …; 『고려사절요』 권17 高宗4 高宗 46년 六月

113) 『고려사』 고종 46년 6월; 己丑 命安慶公, 餞客使, 贈金銀·布帛甚多.

魯花赤] 숙리대(東里大)와 강화상(康和尚)에게 명하여 그 귀국길을 호위하게 하였다. 강화상은 본래 진주(晉州) 사람인데, 일찍이 포로가 되어 몽고(蒙古)에 들어갔으며, 뒷날 이름을 강수형(康守衡)으로 고쳤다.<sup>114)</sup>

## VI. 맺음말

---

114) 『고려사절요』 권18 元宗 1년 3월 甲申. 太子與蒙使東里大入開京. … 翌日, 太孫至東里大屯所, 請之, 賂鸚鵡盡白金三十斤. 東里大乃許之.

## [참고문헌]

- 『몽골비사(元朝秘史)』, 사계절, 2004.
- 宋濂 等 撰, 『元史』, 北京: 中華書局, 1997.
- 여원관계사연구팀 편, 『譯註 元高麗紀事』, 선인, 2008.
- 라시드 앳 단, 김호동 역주, 『집사·2』 「칭기스 칸 기」, 사계절, 2003.
- 라시드 앳 단, 김호동 역주, 『집사·3』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
- 플라노 드 카르피니·윌리엄 루브룩,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 기행』, 까치, 2015.
- 마르코 폴로, 김호동 역주,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0.
- 
- 고명수, 『몽골-고려 관계 연구』, 해안, 2019.
- 김상기, 『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 성백용 외, 『사료로 보는 몽골평화시대 동서문화교류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윤용혁, 『고려대몽항쟁사연구』, 일지사, 1991.
- 이강한,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2013.
- 이진한, 『고려시대 무역과 바다』, 경인문화사, 2014.
- 장동익, 『고려후기 외교사연구』, 일조각, 1994.
- 티모시 메이(T. May), 권용철 옮김, 『칭기스의 교환』, 사계절, 2020.
- 杉平雅彦, 『モンゴル帝國の覇權と朝鮮半島』, 東京: 山川出版社, 2011.
- \_\_\_\_\_, 『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帝國秩序と王國の對應』,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 岩村忍, 『モンゴル社會經濟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68.
- 
- 고병익,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東亞交涉史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 김위현, 「麗元間의 物貨交流考」, 『인문과학연구논총』 7, 명지대학교, 1990.
-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 異文化와 宮廷의 外交典禮」, 『동국사학』53, 동국사학회, 2012.
- \_\_\_\_\_, 「대몽골국 성립 전후 유목경제의 실상과 유통물품의 변화」, 『중양아시아 연구』26-2, 중양아시아학회, 2021.
- 김호동, 「‘변방사’로 세계사 읽기: 중앙유라시아를 위한 변명」, 『역사학보』 228, 역사학회, 2015.
- 설배환, 「13-14세기 몽골초원의 물적 기반과 유목경제의 지속성 고찰」, 『중양아시아 연구』 20-2, 중양아시아학회, 2015.
- 이개석, 「元代의 카라코룸, 그 興起와 盛衰」,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 이익주, 「1219년(고종 6) 고려-몽골 ‘兄弟盟約’ 再論」, 『동방학지』175, 연세대학교

- 국학연구원, 2016.
- 전해중, 「麗・元 貿易의 性格」, 『동양사학연구』12・13, 동양사학회, 1978.
- 邱軼皓, 「草原政治中心의 西移與哈刺和林之成立」, 『蒙古帝國視野下的元史與東西文化交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9.
- 宇野伸浩, 「オゴデイ・ハンとムスリム商人」, 『東洋學報』70, 東京: 東洋文庫, 1989.
- di Cosmo, N., Why Qara Qorum? Climate and Geography in the Early Mongol Empire,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vol. 21(2014-2015),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5.
- Allsen, Thomas T., *The Steppe and the Sea: Pearls in the Mongol Empir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9.
- Henthorn W. E., *Korea: The Mongol Invasion*, E.J. Brill, 1963.

【제5발표】

칸들의 선물, 황제의 은혜:  
청(淸) 초기(初期) 만·몽(滿·蒙) 관계와 예물(禮物)

이선애(경상국립대)



# 칸들의 선물, 황제의 은혜: 청(淸) 초기(初期) 만·몽(滿·蒙) 관계와 예물(禮物)

이선애 (경상국립대)

1. 머리말
2. 칸들의 선물: 天命年間 만주-몽골의 예물교환
3. 天聰年間 이후 예물교환의 양상
4. 황제의 은혜: 崇德年間 이후 進貢과 回賜
5. 맺음말

## 1. 머리말

사람들은 유대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해 혹은 화해하기 위해 선물을 교환한다. 선물을 주는 행위가 일방적일 경우 상호 관계는 깨어지기 쉽다. 선물 교환에는 일종의 ‘의무’가 내재해 있어서 선물을 받고도 답례하지 않는 것은 무례함으로 여겨지며 다툼을 유발한다. 또 받아야 하는 의무도 주어야 하는 의무 못지않게 강제적이다.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적대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선물을 받지 않는 행위가 용인되기도 하며 때로는 받은 물건에 대해 답례하지 않거나 충분히 답례하지 않는 것은 ‘중속’을 의미한다. 즉 비대칭적인 예물 증여는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재생산한다.<sup>2)</sup>

국가들 사이에서도 의례적 교환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다. 전근대 조공과 책봉 관계에서 행해진 주변국의 進貢과 황제의 回賜는 국가 간 의례적 교환 행위고 고도의 정치·외교 질서로 발전된 것이다. 조공-책봉 체제 정점에 있는 황제가 주변국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후한 예물을 하사하는 소위 ‘厚往博來’는 국가 간 비대칭적 예물교환을 의미한다. 받은 것보다 더 주는 행위는 황제의 덕과 은혜를 명시적으로 드러냈으며 황제의 후한 선물을 받음으로써 주변국은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臣服하였음을 보였다.

1)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류정아 해제, 『증여론』, 한길사, 2016, p.53; pp.159-160 마르셀 모스는 선물 교환은 자발적인 형식으로 행해지지만 실제로는 엄격하게 의무적이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적이거나 공적인 싸움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전체적인 급부체계 (système de prestation totale)’라고 불렀다. Dorothea Heuschert-Laage, “From Personal Network to Institution Building: The Lifanyuan, Gift Exchange and the Formalization of Manchu-Mongol Relations”, *History and Anthropology*, Vol.25, No.5, 2014, p.656.

2) 李治國, 『清代藩部賓禮研究-以蒙古爲中心』, 內蒙古大學出版社, 2014, p.106((美)閻云翔, 李放春·劉瑜譯, 『禮物的流動』, 上海人民出版社, 2000, P.242 재인용).

신생 만주 정권과 내몽골 부족들이 타협과 반목을 반복한 시기에 양자의 선물 교환은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만주 정권의 역량이 내몽골 부족들을 압도한 무렵부터 예물교환의 목적과 방식이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예물을 주고받는 형식과 왕래한 물품의 종류와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후금-청 정권이 몽골 부족들과 주고받은 예물은 만주와 몽골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반영하므로 만주-몽골 사이의 물질 교환을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李治國은 청조의 賓禮 시스템을 신체의례, 예물교환, 예제질서 등으로 구분하고 몽골과의 예물교환이 점차 비대칭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통해 그것이 갖는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분석했다.<sup>3)</sup> 그에 따르면 崇德 원년을 기점으로 청조는 몽골과 교환하는 예물의 가치에 현격한 차이를 두었다. 즉 몽골 왕공들의 진공품은 일부만 취하고 回賜는 더 풍부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예물교환은 청 조정이 의도한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청조는 비대칭적 예물교환으로 인해 물질적 이익을 잃었지만 藩部 수장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다. 李治國은 청 후기 조정이 재정 위기에 빠져 ‘厚往博來’적인 예물교환 정책을 지속할 수 없었지만 명예성 예물을 발전시켜 일정 정도 지출을 줄이면서도 번부의 지지와 번부에 대한 예물교환 통제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清實錄』과 달리 만문과 몽문 기록에는 진공한 사람과 진공한 물품, 물품의 수령 여부, 수령한 물품과 거절한 물품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니콜라 디 코스모(Nicola Di Cosmo)는 흥타이지가 몽골 왕공들이 선물한 물품을 모두 수령하지 않고 일부만 받거나 모두 돌려보낸 행위에 주목했다.<sup>4)</sup> 그는 만주 한과 몽골 왕공 사이의 선물 교환에서 어떤 사람의 선물이 거절되었는지가 조공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단서라고 지적했지만 예물을 중심에 두고 그 의미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sup>5)</sup>

도로테아 호이세르트(Dorothea Heuschert)도 만주 황제와 몽골 수장들이 주고받은 예물에 주목했다.<sup>6)</sup> 그러나 도로테아도 예물 자체보다는 예물교환의 양태 변화와 정치적 의미에 주목했다. 그는 특히 入關 이후 순치 연간의 변화에 주목했는데 순치3년(1646) 이후 이번원이 작성한 문건에 진공품과 회사품이 함께 열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로테아에 따르면 청조가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 청 황제는 더이상

3) 李治國, 『清代藩部賓禮研究-以蒙古爲中心』, 內蒙古大學出版社, 2014, p.6-8; 같은 책, pp.106-152.  
 4) Nicola Di Cosmo and Dalizhabu Bao,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Brill, 2003, pp.173-174.  
 5) 최근 陳昱彤이 청대 티베트의 年班 貢品이 갖는 정치적 상징과 의미를 고찰했다. 그는 달라이 라마와 판첸 어르더니가 청 황제에게 보낸 年班 貢品을 종교용품, 티베트산 방직품, 약재와 식품, 생활용품 및 특수 공예품 등으로 분류해 고찰했다. 그는 청대 중앙과 티베트의 빈번한 교류 속에서 유통된 貢品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치적 상징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달라이라마와 판첸 어르더니의 청 황제에 대한 공경, 축수, 감격의 정서를 담으면서 청에 대한 티베트의 정치적 귀속과 공동체 의식을 표현했다고 보았다. 陳昱彤, 『升平累治: 論清代西藏地方年班貢品的政治內涵』『中國藏學』2022年 第2期.  
 6) Dorothea Heuschert-Laage, “From Personal Network to Institution Building: The Lifanyuan, Gift Exchange and the Formalization of Manchu-Mongol Relations”, *History and Anthropology*, Vol.25, No.5, 2014.

선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로 자신의 지위를 재규정했다.

宋瞳은 『清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의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순치 연간 몽골 왕공 宴賚제도를 분석했다.<sup>7)</sup> 宋瞳은 『大清會典』과 『通典』 등에는 과도기적 제도와 변화 양상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회전』과 『통전』만으로는 청대 宴賚制度的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원만문제본을 적극 활용하여 宴賚가 완전한 제도로 정착되기 이전 순치 시기의 宴賚 장소와 규모, 朝覲·償賜의 목적과 변화 등에 대해 고찰했다.

도로테아와 宋瞳은 모두 청대 朝覲과 宴賚·償賜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순치 연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순치 연간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제도화 이전에 형성된 관례, 그리고 이 관례의 변화가 이후의 제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청대 外藩蒙古 朝覲·宴賚制度的 특질은 入關 前 만주와 몽골의 정치적 관계에서 형성된 관례에 기인한다. 만주와 몽골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관례 또한 변형되었고 이후 정제화되고 제도화되는 장기적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순치 이전 홍타이지 시기에 주목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入關 前 천명 연간부터 송덕 연간까지 만주 한-황제와 몽골 수장들이 주고받은 예물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滿文老檔』과 『內國史院檔』, 『內祕書院蒙文檔案』 등 청 초기 사료에 등장하는 진공과 회사 기록을 통해 시기에 따라 어떤 예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환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함의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주와 몽골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17세기 동유라시아 세계에 예물이 담고 있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명말 청초 만주와 몽골의 관계는 복잡다단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다. 만주 한과 몽골 수장이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양자가 주고받은 선물은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금-청과 몽골의 관계가 종주와 외번의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예물교환의 성격과 방식도 차츰 변화했고 입관 이후 朝覲年班과 朝貢·宴賚制度로 자리 잡게 된다. 청대 조공책봉과 조근제도는 중국왕조의 전통이라는 외피를 썼을지라도 그 대상을 外藩蒙古로 특정하면 입관 전 만주정권과 몽골의 관계에 기원해 발전한 특징을 갖는다.<sup>8)</sup>

본고에서는 누르하치의 시대와 홍타이지의 시대를 중심으로 만주와 몽골의 수장들 사이에 오간 예물을 살펴볼 것이다. 누가 어떤 예물을 주고받았는지, 예물 수령 여부와 예물의 수량·품목이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 이 시기의 관행과 변화가 이후 清代 朝覲年班과 宴賚制度에 미친 영향을 논구해

7) 宋瞳, 「順治朝清廷宴賚蒙古王公制度略論」『西域歷史語言研究集刊』第7輯, 2014.

8) 청대 조근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건륭 연간 外藩 宴禮에 관한 구범진의 연구가 있다. 구범진, 「清 乾隆 연간 外藩 宴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역사문화연구』 제68집, 2018. 이외 다음의 연구 참조. 張雙智, 『清代朝覲制度研究』, 學苑出版社, 2010; Ning Chia, “The Lifanyuan and the Inner Asian Rituals in the Early Qing(1644-1795)”, Late Imperial China 14,1, 1993; 蘇紅彥, 「清代蒙古王公年班制度對蒙古地區的影響」『陰山學刊』第18卷 第6期, 2005; 蘇紅彥, 「試析清代蒙古王公年班的創立與發展」『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39卷 第2期, 2007; 蘇紅彥, 「清代蒙古王公年班的特點與作用」『內蒙古社會科學』第28卷 第1期, 2007; 張雙智·張羽新, 「論清代前後藏朝覲年班制度」『西藏研究』, 2009年 第5期 등.

보고자 한다.

## 2. 칸들의 선물: 天命 연간 만주-몽골의 선물 교환

후금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내몽골 부족들은 만주 정권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그들은 우호 관계를 맺더라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적대적으로 돌아설 수 있었으므로 후금에게 내몽골은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다. 당시 만주 정권과 몽골 부족들은 어느 한쪽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 타협과 불화를 반복하는 긴장 상태에 있었다. 누르하치는 정권의 위협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적대적인 몽골 부족들까지 동맹 세력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후금과 내몽골 부족들의 직접적인 왕래가 시작되면서 양자 사이의 예물교환도 빈번해졌다. 내몽골 부족의 유력 귀족 중에서 처음 후금을 방문한 사람은 코르친부의 밍안 타이지였다. 그는 해서여진을 비롯한 9개 부족이 누르하치를 공격한 ‘九部之戰’에 참전했다가 패주한 이후 자신의 딸을 누르하치에게 시집보내 후금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 天命2년(1617) 正月 누르하치는 성 밖 100리까지 나가 밍안 타이지를 맞이하고 매일 잔치를 베풀며 40호의 사람과 40甲, 비단과 布 등 각종 물품을 선사했다. 이때 밍안 타이지는 낙타 10마리, 말 100마리, 소 100마리, 모직 양탄자를 실은 3마리 낙타에 말린 고기를 실은 13兩의 수레, 치즈와 기름을 실은 2兩의 수레를 선물로 가져왔다.<sup>9)</sup>

천명 연간 후금과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관계에 있었던 몽골 부족은 내할하 5부였다. 내할하 5부는 다얀 칸의 다섯째 아들 알추 볼로드의 후예들이 거느린 5개의 오투크로 구성되어 있어 ‘다섯 오투크 할하’라고도 한다. 다섯 오투크는 자루트, 바린, 웅기라트, 바유트, 우지예트이며 조상은 동일한 近支들이지만 거의 독립적인 부족을 형성하고 있었고 명으로부터 받는 撫賞銀과 호시 무역의 기회로 인해 후금에 대한 태도도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내할하 5부 중에서 바유트부는 후금과 비교적 일찍 우호적 교류를 시작하고 인친 관계를 맺었다. 바유트 부족장 다르한 바투루의 아들 엉거더르는 萬曆34년(1606) 12월 내할하 5부 수장들을 대표해 누르하치에게 ‘쿤둘런 한’이라는 칭호를 바쳤다.<sup>10)</sup> 그는 天命2년(1617년) 슈르가치의 딸 순다이 공주와 혼인하여 淸 기록에서는 보통 ‘엉거더르 어푸(efu, 額駙)’라고 지칭된다. 엉거더르와 망굴다이, 상가르자이 형제를 비롯한 바유트부의 귀족들은 후금에 망명해 누르하치로부터 인가와 가축, 장원, 각종 예물을 받았으며 별도의 旗를 형성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특권을

9) 『滿文老檔』(東洋文庫역주본) I 太祖5 天命2年 正月 初8日~11日, pp.76 ;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태조1, pp.127-128.

10) 『滿洲實錄』(臺灣華文書局發行, 1964)卷3, pp.123-1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역주회, 『만주실록역주』(소명출판, 2014), pp.137-138.

누렸다.<sup>11)</sup>

누르하치는 천명6년(1621) 5월 14일 엉거더르 어푸의 동생 몽고 타이지가 망명했을 때 八旗의 공동 창고에서 너구리 가죽과 여우가죽으로 만든 皮端罩(dahū)<sup>12)</sup>, 貂皮로 테두른 가죽옷(jibca)·수달피·灰鼠皮(ulhu)로 테두른 가죽옷, 남녀가 입을 蟒緞으로 만든 의복과 망단·비단, 금과 은, 모청포·취람포, 조각한 안장과 굴레 石魚가죽으로 만든 안장, 조각으로 장식된 화살통, 궁시를 쫓은 화살통, 그림이 그려진 껌짜과 장롱, 그릇·접시 등 각종 물품을 주었다.

바유트부와 달리 옹기라트부의 자이사이 타이지는 누르하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천명4년 7월 후금이 철령을 점령한 다음 날 밤 자이사이는 자루트부의 타이지들과 함께 철령성을 습격했지만 실패했다. 이때 자이사이를 비롯한 내할하의 타이지들이 후금의 포로가 되었는데 후금은 내할하 5부의 맹세를 받아낸 후 이들을 석방했다. 석방된 자이사이는 천명6년 8월 3일에 자신을 대신할 인질로 아들 둘과 딸 한 명, 그리고 말 2천마리, 소 3천마리, 양 5천마리 총 1만마리의 생축을 후금에 보냈다.<sup>13)</sup> 누르하치는 말과 양을 8명의 버일러들에게 분배했고 都堂과 總兵官에게도 양을 주었다. 남은 소는 도당·총병관 이하, 千總 이상에게 직위를 고려해 포상 해주었다.<sup>14)</sup>

천명6년 8월 15일 누르하치는 자이사이에게 검은초피(sahalca seke)로 테 두르고 안감을 모두 貂皮로 짠 가죽옷, 초피 방한모, 스라소니 피단조, (견으로) 껌맨 신발, 무늬를 새긴 요대, 조각한 화살통에 활과 화살 일체, 정교하게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채운 말 1마리, 미늘 갑옷과 투구와 갑옷 소매 1襲, 일반 갑옷 100벌을 선물로 보냈다.<sup>15)</sup> 누르하치가 자이사이에게 준 예물은 최고급 모피인 검은 담피 등으로 만든 가죽옷과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軍裝類로 당시 후금이 유력 몽골 수장에게 선사한 물품들은 대체로 이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이 외에 蟒緞·閃緞·彭緞 등 견직물과 모청포 등도 몽골 부족장에게 증여된 대표적인 물품이다.

천명7년(1622) 3월 29일 누르하치는 (내)할하와 차하르에서 망명한 귀족들이 각기 한 구사를 이루어 살고 만주 버일러들과 사돈을 맺으며 친교를 맺을 것을 당부한 뒤 4월 초하루 차하르·할하 몽골 귀족들과 만주 종실의 혼인을 직접 주재했다. 그리

11) 누르하치는 후금에 내속한 바유트부와 우르투부 수장들의 속민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으나 흥타이지는 독립된 기로 편성되었던 바유트와 우르투부를 폐지해 수장들은 종실 버일러들 휘하로 종속시키고 속민은 우너거와 오본도이가 이끄는 만주팔기 좌·우 양익 소속 游牧蒙古兵으로 편입시켰다. 바유트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汲古書院, 2009, pp.31-69; 達力扎布, 『清初內扎薩克旗的建立問題』, 『歷史研究』, 1998年 第1期; 이선애, 『清 初期 外藩 (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pp.30-34.

12) 털가죽 외투. 청대 귀족과 滿漢 관원의 禮服으로 쓰인 털가죽 외투. kurume(쿠리매)보다 길고 가죽 털을 겹겹으로 내었으며, 朝服(doroi etuku)에 맞추어 입었음. 재료로 黑狐·紫貂·靑狐·貂皮·猓狽·紅豹皮·黃狐皮를 사용했음. 이훈, 『만한사전』, p.172.

13) 『滿文老檔』(東洋文庫) I 太祖25, 天命6年 8月 初3日, p.365;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pp.605-606.

14) 『滿文老檔』(東洋文庫) I 太祖25 天命6年 8月 20日, p.370;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p.616-617.

15) 『滿文老檔』(東洋文庫) I 太祖25 天命6年 8月 17日, p. 370;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pp.615-616.

고 4월 초2일 차하르 귀족들에 대한 대규모 하사가 진행되었다.<sup>16)</sup> 타이지들에게 각 기 금 5량· 은 200량· 蟒緞 4필· 깃 부채(debsiku) 1개· 비단 10필· 모청포 200필· 짙 초피 가죽옷 1벌씩· 검은 초피 피단조 1벌씩· 스라소니 피단조 1벌· 명나라(nikan) 너구리 피단조 1벌씩을 지급하고 그 아래 2등급, 3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했다.

이렇게 차하르 귀족들에게 지급한 상이 총 금 87량· 은 3,400량, 큰 망단 62필· 작은 망단 25필 총 망단 87필, 명주비단(cuse)·紡絲비단(fangse)·彭緞(pengduwan)·綾緞(lingse) 네 종류의 비단 178필, 모청포·취랍포 총 3,100필, 흑초피로 테를 두르고 안감을 초피로 꿰맨 가죽옷 9벌· 흑초피 피단조 9벌· 스라소니 피단조 9벌· 망단으로 걸을 대고 초피로 테를 두른 가죽옷 10벌· 표범 피단조 10벌· 여우 피단조 6벌· 너구리 피단조 19벌· 여진(jušen) 초피로 테를 두른 흉배 놓은 비단으로 걸을 댤 가죽옷 6벌, 한 구사에 각각 회서피 가죽옷 3벌씩, 살쟁이 가죽옷 4벌씩 모두 회서피 가죽옷 24벌, 살쟁이 가죽옷 32벌로, 가죽옷은 총 81벌, 피단조는 총 53벌이었다.

누르하치가 몽골 부족 수장들에게 선물한 물품은 주로 모피와 모청포, 망단 등 각종 견직물, 의복, 금과 은 등이었다. 몽골 여성들에게는 주로 모피와 각종 비단과 布 외에 捏摺女朝掛(oljin)<sup>17)</sup>·捏摺女朝衣(teleri)<sup>18)</sup> 등 여성용 朝服, 목걸이와 귀걸이 같은 장신구들을 선물했다. 모피는 후금에서 어느 정도 생산·조달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견직물, 금·은 등은 그동안 여진이 對明 조공과 馬市무역, 약탈을 통해 얻은 귀한 물품들이었다. 내몽골 부족들과의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요했으므로 후금으로서는 그들을 달래기 위한 물질적 수단이 절실했다. 그러나 명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사치품은 물론 생필품조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터에 몽골 왕공들에게 선물할 대량의 예물용 물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다.

천명3년(1618) 후금이 요동 지역을 습격해 마을의 양식을 모두 취하고 한인들을 잡아가지 5월 22일 광녕성에서 사람을 파견해 포로 속환을 요구했는데 누르하치는 이를 거부하며 은과 금, 비단, 망단을 더 주어야 화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천명4년(1619) 개원성을 공격해 “재물과 가축, 금은, 비단, 망단, 모청포 온갖 물건을 모두 만족스럽게 얻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각 旗를 수색해 은닉한 노획물을 찾아내고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모습이 기록에 남아있다.<sup>19)</sup> 이것으로 보아 금과 은, 비단류의 물품은 명과의 교역 관계가 단절된 이후 거의 약탈에 의존해 조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누르하치는 점령한 요동 지역의 한인을 활용해 閃緞과 蟒緞 등 비단과 金絲와 종이 등을 제작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16) 『滿文老檔』(東洋文庫) II 태조40 천명7년 4월 초2일, pp.591-593;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pp.980-983.

17) 소매가 없고 천에 주름이 잡힌 긴 저고리 형태의 여성용 조복.

18) 소매가 길고 천에 주름이 잡힌 긴 저고리 형태의 여성용 조복.

19) 『滿文老檔』(東洋文庫) I 태조10天命4년 6월, p.154;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p.250.

[A] 같은 날(천명8년 正月), 바우트국의 망굴다이, 바이갈, 키청구, 우바시, 박 타이에게 한 말. ”……지금이라도 너희 (內)할하 버일러들이 다시 의논하여 나와 맹세한 옛 합의대로 니칸(明)을 토벌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크게 노여워하는 것을 멈추겠다. 우리가 여전히 잘 지냈으면 한다. **나와 함께 원래 맹세한 합의를 바꾸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閃緞, 蟒緞, 비단을 짜는 니칸(漢人)을 얻었을 것이다. 하늘에 죄를 짓고 몸을 팔아 손을 내밀어 니칸의 재화를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몸을 파는 것이다. 하늘이 모를 것이라고, 재앙이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지 말라. 나와 함께 비단을 짤 니칸을 얻었다면 우리 주인이 원하는 물건을 지시하여 만들게 하며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또 너희가 곡식을 사는 것은 니칸의 법으로 하라고 말했었다. 지금 양 1마리에 모청포 2필로 하겠다. 사러 가려고 한다면 여기에 먼저 사람을 보내라.**”<sup>20)</sup>

[B] (천명8년 2월) 11일에 망단, 비단, 흉배를 짠다고 73명이 나가서 짠 망단·비단·흉배를 한이 보고 “**짜지 못하는 곳에서 망단·비단·흉배를 짜면 보배인 것이다**”라고 가상히 여겨 말하고, “**妻가 없는 자에게 처와 노예, 입고 먹을 것을 모두 주고 차역과 군역 등에 관여시키지 않고 가까이서 무양하겠다. 1년간 망단·비단을 얼마나 짜는가? 많이 짜면 많이 상 내릴 것이고 적게 짜면 적게 상 내릴 것이다. 일해서 얻은 것을 보아 상 내릴 것이다. 각종 공과에 관여시키지 않고 군사로 세우지 않겠다. 또 金絲(sese)와 유황을 만드는 자가 있으면 나와라. 그자도 보배이다. 망단·비단을 짜는 일등인 자의 등급으로 삼겠다. 지금 망단·비단을 짜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각종 공과를 면해주겠다.**”(라고 했다)<sup>21)</sup>

[C] (천명8년 3월) 25일, 都堂이 말하길 “G’ao giya jung 등을 망단·비단을 짜고 금사를 만든다고 하여 등용해 아내와 노비, 옷과 음식을 모두 주었다. 또 받을 갈아 곡식을 주고 뿔감을 주라고 하여 1등인 사람에게 남자 5명씩, 2등에게는 남자 4명씩, 3등에게는 남자 3명씩을 餘丁으로 주었다. **지금 어떤 자이든 망단과 비단을 짜고, 금사를 만들고 종이를 채에 걸러 만들고, 좋고 치밀한 閃緞(alha), 사발과 접시를 만드는 그러한 각종 유용한 자가 있으면 나오라. 나오면 시험해 보고 할 수 있음이 사실이면 g’ao giya jung 등과 같이 등용하여 무양할 것이다.**”<sup>22)</sup>

사료 [A]는 누르하치가 내할하 5부에게 지난날 후금과 함께하기로 한 맹세를 잊지 말고 더 이상의 적대행위를 그만둘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누르하치는 후금과 내할하 양국이 합의한 대로 함께 명을 공격해 요동을 점령했다면 섬단과 망단, 비단을 짜는 한인들을 얻어 그들로 하여금 직조하게 하며 잘 살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섬단과 망단, 비단을 언급한 것은 몽골과 만주 모두 비단을 귀히 여

20) 『滿文老檔』(東洋文庫)Ⅱ 太祖43 天命8年 正月 22日, pp.632-634;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2, pp.24-25.

21) 『滿文老檔』(東洋文庫)Ⅱ 太祖45 天命8年 2月 11日, pp.655-656;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2, p.60.

22) 『滿文老檔』(東洋文庫)Ⅱ 太祖48 天命8年 3月 25日, p.705;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2, p.141.

졌고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B]와 [C]는 요동 지역을 점령한 후 요동 한인 중 섬단·망단 등 비단을 직조하고 흉배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의 요역과 군역 면제 특권을 천명하는 내용이다. “짜지 못하는 곳에서 짜면 보배이다”라는 말을 통해 당시 후금 자체적으로 섬단·망단·흉배를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누르하치가 열망한 섬단과 망단, 비단 그리고 흉배 등은 후금 종실과 군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하사되었고 몽골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선물로도 사용되었으므로 군사적 팽창이 빠르게 진행된 만주 정권에게 절실한 물품들이었다. 천명 연간 예물 관련 기록에는 누르하치가 몽골 수장들에게 예물을 증여하는 내용이 다수 수록되었다. 이는 누르하치가 내몽골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몽골 왕공들이 보낸 선물도 등장하는데 당시 몽골 부족들은 주로 말과 양, 낙타 등 牲畜, 양고기, 말이나 양의 젖으로 만든 乳酒 혹은 소주, 버터·치즈 같은 유제품을 선물했다. 이에 비해 후금은 유력 몽골 수장들에게는 다양한 견직물과 모청포, 모피, 금·은이나 금·은으로 만든 술잔, 갑옷과 투구·갑옷 소매, 화살통과 활집과 같은 위신재를 선물했는데 사신이 오는 경우 이들이 가져온 말이나 낙타 1마리에 망단 등 비단 1필과 취람포나 모청포 10필을 답례로 주었다.

『만문노당』에는 천명7년 정월 7일 코르친부 굽부 타이지(Gumbu taiji)가 보내온 예물에 대한 답례가 짝을 이루어 기록되었다. 굽부 타이지가 보내온 좋은 말 1마리에 대해 (銀) 50兩짜리 酒海· 공작깃 망단 1필· 3량의 금 술잔과 받침을, 또 거세마 1마리와 암말 9마리에 대해 갑옷과 투구 6벌· 2쌍의 갑옷 소매· 비단 5필· 모청포 50필을 주고 아지거 아거에게 보내온 말 1마리에 대해 좋은 비단 1필, 취람포(혹은 三升) 10필을 주었다. 또 조각한 화살통과 활집 1개, 조각한 요대, 腰刀(loho) 1자루를 주었다.

이 기록에서는 몽골 수장이 보낸 좋은 말 1마리에 대한 답례 물품과 거세마 1마리와 암말 9마리에 대한 답례 물품을 구분하고 이 외에 화살통과 활집, 요대·요도와 같은 예물을 더해 주었음을 강조했다. 굽부 타이지가 아지거 아거에게 보낸 말 1마리에 대해서는 좋은 비단 1필과 취람포 10필을 주었는데 이는 옹니우트부 자이사이의 사신 2명이 후금에 왔을 때 낙타 1마리 당 망단 1필과 모청포 10필을 주었다는 기록과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일치한다.<sup>23)</sup>

어느 정도 일반화된 관례는 있지만 몽골 수장에게 물품이 증여되는 방식과 품목·수량 등에 정해진 기준은 아직 없었다. 몽골 귀족들의 정치적 중요도와 등급 우열에 따라 증여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 품질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만주와 몽골이 주고받는 예물과 관련한 예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몽골 수장들이 후금에 가져온 말·소·낙타·양 등 牲畜과 술, 유제품들을 누르하치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한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몽골 수장들이 선

23) 『滿文老檔』(東洋文庫)II 太祖32 天命7月 正月 7日, p.476;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 p.788.

사한 선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선물 교환은 사회·정치적 관계를 읽어내기에 좋은 단서가 된다. 동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선물을 받지 않거나 제대로 답례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서열이 명확한 관계에서는 권력자가 하급자로부터 받은 선물을 되돌려주거나 더 후하게 답례하여 자신의 권위와 덕을 과시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누르하치가 몽골 수장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누르하치가 몽골 수장들이 보낸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 일은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을 하기도 했다.

(천명10년 6월 초6일) 한에게 (오오바의 사신) 당갈라이가 말 1마리, 초피 10장을 가져왔었다. 취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한이 말하길, “받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나쁘게 생각지 말라. 내가 원래 살아온 義는 담화할 때 남의 곡식을 먹지 않고 재화를 취하지 않았었다. 네가 약속에 오지 않았다고 노여워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네가 올 수 없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형제들에게 죄를 얻었는데 城이 없어 (약속한 장소에) 온 후에 國人과 가축을 데려갈까 해서 오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글을 적어 보냈다.<sup>24)</sup>

누르하치는 코르친부 수장 오오바의 사신이 가져온 말과 초피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이와 같은 변명을 덧붙였다. 누르하치가 “네가 약속에 오지 않았다고 노여워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천명10년 5월 開原에서 만나기로 한 오오바가 사신만 파견하고 자신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언급이다.<sup>25)</sup> 누르하치가 오오바의 선물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분명 이 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코르친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물 거절에 대한 변명을 한 것이다.

후금은 코르친부를 포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양국의 관계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코르친부 계파 사이에 후금에 대한 입장이 달랐고 특히 코르친 우익 수장 오오바는 코르친부 좌·우익을 아우르는 권력자로서 후금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천명 10년(1625) 8월 차하르가 코르친을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되기 직전까지 오오바는 누르하치와의 연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당시 양자의 관계에서 누르하치는 결코 우위에 있지 않았다.<sup>26)</sup>

누르하치가 내몽골 수장들에게 많은 선물을 하고 그들이 보낸 선물에 후하게 답

24) 『滿文老檔』(東洋文庫)Ⅲ 太祖65 天命10年 6月 初6日, pp.974-975;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 2, p.579-581.

25) 『滿文老檔』(東洋文庫)Ⅲ 太祖65 天命10年 5月 24日, p.974;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2, p.578. “(천명10년 5월) 24일에 개원에 도착한 날, 이사무·코보이·오오바의 사신 당갈라이가 함께 도착해서 고하길, ‘오오바가 그가 결혼한 아내 때문에 그에게 죄가 씌워질까 하여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했다. 그 뒤 즉시 돌아갔다.”

26) 후금과 코르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김성수, 「17世紀初 滿蒙 關係와 內陸 아시아 - 만주-호르친·몽골 관계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82집, 2013; 이선애, 「滿文史料를 통해 본 後金시기 滿·蒙 關係」 『明清史研究』 제49집, 2018.

례한 것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거나 선전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지 상위 권력자의 은혜를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천명 연간 누르하치는 내몽골 부족들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 이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사료에 기록된 몽골 왕공들에 대한 누르하치의 선물은 이러한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3. 天聰 연간 이후 예물교환의 양상

홍타이지가 후금 한으로 등극한 이후 反차하르 동맹이 형성되면서 내몽골 부족들과의 역학 구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화북 지역 원정이 마무리되고 차하르부 원정이 막 시작된 천총5년(1631) 경부터 홍타이지의 권위가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료에는 천총5년을 기점으로 몽골 왕공들이 홍타이지에게 신년하례를 올리는 장면이 상세히 묘사되기 시작했다.<sup>27)</sup> 또 홍타이지가 몽골 왕공들에게 하사한 예물과 함께 몽골 수장들이 홍타이지에게 진헌한 물품과 진헌품 수령 여부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천총 연간 만문사료에는 aniya doroi 즉 신년 하례를 위해 후금을 방문한 몽골 수장들에게 후금 한이 연회를 베풀고 각종 예물을 하사하는 양상이 이전과 비교해 절차와 격식을 갖춘 모습으로 기록되었다. 또 후금 방문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부락으로 돌아가는 몽골 수장들에게 “가는 예로 준 것(genere doroi buhengge)” 즉 전송 예물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천총 연간 몽골 수장과 홍타이지의 접견 의례에 관한 기록에는 홍타이지가 몽골 수장들이 진헌한 물품을 받지 않고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하나도 받지 않고 돌려주었다(emu hono gaihakū bederebuhe)”라고 몽골 수장이 선물한 물품을 홍타이지가 전혀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기술도 눈에 띈다.

니콜라 디 코스모도 지적했듯이 홍타이지의 진공 예물 수령 여부가 갖는 의미는 주목할 만하지만 어떤 규칙성이나 기준을 짚어내기는 쉽지 않다.<sup>28)</sup> 홍타이지는 어떤 경우에는 몽골 귀족이 가져온 예물을 전혀 받지 않고 厚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해 일부를 받기도 했다. 다만 몽골 귀족에게 賜與한 예물은 인친 관계와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그 규모와 값어치에 큰 차이가 있었다. 몽골 귀족들에게 선물한 물품은 대개 망단과 모청포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에게는 진귀한 물품이 대규모로 증여되었다.

천총5년(1631) 1월 투시예투 한(혹은 어푸) 오오바와 준저 거거 부부가 후금을 방

27) 구범진은 天聰5년(1631) 正月 초하루부터 몽골 왕공들이 신년 하례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신년 축하 행사는 단지 민속 명절이 아니라 만주인 국가 최대의 정치·외교 행사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구범진, 『淸 乾隆 연간 外藩 宴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 『역사문화연구』68, pp.152-153.

28) Nicola Di Cosmo and Dalizhabu Bao,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Brill, 2003, pp.173-174.

문했을 때 흥타이지는 막대한 양의 예물을 하사했다. 정월 25일에 흥타이지와 망굴타이 및 여러 타이지들과 대신들이 書房(bithe i boo)에 모여 살펴보고 예물을 주었고, 26일에는 ‘한의 집(han i boo)’에서 오오바와 준저 거거에게 예물을 지급했다. 그리고 30일에는 ‘보내는 예(fudere doro)’로 잔치를 베풀고 한(han)이 예물을 하사했다.<sup>29)</sup>

날짜/ 하사 주체	수령자	물품
천총5년 正月 25일/ 흥타이지, 망 굴타이 등 만 주 종실과 대 신들	오오바, 준저 거거	蟒緞·倭緞·큰 비단 10필씩, 작은 비단 80필, 모청포 500필, 붉은 毛氈 10장, 은 100량짜리 盆과 100량짜리 湯罐 <sup>30)</sup> 1개씩, 은 60량짜리 술잔과 茶桶 1개씩, 금 술잔 1쌍, 은 술잔 2개, 은병 1개, 銀製 사람 조각이 있는 술잔(menggun i niyalma noho hūntahan) 1개, 옥 술잔 2개, 금 10냥, 진주(nicuhe) 10량, 호랑이·표범 가죽 10장, 해달·수달 가죽 20장, 여러 물건을 담은 가죽 상자·金絲·絲絨이 담긴 가죽 상자 2개씩, 담배 100帖, 茶 100꾸러미, 琥珀 염주 1개·梅檀 염주 1개, 硨磲 <sup>31)</sup> 염주 1개, 호박으로 장식한 상자 1개, 보통 호박 1개, 산호 1개, 네모난 수정 3개, 둥근 수정 1개, 금 귀이개 1개, 은 세공품 2쌍
	공주 시종들	비단 7필, 모청포 50필
正月 26일/한 (han)의 집	오오바	倭緞에 貂皮를 꿰매 안을 대고 貂皮로 테를 두른 가죽옷 1벌, 金佛頭를 박은 貂皮 모자 1개, 스라소니 가죽옷 1벌, 표범 가죽옷 1벌, 短衣 1벌, 火金이 상감된 腰帶 1개, 火金이 상감된 화살집에 활과 화살 끼운 것 1개, 신발·양말 1쌍, 조각한 안장 2개, 투구와 갑옷소매· 조각한 明甲(겉미늘갑옷) 3벌, 흉배를 꿰맨 갑옷 7벌 이렇게 갑옷이 총 10벌, 금 입힌 잔 1개, 금 입힌 술병 1개, 금 입힌 병 1개, 망단· 왜단· 큰 비단 15필, 작은 비단 15필 이렇게 비단이 총 30필, 모청포 100필, 茶 50꾸러미, 담배 50帖, 붉은 毛氈 2장, 櫃子 4개
	준저 거거	금꽃과 진주 구름을 박은 捏褶女朝褂· 捏褶女朝衣 1쌍, 기운 捏褶女朝褂· 捏褶女朝衣 1쌍, 좋은 금으로 만든 구름 문양 장식과 金佛頭와 뒤에 박을 것

29) 『滿文老檔』(東洋文庫)V(太宗2) 太宗34 天聰5年 正月 25日, 正月 26日, pp.467-46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만문노당역주』(소명출판, 2017) 태조2, pp.762-769.

날짜/ 하사 주체	수령자	물품
		을 모두 박은 貂皮모자 1개, 검은 貂皮 가죽옷 1벌, 短衣 1벌, 신발 2쌍, 금으로 만든 큰 전대 1개, 東珠와 瑪瑙를 넣은 목걸이 1개, 금 귀걸이 2쌍, 호박을 넣은 靑金石 엄주 1개, 진주를 박은 siberhen <sup>32)</sup> 1쌍
正月 30일/ 전송하는 예 로 한이 준 것	준거 거거	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 1벌, 꿰맨 날접여조괘 1벌, 호박을 넣은 산호 엄주 1개, 큰 호박 1개, 각종 粧緞, 片金 (giltasikū) <sup>33)</sup> , 조각 조각의 가죽상자 1개, 삼중으로 조각한 안장을 맨 말 1마리
	오오바	황색 비단으로 테두리를 꿰맨 가죽옷 1벌, 금 상감된 골레와 밀치끈을 채우고 보통 안장을 맨 말 1마리

투스예투 칸 오오바와 준거 거거가 받은 예물은 규모나 가치 면에서 최고의 예물이 담긴 물품들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事例는 아니라 하더라도 누르하치 시대에 비해 예물 품목이 더욱 다양하고 화려해졌음을 보여준다. 홍타이지가 하사한 물품에는 진주와 東珠·琥珀·산호·瑪瑙·청금석·수정 등 보석과 엄주뿐 아니라 담배와 茶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담배는 대략 16세기 말에는 일본과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 지역에도 들어와 17세기 초에는 만주인들의 기호품으로 자리 잡았다.<sup>34)</sup> 후금과 명의 교역이 중단된 이후 후금이 담배를 조달할 수 있는 창구는 조선이 유일했으므로 홍타이지가 몽골 귀족들에게 하사한 담배는 조선을 통해 입수했을 것이다.<sup>35)</sup>

홍타이지가 코르친 우익 오오바를 견제하기 위해 코르친 좌익 수장들과 적극적으로 통혼한 결과 만주 종실과 코르친 좌익은 ‘一家’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예우도 다른 몽골 부족들에 비해 친밀하고 극진했다. 홍타이지는 코르친 좌익의 콩고르 마파(konggor mafa)가 후금을 방문한 때에도 극진한 예로 맞이했다.<sup>36)</sup>

30) 만주어로는 solha. 뚜껑이 있는 금속 밥그릇이다.

31) kaikamsi라고 되어 있는 이 물품에 대해 『內閣藏本滿文老檔』 簽註에는 “무슨 말인지 찾을 수 없어 원래대로 베껴 썼다”로 했다. 東洋文庫 일역본에서는 『大清全書』의 ‘kaikamari’와 『淸文彙書』의 ‘kaikari’ 항목을 참고하여 kaikamsi를 바닷조개인 ‘거거(磳磳)’로 보았다. 磳磳은 거거과의 바닷조개로, 껍데기는 부채를 펼쳐놓은 모양이고, 겉은 회백색이고 속은 광택 있는 우윳빛이다. 껍데기는 그릇이나 어항으로 쓰이거나, 각종 장식품으로 쓰이며 예로부터 七寶 중의 하나로 쳤다. 『만문노당역주』 太宗 2, p763, 각주7 참조.

32) siberhen에 대해 『內閣藏本滿文老檔』 簽註는 “삼가 찾아보니 <無圈點十二字頭>와 <舊淸語>에 모두 siberhen이라는 말이 없다. <淸文鑑>에 siberhen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와 맞지 않는다. 찾을 수 없어서 원래대로 베껴 썼다.”라고 했다. siberhen은 양초의 심지 혹은 손끝으로 비벼서 끈 종이 끈이나 촛불의 심지를 가리킨다. 한어로 엄지(捻紙) 혹은 연자(撚子)라고 한다. 이훈, 『만한사전』, p.742.

33) 片金은 금실로 꽃무늬를 수놓은 비단이다.

34) 이하 담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논문 참조. 임경준, 「담배 태우는 만주인들 - 청초 만주인의 담배문화와 烟禁令-」 『淸史研究』 제55집, 2021.

35) 임경준, 「담배 태우는 만주인들」, pp.89-91.

36) 콩고르는 명안, 망구스 타이지의 형제로 그의 딸이 만력43(1615)년 누르하치와 혼인했으므로 코르친 좌익의 원로 수장이자 누르하치의 장인으로서 만주 종실들에게 ‘마파(mafa, 할아버지)’라는 존칭으로 불렸다.

천총5년 2월 22일 콩고르 타이지가 ‘고두하러 온 예(hengkileme jihe doru)’로 가져온 말 8마리, 낙타 1마리, 초피 털가죽 외투 1벌,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2마리 말 중에서 안장과 굴레를 채운 말 2마리와 낙타 1마리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고 말 6마리와 초피 털가죽외투만 취했다. 그리고 콩고르 버일러와 시종 104명에게 양·사슴·꿩·생선·차와 우유·버터·멧쌀·소금과 땀감·술 등 후금에서 지내면서 사용할 식량과 땀감을 지급했다.<sup>37)</sup>

3월 15일 콩고르 마파가 코르친으로 돌아갈 때 전송하는 예로 준 물품은 오오바와 준저 거거에게 준 예물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정교하게 장식된 안장, 갑옷과 투구, 화살통 등의 위신재와 금·은이 들어간 각종 용기, 흑초피와 망단·왜단으로 만든 의복, 비단과 직물 그리고 독수리 깃과 같은 가치가 높고 상징성 있는 물품을 선사함으로써 콩고르 마파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sup>38)</sup> 또 홍타이지는 오오바와 콩고르에게 자신이 입던 가죽옷을 선사했는데 이는 인척으로서의 친밀감과 한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sup>39)</sup>

홍타이지가 오오바 부부와 콩고르가 진헌한 물품 중 일부를 돌려보낸 사실도 주목된다. 천총5년 정월 초2일 투시예투 한 오오바와 준저 거거가 잔치하는 예(sarilaha doru)로 홍타이지와 대버일러 다이산, 망골타이에게 예물을 바쳤는데 홍타이지에게는 안장을 맨 말 1마리·맨등말 1마리·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 1벌을 바쳤다. 홍타이지는 안장을 맨 말은 받고 말 1마리와 가죽옷을 돌려보냈다. 또 ‘한(han)의 집에서 준 것’을 나열한 뒤 오오바와 준저 거거가 후금에 가져온 가죽 중 절반은 돌려보내고 홍타이지는 말 7마리·가죽옷 1벌·겨울모자 1개·초피 털가죽 외투 1벌을 취하고, 두 명의 푸진은 양 50마리씩, 소 5마리씩, 초피로 만든 조약한(ehe) 털가죽외투 1개씩 받았다고 기록했다.

기록에는 홍타이지가 하사한 막대한 양의 고급 물품을 일일이 열거한 후 오오바 부부가 바친 가죽이나 물품은 대부분 돌려보내고 극히 일부만 취한 것이 강조되었다. 그나마 홍타이지의 푸진이 취한 것은 ‘조약한’ 털가죽 외투였다. 또 콩고르 타이지가 고두하러 온 예로 바친 물품 중 말 6마리와 초피 털가죽외투만 수령했다고 명시하는 등 천총 연간부터 후금 한과 몽골 귀족들 사이에 오간 예물 관련 기록에는 ‘한이 받지 않고 돌려보낸’ 물품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만주 정권과 코르친 부족의 혼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암바 마마(amba mama, 大妃)와 아지거 마마(ajige mama, 次妃)이다.<sup>40)</sup> ‘암바 마마’는 코르친 좌익수장 망구스의 아내이자 홍타이지의 中宮 푸진 孝端文皇后의 모친이다. 암바 마마

37) 『滿文老檔』(東洋文庫)V 太宗天聰35 天聰5年 2月 19日, 20日, 22日, 24日, pp.477-479; 『만문노당역주』 태종2, pp.778-781.

38) 『滿文老檔』(東洋文庫)V 太宗天聰36 天聰5年 3月 15日, p.485; 『만문노당역주』 태종2, pp.790-791.

39) 『滿文老檔』(東洋文庫)V 太宗天聰34 天聰5年 正月 初1日, p.461(『만문노당역주』 태조2, p.752); 太宗天聰35 天聰5年 3月 初5日, p.481(『만문노당역주』 태조2, p.784).

40) 만주어로 마마(mama)는 ‘할머니, 조모’를 뜻한다. 『淸實錄』은 암바 마마와 아지거 마마를 각각 大妃와 次妃로 칭했다. 홍타이지는 후에 암바 마마를 ‘福妃’(자사크 부안투 카툰), 아지거 마마를 ‘賢妃’(자사크 빙투 카툰)로 봉했다.

의 며느리 이지거 마마는 망구스의 아들 자이상의 아내이며 莊妃(훗날 효장문태후)의 모친이다. 따라서 암바 마마와 이지거 마마는 홍타이지의 장모들이 된다. 암바 마마와 이지거 마마는 만주 종실과 적극적으로 통혼을 추진했으며 이지거 마마의 아들인 옥산, 차간, 소놈, 만주시리와 그들의 자손들도 만주 종실과 매우 밀접한 인친관계를 맺었다.<sup>41)</sup>

천총3(1629)년 윤4월 19일 암바 마마와 이지거 마마가 처음으로 후금을 방문했을 때 홍타이지는 다이산·망골타이·아민 등 버일러들과 비빈을 이끌고 나가 예를 다해 접견했다.<sup>42)</sup> 『淸太宗實錄』에 의하면 암바 마마는 담비가죽옷·담비가죽 외투·金佛頂을 단 담비 모자·금 가죽띠·손수건과 주머니·朝衣·신발·金佛頂을 단 여름모자를 홍타이지에게 바치고 朝衣·금불정을 단 여름모자·낙타·말·소·양 등의 물품을 두 명의 푸진에게 바쳤다.<sup>43)</sup> 그리고 세 大버일러에게 각각 말 2마리·소 5마리·양 20마리씩, 다른 버일러들에게 말 1마리씩을 선물했다. 홍타이지는 암바 마마가 바친 것들을 나누어 다시 세 명의 大버일러와 공주들에게 낙타 1마리씩 하사했다. 5월 6일 암바 마마가 귀국할 때 홍타이지는 가죽과 비단·의복·금과 진주·안장을 갖춘 말·활과 화살·갑옷과 투구·그릇과 여러 물품들을 매우 후하게 하사했다.<sup>44)</sup>

이후 암바 마마와 이지거 마마, 옥산 타이지 등과 홍타이지는 자주 사신을 파견해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사신을 통해 전달된 물품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암바 마마 일족은 말과 양, 초피 외에 송골매, 철갑상어(ajin nimaha, 鱧鯉魚)를 보내기도 했고 홍타이지는 답례로 초피모자와 의복, 비단과 모청포, 담배·살담배 등을 보냈다.

천총7년(1633) 4월 28일 암바 마마와 이지거 마마, 옥산, 만주시리 어푸와 그의 아내 거거(요토의 장녀)가 후금을 방문했을 때 홍타이지는 여러 버일러들을 이끌고 ‘장모에 대한 예’로 접견했다. 또 옥산과 만주시리 등이 한에게 고두할 때에도 ‘친척의 예’로 서로 행례하며 만났다고 하는 등 사료에서는 만주 종실이 암바 마마 일족과 매우 친밀한 ‘一家’임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때 암바 마마의 딸과 어르커 추후르 버일러 도도의 혼인이 성사되었고 암바 마마의 아들 키타트와 홍타이지의 딸 다저(Daje) 공주의 혼인도 결정되었다.<sup>45)</sup>

암바 마마 일가는 홍타이지와 푸진들에게 많은 예물을 선사했고 홍타이지 일가도 이들에게 막대한 양의 예물을 선물했다. 암바 마마 일가가 후금에 도착한 4월 28일부터 6월 초2일 귀국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회와 예물교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다. 예물의 수량과 품목이 특기할 만한 사례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이선애, 「청 초기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p.42; 杜家驥, 『清代滿蒙聯姻關係』, 人民出版社, 2003, pp.4-13; 楠木賢道, 『淸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pp.93-100.

42) 『淸太宗實錄』 卷5 天聰3年 閏四月 甲戌日.

43) 여기에서 두 명의 푸진은 암바 마마의 딸 저저 즉 효단문황후와 이지거 마마의 딸 봄보고르 즉 莊妃일 것으로 추정된다.

44) 『淸太宗實錄』 卷5 天聰3年 5月 庚寅日.

45) 『內國史院檔 天聰七年』(東洋文庫, 2003), 天聰7年 5月 初6日, pp.49-51; 『淸太宗實錄』 卷14 天聰7年 5月 丁酉日.

증여자	수령자	바친 예물	수령한 예물
암바 마마	홍타이지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2필, 맨등의 좋은 말 6필, 낙타 10마리, 맨등말 89필, 소 95마리, 양 1천마리, 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에 초피로 안감을 맨 가죽옷 1벌, 초피 피단조 1벌, 국화정을 박은 방한모 1개, 조각한 은 요대 1개, 꽃모양 있는 비단 신발 1쌍, 푸른 망단 조의 1벌, 초피 100장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필, 맨등말 4필 수령. 나머지 말·낙타·소·양은 모두 돌려줌. 가죽옷, 피단조, 초피, 비단, 요대 등은 모두 수령.
	암바 푸진	倭緞 날접여조패, 날접여조의 1습	수령
	아지거 푸진	蟒緞 날접여조의, 粧緞 날접여조패 1습	수령
아지거 마마	홍타이지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2필, 맨등말 3필, 낙타 6마리, 방목한 맨등말 80필, 소 90마리, 양 1천마리, 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에 초피로 안감을 맨 가죽옷 1벌, 초피 피단조 1벌, 모자술을 달은 옥초 여름모자 1개, 비단 요대에 손수건과 주머니를 매단 것, 꽃무늬 신발 1쌍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필, 맨등말 4필 수령. 나머지 말·낙타·소·양은 모두 돌려줌. 가죽옷, 피단조, 초피, 비단, 요대 등은 모두 수령.
	암바 푸진	장단 날접여조의, 망단 날접여조패 1습	수령
	아지거 푸진	망단 날접여조의, 장단 날접여조패 1습	수령
	新(ice) 푸진 <sup>46)</sup>	龍緞(undurakū) 날접여조의, 망단 날접여조패 1습	수령
육산 낙추	홍타이지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필, 맨등말 4필, 낙타 10마리, 방목한 맨등말 90필, 소 90마리, 양 1천마리, 망단 조의 1벌, 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 1벌, 초피 피단조 1벌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필, 맨등말 2필 수령. 나머지 말·낙타·소·양은 모두 돌려줌. 가죽옷, 피단조, 초피, 비단, 요대 등은 모두 수령.
	新푸진	비단 날접여조의, 망단 날접여조패 1습	수령
만주시리 어 푸	홍타이지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필, 맨등말 4필, 낙타 5마리, 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 1벌, 초피 피단조 1벌	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필, 맨등말 4필 수령. 나머지 말과 낙타는 돌려줌. 가죽옷, 피단조 수

증여자	수령자	바친 예물	수령한 예물
			령.
	암바 푸진	초피 50장	수령
	아지거 푸진	초피 50장	수령
	新푸진	초피 50장	수령
초 이 르 자 이 타이지	홍타이지	말 2필, 낙타 6마리, 방목한 맨등말 88필, 소 90마리, 양 1천마리, 망단 무선견조의 1벌, 초피 피단조 1벌	말 2필
키타트	홍타이지	망단 무선견조의 1벌	수령
자루트부 지르갈랑 타이지	홍타이지	말 6필, 낙타 3마리	말 2필

<표2. 천총7년 4월 28일 “만나러 온 예로 가져온 가죽(acanjihha doru i gajiha ulga)”><sup>47)</sup>

기록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말 22마리 외에 나머지 말·소·양·낙타는 모두 돌려주고 가죽옷과 피단조, 날접여조괘, 날접여조의, 각종 비단과 초피, 신발, 요대, 방한모 등은 모두 취했다. 가죽은 일부만 받고 비단과 초피, 朝衣, 요대 등 고가의 사치품은 수령하는 경향은 누르하치 시대에 이어 천총 연간에도 이어진다. 이러한 물품의 대부분은 궁정의 사치품으로 소비되기보다 하사품으로 재분배되었거나 교역 물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천총 연간 후금에 기부한 내몽골 부족들과 한인 장수들이 증가했으므로 이들과 만주 종실 및 대신들에게 償賜할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했다.

4월 29일 암바 마마 일족에게 소규모 예물이 하사되었고 5월 초9일에는 아지거 마마가 홍타이지와 푸진들을 초대해 주연을 베풀고 ‘주연의 예(sarin i doru)’로 초피로 테 두른 가죽옷과 피단조, 초피 100장과 검은여우 가죽 4장, 호박 염주, 금·은 용기 등과 맨등말 187마리를 바쳤다. 홍타이지는 이번에도 초피와 검은여우 가죽은 모두 수령했으며 안장을 맨 말 1필과 맨등말 4필을 취하고 나머지는 돌려주었다.

5월 26일에는 조선이 보내온 예물을 암바 마마 일행에게 구경시키고 일부를 나누어주었다.

(5월 26일) 그날 한, 암바 버일러, 버일러들이 대전에 나와 조선 국왕 이종이 보내온 예물의 재화를 붉은 탁자 위에 연이어서 모양을 내고 아문 앞에 나란히 놓고, 보내온 兵部侍郎(bing bu sylang) 朴籊라는 관원을 한에게 알현시킬 때<sup>48)</sup> 한의 장모 암바

46) 자루트부의 타이지가 암바 마마 일행과 함께 예물을 진헌한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푸진’은 천총6년에 홍타이지의 東宮 푸진이 된 자루트부 다이칭 버일러 서번의 딸로 추정된다. 서번의 딸은 홍타이지와 혼인한 지 3년만에 이혼하고 여허나라씨 남저에게 개가했다. 杜家驥, 『清朝滿蒙聯姻研究』, p.116 참조. 코르친부 아지거 마마의 딸이자 莊妃 봄보고르의 언니인 하이란주(훗날 關雎宮 宸妃)도 ‘새로운 푸진’일 수 있지만 그녀는 천총8년에 홍타이지와 혼인했으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47)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天聰七年 4月 28日, pp.40-45.

마마와 아지거 마마 두 누님(eyun), 옥산 낙추의 두 아내, 만주시리 어푸의 아내 거거를 …… 國이 보내온 물건을 보라고 아문으로 데려와 한의 옆에 앉히고 보내러 온 관원을 무릎 꿇게 하고 만났다. 만남이 끝난 후, 보내온 재물 중에서 두 마마에게 豹皮 3장씩, 綿紬 25필씩, 모청포 30필씩, 白布 50필씩, 綠斜皮 50필씩, 涼席 3개씩, 大紙 15첩씩, 小紙 30첩씩, 紺(nikan hasi) 50묶음, 供品(제물, sori) 3升, 胡珠(hūju)<sup>49)</sup> 3승, usiha faha(?) 3승을 주었다. 암바 마마에게 단도와 folo(?)를 주었다. 옥산 낙추, 만주시리 어푸에게 豹皮 2장, 涼席 2개, 綿紬 15필, 腰刀 1개, 모청포 30장, 白布 50장, 녹사피 50장, 大紙(주었다.) 7첩, 小紙 35첩, nikan hasi 50묶음, 供品 3승, 胡珠 3승, usiha faha 3승을 주었다.<sup>50)</sup>

홍타이지는 이때 후금에 온 春信使 朴簠를 통해 조선 국왕 인조에게 방물을 수량대로 맞추고 義州에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물자 수급을 위해 조선을 압박했다.<sup>51)</sup> 천총10년 정월 암바 마마가 후금을 방문했을 때에도 홍타이지는 조선의 大緞과 彭緞·紡絲, 조선에서 입수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담배와 살담배 등이 포함된 다량의 예물을 선물했다.<sup>52)</sup> 또 승덕2년(1637) 조선이 공물로 보낸 수달가죽과 靑黍皮를 할하의 사신들에게 하사한 기록을 통해서도 조선의 물품이 만주 한-황제를 매개로 몽골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sup>53)</sup>

명과 互市를 해온 카라친과 투메드부도 명의 물산이 후금-청으로 흘러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였다.

같은 그 날(천총5년 4월 초1일), 카라친의 군지<sup>54)</sup>의 아들 다람디가 1필의 倭緞 4尋·황색 비단 1필·남색 비단 1필·낙타 1마리와 말 1마리를, 영커서령 타이지가 琥珀 12개·말 1마리를, 도노이 군지와 서령 타부낭은 푸른 鱗緞 1필·남색 비단 1필·金佛頭를 박은 1개의 倭緞 모자·낙타 1마리·조각한 안장과 굴레를 걸친 말 1마리·맨등말

48) 『內國史院檔』 일역본에는 pio lu를 朴祿이라고 표기했지만 당시 춘신사로 후금에 간 사람은 병조 참판을 지낸 朴簠이므로 수정한다.

49) 중앙아시아산 진주.

50)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天聰七年 5月 26日, pp.66-67. 밑줄 친 부분은 저본에 塗抹처리 된 것으로 『내국사원당』 역주팀이 順治本 滿文 『太宗實錄』 해당 부분을 참고해 복원한 것이다. 동양문고 역주본은 밑줄 친 부분을 傳寫만 하고 해석하지 않았지만 본고에서는 해석했다. 또 동양문고 역주본에서 저본의 행간에 가필된 문장과 어휘를 괄호 표시로 나타냈는데 본고에서는 생략했다.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범례6·7 참조.

51) 『朝鮮王朝實錄』 仁祖11年 6月 丙子(16일).

52) 『滿文老檔』(東洋文庫)VI(太宗3) 太宗崇德1 天聰10年 正月 23日, p.901-902; 『만문노당역주』 태종3, pp.1443-1445.

53) 『清太宗實錄』 卷39 崇德2年 11月 辛未日. “辛未以朝鮮所貢獺皮·靑黍皮 賜喀爾喀部落使臣土謝圖汗下京理諾爾舍進·碩雷下貝袞渾津希喇布·賽音台吉下得進·豆爾格齊台吉下瑣諾木·蘇尼特部落騰機思下哈喇吳巴什·阿巴圖·叟塞濟農下巴綏·阿海台吉下宜爾巴·衛徵貝勒下吳巴什·車臣福金下朱喇威·湯古忒台吉下額爾克·塞冷諾木齊下巴牙思護朗·哈喇戶藍下阿爾哈·騰機特下土古爾·蒿齊忒部落巴琿下塞莫·博洛特下諾木齊等有差”.

54) 朶顏衛 우량하이(兀良哈) 타부낭에게 시집간 카라친 타이지의 딸을 ‘아바하이’ 혹은 ‘군지’라고 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도노이 군지’에 대해 우운빌릭(烏云畢力格)은 카라친부 타이지의 딸로 타안 올랑합의 여성 수령이었을 추정했다. 烏云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內蒙古人民出版社, 2005, p.79.

1마리를, 소늬 타부낭은 호박 112개·石靑素緞袍 1벌·낙타 1마리·石魚 껌질을 입힌 안장과 굴레를 맨 말 1마리·맨등말 1마리를, 도노이 군지는 帽緞 朝服 1벌·金佛頭가 박힌 倭緞 모자 1개·황색 비단이 누벼진 신발 1벌·낙타 1마리와 말 1마리를, 성걸러 타부낭은 말 1마리, 축투 타부낭은 말 1마리, 반디 타이지 말 1마리, 타라이 밍간의 서령 타이지 말 1마리, 엽슈 타부낭 노새 1마리, 갈투 타부낭은 말 1마리, 아라시 타이지가 말 1마리를 가지고 왔다. 호박·鱗緞·비단·朝衣·두루마기·모자·신발을 취했다. 낙타·말·노새는 취하지 않고 되돌려주었다. 온 禮로 1마리 양을 잡고 1마리 사슴 고기로 잔치했다.<sup>55)</sup>

(천총5년 4월)초 2일에, (투메드부) 도르지 타부낭이 6尋의 倭緞 1필·남색 비단 1필·말 1마리, 아지나이가 菩提珠 염주에 호박 記念子(to)<sup>56)</sup> 모두 있는 것·鱗緞 1필·남색 비단 2필·말 1마리를 가지고 왔다. 염주·鱗緞·비단을 취하고 말은 되돌려주었다.<sup>57)</sup>

위 사료는 카라친과 투메드 부락의 진공 물품과 관련된 많은 기록 중 하나이다. 천총 연간 카라친과 투메드의 진헌 물품을 살펴보면 말과 낙타도 다수 있지만 다른 몽골 부족들과 다르게 각종 비단과 직물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이들이 명과 호시를 통해 후금-청의 對明 교역 창구로 기능한 것과 관련이 있다.<sup>58)</sup>

카라친은 명조와 접경하여 원래부터 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카라친과 투메드의 황금씨족과 우량하이 타부낭은 모두 명조와 무역 관계를 유지했고 명조로부터 撫賞銀을 수령했다. 차하르가 西遷한 이후 카라친과 투메드는 만주정권과 가까워졌지만 이들과 명조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홍타이지는 카라친·투메드의 對明 무역 관계를 유지시켜 그들을 통해 명의 물자를 들여왔다.<sup>59)</sup>

홍타이지가 카라친과 투메드가 진헌한 예물 중 말과 낙타는 돌려보내고 비단과 의복·보석은 수령한 이유는 이러한 물품이 주로 對明 교역을 통해 들여올 수 있는 필요한 물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물품들은 다시 償賜와 무역을 통해 몽골 부족에게 공급되었다. 후금-청은 내몽골 부족이 명과 직접적으로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의무 또한 있었다. 이에 청은 카라친·투메드·오르도스를 통해 들여온 명의 비단과 면포 등을 償賜와 무역의 방식으로 몽골 부족들에게 제공하고 다시 몽골 부족을 통해 전쟁에 필요한 말과 牲畜을 얻었다.<sup>60)</sup>

승덕 연간 청조는 귀화성투메드가 順義王의 명의로 명과 교역하는 것을 허락했다.<sup>61)</sup> 귀화성투메드는 매년 例에 따라 명으로부터 償賜를 받아 그것을 다시 청조에

55) 『滿文老檔』(東洋文庫)V(太宗2) 太宗天聰36 天聰5年 4月 1日, p.494; 『만문노당역주』 태종2, pp.803-805.

56) to(記念子)는 염주나 구슬 걸이의 기준이 되는 구슬이다.

57) 『滿文老檔』(東洋文庫)V 太宗2 太宗天聰36 天聰5年 4月 初2日, p.495; 『만문노당역주』 태종2, p.805.

58) 烏云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p.136

59) 烏云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p.136

60) 達力扎布, 『明代漠南蒙古歷史研究』, 內蒙古文化出版社, 1998, p.333-334.

61)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朝貢制度初探』『蒙元史暨民族史論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pp.420-422.

진공했다. 귀화성투메드는 매년 평균 말 100필, 비단 100필을 진공했으며 청조는 이들이 바친 물품을 모두 수령했다. 入關 후 順治2년(1645) 外藩 조공제도를 조정할 때 귀화성투메드의 貢賦도 다시 조정해 말 163마리를 진공하게 하고 비단 진공은 면제했다.<sup>62)</sup> 명이 멸망하자 귀화성투메드의 비단 上貢의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된 것이다.

#### 4. 황제의 은혜: 승덕 연간 이후 進貢과 回賜

崇德 원년(1636) 4월 홍타이지의 大清皇帝 즉위식을 위해 외번몽고 수장들이 속속 후금에 도착한 후 예물 진헌과 하사의 의식이 거행되었다. 4월 16일, 18일에 코르친 좌·우익과 아루, 나이만·자루트·바린·투메드 등의 몽골 부족들이 말과 낙타, 초피 가죽옷 등을 진헌했는데 홍타이지는 이를 받지 않고 모두 돌려주었다. 그리고 4월 23일 만주 종실과 외번 몽골 수장들을 論功해 책봉하고 등급에 따라 조각한 안장과 굴레, 갑옷과 투구, 금과 은그릇, 閃緞과 망단을 상 내렸다. 이어서 황제가 ‘大位에 앉은 禮(amba soorin de tehe doro)’로 외번몽고 귀족들에게 막대한 양의 물품을 償賜했다. 이때의 예물도 몽골 부족장들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

코르친 우익 투시예투 親王 바다리와<sup>63)</sup> 좌익 조릭투 親王 옥산에게 倭緞과 蟒緞 1필씩, 비단 8필, 모청포 30필, 銀으로 된 다리 있는 酒海 1개, 갑주와 갑옷 소매 1벌, 조각한 안장과 굴레 1개, 수달피와 綠斜皮를 4장씩 지급하고 옹니우트부의 두령 군왕인 순 두령과 나이만의 다른 군왕 군추스, 코르친 우익 자삭투 군왕 부타치, 좌익 바투루 군왕 만주시리 이 4명에게 친왕들보다 약간 적은 예물을 지급했다.<sup>64)</sup> 그 외 여러 몽골 귀족들에게 차등적으로 예물을 지급했는데 이 기록에는 封號를 받지 못한 인물들도 등장하므로 이를 통해 작위 체계 밖에 있는 내몽골 귀족들의 서열과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sup>65)</sup>

62) 康熙朝『大清會典』卷144 理藩院 朝貢. “國初定, 歸化城土默特二旗, 每年四季貢馬一百匹, 緞一百匹”; “順治二年題准, 歸化城土默特二旗, 四季貢馬一百六十三匹, 免貢緞匹”. (拉巴平措 主編, 『乾隆朝內府抄本《理藩院則例》』, 中國藏學出版社, 2006, p.193). 그러나 順治14년에 매년 石青 2千斤을 공납하도록 했다(拉巴平措 主編, 『欽定大清會典事例 理藩院』, 中國藏學出版社, 2006, p.318).

63) 바다리는 투시예투 칸(혹은 어푸) 오오바의 아들이며 오오바가 천총6년에 사망한 뒤 그의 지위를 계승했다. 바다리는 준저 거거와 혼인하여 ‘어푸’의 지위를 이었으나 투시예투 칸이 아닌 투시예투 지능으로 불리다가 승덕 원년에 투시예투 친왕의 작위를 받았다.

64) 승덕 원년 외번몽고 왕공에 대한 책봉에 대해서는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pp.174-181; 이선애, 「동맹의 代價에서 충성의 代價로」, 『東洋史學研究』 제156집, 2021 참조.

65) 親王과 郡王 다음으로 옹니우트부 다른 다이칭, 그 다음으로 자루트의 마니 칭 바투루, 코르친의 바이스갈, 코르친의 몽쿠와 이 3인, 바린의 आय시· 만주시리· 四子部の 이르잠, 도르베트의 가르마, 자루트의 네이치· 하바가이, 아루의 달라이, 옹니요트의 사양, 우라트의 서령, 하라 체릭의 가르마, 코르친 라마스히· 무자이· 大상가르자이· 무장 이 14인, 우라트의 투먼· 두바, 고를로스의 구무· 불바, 두르베트의 서령· 처건 구무, 코르친 콩고르 마파 이 7인, 그리고 카라친부 자사크 두령(구루스힉), 투메드부 우익 자사크 히야 노얀(경걸)· 좌익 자사크 다르한(삼바)이 열거되었다. 카라친과 투메드부 수장들에게는 銀兩이 지급되었다. 『滿文老檔』(東洋文庫)VI(태종3) 太宗崇德9 崇德元年 4月 23日, pp.1016-1017; 『만문노당역주』 태종3, pp.1621-1624.

같은 23일에 황제는 ‘집 창고의 재화 각종 물품(booi ku i ulin ai ai jaka)’을 몽골 귀족들에게 하사했다.<sup>66)</sup> 이 기록에는 앞서 언급된 인물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앞의 償賜에서 제외된 인물들이 포함되기도 했다. 예컨대 코르친 좌익의 아지거 마마와 카라친부 구르스힘의 모친(수부디 타부낭의 아내)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조릭투 친왕·바투루 군왕·도로이 자삭투 군왕 등은 또다시 예물을 하사받았다.

물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蟒緞·倭緞·龍緞·粧緞, 모청포, 綠斜皮· 금 도금한 銀腰帶, 腰刀, 조각한 안장과 화살통, 걸미늘·속미늘 갑옷, 비단 朝衣, 金絲로 동전 모양을 낸 겹옷(袍), 망단 舞扇肩朝衣, 茶, 담배와 살담배, 수달피와 초피, 상아로 만든 탕반관, 솔로이國 小刀<sup>67)</sup>, 솔로이國 안장, 剪絨 등이 지급되었다. 앞의 償賜와 다르게 몽골 수장들의 작위 등급과 상관없이 개인에 따라 물품과 물량에 차이가 있는데 지급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숭덕 원년 이후 만주의 한과 몽골 수장들 사이에 왕래한 선물은 大清 황제에 대한 몽골 왕공들의 進貢과 몽골 왕공에 대한 황제의 下賜로 변화되었고 이와 관련된 초보적인 규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대청황제가 된 홍타이지는 후한 상을 내려 몽골의 마음을 얻고 덕 있는 황제의 면모를 드러내고자 했다.

(숭덕 원년 7월) 14일에 성스러운 황제가 學士 히퍼·가린· 范文程 등에게 말하길, “코르친 투시예투 어푸의 향가이라고 하는 좋은 말에 우리가 갑옷 10벌을 주겠다고 했지만 (투시예투 어푸는) 주지 않았었다. 그것을 몽고의 차하르 칸이 가져오라 하여 빼앗아 취하고 1개의 투구만 주었었다. 그 뒤로 코르친 버일러들의 마음이 (차하르 칸에게서) 멀어졌다. 또 (차하르 칸이) 그 1개의 투구를 아루의 지농에게 보내어 1천 필의 말을 가져오라고 하자 아루의 지농이 말하길, ‘1개의 투구가 1천필 말의 가치일 리 있겠는가? 이는 우리에게 괜히 빌미를 잡아 침범하려는 것이다. 주지 않을 수 없다’라며 500필의 말을 (차하르 칸에게) 주었었다. 그 뒤로 아루 諸王의 마음이 멀어졌다. 또 (차하르 칸이) 코르친의 조릭투 친왕에게 날아가는 기러기를 낚아채 잡을 좋은 매를 가져오라고 사신을 파견하자, 조릭투 친왕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투시예투 어푸가 충고하여 (차하르 칸에게) 주게 했었다. 그 매를 취하고도 전혀 보상을 주지 않고 보낸 자를 만나지도 않았었다. 그리하였으니 사람의 마음이 어찌 따르겠는가. 지금 곳곳의 몽고가 올 때마다 크게 상 내려 자애해 주므로 헤어질 마음 없이 연연해하며 귀국한다. 그렇게 하여 몽고國이 모두 부유하고 평안하게 산다. 그를 헤아리건대 위력으로 복종시키는 것 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上策인 것이다.”라고 하자 學士 히퍼 등이 답하길 “德으로 다스리는 것은 화합하고,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무너진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했다.<sup>68)</sup>

66) 『滿文老檔』(東洋文庫)VI(태종3) 太宗崇德9, 崇德 元年 4月 23日, pp.1018-1021; 『만문노당역주』 태종3, pp.1624-1630.

67) ‘솔로이國’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外蕪하의 솔로이 세첸 칸 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8) 『滿文老檔』(東洋文庫)VI(태종3) 太宗崇德21 崇德元年 7月 14日, pp.1178-1180; 『만문노당역주』 태종3, pp.1880-1882.

홍타이지는 차하르부 립단 칸이 내몽골 부족들의 인심을 잃게 된 사정을 자신과 대비시켰다. 몽골 왕공들의 소중한 물품을 강탈하는 차하르 립단 칸과 달리 홍타이지 자신은 몽골 부족들에게 크게 상을 내림으로써 이들을 평화롭고 부유하게 하는 자애롭고 덕을 갖춘 칸-황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몽골 수장들이 바친 예물을 일부만 받거나 모두 돌려주고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예물을 하사한 행위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승덕2년(1637) 10월 30일에는 萬壽節과 元旦, 大喜事에 외번몽고가 진헌하는 예물의 액수를 제한했다. 그리고 3년 뒤인 승덕5년(1640) 4월 다시 한번 도로이 安平 버일러 두두를 통해 개정된 조례를 宣示했다.

[a] 奉天承運寬溫仁聖皇帝가 詔를 내려 말하길, 萬壽節과 元旦·大喜事는 예부 아문에서 진헌예물 액수를 제정한다. 외번 諸王·노안·타이지나르(타이지의 복수형)가 진헌하는 예물의 액수는 旗마다 萬壽節에 聖上께 말 4마리씩, 황후께 말 2마리씩 進獻한다. 祇應(首思, süsi)은 각기 소 1마리·양 8마리. 大喜事 때 외번 諸王·노안·타이지나르가 聖上께 말 2필, 황후께 각기 말 1필씩 진헌한다. 祇應(首思) 각 소 1마리·양 8마리씩. 元旦에는 聖上께 말 4필을 진헌하고 황후께 말 2필을 진헌한다. 祇應(首思) 각 소 1마리·양 8마리(이다).<sup>69)</sup>

[b] 도로이 安平 버일러(두두)가 諭를 받들어 외번 王·자사크·타이지 등에게 元旦 筵宴 宰牲 數目 條例를 宣示하였다. 「예전에 萬壽節과 元旦 때 聖上和 母后에게 진헌하는 예물이 너무 많다고 하여 이미 두 번이나 감소시켰다. 지금 다시 만수절과 원단 때 聖上和 母后에게 진헌하는 예물을 철저히 취소하고 筵宴의 禮를 다시 정한다. 외번몽고 각부의 親王·郡王 및 자사크 노안들·타이지나르는 旗마다 新年 宰殺·연회용 牲畜을 聖上께 소 1마리·양 8마리·술 9단지씩 진헌하고 母后께는 소 1마리·양 6마리·술 7단지씩 바친다. 만수절 및 일곱 가지 喜慶之事 때 聖上 및 母后의 筵宴에도 이 관례대로 牲畜을 宰殺한다.」<sup>70)</sup>

[a]와 [b] 조례가 반포된 사이인 승덕4년(1639) 春正月 初6일자로 이번원이 작성한 예물 진헌 목록을 보면 新年 하례로 코르친 우익 투시에투 친왕과 자사크투 군왕, 다른 호쇼치 두르베트부의 서령, 코르친 좌익 조릭투 친왕·동코르, 고를로스부 분바·구무, 아오한部 구룬 어푸 반디와 나이만部 다른 군왕, 우라트의 투바·오보겐·박바하이, 자루트部 상가르·너지치·무장, 바린部 만주시리·아유시, 옹니우트部 두렁 군왕·다른 다이칭, 카라친部 자사크 두렁 서령, 투메드部 자사크 다른 움부가 말 6마리, 祇應으로 소 1마리·양 8마리·술 9단지를 바쳤다. 그리고 귀화성 투메드의 장긴들이 말 50마리와 비단 58필을 바쳤다.<sup>71)</sup>

69)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 01-02-26 <崇德帝欽定慶賀萬壽節元旦進獻禮物額數之則例>, 崇德2年 10月 30日, p.28.

70)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 01-04-07 <多羅安平貝勒奉諭宣示外藩諸王扎薩克台吉等元旦筵宴宰牲數目條例>, 崇德5年 4月 初4日, p.39.

71)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 <附錄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李保文整理《十七世紀前半期蒙古

숭덕4년 정월에 몽골 수장들이 바친 물량은 말 6마리와 지용 소 1마리· 양 8마리· 술 9단지로 숭덕 2년의 규정보다 말의 숫자는 오히려 2마리 증가했고 祇應으로 술이 첨가되었다. 따라서 숭덕5년 다시 조례를 반포해 황제와 황후에 대한 말 진헌은 아예 철폐하고 연회를 위해 희생되는 소와 양 그리고 술의 수량만 규정한 것이다. 사료 [b]를 참고하면 [a]에 등장하는 祇應 즉 몽골어로 ‘수시(süsi, 首思)’는 몽골 제국 시기에는 역참에서 제공되는 보급물자를 의미했지만 여기에서는 연회를 위해 사용될 가축과 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만수절과 원단 때 황제와 황후에게 진헌하는 물품을 제한했을 뿐 외번몽고가 황제에게 바치는 모든 예물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숭덕4년(1639) 정월 초6일 이번원이 작성한 예물 진헌 명단을 보면 몽골 부족 왕공들이 일정한 조를 이루어 신년 예물을 진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숭덕 2년 11월 청 조정이 외번몽고가 예물을 진헌하기에 편리하도록 여러 개 旗를 묶어 별도로 편성한 단위와 거의 일치한다.

(코르친부) 우익 투시예투 친왕의 254개 오투를 2개 旗로 한다. 좌익 조릭투 친왕의 193개 오투<sup>72)</sup>를 2旗로 한다. (코르친 좌·우익) 총 447개 오투를 4旗로 하고 戶數는 22,355(22,350). 아오한 26개 오투, 나이만 24개 오투 이 둘을 합쳐 50개 오투를 1旗로 한다. (바린) 만주시리 17개 오투, आय시 12개 오투 이 둘을 합쳐 29개 오투를 1旗로 한다. (자루트 우익) 상가르 38개 오투, (자루트 좌익) 너이치의 29개 오투 이 둘을 합쳐 67개 오투를 1旗로 한다. (두르벤 케우케드= 四子部落) 다른 조릭투의 42개 오투를 1旗로 한다. (아루 코르친) 무장의 60개 오투를 1旗로 한다. (옹니우트 우익) 두령 군왕의 25개 오투, (옹니우트 좌익) 자사크 다른 다이칭의 34개 오투 이 둘을 합쳐 59개 오투를 1旗로 한다. 우라트부 37개 오투를 1旗로 한다. 카라친 60개 오투를 1旗로 한다. 투메드 56개 오투를 1기로 한다. (이렇게) 차하르· 할하· 아바가· 투메드 총 460개 오투 9旗<sup>73)</sup>, 戶數는 모두 23,000.

투시예투 친왕의 5旗를 2旗로 합편한다. 조릭투 친왕의 5旗를 합편해 2旗로 한다. 아오한·나이만을 합편해 1旗로 한다. 2개 바린부를 1旗로 합편한다. 2개 자루트부를 1旗로 합편한다. 四子部落을 1旗로 한다. (아루 코르친의) 무장을 1旗로 한다. 2개 옹니우트부를 1旗로 한다. 우라트[烏刺特]부를 1旗로 한다. 카라친부를 1旗로 한다. 2개 투메드부를 1旗로 한다. 이렇게 총 13旗는 (1년에 3번) 聖上께 공물을

文圖書檔案(1600~1650)》(1997)一書的譯文：十七世紀前半期蒙古文圖書檔案漢譯> 第二部 清代理藩院衙門檔案記錄 08-02-01 <科爾沁杜爾伯特等部諸諾顏所進獻禮物>, 崇德4年 春正月 初6日, p.401.

72)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에는 163개 오투으로 되어 있지만 『蒙文老檔』을 참고한 達力扎布에 의하면 193개 오투이다. 총수 447개 오투이라는 점에서도 『清內祕書院漢譯』의 163개 오투은 오히려 판단된다.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01-2-29 <崇德帝爲便于進貢行獵及征戰合編外藩蒙古部分鄂托克爲十三旗之勅諭> 崇德2年 11月 15日, p.29;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十三旗”雜考』, 『明清蒙古史論稿』, p.274.

73) 여기에서 차하르는 아오한과 나이만 2부를, 할하는 자루트와 바린 2부, 아바가는 칭기스칸 동생들의 후예들이 통솔한 四子部·아루 코르친·옹니우트·우라트 4부를, 투메드는 東투메드를 가리킨다. 이들은 內자사크 몽고 右翼에 해당한다.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十三旗”雜考』, 『明清蒙古史論稿』, p.277. 따라서 위 사료의 첫단락은 코르친 좌·우익이 해당되는 內자사크몽고 左翼과 아오한·나이만 등 內자사크 몽고 右翼을 나누어 오투(니투)와 호구의 수를 열거한 것이다.

진헌하기 편하기 위해 합편한 것으로 行獵과 정벌 시에는 원래 旗대로 한다.<sup>74)</sup>

\*괄호 안의 표기는 達力扎布의 글을 참조해 필자가 보충

승덕2년 11월에 진행된 進貢을 위한 旗 편제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부족명	관할 王公	니루 數	崇德 2년 進貢 13旗 편제
나이만	다르한 군왕 旗	24	나이만, 아오한 2旗 50개 니루(오 독)를 1旗로 합편
아오한	만디어푸 旗/ 소놈	26	
바린 좌익	만주사리 旗	17	바린 좌·우익 2旗 29개 니루를 1旗로 합편
바린 우익	아유시 旗	12	
자루트우익	상가르 旗	38	자루트 좌·우익 2旗 67개 니루를 1旗로 합편
자루트좌익	너이치 旗	29	
四子部	다르한 조릭투 旗	42	42개 니루 1旗
아루 코르친	무장 旗	60	60개 니루 1旗
웅니우트우익	두렁 군왕 旗 + 하라 체릭	16 + 9	웅니우트 좌·우익 2旗 59개 니루를 1旗로
웅니우트좌익	다르한 다이칭 旗	34	
우라트	우라트 3旗	37	37개 니루 1旗
카라친	카라친 1旗	60	60개 니루 1旗
투메드	2旗	56	2旗를 1旗로 합편
코르친 우익	투시예투 친왕 旗	58	투시예투 친왕의 5旗 254개 니루 를 2旗로 합편
	자삭투 군왕 旗	41	
	라마스힉 旗	36	
잘라이트	다르한 호쇼치 旗	55	
도르베트	서령 旗	64	
코르친 좌익	조릭투 친왕 旗	39	조릭투 친왕의 5旗 193개 니루를 2旗로 합편
	무자이 旗	12	
	동코르 旗	58	
고를로스	봄바 旗	34	
	구무 旗	41	
총계			13旗

<표> 공물 진헌을 위한 13旗 편제

승덕4년 정월 예물 진헌 목록을 승덕2년 11월의 13旗 편제와 비교하면 13旗 중 하나인 四子部가 빠지고 13旗에 들지 않는 귀화성투메드의 장긴들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단이 일치한다. 또 이 단위는 내몽골 부족이 황제에게 진공할 때뿐만 아니라 황제로부터 예물을 받을 때에도 등장한다.<sup>75)</sup> 따라서 ‘外藩 13旗’는 몽골 부

74) 『清內祕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 01-2-29 <崇德帝爲便于進貢行獵及征戰合編外藩蒙古部分鄂托克爲十三旗之勅諭> 崇德2年 11月 15日, p.29;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十三旗”雜考」『明清蒙古史論考』, p.273-274 蒙文사료 漢譯 참조.

족과 만주 황제가 예물을 주고받을 때 주로 사용된 단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위는 일종의 조공 단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승덕7년(1642)이 되면 27旗로 증가하고 순치 말년에는 자사크旗 단위로 조공하도록 개정되었다.<sup>76)</sup>

조공은 전체적으로 보면 외번 몽고 부락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물 수량은 점차 감소해 건륭 원년 丙자사크기는 매년 양 1마리, 술 1병만 진공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이는 청 중후기에는 외번몽고의 진공이 청의 입장에서는 거의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만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후금-청 초기에는 몽골 부족들이 선사한 예물이 교역이나 재분배를 위한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이른바 3대 명절인 元旦과 萬壽節, 冬至에는 문무백관이 경하를 표하고 ‘번속’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는 의례가 거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새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元旦이 가장 중요했으며 청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르하치 시기에 도 신년 하례를 위해 일부 몽골 부족들이 후금을 방문했고 천총 연간에 들어서 의례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해 승덕 연간에 관례화되었다. 그러나 입관 후 순치 초기까지도 전면적인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순치12년(1655) 가다훈(gadahūn)旗 소속 頭等侍衛 알라미(alami)의 상주를 계기로 元旦의 禮로 경사에 온 외번몽고 왕공들에 대한 償賜 규정이 논의되었다.<sup>77)</sup> 순치제는 언로를 열어 7품관 이상 관원들에게 의견을 상언하도록 했는데 알라마가 제기한 여러 의견 중 마지막이 외번몽고를 “자애로 기쁘게 하고 예로써 정중히 대하여 그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고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라마의 상언을 계기로 이번원은 다음과 같이 상주했다.

……(前略) 臣 저희가 살펴보건대 順治11년(1654) 1월 중에 저희 部院에서 상주하기를 “태종황제 시절 승덕6년(1641) 元旦의 禮로 온 코르친의 투시예투 친왕·조리투 친왕·다르한 바투루 군왕 이 세 명에게 비단 9필씩·은잔과 받침 1개씩·豹皮 2장씩·綠斜皮 4장씩·花席 2장씩 총 三九, 바린의 만주시리와 무장, 옹니요트의 다르한 다이칭 이 세명에게 비단 8필씩·은잔과 받침 1개씩·수달피 3장씩·녹사피 2장씩·모청포 4필씩 총 二九, 코르친의 라마스히·동고르·잠발라·서령, 우라트의 우반, 자삭투 군왕의 아들 하이라이, 바린의 서령, 두르베트의 가르마, 카라친의 서령, 투메드의 삼바 다르한 이들에게 비단 2필씩·은잔과 받침 1개씩·수달피 2장씩·모청포 4필씩 총 一九를 상 내렸습니다. 또 순치3년(1646) 元旦 禮로 온 왕·버일러·버이서·공들·타이지

75) 『清太宗實錄』 권40, 崇德3年 正月 丁卯日. “元旦을 경하하고자 丙六旗의 호쇼이 親王·도로이 郡王·도로이 버일러·구사이 버이서들에게 旗마다 은 900냥씩을 하사하고, 외번 13旗의 왕·버일러·버이서들에게 旗마다 망단(蟒緞) 1필·緞 8필·布 100필·갓옷과 투구 1벌·정교하게 만든 撒袋 1개·조각한 안장 1개씩을 하사했다.”(丁卯, 以慶賀元旦頒賜丙六旗和碩親王多羅郡王多羅貝勒固山貝子等 每旗銀九百兩, 外藩十三旗王貝勒貝子等每旗蟒緞一緞八布百甲冑一玲瓏撒袋一雕鞍一).

76)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朝貢制度初探』 『蒙元史暨民族史論集』, p.422.

77) 가다훈(gadahūn, 噶達渾, ?~順治14年(1657))은 滿洲正紅旗人으로 나라氏이다. 바야라 잘란 장진, 정홍기 몽고 구사 어진·만주 구사 어진, 호부상서를 역임했고 순치10年 3월 명안다리(明安達禮)의 뒤를 이어 兵部尙書를 맡았다(순치10년~14년 재임). 가다훈은 순치9년부터 14년까지 만주 구사 어진을 맡았으므로 理藩院題本の ‘가다훈 구사 소속 頭等侍衛 알라미(gadahūn gūsai uju jergi hiya alami)’라는 표현은 알라미가 만주정홍기 소속 頭等侍衛라는 의미인 듯하다.

들에게 상 내리기 위해 호부와 만나 머르건 왕에게 고하고 친왕들에게 비단 五九, 군왕들에게 비단 四九, 버일러들에게 비단 三九, 버이서들에게 비단 二九, 공들에게 비단 一九, 타이지들에게 비단 7필씩 상 내리기로 정했었습니다. 이후 元杻의 禮로 와서 상 내린 바 없었으므로 이 때문에 칙지를 청하여 삼가 상주합니다”(라고 하자) 칙지로 ‘요 몇 년간 오지 않다가 이제 왔으므로 예전에 정한 것을 참고하지 말고 戶部와 만나 다시 의논하여 상주하라. 나의 은혜를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칙지를 삼가 따라 저희 두 部院이 의논하여 친왕에게 비단 六九· 1등급 조각한 안장을 맨 1등급 말 1마리· 50량 銀차통 1개· 酒海 1개· 茶 다섯 광주리, 군왕에게 비단 五九· 2등의 조각한 안장을 맨 2등 말 1마리· 50량 은차통 1개· 차 네 광주리, 버일러에게 비단 四九· 3등급의 조각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 40량 은차통 1개· 차 세 광주리, 버이서에게 비단 三九· 1등급 옷칠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 30량 酒海 1개· 차 두 광주리, 鎮國公에게 비단 二九· 2등급 옷칠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 30량 銀 酒海 1개· 차 두 광주리, 輔國公에게 비단 一九· 一五, 3등급 옷칠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 30량 銀 주해 1개· 차 두 광주리, 1등·2등 타이지에게 비단 一九· 3등 옷칠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 차 한 광주리, 3·4등 타이지에게 비단 7필· 3등 옷칠한 안장을 맨 3등 말 1마리, 차 한 광주리를 상 내리겠습니다. ……(중략) 칙지를 삼가 따라 다른 친왕들보다 (봉록이) 더 많은 투시예투 친왕과 조릭투 친왕에게 1등 갑옷 1벌· 비단 8필, 다른 군왕들보다 다른 바투루 군왕에게 여유 있게 50량의 銀 주해 1개· 비단 8필, 자삭투 군왕에게 여유 있게 50량의 은 주해 1개· 비단 6필을 더해 상 내리겠다고 의논하고 황상께 상주하고 칙지로 정하여 준행하겠습니다.……78)

이번원은 승덕 6년과 순치 3년의 사례를 들어 원단의 예로 청에 내조한 외번몽고 왕공들에 대한 하사품 규모를 정하고자 했다. 순치11년(1654)까지 원단의 예로 내조한 외번몽고 왕공에 대한 償賜 규정이 제도화되지 않아 승덕3년과 순치3년의 관례를 참조한 것이다. 승덕6년에는 작위 등급이 하사품 지급의 기준이 되지 않았지만 순치3년에는 친왕·군왕·버일러와 버이서·公·타이지의 순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했고 순치12년 10월의 논의에서는 친왕·군왕·버일러·버이서·진국공·보국공·頭等과 二等 타이지·三等과 四等 타이지 순으로 하사품의 규모를 정했다.

승덕6년에는 비단· 은잔과 잔받침·豹皮와 綠斜皮·花席 그리고 수달피와 모청포로 하사품이 구성되었는데 순치3년에는 비단만 열거된 것으로 보아 순치 초기 하사품의 종류와 규모가 감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요 몇 년간 오지 않다가 이제 왔다’는 순치제의 언급을 통해 순치3년부터 순치11년 사이 몇 년간 외번몽고 왕공들의 新年 慶賀 來朝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실록』에 의하면 순치6년 정월에 황제가 避痘를 위해 신년 朝賀를 면한 사실이 있고 순치7년과 8년에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조하가 중지되었고 순치9년에도 피두를 위해 南苑으

78) 알라미는 湖北의 반란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파병한 군사를 감축·교대할 것, 백성을 이주시키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잠시 중지할 것, 전장에서의 論功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안했고 마지막으로 외번몽고를 후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고 상언했다. 『清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 卷1, no.92, 順治12年 10月 29日, <理藩院尚書沙濟達喇等題遵旨議定償賜年班來京朝覲外藩蒙古王公等員條例本>, pp.138-143.

로 행차해 朝賀의례가 거행되지 않았다.<sup>79)</sup>

頭等侍衛 알라미는 순치제에게 외번몽고에 대한 대우가 소홀해졌음을 지적했다. 그는 몽골인들이 바깥 지역(tulergi ba)에 거주하여 법도가 너무 엄격하면 분산되고 너무 느슨해도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게 되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태종 황제가 몽골인들을 위력으로 겁먹게 하고 자애로 기쁘게 했으며 그들을 인척으로 삼고 재화를 아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서로 화목하게 되고 몽고가 법도를 따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은 외번몽고에 대한 자애와 은혜가 줄어들었으니 황제가 그들을 자애로 기쁘게 하고 예를 다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알라미 의견의 핵심은 먼 곳에 사는 외번몽고가 때에 맞춰 來朝하면 조정은 후한 償賜를 통해 그들에게 황제의 은혜와 덕을 보이고 그들이 離心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는 데 있다.

결국 이번원은 승덕6년과 순치3년보다 많은 예물을 외번몽고 왕공들에게 하사하고 코르친 좌우익 친왕들과 다른 바투루 군왕 만주시리, 자삭투 군왕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상을 내리도록 정했다. 이는 승덕6년에 투시예투 친왕, 조릭투 친왕, 다른 바투루 군왕 이 세명에게 가장 많은 상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만주 황실의 가까운 인척이자 혁혁한 군공을 세운 가장 믿음직하고 충순한 외번에게 황제의 파격적 은혜를 보인 것이다. 다만 같은 급의 다른 왕공보다 예물을 더해 받는 사람들을 열거한 명단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빠져있던 코르친 우익 자삭투 군왕 바이스갈이 포함되어 같은 군왕급인 만주시리와 함께 열거되었고 이들은 투시예투 친왕과 조릭투 친왕보다 약간 적은 예물을 더해 받는 것으로 조정되었다.<sup>80)</sup> 그러나 만주시리는 순치16년(1659)에 친왕으로 승격되어 다시 투시예투, 조릭투 친왕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sup>81)</sup>

청대 외번몽고는 元旦이 되면 황제를 알현하는 朝覲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청조는 이들을 일종의 班으로 편성해 돌아가며 경사에 방문하도록 했는데 이를 ‘年班’이라고 했다. 외번몽고의 朝覲·年班은 納貢과 宴賚를 수반했는데 宴賚는 경사에 온 몽골 왕공과 사신, 수행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하사하는 의례이다. 이러한 의례는 입관 전 만주 한과 몽골 왕공들의 왕래에서 행해진 의례가 貫例가 되었고 순치 연간에 定制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 순치 연간에 정해진 규정들은 강회와 옹정 시기에 개정·조정되고 건륭 연간에 이르러 완비된 제도로 정착되었다.

청대 朝覲年班制度는 외번몽고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도 丙자사크(내몽골)에서 外자사크(외할하 혹은 외몽골), 청해, 티베트, 오이라트로 확대되었다.

79) 『世祖章皇帝實錄』 卷42 順治6年 春正月 庚申朔; 卷47 順治7年 春正月 乙卯朔; 卷52 順治8年 春正月 乙酉朔; 卷62 順治9年 春正月 癸酉朔.

80) 바이스갈은 코르친 우익 자삭투 군왕 부타치의 長子이다. 부타치는 투시예투 칸 오오바의 동생이므로 바이스갈은 오오바의 조카가 된다. 바이스갈은 부친 부타치가 사망한 후 자삭투 군왕의 작위를 계승했다.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 卷1 表第一 <科爾沁部>(包文漢, 奇·朝克圖 整理, 『蒙古回部王公表傳』 第1輯, 內蒙古大學出版社, 1998, p.6).

81)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 卷19 傳第二 <扎薩克和碩達爾漢巴圖魯親王滿珠習禮列傳>(包文漢, 奇·朝克圖 整理, 『蒙古回部王公表傳』 第1輯, 內蒙古大學出版社, 1998, p.149).

조근과 수반된 여러 사안들 즉 진헌과 연회, 償賜, 그리고 외번몽고가 황제를 만나러 오는 길에 필요한 음식과 말에게 먹일 사료·땀감 등을 제공하는 일, 행사에서 착석하는 순서 등 관련 의식과 의례는 만주와 몽골의 오랜 관계에서 형성된 관례에 기원을 두었다. 순치 연간이 제도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입관 전 만몽관계에서 형성되고 변형된 관례와 규정들이 입관 이후 제도화의 자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획기가 된 시기는 홍타이지의 시대였다.

## 5. 맺음말

송덕 원년 이후 외번몽고 封爵과 함께 儀仗과 조공 예물에 대한 초보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儀制들은 천총 연간 홍타이지가 反차하르 동맹 진선을 형성하고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해 송덕 연간에 관련 규정들이 정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은 入關 이후 순치 연관을 거쳐 제도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 건륭 연간에 완비된 제도로 정립되었다. 外藩蒙古의 朝覲과 朝貢, 그에 대한 宴賚와 償賜 제도도 이러한 장기간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순치13년의 제도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연원은 입관 전 만주와 몽골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관례와 정치적 상황에 의해 변화된 규정들에 있다.

누르하치 시기에 만주와 몽골이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된 예물들은 이후 홍타이지가 내몽골을 ‘外藩蒙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進貢品으로 바뀌게 되었다. 누르하치가 몽골을 회유하기 위해 ‘더 많이 주었던’ 선물들은 서서히 만주 한-황제가 신하에 대한 은혜와 덕을 보이교자 ‘더 많이 베풀’ 하사품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몽골 왕공들이 선물한 예물을 만주 한-황제가 수령하는가 아닌가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선물의 거절은 상위 권력자의 권리이기도 했다.

강희제가 외번몽고의 공물을 줄이면서 언급한 ‘不必多貢’은 외번에 대한 청 황제의 권위와 은혜를 보이는 극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외번몽고의 진헌은 점차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로 간소화되었고 이를 통해 청 황제의 시혜는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청대에는 조공품에 대해 그 가치를 환산해 물품이나 銀으로 回賜하는 ‘折賞’이 시행되어 의례적 예물교환은 더욱 간결하게 되었고 외번 왕공은 청 황제에게 바치는 충성에 대한 대가를 챙길 수 있었다.

청 중후기에 몽골 왕공이 황제에게 선사하는 예물은 점차 경제적 가치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되지만 후금-청 초기까지 몽골 부족들이 만주 황제에게 바치는 진공품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내재했다. 천총5년 경부터 만주의 한이 몽골 왕공들이 선사한 물품을 일부만 받거나 모두 돌려보내는 관례가 시작되었지만 대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당장 필요로 하는 비단과 의복, 보석 등의 물품들은 수령했다.

급속한 군사적 팽창으로 많은 인구들이 정권에 유입되면서 만주중실과 군공을 세운 자들뿐만 아니라 내몽골 왕공과 한인 투항자들에게 분배할 재화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특히 비단과 의복, 담배 등은 조선과 명을 통해 입수했으므로 만주정권은 조선을 압박해 더 많은 공물을 요구하고 직접 교역이 어려워진 명의 물품은 對明교역을 유지한 몽골 부족들의 진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들여왔다. 17세기 만주-몽골-조선-명의 물품들은 다양한 방식과 통로로 순환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대 조근연반제도의 기원이자 원형을 제공한 입관 전 시기 만주와 몽골의 예물교환에 주목했다. 청대 조근연반과 조공제도와 관련된 의례와 납공과 회사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조근과 조공의 구분은 물론이고 年節에 행해지는 조근연반 의례와 제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입관 이후 의변몽고 조근·조공제도와 예물에 대해서는 후속 작업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만주실록역주』, 소명출판, 2014.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만문노당역주』 太宗1~4, 소명출판, 2017.
- 김주원 외 역주, 『만문노당』 태조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東洋文庫, 2003.
- 『大清滿洲實錄(manju i yargiyan kooli)』, 臺灣華文書局發行, 1964.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역, 『만주실록역주』, 소명출판, 2014.
- 拉巴平獵 主編, 西藏歷史漢文文獻叢刊 編輯委員會, 『乾隆朝內府抄本《理藩院則例》』, 中國藏學出版社, 2006.
- 拉巴平措 主編, 西藏歷史漢文文獻叢刊 編輯委員會, 『欽定大清會典事例-理藩院』, 中國藏學出版社, 2006.
- 『滿文老檔』(tongki fuka sindaha hergen i dangse) 全7冊, 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東洋文庫, 1955~1963.
-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DB, <https://sillok.history.go.kr>)
-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全24冊), 內蒙古人民出版社, 2010.
- 『清實錄』, 中華書局 編, 中華書局, 1986(국사편찬위원회 DB)
- 包文漢, 奇·朝克圖 整理,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第1輯, 內蒙古大學出版社, 1998.
- 希都日古 編譯, 『清內秘書院蒙古文檔案滙編漢譯』,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 이훈, 『만한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7.
-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汲古書院, 2009.
- 達力扎布, 『明代漠南蒙古歷史研究』, 內蒙古文化出版社, 1998.
- 達力扎布, 『明清蒙古史論稿』, 民族出版社, 2003.
- 杜家驥, 『清代滿蒙聯姻關係』, 人民出版社, 2003.
-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류정아 해제, 『증여론』, 한길사, 2016.
- 烏云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內蒙古人民出版社, 2005.
- 李治國, 『清代藩部賓禮研究-以蒙古爲中心』, 內蒙古大學出版社, 2014.
- 張雙智, 『清代朝覲制度研究』, 學苑出版社, 2010.
- Nicola Di Cosmo and Dalizhabu Bao,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Brill, 2003.

- 구범진, 「清 乾隆 연간 外藩 宴禮의 변화와 乾隆의 ‘盛世」, 『역사문화연구』 제68집, 2018.
- 김성수, 「17世紀初 滿蒙 關係와 內陸 아시아 - 만주-호르친·몽골 관계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82집, 2013.
- 達力扎布, 「清初內扎薩克旗의 建立問題」, 『歷史研究』 1998年 第1旗.
- 達力扎布, 「清初外藩蒙古朝貢制度初探」, 『蒙元史暨民族史論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 蘇紅彥, 「清代蒙古王公年班制度對蒙古地區的影響」, 『陰山學刊』 第18卷 第6期, 2005.
- 蘇紅彥, 「試析清代蒙古王公年班的創立與發展」,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39卷 第2期, 2007.
- 蘇紅彥, 「清代蒙古王公年班的特點與作用」, 『內蒙古社會科學』 第28卷 第1期, 2007.
- 宋瞳, 「順治朝清廷宴賚蒙古王公制度略論」, 『西域歷史語言研究集刊』 第7輯, 2014.
- 이선애, 「清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 이선애, 「滿文史料를 통해 본 後金시기 滿·蒙 關係」, 『明清史研究』 제49집, 2018.
- 이선애, 「동맹의 代價에서 충성의 代價로」, 『東洋史學研究』 제156집, 2021.
- 임경준, 「담배 태우는 만주인들 - 청초 만주인의 담배문화와 烟禁令-」, 『明清史研究』 제55집, 2021.
- 張雙智·張羽新, 「論清代前後藏朝覲年班制度」, 『西藏研究』 2009年 第5期.
- 陳昱彤, 「升平累洽: 論清代西藏地方年班貢品的政治內涵」, 『中國藏學』 2022年 第2期.
- Dorothea Heushcert-Laage, “From Personal Network to Institution Building: The Lifanyuan, Gift Exchange and the Formalization of Manchu-Mongol Relations”, *History and Anthropology*, Vol.25, No.5, 2014.
- Ning Chia, “The Lifanyuan and the Inner Asian Rituals in the Early Qing(1644-1795)”, *Late Imperial China* Vol.14, NO.1, 1993.

【제6발표】

사쿠마 진파치(佐久間甚八)의 보고서를 통해 본  
근세 후기 조일무역과 물품교류 실태

이승민(동국대)



# 사쿠마 진파치(佐久間甚八)의 보고서를 통해 본 근세 후기 조일무역과 물품교류 실태

이승민(동국대)

1. 머리말
2. 사쿠마 진파치의 쓰시마 파견과 조일무역 인식
3. 무역품의 변화 : ‘人蔘↔銀’에서 ‘牛皮↔銅’ 중심의 무역으로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후기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은 공무역·사무역·밀무역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중 사무역은 조선 왜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開市貿易을 말하는 것으로, 禁制品을 제외하면 큰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사무역은 조선산 人蔘과 일본산 銀의 직교역, 그리고 중국산 生絲(白絲)·絹織物과 일본산 銀의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이중구조로 전개되었다. 특히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던 물품 중 백사·견직물과 인삼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삼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바로 인삼과 은 이 두 물품이 대일 사무역의 가장 주요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삼과 은 무역은 1750년대 이후, 백사·견직물과 銀의 중개무역은 174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19세기 사무역 수출품은 牛皮·牛角爪·黃芩·乾海蔘의 4가지 물품이, 그리고 수입품은 銅이 중심 물품이 되어 갔다.<sup>1)</sup>

그런데 18세기 후반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하여 사무역이 크게 쇠퇴해가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1770년대에 사무역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인삼 생산 부진, 일본의 인삼 국산화 성공, 그리고 일본의 은 수출 통제에 따른 생사 유통의 부진, 1752·1753년 이후의 은 수입 단절 등에 의하여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은 18세기 중반 이후 쇠퇴해가는 추세였는데, 그 결과 1770년대 중반 결국 사무역은 중단되었다는 것이다.<sup>2)</sup> 쓰시마가 막부로부터 사무역

1) 田代和生, 『幕末期日朝私貿易と倭館貿易商人 -輸入四商品の取引を中心に-』, 『徳川社會からの展望』, 同文館出版, 1989.

2)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吉川弘文館, 1971 ; 森山恒雄, 『對馬藩』, 『長崎縣史(藩政編)』, 吉川弘文館, 1973 ; 中村質, 『近世日朝私貿易論の再檢討』,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하, 1992 등이 대표적이다.

단절을 이유로 永續手當金 12,000냥을 받은 1776년 당시는 사무역의 변질이 정착되기 시작한 무렵이었는데,<sup>3)</sup> 그 때문에 그 지적인 1774·1775년에 사무역이 단절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무역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막부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쓰시마의 교육지책으로 완전한 허구이며,<sup>4)</sup> 사무역은 1876년 개항까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여,<sup>5)</sup> 한국과 일본학계에서도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분명한 사실은 쓰시마가 막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은 쓰시마가 주도가 되어 진행해 온 대조선 사무역이 단절되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쓰시마의 주장대로 18세기 후반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의 사무역은 단절되었을까. 이러한 쓰시마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막부에서는 정말로 무역이 단절되었는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쓰시마의 조선 무역 현황과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자 나가사키(長崎) 지역의 근무자 2명과 함께 고후신야쿠(御普請役) 사쿠마 진파치(佐久間甚八, 이하 사쿠마로 약칭)를 쓰시마에 파견하였던 것이다.

사쿠마의 보고 내용은 『通航一覽』 권132 朝鮮國部 108에 수록되어 있으며, 도쿄 대학 사료편찬소에 『通航一覽』의 초서체본이 소장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18년에 동 사료를 동북아역사자료총서 45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II :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죽도문답』으로 번역서를 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간행된 사료집을 기본으로 하여(이하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로 약칭), 사쿠마가 파악한 쓰시마의 조선 무역 현황과 그의 인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쓰시마의 주장대로 조선무역이 단절되었다고 하는 18세기 후반 이후, 특히 19세기 들어 조일무역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 2. 사쿠마 진파치의 쓰시마 파견과 조일무역 인식

조선후기 조일무역은 己酉約條의 체결로 무역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었고 17세기 중반 兼帶制의 실시로 외교와 무역이 분리되면서 이러한 틀 안에서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이후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점점 쇠퇴하게 된다. 조선후기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인삼이었다. 그러나 1710년대부터의 청나라 인삼 수입, 1720~1730년대의 일본 국내산 인삼 재배에 따른 수입 대체 성공, 1740년대부터의 아메리카 人蔘 수입, 18세기 중반 이후의 국내 자연삼 절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17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18세기 중반 이후의 인삼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

3) 森晋一郎, 「近世後期對馬藩日朝貿易の展開 -安永年間の私貿易を中心して-」, 『史學』 56-3, 1986, 145쪽.

4) 森晋一郎, 앞의 논문, 145쪽.

5)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200쪽.

고,<sup>6)</sup> 일본 국내에서 인삼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대일무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던 인삼은 더 이상 대일무역의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제까지의 개시 무역은 조선산 인삼 수출과 함께, 중국산 견직물·생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것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 구조를 띠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던 중국산 생사의 유입이 매우 부진해졌고, 인삼과 함께 중국산 생사 또한 일본에서 자체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대일무역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고 조일무역도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일무역이 18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무역상의 근본적 모순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戰後 복구사업과 함께 경제적 발전으로 대일무역도 발전해 갔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정부, 특히 조선의 재정 손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재정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교역관계를 발전시킨 것은 대일무역의 교린적 측면과 함께 양국 정부가 정권안정을 꾀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결국 그 정책은 양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18세기 중반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줄고 오히려 강력한 통제가 계속되면서 무역의 확대 발전을 크게 제약하였다.<sup>7)</sup>

무역의 쇠퇴는 무역차액 감소와 무역량 축소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무역의 쇠퇴와 함께 조선과 일본의 무역차액은 전보다 줄어들게 되면서 쓰시마의 재정을 압박했고,<sup>8)</sup> 조선쪽에서 보아도 공무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었으며, 무역량의 측면에서도 19세기 이후 開市率은 10~20%대에 머물고 있었고, 조선으로의 무역선도 방향 횡수도 전보다 크게 줄었다.

사쿠마<sup>9)</sup>가 쓰시마에 파견된 것은 1772년이었다. 쓰시마에서는 조선무역이 단절되어 번 재정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여러 차례 막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쿠마 파견의 주된 목적은 쓰시마로부터 조일무역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쓰시마 현지의 현황을 알아보고 쓰시마번주의 수납 형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근래 조선 무역이 단절되어 곤궁에 처해 있음을 토로하였기에, 재작년 寅年(1770)에 <생각건대 메이와(明和) 7년) 별도 수당으로 지원금을 銀으로 하사하여 재정을 유지하고 무역을 재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가사키에서 이루어지는 중국·네덜란드와의 무역방식을 듣는다면 조선무역을 재개하고자 하는 조치에 도움이

6) 오성, 「조선후기 인삼무역의 전개와 잠상의 활동」, 『세종사학』 1, 1991, 41~59쪽 ; 정성일, 「조선삼 인삼 종자와 일본의 인삼 수입대체」, 『춘계 박광순박사 화갑기념 경제학논총』, 1993, 185~187쪽.

7)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258쪽.

8) 1790년의 경우를 보았을 때, 쓰시마가 조선과 무역을 해서 거두어들인 무역차액은 銀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막부의 재정보조금이나 領地에서 거두어들이는 재정수입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정성일, 위의 논문, 254쪽.

9) 사쿠마 진파치(1727~1796)는 막부의 관리로, 에도막부 간조소(勘定所) 내 役職의 하나인 간조구미가시라(勘定組頭)를 거쳐 1790년 간조긴미야쿠(勘定吟味役)에 임명되었다. 본명은 시게유키(茂之), 자는 思明이며, 통칭 진파치(甚八)로 불렸다. 저작에 『天壽隨筆』 등이 있다.

될 것이니, 중국·네덜란드와의 무역방식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사키 지역의 근무자 두 명에 고후신야쿠 한 명을 붙여 쓰시마에 파견하므로, 가신들과 면밀히 의논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sup>10)</sup>

이번에 쓰시마의 조선 무역 재개를 위해 중국·네덜란드와의 무역 방법을 전달하고자 나가사키의 근무자가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의 동행자로 제[사쿠마]가 파견된 사정은 무역과 관련된 사항 뿐만이 아니라, ‘쓰시마는 섬이고 산투성이라 전답이 없고 미곡이 적다고 토로하고 있으나 누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영지를 이제 와서 [막부가] 거두기도 어렵다. 하지만 특별한 변경의 땅이므로 순찰사(巡檢) 외에는 [막부로부터] 사람이 파견되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무역에 관해 듣고 방법을 전달하는 김에 쓰시마 현지의 현황을 먼저 알아보고 번주의 수납 형편도 확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겨 매사 기민하게 처리하고, 응대하는 근무자 외에 백성[농민]·초민(町人)들에게도 친절히 대담하여 파악하기 힘든 전체 상황을 듣고 쓰시마의 미곡 유무, 민가의 성쇠, 金銀의 유통 등을 가능한 확인해서 이후 [막부에서] 사람을 파견할 때 공궁함을 토로하는 증거가 되지 않게끔, 임무를 걸어로 드러내지 말고 기민하게 판단하여 매사를 밝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sup>11)</sup>

에도막부의 관리인 사쿠마는 쓰시마의 내정과 조선과의 통교에 관한 정황을 두루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막부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1772년 쓰시마에 건너갔다. 나가사키 근무자 2명과 함께 사쿠마가 파견되었던 것은 무역과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쓰시마는 섬이고 산투성이라 전답이 없고 미곡이 적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쿠마가 직접 쓰시마의 조선 무역에 관한 사항을 듣고 방법을 전달함과 동시에 쓰시마 현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쓰시마번주의 수납 형편 또한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추후 쓰시마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사쿠마는 쓰시마 내의 마을을 순시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각 마을의 현황, 거리, 지세, 섬 주민들의 생활, 인구수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金銀의 통용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쓰시마번이 조선무역에서 얻은 곡물 등의 주요 시세에 관해서도 적어놓았다.

【표 1】 쓰시마번 내의 주요 물품 시세<sup>12)</sup>

	시세	비고
금 1냥(兩)	은 67몬메(匁)로 환산	1몬메는 동전 74문(文)
금 1냥	동전 5관(貫) 200문으로 환산	
쌀 1석(石)	가격 75몬메	1몬메는 동전 60문
보리 1석	가격 33몬메	1몬메는 동전 60문
콩 1석	가격 50몬메	1몬메는 동전 60문
※은(元文銀) 1몬메에 동전 60문으로 통용		

10)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20~21쪽.

11)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23~24쪽.

다만 이 시세는 보통 오사카·교토 지역의 등락에 따르는데, 경우에 따라 물품 가격이 등락하면 가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1문메를 60문으로 정해둔 것이며, 세간의 시세에 따른 은(正文銀) 거래는 때마다의 시세를 사용하여 1문메에 동전 90문으로 통용되었고, 古銀(慶長銀)의 세시는 등락에 관계없이 90문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sup>13)</sup>

한편 地勢와 관련해서는 쓰시마 측에서는 섬 전체가 산간 지역이자 바다 한가운데의 작은 섬이기 때문에 경작지가 매우 적고 논은 전혀 없으며 밭만 있고, 밭도 대부분은 산지에 있어서 수확량이 적고 흉년이기 십상이고 짐승들로부터 입는 피해가 크다고 보고하였다.<sup>14)</sup> 이에 대하여 사쿠마는 고구마를 근래 경작하여 양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논이나 밭 경작지 역시 직접 살펴보니 경작지도 넓고 논도 많이 있어서 다른 지방의 경작 방식과 비슷한 곳이라고 파악하였다.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는 무역이 번창했을 때 산간과 촌락 지역의 수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해오던 방식 그대로 방치한 관례를 개정하지 않고, 밭으로 경작하는 곳들도 평지이기 때문에 논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용수를 끌어올리기 편한 곳에서도 밭농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sup>15)</sup> 쓰시마 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무역과 관련하여 사쿠마는 쓰시마 측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쓰시마 측에서는 조선과의 무역이 18세기 초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조선 무역의 수익은 中古(18세기 초, 역자 주) 이래 점차 쇠퇴하여 30년 이전부터 완전히 수익이 없어졌습니다. 그 수익인 銀 1,484貫 정도는 4할 연공 기준으로 환산하자면 61,837石 정도로 해마다 삭감되고 있습니다.<sup>16)</sup>

사실 이 시기 사무역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 쓰시마의 사무역액과 무역이윤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는 일본 도쿄대와 국회도서관,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 세 종류가 남아 있는데, 일부 시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연도별 장기 추세나 18세기 중반 이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형편이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사료를 통하여 쓰시마의 사무역 이윤을 계산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1684~1710년까지 27년 동안 쓰시마는 총 46,500여 貫에 이르는 이윤을 사무역을 통하여 달성하였고, 이것은 연평균 1,723貫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무역 이윤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대체로 1690~1697년까지는 연간 2,500~3,800貫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704년 이후에는 연간 500~600貫 정도

12)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32쪽.

13)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32~33쪽.

14)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38쪽.

15)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38~42쪽.

16)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44쪽.

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sup>17)</sup> 이로 미루어보면 대략적인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18세기 전반까지는 쓰시마에서 주장하는 대로 사무역 이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쿠마는 중고 이래 무역이 쇠퇴한 경위를 보니 수익을 매년 합산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부족해진 시기에 이르러 과거의 수지를 해마다 합산해 본 결과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쓰시마 측에서 주장하는 1,484貫의 이익에 해당하는 매년 회계장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또한 쓰시마 측에서는 사무역으로 인한 이윤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면서도 送使와 무역 외에도 사무역에 사용하는 7만근에 달하는 銅을 무명과 쌀로 바꾸고 있는데, 해마다 매입 관련 사항을 오사카의 銅座에 신고해야 해서 숨길 수 없는 것인데도 쓰시마 측에서는 이를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현상용 인삼도 2,000냥 정도의 발생하고, 비단·기타 물품·錢貨 주조용 동·쌀 등의 물품 매매 상황이 존재하면서도 무역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쓰시마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sup>19)</sup>

또한 쓰시마 측에서는 무역수익으로는 쓰시마의 家役인 조선통교의 임무를 수행할 비용이 부족하여, 수십 년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충당한 차용금액이 누적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20)</sup> 쓰시마 측의 주장으로는 무역으로 이익이 나지 않고 게다가 단절된 상황에서 재정이 매우 부족하게 되어 교토·오사카·에도 등에서 돈을 빌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근래 들어 특히 돈을 빌린 지역의 대리인들이 쓰시마로 와서 상환을 재촉하고 있었다고 한다.<sup>21)</sup> 특히 쓰시마는 1768년 銅을 비롯한 어용상인 스야 마고시로(酢屋孫四郎)에게 용자를 받고 조선에서 수입한 인삼을 대신 넘겼는데, 17세기 무역 전성기에 비하여 조선인삼이 일본 내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던 상황에서 결국 용자금에 미치지 못하여 상환이 계속 지체되자, 결국 스야 마고시로는 막부 부교쇼(奉行所)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수출품 조달을 위하여 생겨난 빚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쓰시마의 조선무역이 쇠퇴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다.

사실 조선무역이 쓰시마의 가역이라고 하는 성격은 쓰시마번주가 조선무역을 통하여 막부의 무역정책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지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18세기 이후 사무역이 쇠퇴하면서 막부에서는 쓰시마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여 막부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고 있었다. 반대로 쓰시마는 조선무역이 쇠퇴하여 재정곤란에 빠지게 되면 조선무역이 가역이라는 입장을 적절히 이용하여 막부로부터 무역자금과 재정지원을 받아내고 있었다.<sup>22)</sup> 18세기 이후 조일무역의 쇠퇴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41회 중 대부분 무역과 관계

17) 정성일, 『韓·日 私貿易 論爭 -1684~1710년간 對馬藩의 무역수지와 무역이윤-』, 『경제사학』 27, 경제사학회, 1999, 65~66쪽.

18)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45쪽.

19)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45~46쪽.

20)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49~50쪽.

21)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49~51쪽.

22) 荒野泰典 著·신동규 譯, 『근세 일본과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19, 309~313쪽.

된 이유로 재정지원을 받았고, 특히 사쿠마 파견 이후인 1776년부터 1862년까지는 이전 1770년부터 무역 단절을 이유로 지원하던 은 300貫을 매년 금 12,000兩의 영속수당금으로 매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도 때때로 교역 감퇴나 公作米 수입 지체 등의 이유로 쌀과 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표 2】 쓰시마번에 대한 막부의 재정 원조 상황<sup>23)</sup>

시기	쌀·금액		이유
	拜領	拜借	
1700년		金 30,000兩	조선 무역자금
1717년		金 5,000兩	조선 무역자금
1734년		金 10,000兩	조선인삼 무역진흥
1746년	金 10,000兩		교역이윤 없어 경제사정 곤란(5년간)
1754년		金 15,000兩	座賣 인삼 중단
1755년	金 10,000兩		교역이윤 없어 경제사정 곤란(3년간)
1758년		金 10,000兩	조선 무역자금
1767년		金 15,000兩	교역 3개년 중단, 경제사정 곤란
1770년	銀 300貫		近年 무역 단절(~1775년)
1776년	金 12,000兩		永續御手當(~1862년)
1793년		米 10,000石	輸入米 정채, 來聘御用
1812년	金 2,500兩		來聘에 의한 物入, 교역감퇴(~1817년)
1815년		米 10,000石	조선 기근에 의한 수입미 정채
1816년		米 10,000石	조선 기근에 의한 수입미 정채
1829년		金 2,000兩	작년 흉작, 교역선 파선
1834년		金 10,000兩	조선 매년 흉작
1862년		金 15,000兩	교역선 파선, 이국선 도래

쓰시마 측은 사쿠마에게 쓰시마의 영지 상황이 좋지 못하고 영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곡물을 조선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조선무역으로 얻는 이익이 없고 막부의 하사금도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용과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조선으로부터 수입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호소하였다.<sup>24)</sup> 그러나 사쿠마는 쓰시마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10만석 石高라기에는 실제로 그보다 적은 3만석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쓰시마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는 듯하면서도, 무역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없고 무역이 번성했을 때 정무의 범위를 넓히고 무역이 어려운 지금에 와서 축소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쓰시마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쿠마의 보고서는 쓰시마의 재정 상황과 조선 무역 단절을 주장하는 쓰시마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쿠마는 이러한 쓰시마의 주장에 대하여 많은 부

23)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解題, 14~15쪽. 그 중 조선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을 발췌하였다.

24)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 98~100쪽.

분이 과장, 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실은 조선무역이 쇠퇴하기는 하였어도 단절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막부 측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쿠마의 보고서가 그대로 막부 측의 정책이나 인식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쿠마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막부의 쓰시마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계속되었다. 막부는 조선 무역이 단절되었다는 쓰시마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쿠마를 파견하였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쿠마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왜 쓰시마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나갔던 것일까. 당시 쓰시마는 에도가로(江戸家老) 등과 결탁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기무라 나오키(杉村直記)는 1766년부터 1788년까지 에도가로로 활동하던 중, 조선무역의 쇠퇴와 함께 쓰시마 번 재정이 궁핍해진 상황을 막부에 호소하여 1770년부터는 매년 은 300貫을, 1776년부터는 매년 금 12,000兩을 배급받는 등, 막부로부터 보조금 획득에 성공한 인물이었다. 사쿠마가 쓰시마에 파견된 것이 1772년이었으니, 사쿠마의 보고가 막부에 제출되었어도 이후 쓰시마번이 막부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에도가로 스기무라 나오키, 그리고 그와 결탁한 로쥬(老中)와의 긴밀한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후 쓰시마에서는 사쿠마 파견으로 막부의 재정 지원이 성공한 사례를 인용하여 막부에 원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었다.

막부가 사쿠마의 보고를 통하여 쓰시마가 주장하는 조선무역 단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무려 86년에 걸쳐 영속수당금 12,000냥을 매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쿠마를 쓰시마에 파견하여 쓰시마 내부 및 조선무역의 상황을 인지만 한 채로 결과적으로는 막부는 쓰시마의 조선무역 단절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쓰시마가 이전부터 담당해왔던 가역을 인정하여 기존의 대조선외교 및 무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막부의 또 다른 논리는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 3. 무역품의 변화 : ‘人蔘↔銀’에서 ‘牛皮↔銅’ 중심의 무역으로

대조선무역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쓰시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고, 막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18세기 중반 이후 중단된 것은 사무역이 아니라 중개무역이었다. 즉 사무역은 쇠퇴한 것이지만 중단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개무역의 중단과 사무역의 쇠퇴에 따라 18세기 후반 이후 사무역으로 거래되는 수출품·수입품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760년대 이후 조선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은에서 동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인삼·생사·견직물에서 黃芩을 중심으로 하는 약재와 말린 해삼(乾海蔘·煎海鼠)으로 변화하였다.<sup>25)</sup> 그리고 특히 19세

25) 森晋一郎, 앞의 논문, 1986, 145쪽.

기에 접어들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牛皮·牛角爪·黃芩·煎海鼠의 4가지 물품으로 정착되었는데,<sup>26)</sup> 그중에서도 특히 우피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가장 중요한 물품으로 19세기 대일무역을 주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특히 이러한 무역품 변화의 양상은 사무역 담당상인, 즉 왜관에서 무역을 담당하고 있던 동래상인들의 인식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다. 1813년 1월 동래부사 趙貞喆이 『慶尙道東萊府商賈等救弊節目』을 작성하여 비변사에 보고하였는데,<sup>28)</sup> 주요 골자는 동래부 商賈가 왜관 개시, 즉 사무역에서 거래되는 조선의 우피와 우각, 그리고 일본의 동을 독점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즉, 동래상인의 무역 성쇠 여부는 조선산 우피·우각의 수출과 일본산 동의 수입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조선의 우피, 그리고 일본의 동이 주요한 수출·수입품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출품 중에서 대가로 지불된 동의 비율로 보아도 우피가 무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피는 일본 海防 체제의 강화로 인한 武具用 우피 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18세기 말부터 개시되어 19세기 이래 일본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었다.<sup>29)</sup> 쓰시마에서 수입한 우피는 시기별로 적게는 11,000여 매에서 많게는 25,000여 매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피의 수입량은 쓰시마의 입장에서 보면 대조선 사무역 수입 물품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sup>30)</sup> 그것은 1824년 조선이 일본으로 수출한 주요 물품과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동의 수량을 살펴본 다음의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무역 대가로 일본이 조선에 지급한 동의 판매대금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표 3】 조선↔일본의 수출 및 수입품(1824년)<sup>31)</sup>

조선→일본		일본→조선	
牛皮	15,000매	銅	37,800근(51.6%)
煎海鼠	15,000근	銅	12,041여 근(16.4%)
黃芩	50,000근	銅	8,571근(11.7%)
牛角	16,100근	銅	7,375근(10.1%)
上用人蔘	2근	銅	6,000근(8.2%)
爪	1,500근	銅	1,500근(2.0%)

26) 田代和生, 앞의 논문, 1989.

27) 김동철, 「19세기 牛皮貿易과 東萊商人」, 『한국문화연구』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3.

28) 『慶尙道東萊府商賈等救弊節目』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청구기호 奎18109의4). 해당 節目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동철(위의 논문, 1989)과 양홍숙(「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 동향 : 왜관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85~87쪽)의 논문이 참고된다.

29) 田代和生, 앞의 논문, 1989. 일본이 武具 제작을 위하여 牛皮를 수입하였다는 田代和生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塚田孝는 牛皮가 군수용이 아니라 신발 등 민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アジアにおける良と賤 -牛皮流通を手掛りとして-」,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I, 東京大學出版會, 1992, 251~252쪽).

30) 김동철, 위의 논문, 404쪽.

31) 田代和生, 「近世後期日朝貿易史研究序論 -『御出入積寫』の分析を通じて-」, 『三田學會雜紙』 79-3,

또한 『一代官每日記』를 근거로 1844~1849년의 6년 동안의 商賈都中の 수출 현황을 파악한 연구에 따라서도, 역시 물량으로 보았을 때 당시 우피의 일본 수출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6년 동안 13명의 상고도중이 12만장에 이르는 우피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을 정도로,<sup>32)</sup> 우피는 대일 사무역의 중심 물품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말린 해삼은 長崎會所에서 다와라모노(俵物)의 請負制度를 근간으로 1785년부터 도맡아서 1804~1808년까지 평균 37,000여 근을 수입하고 있었다.<sup>33)</sup> 다와라모노는 쓰시마 부근에서도 생산되고 있었지만, 쓰시마에서 생산되는 것은 많아도 3,000근을 넘지 않아 대부분이 조선으로부터 수입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말린 해삼의 수입량은 1780년에 30,306근, 1781년에 37,758근 5습이 일본으로 수입되어 나가사키로 수송되었고, 이후 1787년에 11,000근, 1830년대 초반에 20,000근, 1844년에 7,163근, 1845년에 18,653근 5습 5勺, 메이지(明治) 초반에 30,000근으로 대량으로 꾸준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sup>35)</sup>

19세기 조선의 주요 대일수출품 중의 하나였던 黃芩도 주목할 만한데, 우피를 제외하고 쓰시마의 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황금이였다. 사쿠마가 쓰시마에 파견되었던 1772년에도 인삼 외 약종인 황금이 상당수 수입되어 오사카의 돈야(問屋)에서 취급되었다고 한다.<sup>36)</sup> 1778년에 일본으로 수입된 조선 약재는 인삼 외에 黃芩·黃芪·遠志가 있었는데, 1778년 그 한해에만 전체 약재 수입량 116,306근 중 황금이 115,236근으로 전체 약재 수입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어서, 18세기 후반 이후 황금이 약재 수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조선 황금 대량 수입은 계속 이어져서, 이후 황금의 수입은 1787년에 50,000근, 1830년대 초에 46,000근, 1844년에 33,040근, 1845년에 23,680근, 메이지 초반에 10,000근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일 사무역의 중요한 물품의 하나였던 것이다.<sup>37)</sup>

18세기 후반,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도 조선 수입품에 대한 결제수단은 銅이었다. 대금의 일부를 大錢<sup>38)</sup>으로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이었던 것이다. 1678년

慶應義塾經濟學會, 1986, 24(288)쪽.

32)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에 참가한 商賈都中の 규모와 활동(1844~1849)」, 『한일관계사연구』 8, 한일관계사학회, 1998, 94~95쪽.

33) 小川國治, 『江戸幕府輸出海産物の研究』, 200~204쪽(田代和生, 위의 논문, 25(289)쪽에서 재인용).

34) 田代和生, 위의 논문, 25(289)쪽에서 재인용.

35) 森晋一郎, 위의 논문, 143(405)쪽.

36) 『사쿠마 진과치 보고서』, 47쪽.

37) 森晋一郎, 위의 논문, 142(404)쪽; 한편 당시 일본에서 빚이나 비녀의 원료로 사용되던 牛角爪의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양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38) 정성일은 大錢을 조선 돈인 常平通寶라고 보고 있다. 1752년 무렵 쓰시마의 표류민 조사 기록에서 상평통보라는 명칭이 보이기 시작한 바 있고,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하였지만 1749년에는 쓰시마가 일본에서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왜관에서 그것을 유통시킬 것을 구상한 적도 있었다(정성일, 「상평통보를 소지한 조선의 표류민과 대마도(1693~1862)」,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 101, 2016 참고). 또한 19세기 초반 이후 공무역의 결제수단으로 銀(上銀)과 동전(大錢)이 추가 결제수단으로 활용된 사실이 밝혀내기도 하였다(정성일, 「19세기 대일공무역 결제수단의 변경과 금납화 : 1841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참고).

常平通寶가 발행되면서 조선에서 화폐 유통이 본격화되었는데, 鑄錢의 주원료인 동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품질이 좋지 않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에서는 대일 동 무역과 국내로의 유통을 국가에서 통제하고자 하였고, 공·사무역의 대금으로 사용되던 동은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조달해야만 하였다.<sup>39)</sup>

즉, 조일 사무역에서는 1750년대 이후 일본이 은을 대신하여 동을 조선으로 수출하게 되고, 기존의 인삼·생사·견직물 위주였던 대일 수출은 우피·황금·말린 해삼·우각조의 4가지 품목이 중요한 사무역 물품으로 대체되게 되면서, ‘人蔘↔銀’ 체제로부터 물량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牛皮↔銅’ 교역 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19세기 후반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 4. 맺음말

사쿠마 진파치는 막부의 명령을 받고 1772년 쓰시마로 파견되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쓰시마의 악화된 재정 상황과 조선무역 단절을 주장하는 쓰시마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막부에 보고되었다. 가칭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사쿠마는 쓰시마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완전히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쿠마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막부의 쓰시마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계속되었다.

쓰시마는 막부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다른 다이묘에 비하여 빈번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다. 쓰시마에 대한 막부의 재정 지원은 다른 번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조선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던 막부의 정책을 쓰시마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쓰시마의 주장대로 조선과의 사무역은 단절되었지만, 쓰시마를 통하여 이루어진 조선과의 통교 체제를 기존의 형태로 유지시키고자 한 막부의 정치적 판단이 그 기저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 양국 학계에서 사무역 단절론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17세기 이후 사무역은 조선산 인삼과 일본산 은의 직교역, 그리고 중국산 생사(백사)·견직물과 일본산 은의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이중구조로 전개되었다. 특히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던 물품 중 백사·견직물과 인삼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삼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바로 인삼과 은 이 두 물품이 대일 사무역의 가장 주요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삼과 은 무역은 1750년대 이후, 백사·견직물과 은의 중개무역은 174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거래

39) 조선정부의 주전사업과 일본 銅 수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록의 논문(『17~18세기 대일銅무역과 정부의 주전사업』, 『지역과 역사』 43, 부경역사연구소, 2018)을 참고.

되는 주요 물품은 조선의 우피·우각조·황금·말린 해삼의 4가지가, 그리고 일본의 동이 중심이 되어 사무역을 이끌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윤유숙 편,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II : 사쿠마 진파치 보고서(佐久間甚八 報告書) · 죽도문담(竹島文談)』, 동북아역사재단, 2018
- 김동철, 「19세기 牛皮貿易과 東萊商人」, 『한국문화연구』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3
- 김영록, 「17~18세기 대일銅무역과 정부의 주전사업」, 『지역과 역사』 43, 부경역사연구소, 2018
- 양홍숙, 「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 동향 : 왜관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오 성, 「조선후기 인삼무역의 전개와 잠상의 활동」, 『세종사학』 1, 세종사학회, 1991
-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정성일, 「조선삼 인삼 종자와 일본의 인삼 수입대체」, 『춘계 박광순박사 화갑기념 경제학논총』, 1993
-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에 참가한 商賈都中の 규모와 활동(1844~1849)」, 『한일관계사연구』 8, 한일관계사학회, 1998
- 정성일, 「韓·日 私貿易 論爭 -1684~1710년간 對馬藩의 무역수지와 무역이윤-」, 『경제사학』 27, 경제사학회, 1999
-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 정성일, 「19세기 대일공무역 결제수단의 변경과 금납화 : 1841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 정성일, 「상평통보를 소지한 조선의 표류민과 대마도(1693~1862)」,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 101, 2016
- 荒野泰典 著·신동규 譯, 『근세 일본과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19
- 森山恒雄, 「對馬藩」, 『長崎縣史(藩政編)』, 吉川弘文館, 1973
- 森晋一郎, 「近世後期對馬藩日朝貿易の展開 -安永年間の私貿易を中心して-」, 『史學』 56-3, 1986
- 田代和生, 「近世後期日朝貿易史研究序論 -『御出入積寫』の分析を通じて-」, 『三田學會雜紙』 79-3, 慶應義塾經濟學會, 1986
- 田代和生, 『幕末期日朝私貿易と倭館貿易商人 -輸入四商品の取引を中心に-』, 『徳川社會からの展望』, 同文館出版, 1989
-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吉川弘文館, 1971
- 中村質, 「近世日朝私貿易論の再檢討」,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하, 1992

塚田孝, 「アジアにおける良と賤 -牛皮流通を手掛りとして-」,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I, 東京大學出版會, 1992

【제7발표】

2차 켈리코 논쟁, 1719-21:  
직조공 로비와 젠더, 사치

김대륜(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차 캘리코 논쟁, 1719-21: 직조공 로비와 젠더, 사치

김대륜(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서문
2. 1719년 캘리코 폭동의 맥락
3. 직조공 로비의 청원 활동
4. 1721년 캘리코 법과 젠더, 사치
5. 결어: 1721년 캘리코 법 이후

### 1. 서문

1719년 7월 8일, 런던 중앙 형사 법원에서는 거리에서 인도산 면직물을 입은 여성을 습격한 존 라모니(John Larmony)와 메리 매튼(Mary Mattoon)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고 있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큰길에서 엘리자베스 프라이스(Elizabeth Price)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니, 그를 신체 상해의 공포로 몰아넣고 흉악하게도 그의 캘리코 가운을 빼앗았다... [이들은] 그의 가운을 보자마자, ‘캘리코, 캘리코! 직조공들이여, 직조공들이여!’라고 외쳤다. 이 외침에 많은 이들이 호응해 그의 가운을 벗겨 버려서 소매와 주머니, 모자 윗부분만 남았고, 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매튼은 그를 ‘캘리코 쌍년(Calicoe Bitch)’이라 불렀다.”<sup>1)</sup>

이 장면은 1719년 여름 런던을 비롯한 주요 직물업 중심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캘리코 폭동(calico riot)의 일면을 보여준다. 라모니가 주도한 폭동에는 그저 몇몇 직조공과 주변 인물이 참여한 듯하지만, 폭동이 처음 시작된 6월 11일에는 규모가 훨씬 컸다. 6월 11일 폭동의 바로 전날은 흥미롭게도 1715년 재커바이트 반란의 구심점이 된 왕위계승요구자 제임스 스튜어트(James Francis Stuart)의 탄생일이었고, 재커바이트 잔당은 여기저기서 은밀히 그의 탄생을 기렸다. 그런데 그날 저녁 스튜어트 가문의 복위를 반대했던 휘그파 사이에서는 스피털필즈 직조공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캘리코 소비 때문에 자기들 직종에 불어닥친 파탄에 관해 소곤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실제로 이튿날 아침 거의 2,000명에 이르는 직조공이 모여들었다. 휘그파 신문에서 “직조공과 소매치기, 가택 침입자, 교황주의자와 재커바이트 악당이 뒤섞여 있는 폭도”라고 묘사된 이 대규모 군중은 무리를 지어 런던 거

1) *Old Bailey Proceedings Online* (www.oldbaileyonline.org, version 8.0, 16 August 2022), July 1719, trial of John Larmony Mary Mattoon (t17190708-57).

리를 휩쓸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을 공격해 켈리코로 된 옷을 벗겨내고 질산을 뿌려댔다. 당국은 시티(the City)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걸고 군대를 보내 이들을 해산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두 직조공이 계속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다른 일군의 직조공은 루이섬(Lewisham)으로 가서 켈리코 프린팅 기계를 파괴하려 했으나 군대에 의해 해산되었고, 몇몇 직조공은 체포되었다.<sup>2)</sup>

이렇게 시작된 켈리코 폭동은 1719년 10월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면직물로 된 옷을 더는 입지 않게 되자 폭동도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그 이듬해 여름에 재개되었다. 이런 직조공의 폭동은 17세기 후반부터 직물업 내부에서 일어난 고용 관계의 변화와 연관된 일이었다. 특히 런던에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상인 자본가가 모직물업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동업조합의 전통적인 규제를 무시하고 외국인을 포함해 수많은 도제를 고용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도제가 된, 흔히 가난한 이민이었던, 직조공은 도제 수업 기간을 다 채워도 자신의 작업장을 꾸릴 자본이 없어 계속 직인 신분으로 남았다. 이들의 처지는 사실상 임금노동자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러자 이들 직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조직은 작업 조건이나 임금 문제를 두고 상인 자본가와 단체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명예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의회 청원 같은 수단과 다른 한편으로는 폭동 같은 거리에서의 저항에 의존했다.<sup>3)</sup> 1719년에 일어난 폭동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직조공의 비공식적 조직이 1719년 폭동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자생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이 뚜렷하게 보이므로 대부분의 1719년 폭동은 치밀하게 계획된 단체 행동이라기보다는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하층민 저항문화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좀 더 조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첫 번째 폭동 같은 경우도 사용자에 대항하기보다는 사용자와의 결탁 또는 상인 자본가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모직물업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사실 이런 일은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17세기 말에도 일어났다. 이를테면, 1697년에 모직물 직조공이 인도산 면직물을 수입하는 동인도회사 본부와 회사에 속한 두 상인의 집을 습격한 일이 있었다. 1697년 폭동이나 1719년 폭동 모두 인도산 면직물을 겨냥한 것이지만, 양자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도 보인다. 전자가 주로 인도산 면직물을 수입 하던 동인도회사를 겨냥한 반면 후자는 켈리코를 판매하는 상인과 특히 켈리코를

2) *Weekly Journal of British Gazetteer*, 13 June 1719; P. J. Thomas, *Mercantilism and the East India Trade* [1926] (London, 1963), 140-141.

3) Robert Shoemaker, 'The London "Mob"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Journal of British Studies* 26:3 (1987), 279-280; Shoemaker, *The London Mob: Violence and Disorder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London, 2004).

착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서두에서 소개한 두 사례에서 여인의 옷을 찢어버린 일은 1719년부터 20년 사이에 일어난 폭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직조공은 상인의 가게에서 캘리코를 발견하면 모두 찢어버렸고, 캘리코로 된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한 사람을 발견하면 옷이나 장신구를 칼로 찢어버리거나 질산이나 잉크를 뿌려대곤 했다.

기존 연구로 잘 알려진 것처럼, 17세기 후반에 동인도회사가 인도산 면직물을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흔히 캘리코로 불리던 면직물의 인기가 치솟았다. 본래 17세기 후반에 잉글랜드 직조공이 관심 있게 지켜보던 문제는 프랑스에서 수입된 비단이 일종의 기간 산업이었던 모직물업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1678년에 프랑스산 비단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았지만, 인도산 면직물이 곧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이미 1684년에 동인도회사는 매년 100만 필이 넘는 면직물을 수입하고 있었고, ‘캘리코 광풍(calico craze)’이라 불리는 현상, 그러니까 인도산 캘리코와 진즈에 열광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팸플릿 저자에 따르면, “부자들 가난하든 간에 갑자기 모든 여성이 날염되거나 채색된 캘리코로 치장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화사하고 번쩍거릴수록 더욱 좋았다.”<sup>4)</sup> 이런 상황에서 직조공은 폭동과 청원 활동으로 고충을 널리 알렸고, 그 결과 인도산 면직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인도에서 수입된 백색 면포의 수입을 예외로 인정했기 때문에 동인도회사는 이제 가공하지 않은 백색 면포 수입에 집중하게 되었다. 동시에 잉글랜드에서는 이렇게 수입된 백색 면포를 프린트하거나 염색하는 새로운 제조업이 등장했다. 1719년 무렵에 이르면, 이런 상황에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이 끝나며 불어닥친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직조공의 처지가 더 나빠졌다. 그 결과가 바로 제2차 캘리코 폭동이었다.

이 발표문은 1719년부터 시작된 폭동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동인도회사의 면직물 수입과 잉글랜드 내에서의 면직물 가공업 성장이 낳은 영향을 검토한다. 이 발표문이 특히 흥미롭게 여기는 대목은 1719년 폭동이 왜 면직물을 소비하는 이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는 점이다. 1719년 폭동 당시 여성 면직물 소비자는 흔히 ‘캘리코 부인(calico madam)’이라고 불리면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1719년 폭동과 그 직후에 일어난 청원 운동을 개략적으로 그려보고, 거기서 제기된 문제들이 당시 잉글랜드에서 활발했던 공적 영역(public sphere)의 토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검토한다. 그렇게 할 때, 원래 발표자가 흥미롭게 여겼던 물음, 즉 왜 1719년 캘리코 폭동과 청원 활동이 여성 소비자를 특별히 겨냥했는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

4) K. N. Chaudhuri, *The Trading World of Asia and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1660-1760* (Cambridge, 1978), 96-97, 282; Alfred Plummer, *The London Weaver's Company 1600-1970* [1972] (London, 2006), 292에서 인용. Beverly Lemire, *Fashion's Favourite: The Cotton Trade and the Consumer in Britain, 1660-1800* (Oxford, 1991), 12-21도 참조.

## 2. 1719년 캘리코 폭동의 맥락

1719년 6월에 시작되어 이듬해까지 간헐적으로 일어난 캘리코 폭동은 모직물업계와 비단 제조업계의 경제적 고충에서 비롯했다. 특히 모직물업계는 상인 자본가가 모직물 제조업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도제를 받아들였던 탓에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 이후 불황이 찾아왔을 때 대규모 실업을 피하기 어려웠다.<sup>5)</sup> 하지만 직조공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인도산 면직물 소비가 문제의 근원이라 여겼다. 이런 인식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17세기 후반에도 동인도회사가 수입하는 인도산 면직물이 직조공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 잉글랜드 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니 말이다. 일찍이 1680년에 직조공은 동인도회사에서 수입하는 직물을 소비하는 잉글랜드인의 소비 행태를 입법으로 규제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으나, 이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잉글랜드 정부와 의회 역시 직조공의 처지에 무관심하지만은 않았다. 그 결과, 1685년에는 인도산 직물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 인상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1690년에는 다시 관세를 두 배 올렸다. 그런데도 직조공의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조공의 곤경과 동인도회사의 수입 캘리코를 둘러싼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1690년대의 논쟁은 동인도회사의 무역이 잉글랜드 경제와 국력 신장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라는 물음, 그러니까 중상주의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 직조공의 이해관계 보호에 동조했던 여러 저술가는 동인도회사가 인도에서 면직물을 대량으로 수입하면서도 잉글랜드 상품은 거의 수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잉글랜드에서 인도로 정화(正貨)가 계속 유출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 동인도회사의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던 조사이어 차일드(Josiah Child)나 찰스 데브넌트(Charles Davenant) 같은 저술가는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나 은의 양으로 그 나라의 부(富)를 측정할 수는 없고, 동인도회사의 아시아 무역이 여러 경로를 거쳐 결국은 잉글랜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논쟁에서 차일드나 데브넌트는 중상주의에서 자유무역으로의 이행을 예고하며 지적으로 더 우월한 모습을 보였으나, 직조공이 떠받치는 모직물업계 로비는 보호무역의 필요성을 의회에 상기하는 데 성공했다.<sup>6)</sup> 그 결과 1700년 페르시아와 중국, 인도로부터 비단과 프린트된 캘리코를 수입하거나 착용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1700년 법이 제정되는 데는 직조공의 직접 행동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항의는 주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폭동의 형태를 보였다. 오래전에 역사가 에드워드 톰슨은 18세기 잉글랜드에서 자본주의 시장 관계가 전통 경제에 침투할 때 공

5) 캘리코 폭동이 시작된 직후 어느 신문 기사는 수많은 직조공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을 이 문제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들[도제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Weekly Journal of British Gazette*, 27 June 1719.

6) 이 논쟁을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도로는 Andrea Finkelstein, *Harmony and the Balance: An Intellectual History of Seventeenth-Century English Economic Thought* (Ann Arbor, Michigan, 2000)을 보라.

동체가 전통 경제를 떠받치는 일련의 관념과 습속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 는 일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이를 ‘도덕 경제(moral economy)’라는 용어로 개념화 했다.<sup>7)</sup> 1697년부터 보고되기 시작한 직조공의 폭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해 1월 의회가 인도산 비단 수입 금지에 관한 법안을 토론하고 있을 때 4 천에서 5천 명에 이르는 직조공과 그 아내가 의회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같은 날 저녁 동인도회사 본사를 습격했다. 두 달 뒤, 3월 22일에는 수많은 직조공이 스피털필즈에 있던 보머(Bohmer) 씨의 집을 공격했다. 그는 평민원 의원이자 동인도 회사 부회장이었다. 그의 집을 겨냥해 폭동이 일어나자 군대가 출동했고, 해산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뒤에도 폭동은 계속되었다.<sup>8)</sup> 이런 폭동은 톰슨이 이야기했던 도덕 경제의 관념을 대외 무역 문제에 투사한 결과였고, 이런 직접 행동은 의회가 직조공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1700년 법이 제정된 직후 적어도 한동안은 새로운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다. 잉글랜드 소비자, 특히 여성은 금지된 인도산 면직물 소비를 자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인도에서 수입된 가공하지 않은 백색 면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인도산 백색 면포를 잉글랜드 내에서 가공하는 새로운 제조업이 번성하게 되었다. 물론 인도에서 가공된 면직물에 비해 품질은 떨어졌고, 디자인도 다채롭지 않았지만, 잉글랜드에서 가공된 면직물은 인도산 제품의 대체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직조공의 처지가 법 제정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1702년 귀족원에서 어느 직조공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런 금지가 그 상품들[캘리코와 비단]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희망했으나 날염되지 않은 캘리코를 들여오는 일을 허용함으로써 이곳에서 캘리코를 프린트하고 염색하는 일이 증가했고, 캘리코 프린트업자들과 채색 공들이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하는 바람에 저 법이 통과되기 전보다 우리 상황은 악화되었다.”<sup>9)</sup> 실제로 캘리코 프린팅에 종사하던 이들은 1717년에 이르러 매년 1백만 야드의 캘리코를 가공하고 있으며, 원료의 4분의 3이 인도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직조공의 불만이 커지자 의회는 같은 해에 캘리코에 대해 물품소비세를 부과했고, 두 해 뒤에는 세율을 두 배로 올렸으나, 그래도 소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당대의 여러 진술은 캘리코 법 제정 직후에 소비자, 특히 여성 소비자가 캘리코 소비를 멈추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물론 1719년에 다시 한번 캘리코가 논쟁의 초점으로 떠올랐을 때, 논란의 양편에서 모두 캘리코 소비 풍조에 관해 과장된 견해를

7) E. P. Thompson, *Customs in Common: Studies in Traditional Popular Culture* (New York, 1993).

8) Plummer, *The London Weaver's Company*, 293-294.

9) Commissioners for Trade and Plantations, ‘Account of the Trade of the Kingdom,’ 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 *The Manuscripts of the House of Lords, 1702-1704* (London, 1910). 1730년에 런던과 노리치, 링컨 등지의 제조업자들은 캘리코 소비 증가에 불만을 표시하는 청원을 평민원에 제출했다. *The Journals of the House of Commons*, XVI, Jan and Feb 1703.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대니얼 디포(Daniel Defoe) 같은 논평가가 “모든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 특히 시골 사람들과 하인들과 중간 부류 가족들, 다시 말해 비단을 사 입을 수 없는 거의 모든 여성이 캘리코나 프린트된 리넨으로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을 때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간의 관심을 끈 일은 하층민 사이에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에서 프린트된 캘리코를 구매하는 일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캘리코 부인’을 만날 수 있다는 증언이 나왔고, 심지어 “캘리코 가운데 없는 하녀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피복뿐만 아니라 각종 장식에서도 캘리코와 진즈는 널리 사용되었다. 디포는 “거리에 캘리코 부인들이 가득한 것처럼 집안에는 캘리코 가구가 가득 차 있다”고 기록한 바 있다.<sup>10)</sup>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캘리코 소비가 늘어나고,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 이후 불황이 찾아오면서 직조공은 악화하는 경제적 처지를 17세기 말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폭동의 정치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 런던 거리에서 직조공의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캘리코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공격이 잦아지면서 상황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폭동에 참여한 직조공 가운데 스튜어트 가문의 복위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당파 정치의 문제와 얽히게 될 가능성까지 떠올랐다. 휘그파와 토리파 사이 갈등은 앤 여왕의 시대에 끓어오르기 시작해서 하노버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더욱 심각해졌고, 이 갈등에서 런던은 토리파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sup>11)</sup> 이런 맥락에서 직조공이 여러 차례 폭동을 일으킨 일, 특히 이들 가운데 스튜어트 가문 복위파와 연관된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직조공 로비가 휘그파가 지배했던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도움을 얻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다.

이런 우려 탓에 런던 직조공조합은 1719년 7월 1일 직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내놓았다. 여기서 조합은 캘리코 소비가 불러온 피해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직조공의 폭력적인 행동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행동은 직물업의 이해관계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들에게 직조공을 모두 하노버 왕조에 불만을 품은 반체제 세력으로 낙인찍을 구실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고를 맞이해 직인은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하라는 조합의 조언을 따르겠다고 답했다.<sup>12)</sup>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폭동은 그해 여름 계속되었고, 그런 만큼 신문과 팸플릿 지면을 중심으로 폭동에 대한 논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직조공조합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 논란은 곧 토리파와 휘그파 사이의 당파 갈등으로 치달았다. 휘그파 계열의 신문이나 팸플릿 저술가들은 직조공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토리파는 자연스럽게 직조공의 편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논쟁이 퍼져나가는 사이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

10) Thomas, *Mercantilism and the East India Trade*, 132-134에서 인용.

11) Nicholas Rogers, ‘Popular Protest in Early Hanoverian London,’ *Past & Present* 79 (May, 1978).

12) Thomas, *Mercantilism and the East India Trade*, 142.

까. 흥미롭게도 런던 중앙 형사 법정이나 미들섹스 사계 법정 기록은 폭동 가담자가 체포에서 기소, 유죄 선고를 거쳐 결국 처벌을 받는 전 과정을 겪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719년 6월부터 1720년 7월까지 간헐적으로 일어난 여러 폭동 가운데 기소가 진행된 사례는 모두 35건뿐이었다. 이들 사례에서도 기소된 가담자는 많지 않았다. 이를테면, 1719년 6월 12일 스피럴필즈의 브라운레인에서 일어난 폭동에는 200명에서 400명에 이르는 직조공이 가담했는데, 그 가운데 단 7명만 폭동 혐의로 기소되었다.<sup>13)</sup> 게다가 기소된 이들조차도 대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역사가 로버트 슈메이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720년에서 21년에 폭동 혐의로 기소된 220명 가운데 20퍼센트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런 이들에게도 주로 벌금형,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벌금이 부과되었다. 예컨대, 같은 기간에 사계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43명의 폭동 가담자 가운데 72퍼센트는 3실링 4다임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sup>14)</sup>

폭동 가담자 가운데 기소된 이들이 적었던 까닭은 치안을 유지하는 관리의 숫자가 크게 부족해서 처벌은 고사하고 폭동 가담자를 체포하는 일 자체가 어려웠던 탓이다. 휘그파는 1715년에 폭동법(Riot Act)을 개정해 12명 이상이 가담하는 폭동을 중죄(felony)로 규정한 바 있다. 이는 정치적인 성격의 폭동을 차단하려는 취지였으나, 법 조항에 따라 해산 명령이 내려진 후 1시간 이내에 흩어지기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폭동 가담자들은 재빨리 모였다가 해산하는 전술을 택하곤 했다. 게다가 폭동 가담자들은 역사가 에드워드 톰슨이 지적한 대로 폭동 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실히 따랐다. 폭동에 직접 가담한 하층민은 물론 이를 지켜보던 상층 부류도 폭동이 가능한 폭력을 자제하고, 법치 질서 자체를 위협해서는 안 되며,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신이 아니라 재산을 겨냥해야 한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 기대를 충족하기만 하면 폭동은 그리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켈리코 폭동은 이 점에서 조금 특별한 경우였다. 폭동이 겨냥한 재산이 사람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인신에 대한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신문은 폭동 가담자들의 지독한 폭력 사례를 상세히 보도했는데, 이런 보도 이면에는 폭력성이 덜하다면 폭동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폭동 가담자에게는 대개 관대한 처분을 내리곤 했던 것이다.<sup>15)</sup>

이렇게 폭동에 대한 처분이 관대했다고 하더라도 폭동에 관한 논란이 당파 갈등으로 확산되자 직조공조합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했다. 직조공의 폭동을 하노버 왕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직물업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직조공조합의 시선에서 볼 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휘그파가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와 의회의 도움을 받는 일뿐이었다. 의회 입법만이 유일한 길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각료와

13) Shoemaker, 'The London "Mob"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295.

14) Ibid., 294-296.

15) 이 문제와 관련된 당대의 기사로는 *London Journal*, 13, 20 August 1720을 보라.

정부 관리, 의회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바, 폭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휘그파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직조공의 행동을 정치적인 불만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제적 곤경 끝에 벌어진 최후의, 절박한 행동으로 묘사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직조공이 처한 곤경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와 의회에 전달해야 했다. 이는 당파 갈등과 얽혀 들어가지 않는 조심스러운 로비 활동을 요구했다.

### 3. 직조공 로비의 청원 활동

1690년대 켈리코 논쟁이 직조공 로비의 청원 활동과 그에 따른 입법으로 귀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1719년부터 시작된 켈리코 폭동 이후 직조공조합은 다시 한번 청원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18세기 초에는 경제와 관련된 청원 활동, 특히 의회를 겨냥한 로비 활동이 점점 활발해졌다. 이런 로비 활동이 성공을 거두는 데는 정부 관리나 의회 의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론을 동원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졌다. 그것은 17세기 말에 크게 확장된 잉글랜드 사회의 공적 영역(public sphere)과 연관된 변화였다.<sup>16)</sup> 역사가 스티브 핑커스가 주장한 것처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토리파와 휘그파의 당파 갈등이 잉글랜드(1707년 이후에는 영국) 정치경제의 특징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과 긴밀하게 맞물려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 계기에 모습을 드러낸 이런 논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특정 이해관계 집단의 분파적 이해관계(sectional interest)와 국익(national interest) 사이에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이 점을 정치인은 물론 공공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일이었다.<sup>17)</sup> 다시 말해, 웨스트민스터의 공식적인 정치 영역에서의 토론과 공적 영역에서의 토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719년 이후 런던 직조공조합은 직조공의 요구를 의회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공적 영역에서의 토론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런 참여는 때로는 조직적인 형태를 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자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직조공조합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저술가를 고용해 각종 팸플릿이나 정기간행물을 내놨다. 다른 한편으로 여러 저술가가 내놓는 팸플릿이나 정기간행물 기고문을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직조공조합은 리처드 스틸(Richard Steele)이나 클로디우스 레이(Claudius Rey) 같은 이들의 저술에서 큰 힘을 얻었다.<sup>18)</sup> 이런 저술은 대개 직조공의 폭동, 특히 여성

16)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나 특히 Steve Pincus, “Coffee Politicians Does Create”: Coffeehouses and Restoration Political Culture,’ *Journal of Modern History* 57:4 (Dec., 1995); Peter Lake and Steve Pincus (eds.), *The Politics of the Public Sphere in Early Modern England* (Manchester, 2012)를 보라.

17) Steve Pincus, *1688: The First Modern Revolution* (New Haven, CT, 2009).

에 대한 폭력 행위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직조공이 처한 곤경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동조적인 저술을 널리 활용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조공조합은 아예 그들의 처지를 대변할 저술가를 고용해 의회 로비에 활용했다. 대니얼 디포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디포는 이런 일에 익숙했던 저술가였고, 개인적으로도 잉글랜드 직물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가 1719년 4월에 <로빈슨 크루소>를 출간해 명성을 얻은 일도 그를 고용할 만한 이유가 되었다.<sup>19)</sup>

물론 이 모든 일은 결국 평민원에 직조공의 고된 처지를 알려 새로운 규제 법안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평민원에 로비를 집중해야 하는 까닭은 명예혁명 이후에 바로 그곳에서 경제 문제와 연관된 입법 활동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명예혁명 이전인 1660년대에 경제와 관련된 청원의 거의 80퍼센트가 궁정으로 제출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1705년에 이르면 비슷한 청원은 80퍼센트 이상 의회에 제출되었다. 청원 대상으로 궁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필자가 오래전에 18세기 후반 상인의 정치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의회 청원 활동의 증가가 행정부, 특히 상무위원회(Lords Commissioners of Trade and Plantations)나 재무부에 대한 로비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다.<sup>20)</sup> 평민원에서 청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당파의 지지를 얻는 일이 필요했고, 따라서 의회로 가기 전에 먼저 행정부 장관과 관료를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1719년에 직조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해 여름이 지나면서 폭동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자 직조공은 특히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부 부서에 다수의 청원을 보냈다. 상무위원회는 잉글랜드 각지에서 청원을 받아 주요 상인과 제조업자의 견해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관세청을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에도 각종 사실과 수치 자료를 요청했다. 동시에 동인도회사와 저명한 캘리코 프린트업자, 리넨 제조업자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즉 청원은 이런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상무위원회는 1719년 12월에 국왕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캘리코가 실제로 잉글랜드 제조업에 해악을 끼치고 있고, 캘리코 착용을 제한하는 일이 영국의 기간 산업인 모직물업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상무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하는 사이 직조공은 이제 의회로 관심을 돌렸다. 최초의 청원은 1719년 11월 24일에 우스터(Worcester) 직물업자가 제출한 것으로, 이들이

---

18) Richard Steele, *The Spinster: In Defence of the Woollen Manufactures* (London, 1719); [Claudius Rey], *The Weavers True Case; or, the Wearing of Printed Callicoes and Linnen...* (London, 1719).

19) 그에 따라 디포는 <제조업자(The Manufacturer)>라는 정기간행물을 1719년부터 1721년 사이에 간행했다. 그 외에도 *A Brief State of the Question between the Printed and Painted Callicoes and the Woollen and Silk Manufacture...* (London, 1720) 등을 써서 논쟁에 참여했다.

20) 김대륜, '상인과 정부:무역부(the Board of Trade)에서의 아메리카 상인 로비들, 1763-1782,' <영국 연구> 16 (2006).

청원을 제출하는 까닭으로 기술한 부분은 그 이후에 다른 도시의 직조공이 제출한 청원의 모범이 되었다. 그들에 따르면,

왕국의 모직물 제조업에서 나머지 부분과 결합한 직물업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지주 계급의 이해관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원자였고, 빈민을 고용했으며 우리 나라 국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직종은 크게 쇠퇴하고 있고, 수천에 이르는 빈민 가정이 일자리가 부족해 소멸할 처지에 있으니 그것은 모직물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영국에서 캘리코와 염색한 리넨을 착용하는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때 [이런 일을] 막지 않는다면 수천 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해외로 몰아내고 이제까지 빈민을 고용해 온 수천의 훌륭한 가정을 파멸시킴으로써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빈민은 모두 소멸할 것입니다.<sup>21)</sup>

우스터의 청원 이후 런던과 노리치(Norwich), 캔터베리(Canterbury), 글로스터(Gloucester) 같은 곳을 포함해 잉글랜드 곳곳에서 거의 100건에 이르는 청원이 제출되었다. 사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 있던 직조공과 방적공 뿐만 아니라 연관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이런 이들이 자리 잡고 있던 도시 자치정부가 별도로 청원을 보냈다. 이런 청원 운동이 실제로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으므로 런던 직조공조합과 직조공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가지 방증이 이 캠페인에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개입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스터 직물업자가 제출한 청원이 전형적이라는 것, 다시 말해 대부분 청원이 같은 구조 아래에 동일한 어휘, 더 나아가서 같은 문장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캘리코 소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모직물업이 자리 잡지 않았던 몇몇 도시에서도 청원이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우스터의 경우가 이런 사례가 될 터이다. 이곳은 광폭 모직물(broadcloth)을 주로 생산하던 곳으로 캘리코 소비의 영향을 받을 까닭이 없었는데도 청원을 제출했다. 던위치(Dunwich)에서도 모직물업이 성행하지 않았음에도 청원을 제출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보면, 런던 직조공조합이 모델이 될만한 청원을 지방 도시로 내려보내고 자신들의 연줄을 활용해 청원 제출을 독려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청원의 물결 가운데 동인도회사와 캘리코 프린트업자들도 직조공의 불만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었다. 캘리코 프린트업자들은 자신들이 면직물 프린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조업을 개척하여 수천 명에 이르는 빈민을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인도회사도 의견을 냈다. 회사의 이사진은 동인도회사가 나라 재정이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무려 3백만 파운드가 넘는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회사의 처지에서는 이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도 무역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동인도회사의 인도 무역이 결국에는 나라에 이롭다는 주

21) *Journals of the House of Commons* (London, 1803), vol. XIX, 168.

장, 그러니까 1700년 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사진은 회사가 인도 현지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동인도회사의 대리인들이 주로 정착한 곳은 이른바 “캘리코 지방”이었으므로 잉글랜드에서 캘리코 수입과 착용이 금지된다면 인도인이 회사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실제로 1700년 법에 관한 소식이 알려지자 마드라스의 인도 통치자는 캘리코를 더는 팔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고, 그 때문에 회사는 이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면직물을 사들여야 했다는 것이었다.<sup>22)</sup>

이런 상반된 견해를 신중하게 청취한 후에 영국 의회는 결국 모직물업자와 직조공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직조공이 주도해 제출한 청원들이 요청한 법은 1721년 3월에 평민원과 귀족원을 모두 통과해 새로운 캘리코 법이 되었다 (7 Geo I, c.7). 1722년 12월 25일부터 발효될 이 법은 의복이나 가구, 각종 가정용품으로 프린트되거나 채색, 염색된 캘리코를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일을 모두 금지했다.<sup>23)</sup> 직조공의 청원이 요청한 것처럼 영국 모직물 제조업과 비단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빈민의 고용을 장려하려는 취지였다. 빈민의 고용 상태는 빈민세를 부담해야 하는 지주 계급, 특히 의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던 이 계급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법을 어기고 캘리코를 판매하거나 착용한 이들에게는 25파운드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해 법의 효력을 높이려 했다.

17세기 후반부터 계속된 중상주의 정책에 관한 치열한 논쟁은 이 법의 제정으로 끝나는 듯했다. 1721년 캘리코 법은 영국 산업의 근간이라 여겨졌던 모직물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으므로 1700년 법과 같은 목표를 지향했다. 하지만 1721년 법에 대한 논쟁은 그 이전의 법 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는 맥락이 달랐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직조공 로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일이 영국 경제의 근간이라 주장했다는 점은 마찬가지였으나, 그들의 이해관계는 이미 영국 국내 제조업의 일부가 된 면직물 가공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직조공과 제조업자는 면직물 가공업이 여전히 중상주의의 신조를 거스르는 동인도회사의 무역 활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면직물 소비가 영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치 풍조를 조장한다는 도덕적인 비판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런 담론 전략은 1700년 법 제정 당시에 직조공과 제조업자가 내세웠던 중상주의 담론만큼 널리 설득력을 얻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폭동과 출판물을 통한 논쟁, 로비 활동에서 이들이 승리를 거두는 데는 충분했다.

22) Thomas, *Mercantilism and the East India Trade*, 156-157.

23) 법안 통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Applebee's Original Weekly Journal*, 18 March 1721의 기사; Lemire, *Fashion's Favourite*, 41-42 참조

#### 4. 1721년 캘리코 법과 젠더, 사치

1719년 초여름부터 시작된 캘리코 폭동과 뒤이은 캘리코 논쟁이 1690년대의 논쟁과 구별되는 대목은 그것이 직조공의 곤경을 여성 소비자의 사치라는 문맥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다. 대니얼 디포의 관찰을 빌리자면, 사치스러운 여성 소비자는 캘리코에 탐닉해 직조공과 그 가족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곤 했다. 이런 소비자는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각종 캘리코 제품을 사들였는데, 이런 행동 때문에 모직물이나 비단을 생산하는 직조공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수많은 직조공의 가족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흥미롭게도 디포는 캘리코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여성 소비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의 모성에 호소함으로써 소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려 했다. 직조공조합의 요청에 따라 펴낸 <제조업자>의 첫 호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부인들, 특히 아이들의 부모이면서도 캘리코를 착용하는 부인들이 빈민을 희생시키면서 캘리코에 대한 그들의 환상을 충족해 그 교역을 장려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어머니와 아이들, 가족들이 굶주림에 빠지는 일을 돕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라. 한 어머니로서 깊은 속내를 지닌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재앙을 안기는 도구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는 거의 어렵다.<sup>24)</sup>

같은 호에서 디포는 캘리코 소비의 확산을 역병에 비유하기도 했다. 캘리코 열풍은 “중단시키지 않으면 수도에서 발생한 역병처럼 온 나라에 퍼져나갈 것이고 ..... 어떤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널리 확산된 감염으로 쓰러지듯이 이 캘리코라는 역병으로 영국의 모든 제조업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므로 디포는 여성 소비자를 대놓고 비난하는 일보다 폭동 가담자를 어떻게든 옹호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직조공의 폭동을 무자비한 폭동의 만행으로만 치부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물론 폭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폭동이 일어난 맥락을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한다. 직조공의 폭력적인 행동은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앞으로 그가 발행할 신문은 인도산 캘리코를 아무 생각 없이 사들이는 소비자가 끼치는 해악을 독자에게 일깨워주려 한다는 것이다. 디포의 이런 담론 전략은 다음 호에서도 계속되었다. 거기서 그는 직조공의 곤경이 사실 지주 계급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잉글랜드인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자와 상인부터 직조공까지 모두가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그 아내와 딸들에게 캘리코를 착용함으로써 그들이 영국 제조업을 파괴하고 빈민을 굶겨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sup>25)</sup>

24) *The Manufacturer by Daniel Defoe together with Issues of the British Merchant and the Weaver*, ed. R. Gosselink (New York, 1978), no. 1.

논쟁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이런 온건한 담론 전략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디포와 같이 여성의 모성에 호소해 자제를 요청하기보다는 캘리코를 소비하는 여성을 아예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다수였다. 사실 디포 자신도 다른 자리에서 캘리코 가운을 입고 있는 여성은 ‘국가의 적’이라고 선언하면서 같은 취지의 요청을 제시한 바 있었다.<sup>26)</sup> 캘리코 폭동이 시작된 직후에 자기 자신들을 ‘캘리코 증오자(Calicoe-Haters)’라고 밝힌 어느 신문 기고자는 여성이 이를테면 캘리코 가운 같은 면직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렇게 여성이 완고하게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이상, 의회가 빠르게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폭동은 계속될 것이고, 그 사이 모직물과 비단 제조업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였다.<sup>27)</sup>

면직물로 된 옷을 입은 여성이 주요한 공격대상으로 떠오른 까닭은 폭동 시기 전후로 영국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젠더와 사치에 관한 논쟁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가 존 포콕 등의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1710년대에 볼링브루크 남작(Henry St John, 1<sup>st</sup> Viscount Bolingbroke)이 토리파를 이끌면서 하노버 왕조의 개창 이후 권력을 장악한 휘그파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볼링브루크는 휘그파가 금권 세력과 결탁해 국왕을 불모로 잡고 주요 관직을 추종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항해 독립된 지주 계급 출신 정치 엘리트의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영국 정치는 국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궁정과와 그들에 대항하는 국민파(country party)의 대결로 구조화되어 있고, 국민파는 궁정과와 위세에 맞서기 위해 공화주의적 덕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영국 정치에서 다시 한번 르네상스 시대의 공화주의가 재발견되었고, 용맹한 애국심과 동일시되는 남성의 덕성이 강조되면서 그와 대비되는 여성성은 격하되었다. 이런 여성성은 상업의 발전과 사치 풍조의 만연과 연관되어 있고, 그런 풍조는 특히 상류층 여성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생각되었다.<sup>28)</sup>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인도산 캘리코에 대해 열광하는 여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언제라도 희생하는 일을 각오해야 하는 애국적인 태도, 다시 말해 시민적 덕성과는 거리가 먼 사례로 간주할 수 있었다. 공화주의자가 우려하듯, 그것은 또한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인 사치와 타락을 상

25) *The Manufacturer*, no.2

26) Chole Wigston Smith, “Calico Madams”: Servants, Consumption, and the Calico Crisis,’ *Eighteenth-Century Life* 31:2 (Spring 2007), 33

27) *Weekly Journal*, 22 August 1719.

28) 여기서는 복잡한 이 정치사상 논쟁을 아주 개략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J. G. A. Pocock, *The Machiavellian Moment: Florentine Political Thought and the Atlantic Republican Tradition* [1975] (Princeton, NJ, 2016); idem., *Virtue, Commerce and History: Essays on Political Thought and History, Chiefly in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1985); Isaac Kramnik, *Bolingbroke and His Circle: The Politics of Nostalgia in the Age of Walpole* (Ithaca, CT, 1992);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공화주의의 형성과 핵심사상> (길, 2010).

정하기도 했다. 더욱 위험한 일은 일단 여성이 캘리코 유행에 빠져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모함을 드러내며 자기 본분을 쉽게 망각한다는 것이었다. 18세기 초 어느 익명의 저자는 여성이 캘리코를 얻기 위해 “시계와 반지와 영혼”을 저당 잡히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여성은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영혼까지도 팔아버릴 태세라는 것이다. 이 저자에 따르면 여성은 “그들의 음탕한 자만심을 위해 많은 [면직물을] 사들이기”를 원했다. 그는 이런 태도야말로 면직물이 전통적인 가치의 붕괴를 낳고 여성의 부도덕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면직물이 여성 사이에 만들어내는 이런 도덕적 타락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지향하는 개신교 도덕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잉글랜드의 국민 정체성과도 어울리지 않았다.<sup>29)</sup> 다시 말해, 캘리코는 잉글랜드 제조업과 상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의 국민성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1719년 논쟁에서 클로디우스 레이처럼 면직물업계와 캘리코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저자는 이 직종을 “오직 여성 의복과 연관된, 직조업 분야들”이라고 한정하고, 이런 직종에서 생산된 캘리코에 열광하는 여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해악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여성들은 우리의 가장 **유명한** 비단과 모직물 제조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 말고는 악의 홍수에 다른 어떤 경계도 긋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제조업!** 너무나 이롭고 그 복리가 **나라** 전체의 복리와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된 제조업 말이다!<sup>30)</sup>

유명한 에세이 작가 리처드 스틸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복이 이런 악의 근본 원인인 여인들의 세상”에 대해 캘리코 소비가 끼친 경제적, 도덕적 해악을 설교했다.<sup>31)</sup>

흥미롭게도, 캘리코 유행과 그것에 열광하는 여성 소비자를 “나라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국가 경제는 물론 국가의 도덕적 근간까지 뒤흔든다고 비판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여성을 옹호하려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를테면, 캘리코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해서 여성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어느 익명의 저자는 “한 무리의 대담한 악당이 찾아와 거리에서 우리를 덮쳐 우리 등에서 옷을 벗겨내고 우리에게 모욕과 욕설을 내뱉고 그들이 직조한 것이 아니면 무엇도 입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저자는 이렇게 덧붙인다. “자유 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허용될 수 있는가? ..... 우리만 빼고 모든 인민이 자유를 누

29) R. L., *Pride's Exchange Broke Up: or Indian Calicoes and Silks Expos'd* (1703), ed. Beverly Lemire, *The British Cotton Trade, 1660-1815 Vol. 2: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olitics of Consumption, 1690's-1730* (London, 2010), 38.

30) Rey, *The Weavers True Case*, 4, 14. 강조는 원문.

31) Steele, *The Spinster*, 11.

릴 수 있는가?”<sup>32)</sup> 1721년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캘리코를 입으려는 여성의 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직조공의 공격도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그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직조공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열렬히 지지했던 디포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따르면, 여성 전사 (amazon) 무리는 “법에 따라 또는 의회법에 따라 치장하고 옷을 입는 일”을 거부하고, “남성과 마찬가지로 잉글랜드인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입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치장할 것이다.”<sup>33)</sup>

이는 여성,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이 그들을 비난한 사람들이 이용했던 담론 전략을 거꾸로 뒤집어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음을 보여준다. 역사가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잉글랜드, 더 나아가서 영국의 국민성이 개신교도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헌정 질서 안에서의 자유로 구성되는 역사적 구성물이라면, 이들은 바로 이 자유를 바탕으로 마음대로 유행을 따르는 권리를 요구했으니 말이다. 다시 말해, 이런 주장은 여전히 사회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 특히 이제 막 캘리코 소비에 눈을 뜨기 시작한 하녀와 같은 하층민 사이에서 여성 소비자의 자유를 옹호하는 소비자 주권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징후로 읽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여성이 자기 자신을 논평의 대상인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주체로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 만큼 캘리코 논쟁은 일견 직조공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중요한 변화의 싹을 품고 있었다.

## 5. 결어: 1721년 캘리코 법 이후

1721년 캘리코 법은 직조공조합이나 수많은 직조공과 그 식솔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했을까. 동인도회사의 공식 기록이나 관련된 무역 자료를 세밀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당대 여러 자료는 캘리코 법이 직조공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 이전의 캘리코 법과 마찬가지로 1721년 법이 집행되면서 일시적으로 면직물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는 나타났고, 직조공도 그들의 처지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영국 경제에서 모직물업이 차지하는 지위가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1721년 법이 모직물 직조공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제조업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던 영국의 면직물 가공업의 이해관계도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721년 법은 영국 내에서 제조되는 최고급 면직물, 그러니까 모슬린이라 불렀던 제품의 소비는 금지하지 않았던 것

32) *Mist's Journal*, 15 August and 12 September 1719.

33) Daniel Defoe, *A Plan of English Commerce...* (London, 1728), 253.

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프린트되거나 염색되는 캘리코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서 1721년 법은 면직물 가공과 더불어 영 제국 내에서 면직물 제조업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낳게 되었다. 대서양 건너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면화 플랜테이션을 육성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인도산 면직물 수입에 대한 중상주의자들의 공격이 동인도회사 무역의 수출입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정화 유출에 집중된 것에 비춰볼 때, 영 제국 내에 원면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잉글랜드 면직물 제조업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면직물에 대한 비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다.<sup>34)</sup> 이는 역사가 스티븐 핑커스가 주장한 변화, 즉 제조업 중심으로 영국 정치경제를 재편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했던 휘그파의 새로운 정치경제적 전망에도 잘 들어맞았다.

이런 변화는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도 모직물업자의 곤경은 계속되었다. 1721년 법이 제정된 직후에 여성 소비자는 금지된 상품을 사들이는 일이나 착용하는 일을 꺼렸으나, 이런 두려움은 곧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172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디포 같은 저술가들이 캘리코에 대한 여성의 열정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제까지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어떤 왕이나 의회도 우리의 환상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 우리 가운데에서 두 가지는 다스릴 수 없을 터이니 그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유행이다.”<sup>35)</sup> 1720년대에도 여전히 캘리코가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고급 면직물 소비를 금지하지 않았던 데 있었다. 그 결과 여러 종류의 면직물이 모슬린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통되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인도에 머물던 영국 상인이 관세청의 감시에도 진즈를 비롯한 면직물을 대량으로 내보낼 수단을 찾았다는 것, 즉 밀수가 횡행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인도회사도 여전히 인도에서 제조된 면직물을 거래했다. 1718년에서 1720년 사이에 동인도회사의 백색 면포 수입은 최고조에 달한 바 있다. 1717년 67만 필 정도였던 백색 면포 수입량은 1719년에 200만 필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다가 1721년 법이 제정된 이듬해 수입량은 71만 필로 급감했다. 동인도회사 이사진이 1721년 법을 고려해 수입량을 줄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인도회사는 18세기 중반까지 계속해서 인도산 면직물을 사들였고, 수입량은 1722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했다.<sup>36)</sup> 게다가 1721년 법으로 잠시 타격을 입은 영국 내 면직물 가공업 종사자들은 리넨과 퍼스티언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1721년 캘리코 법은 직조공이 희망했던 모직물업의 부흥이 아니라 새로운 직물 시장의 성장을 낳았고, 직조공은 1720년대에도 계속해서 이 새로운 고층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1735년에 일명 ‘맨체스터 법’이 제정되어 리넨과 퍼스티언을 1721년 캘리코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직조공의

34) Jonathan P. Eacott, ‘Making an Imperial Compromise: The Calico Acts, the Atlantic Colonies, and the Structure of the British Empire,’ *William and Mary Quarterly* 69:4 (October 2012). 이 글의 글은 동인도회사가 대서양 식민지를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다고 지적하면서 대서양 식민지 내에서 면화를 생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35) Defoe, *A Plan of English Commerce*, 252.

36) Thomas, *Mercantilism and the East India Trade*, 162-163.

패배는 분명해졌다.

역사가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인도산 면직물이 영국 사회에서 정착해 새로운 유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꽤 오랜 시간에 걸친 적응 시기를 거쳐야 했다.<sup>37)</sup> 17세기 말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캘리코 논쟁이 보여주듯, 인도산 면직물 소비는 보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잉글랜드 경제발전을 구상하던 당대 정치 세력과 정치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술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적인 모직물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논란을 때때로 일으켰다. 이런 논란은 팸플릿이나 신문·잡지 같은 지면을 통해서나 의회와 정부 부서에 대한 로비 활동을 통해서,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동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호주의에 충실했던 영국 정부는 모직물업을 보호하고 인도산 면직물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법을 도입했지만, 이런 입법도 면직물의 유행을 막지는 못했다.

입법을 통해 면직물 소비를 막으려던 시도가 밀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도산 면직물과 인도에서 수입된 백색 면포를 영국 내에서 가공하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영국 내에서 원면을 가공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후의 역사는 영국 산업혁명을 주도한 방적 분야와 직조 분야의 기술혁신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17세기부터 동인도회사를 매개로 시작된 유럽과 아시아, 대서양 세계를 잇는 세계화가 산업혁명이라는 세계 경제사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가 갖는 힘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18세기 중반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역사가 맥신 버그의 연구성과가 일깨워주었듯이 산업혁명은 방적기와 직조기 같은 새로운 발명품의 등장만큼이나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다양한 제품 혁신의 과정이기도 했다.<sup>38)</sup> 이 시기 영국에서 일어난 면직물업 분야의 제품 혁신에 계속 영감을 불어넣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세계 면직물업계를 선도하던 인도의 면제품이었다. 그 점에서 오랫동안 영국과 인도를 묶어주었던 네트워크의 힘은 산업혁명 시기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

37) Giorgio Riello, 'The Globalization of Cotton Textiles: Indian Cottons, Europe, and the Atlantic World, 1600-1850,' in Giorgio Riello and Prasannan Parthasarathi (eds), *The Spinning World: A Global History of Cotton Textiles, 1200-1850* (Oxford, 2009).

38) Maxine Berg, 'Useful Knowledge, Industrial Enlightenment and the Place of India,' *Journal of Global History* 8:1 (2013); idem, 'From Imitation to Invention: Creating Commodities in Eighteenth Century Britain,' *Economic History Review* 55:1 (February 2002).



【제8발표】

1598년 스페인인의 광둥(廣東) 정주 시도와 중국 무역

남민구(동국대)



# 1598년 스페인인의 광둥(廣東) 정주 시도와 중국 무역

남민구(동국대)

- I. 들어가며
- II. 산투스의 도움
- III. 신부 다기아르의 지원
- IV. 마치며

## I. 들어가며

16세기 중엽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상세력은 동아시아 해안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명조 해안에 정착하거나 접촉하여 중국과의 무역로를 열고자 하였다. 조공 관계에 입각한 조공 무역만을 허용한 명조 입장에서, 자신들의 질서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통상 무역을 시도한 유럽 국가들에 대하여 단호한 거절의 입장을 보였다. 포르투갈인들이 예외적으로 澳門에 정착하여 통상 교역을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명조는 유럽인들이 중국 동남 연안 지역에 정주하여 교역을 수행하려는 시도를 모두 차단하였다. 스페인인들은 필리핀(Philippines) 루손(Luzón) 마닐라(Manila)에 식민정청을 수립하고 중국 대륙과의 교역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은 스페인인들의 廣東 정주 시도가 발생하면서 부터였다. 임진전쟁 직후, 스페인측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겪어야 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명조는 중국 민간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해외로 출항하여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복건 지역에서는 이러한 금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1594년, 복건순무 허부원은 상선 52척을 필리핀 루손(Luzón) 마닐라(Manila)에 파견하여 대량의 무역을 수행하기도 하였다.<sup>1)</sup>

이후 복건에서 보내온 선박들이 대량의 선박을 마닐라에 파견하여 수행하면서, 스페인인들은 상당한 무역적자에 시달렸다. 15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인들이 마닐라에 가져온 무역 물품량은 100만페소에 이르게 되었다.<sup>2)</sup> 중국인들이 가져온 물동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상인들이 가격을 농단하고 저질의 상품을 마닐라

1) 남민구, 『명대 明-스페인 교섭 연구- 명 지방당국과 루손 마닐라政廳 교섭 과정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2021.8, 제3장 참조

2) 남민구, 앞의 책, pp.60-61.

로 가져오기까지 하면서, 스페인인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그 결과, 필리핀총독 당국은 바다 건너 중국 廣東 廣州 인근에 엘피냐(El Piñal)이라는 섬을 정주지로 할양받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엘피냐는 마카오처럼 스페인인들이 정주하여 중국인과 통상 무역을 수행하도록 구상된 곳이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인들은 중국 관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필리핀총독을 역임하였던 루이스 페레스 다스마리냐스(Luis Perez Dasmariñas)와 후안 데 사무디오(Juan de Zamudio) 등 스페인인들이 엘피냐를 둘러싼 협상을 지휘하였다. 이 협상 과정은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과 중국 관원들의 방해 공작으로 쉽게 성사되지 못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 과정이 항상 스페인측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 본고에서는 스페인 협상단 중 1명인 다스마리냐스가 미겔 도스 산투스(Miguel dos Santos, 스페인명 Miguel de los Santos)와 마누엘 다기아르(Manuel d'Aguiar, 스페인명 Manuel de Aguiar)라는 두 포르투갈인들로부터 받은 서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깊은 연구를 다룬 것은 없다.<sup>4)</sup> 본고에서는 이 당시 스페인인들을 지원해 준 포르투갈인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산투스의 도움

스페인인들을 도운 산투스가 다스마리냐스에게 보낸 서신은 1599년 4월 23일자 서신이다. 서신에서 산투스는 은을 구해 보낸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서신에서 산투스는 현지 중국에서의 은 부족과 함께 은을 구하고 있다는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다스마리냐스에게 작성하였다.

신부 마누엘 다기아르(Padre Manuel d'Aguiar)는 수 천 가지 궁핍으로 가득한 귀하(Vossa Mercê)의 서신 한 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 이러한 물건들에 더하여, 귀하는 저에게 약간의 은을 얻을 것을 지시하십니다. 저는 곧바로 협상을 하였으나, 중국은 은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소금그릇과 숟가락들조차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a terra)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廣州(Cantão)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8~9일 동안 廣州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을 귀하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 모든 것에 대해, 귀하께서는 신부 마누엘 다기아르를 통하여 알려주십시오.<sup>5)</sup>

3) 남민구, 앞의 책, pp.78-90.

4) Alan Norman Baxter, Maria Antónia Espadinha, *Conference Proceedings of Macao-Philippines Historical Relations*, University of Macau, 2005, p.119.

5) (1599-4-23. Macao) Carta de Miguel de los Santos a L. P. Mariñas sobre plata, "O Padre Manuel d'Aguiar me deu uma de V.M. cheia de mil necessidades. ... sobre as quais peças, me manda V.M. que haja algum prata. Tratei logo de a negociar, mas como a terra está tão falta dela, que já cortam os saleiros e colheres. Assim por faltar dinheiro que se esperava, como por estar em Cantão toda a mais que na terra haviam, por onde é necessário, esperarmos 8 ou 9

우선, 서신은 신부 마누엘 다기아르를 통해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인들의 지원에 대한 산투스와 다기아르 신부 간의 협력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산투스는 은을 구하기 위하여 협상하였지만, 중국에서 은이 부족하여 은을 구할 수 없기에, 8~9일 동안 廣州에서 은을 구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당시 임진전쟁 직후 중국에서의 은 부족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날짜를 알 수 없는 때에 산투스는 다스마리냐스에게 다시 한 번 서신을 보낸다.

그러나 귀하(Vossa Mercê)와 귀하의 동료들이 하신 고생들을 언급하자면, 오로지 중국인들의 악의로 꾸민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포르투갈인들이 이 일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실환관(Capado da Casa do Rei)이 그들(스페인인들)을 발견하고는 중국에 외국인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까 걱정하여, 海道(Aytao)가 그들에게 廣州(Cantão)를 속히 떠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중국에 있는 것은 중국인들이 상당히 주의하는 일입니다.<sup>6)</sup>

이에 의하면, 산투스는 포르투갈인들이 다스마리냐스 일행을 괴롭히고 이들의 추방에 대해 방해 공작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측에서 스페인인들에 대한 추방을 꾀하고 이들을 몰아내려고 하였다. 海道 章邦翰<sup>7)</sup>은 ‘왕실환관(Capado da Casa do Rei)’ 즉 廣東稅監 李敬<sup>8)</sup>이 스페인인들이 중국에 체류한 것을 견책할 것을 우려하였고, 스페인인들을 떠나게 하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이들의 체류에는 포르투갈인이 아닌 중국인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한편, 서신에서 산투스는 50페소를 보내었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저는 은화 50페소(peso)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인 전달자의 손을 통해서 넘겨드리지는 않습니다. 비밀전달자(segrediro)가 50페소를 지참하는 신부 마누엘 다기아르(Padre Manuel d’Aguiar) 집에 몰래 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많은 은을 구하는 동안 은화 50페소가 갈 것입니다.<sup>9)</sup>

---

dias para si mandar buscar a Cantão. ... E de tudo me avise por via do Padre Manuel da Aguiar.”

6) (Probable. 1599) Carta de Miguel de los Santos a Luis Pérez de las Mariñas, “Mas tratando dos de Vossa Mercê e dos mais companheiros, entendo que são forjados pola malícia dos Chinas somente, e que não intrometam nisto os Potugueses. Pois o Aytao os mandou sair muito depressa de Cantão por recear que o Capado da Casa do Rei os achasse e estranhasse gente estrangeira na China, cousa em que eles tem tanta vigia.”

7) 章邦翰은 江西 南昌縣 출신으로 廣東에서의 海道副使 직을 역임한 것에 대하여 名宦으로 배향되기도 하였다. 『南昌縣志』 권15 「人物志2·仕績上」 중 章邦翰 항목 참조.

8) 李敬에 대해서는 『東西洋考』 권6 「外紀考」 참조. 李敬은 1598년 廣東의 진주 채굴 담당 업무를 띠고 파견된 稅監이었다. 『大明神宗顯皇帝實錄』 卷323 萬曆26년(1598) 6월 5일 戊午條

9) (Probable. 1599) Carta de Miguel de los Santos a Luis Pérez de las Mariñas, “Tenho cinquenta pesos de prata, que não entrego na mão do portador que é China, por me não parecer segrediro venha secretamente a casa do Padre Manuel d’Aguiar que os leve. E em quanto busco mais, irão estes.”

산투스는 은화 50페소를 마누엘 다기아르 신부에게 전달하면서, 다시 다스마리냐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산투스는 은을 중국인을 통해 전달할 경우 횡령할 것을 우려하여, 별도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599년 5월 18일, 산투스는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가장 먼저 알려드려서, 귀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식들과 함께, 신부들이 은을 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닐라(Manilha)로 가는 배를 결정한 후, 저는 매우 기쁩니다. ... 특히 저는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인도(Índia)의 나오선(nao)들보다 앞서 마닐라의 전언이 온다면 기쁠 것입니다.<sup>10)</sup>

산투스는 신부들을 통하여 은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이때에는 스페인인들 일행이 이미 마닐라로 가는 배가 결정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도의 나오선에 대한 언급도 보이는데 이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1599년 6월 7일, 산투스는 다시 다스마리냐스에게 서신을 보내었다.

이 땅에서 은이 매우 부족할 때, 모든 희망하는 물건들이 일본(Japão)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구제할 방도가 없으므로 인간적으로 도울 구원 물품이 없습니다. ... 그리고 진실은, 귀하께서 제가 최후의 50페소를 보낸 후, 약간의 은을 더 가지고 귀하를 돕기 위하여 고생하였고, 이를 통해 저는 두 카스티야인 도밍고스 마이나(Domingos Maina)와 브라스 페르난데스(Bras Fernandes)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썼다는 것입니다.<sup>11)</sup>

이 서신에 의하면, 산투스가 다스마리냐스에게 50페소를 보낸 후에도 계속해서 은을 구하였고, 이를 2명의 스페인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산투스는 은이 부족한 상황이며, 은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은을 수입하고자 하지만 은을 구할 방도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1599년 당시는 임진전쟁 종전 직후였던 만큼, 포르투갈인들이 일본과의 교역이 금지되었으며, 따라서 일본을 통하여 은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599년 7월 24일, 산투스는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었다.

귀하께서 저에게 의뢰하시고 부탁하시는 은에 대해서, 귀하가 예수의 은덕으로 어

---

10) (1599-5-18. Macao) Carta de Miguel de los Santos a L.P. Mariñas sobre plata, "Avisando primeiro, para que a venham buscar com as novas que V.M. me dá. Determinado embarcação a (Ma)nilha, me alegrei muito. ... e sobretudo me alegrarei se vier r(e)cado da Manilha antes das naos da Índia, por forrar inconvenientes."

11) (1599-6-7. Macao) Carta de Miguel de los Santos a L.P. Mariñas sobre plata, "E em tempo que esta terra está tão falta de prata, porque como todas suas esperanças estejam pendentes de Japão, faltando-lhe êle com o remédio, falta-lhe o humano socorro. ... E em verdade que depois que mandei a V.M. os derradeiros cinquenta pesos, trabalhando por servir a V.M. com mais alguma prata, tratei para isto de me valer de Domingos Maina e de Bras Fernandes, ambos Castelhanos."

디에서 은을 뽑아낼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나옴선들이 올 때까지는 (주님의) 지상의 권능으로 구제될 것입니다. 나옴선들은 7~8일 이상으로 지연되어 도착할 수 없습니다.<sup>12)</sup>

이를 통해 보면, 다스마리냐스로부터 은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의뢰 사항에 대하여 산투스네는 계속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투스네는 다스마리냐스 일행은 은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7~8일 이내로 인도로부터 나옴선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다. 산투스네는 포르투갈령 인도에서 오는 나옴선으로부터 은을 구하여 다스마리냐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저는 그러한 흥미도 원하지 않으며, 어떤 다른 협상을 통해서든, 비록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도, 이곳(마카오)에 오시라는 것을 충고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탐꾼들로 가득하며, 하나의 참사가 가볍게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sup>13)</sup>

산투스네는 현재로서는 도처에 존재하는 간첩들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인만큼, 스페인인들이 마카오에 와서 중국인들과 협상을 진행하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다스마리냐스를 포함한 스페인인들은 산투스네 등의 포르투갈인들과의 연락을 통하여 은을 구입하고자 하였다. 포르투갈측은 전쟁 직후 일본인과의 연락을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에 인도로부터 오는 선박을 통하여 은을 구하고자 하였다. 산투스네는 중국측이 파견한 정탐꾼들로 인하여 스페인인들과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 Ⅲ. 신부 다기아르의 지원

다스마리냐스는 신부 마누엘 다기아르와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주 협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1599년 4월 22일, 다기아르는 다스마리냐스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었다.

신부 태수(padre governador)에게 온 것과 함께, 저는 귀하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 총독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된 금조각들도 함께 받았습니다

12) (1599-7-24) Carta de Miguel de los Santos a L.P. Mariñas sobre plata, “Quanto á prata que V.M. me encomenda e pede, não vejo donde a possa tirar V.M. por amor de H.S. Se remedie com o melhor poder, até virem as naos da Índia que não podem tardar mais que 7 ou 8 dias.”

13) (1599-7-24) Carta de Miguel de los Santos a L.P. Mariñas sobre plata, “Não quero tal gôsto, nem aconselho a V.M. que para qualquer outro negócio, ainda que seja de muita importância, venha cá. Porque tudo anda cheio de espias e ligeiramente pode acontecer uma desgraça. O tempo oferecera alguma boa ocasião,”

니다. 신부 태수는 귀하께 도움을 주는 것을 매우 바라고 있기에, 모든 가능한 공력을 들여, 개인적으로 각자 은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나비오선의 부재로 인하여 중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변명한 일들에 대하여 그는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은을 廣州(Cantão)에서 구하려 하였습니다. 廣州에는 소비용으로 인도에서 온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sup>14)</sup>

다기아르 신부는 ‘신부 태수(padre governador)’가 廣州에서 은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신부 태수’라는 인물의 정체는 불명이지만, 포르투갈측 고위급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에서 오는 나비오(navio)급의 무역선박이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은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대신 廣州로 수입해 들어오는 인도산 물품들을 통하여 은을 구입하고자 하였다.

저는 신부 총독과 함께 귀하가 우리에게 부탁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거치더라도, 지금부터 며칠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인도의 나오선들이 (오기)까지는, 현재 은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달자는 신부 총독이 시킨 통조림 한 병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는 귀하께 청량음료 역할을 할 약간의 포도들을 보냅니다.<sup>15)</sup>

서신에서 다기아르는 인도로부터 오는 나오선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은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언급과 함께, 스페인인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산투스(Santos)의 서신 내용처럼, 당시 중국에서는 전쟁의 영향으로 은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에 다기아르는 약간의 은을 구하여 다스마리냐스에게 전달하였다.

전달자가 가지고 가는 은 65량은 귀하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비밀이 요구되었기에, 은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적발하려고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의심은 두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자는 주의하려고 합니다. 신부 총독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길, 구하라고 명령한 또 다른 은이 廣州(Cantão)로부터 올 때까지, 그 사이에 귀하께 이것을 전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굵은 밧줄을 가져옵니다.

---

14) (1599-4-22. Macao) Carta de Manuel de Aguiar a L. P. Mariñas sobre prata, “Recebi a de Vosso Senhor juntamente com a que vinha para o padre governador, a qual logo lha entregue, y com as peças de ouro de que ficou entregue. E como êle tanto deseja servir a Vosso Senhor, procurou com toda a diligência possível haver por seus particulares alguma prata. Porém como o estado en que a terra está pola falta deste navio de Japão, desculpa em grande parte aos que se escusaram. Procurou havela de Cantão aonde está■■■ toda a que veio da Índia pela se empregar.”

15) (Probable. 1599. Macao) Carta de Manuel de Aguiar a L. P. Mariñas que no envía navío, “Tratei com o Padre governador sobre o que Vosso Senhora nos encomenda. E por todas as vias entende não ser possível haverse agora prata alguma até as naos da Índia que esperamos daqui a poucos dias. … O portador leva um boião de concerva que o Padre governador manda. E eu mando a Vosso Senhora umas poucas de uvas que servirão de refrêscos.”

니다. 그곳에 가려는 배가 없기에 저는 밧줄을 보내지 않았습니<sup>16)</sup>

서신의 내용을 보면 인도로부터 오는 은이 아직은 廣州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신부 총독은 중국 현지에서 은65량을 구하여 다스마리냐스 일행에게 보내었음을 알 수 있다. 은을 구하고 전달하는 과정은 중국인들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스페인인들의 정박과 출항을 편하게 하고자, 항해에 필요한 굵은 밧줄을 전달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포르투갈인들은 스페인인들의 궁핍한 상황을 돕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다기아르는 다스마리냐스 등이 廣州에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가옥을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그리고 (제가 바라고 있지만) 귀하께서 이 도시(esta cidade)에 들어가길 성공하신다면, 멀리 떨어진 들판에 많은 가옥들을 저는 가지고 있으며, 귀하는 그 가옥들로부터 귀하의 병사 일부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병사들은 제가 항상 귀하의 일처럼 또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sup>17)</sup>

스페인인들이 ‘이 도시’ 즉 廣州에 입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가옥에 대하여, 다기아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교외의 가옥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도움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산투스와 함께 다기아르 역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스페인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V. 마치며

1599년 스페인인들의 광동 정주 시도는 포르투갈인들의 공작과 함께, 명조의 국법에 의하여 실패로 끝났다. 당시 명조는 외국인이 허가 없이 중국에 체류한 것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稅監 李敬이 외국인의 체류를 문제삼아 분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 章邦翰이 스페인인들에게 떠날 것을 지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 임진전쟁이 끝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다. 외국인이 중국 연안에 정착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중

16) (Probable. 1599. Macao) Carta de Manuel de Aguiar a L. P. Mariñas enviando 65 taeles, “A prata que o portador leva que são sessenta e cinco taeis, se buscou na terra com a dificuldade que Vosso Senhoria pode imaginar. E como nestas cousas se requiere segredo, nem a todos os que a tem, se pode pedir sem o receio de se poder vir a descobrir aquilo, que tanto se deseja acautelar. O padre governador me disse que por entretanto mandava a Vosso Senhoria esta, até vir de Cantão a outra que se tem mandado buscar. Leva também o calibre, o qual, por não haver embacação que lá queira ir, não tenho mandado.”

17) (Probable. 1599. Macao) Carta de Manuel de Aguiar a Luis Pérez de las Mariñas(2), “E sucedendo (o que eu espero) entrar Vosso Senhor nesta cidade, tenho num campo apartado umas casas, aonde Vosso Senhor poderá agasalhar alguma parte de sua gente, a qual eu sempre servirei também como a cousa de Vosso Senhor.”

국측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간첩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명조 당국이 스페인인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파견한 존재들이었다.

반면 신부들은 스페인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스페인인들은 광둥 앞바다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은에 대한 공급을 포르투갈인들로부터 받고 있었다. 이들 포르투갈인들은 한편으로는 스페인인들을 도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페인인들의 중국 정주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포르투갈인들은 인도-마카오 무역을 통해 수송해 온 은 등의 물자를 스페인인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당시 중국은 임진전쟁 직후였기에, 시중에 유통되는 은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고 있었다. 이들 스페인인들은 포르투갈인들의 무역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자를 조달받을 수 있었다.

【제9발표】

임진왜란 시기 조선에 유입된 조총의 경향성

노영구(국방대)



# 임진왜란 시기 조선에 유입된 조총의 경향성

노영구(국방대)

서론
1. 조총의 동아시아 전래와 개량 및 변용
1) 조총의 동아시아 전래
2) 조총의 개량 및 변용
2. 임진왜란 중 조선의 조총 제조법 도입과 변용
맺음말

## 서론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군사사상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전한 주요 국가인 조선과 일본, 명의 당시 군사적 역량이 여지없이 드러난 전쟁이었다. 특히 화약무기가 전면적으로 사용된 대규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화약무기의 우위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일이 일반화되었다.<sup>1)</sup> 16세기 중반 이전까지 화약무기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일본이 신형 화승총인 조총을 도입하고 개량하여 임진왜란 시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명도 불랑기, 화전 등 각종 화약무기를 선보였다. 조선도 기존의 대형 화포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명과 일본의 각종 화기를 도입, 모방 생산하는 등 화약 무기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화약무기 발전과 군사제도 변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군사적인 측면의 변화가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최근 동아시아 군사사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전후 나타난 군사적 변화를 동아시아의 軍事革命으로 평가하기도 한다.<sup>2)</sup> 여러 화약무기 중에서 특히 조총은 임진왜란에 일본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지만 전쟁 중 조선에도 전면적으로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명나라에서도 이전보다 군사적인 위상이 높아졌다. 즉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총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중요한

1) 노영구, 『한국의 전쟁과 과학기술문명』, 그물, 2022, 124~126쪽  
2) 盧永九, 『"군사혁명론(Military Revolution)"과 17~18세기 조선의 군사적 변화』, 『서양사연구』 61, 2007 ; 久保田正志, 『日本の軍事革命』, 錦正社, 2008 ; Peter A. Lorge, *The Asian Military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久芳崇, 『東アジアの兵器革命-十六世紀中國に渡つた日本の鐵砲-』, 吉川弘文館, 2010 ; 李伯重, 『火槍與賬簿：早期經濟全球化時代的中國與東亞世界』, 2017,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

무기체계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다.<sup>3)</sup> 그러나 조총은 동일한 무기로 계속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개량과 변용이 이루어지고 이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전의 조총 관련 연구는 각국의 도입과 개발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울러 기술사적인 측면의 검토도 충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발표문은 동아시아의 조총은 일본과 명에 도입된 조총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 그 기술이 도입되고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용되어 조선에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총의 조선 도입 과정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조총 보유국으로 변화해나가는 양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1. 조총의 동아시아 전래와 개량 및 변용

### 1) 조총의 동아시아 전래

조총은 화승총의 일종으로 흑색화약을 사용하는 전장식 활강총신을 가진 머스킷 총 중에서, 화승으로 점화하는 방식의 개인 총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15세기 개인 화기의 혁신적 변화가 나타났다. 15세기 중반에는 개머리판이, 후반에는 가늠자와 방아쇠가 고안되고 화승으로 약실의 화약에 불을 붙혀 탄환을 발사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아울러 불붙은 화승을 장전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스프링과 톱니바퀴를 조합하고 방아쇠를 만들어 방아쇠를 당기면 화승이 약실에 닿도록 하는 이른바 머스킷 총이 고안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화승총은 더욱 발전하여 어깨에 견착하는 총과 뺨에 밀착하는 총으로 구분되었는데 전자는 군용, 후자는 수렵용으로 사용되었다. 군용의 어깨 견착 총은 완발식(緩發式) 소총으로 명중률은 낮았지만 장전 속도가 뺨에 견착하는 순발식(瞬發式) 소총보다 빨라 일제 사격을 통해 적군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후자는 명중도가 높고 발사 즉시 사격이 되어 명중도가 대단히 높지만 발사 속도가 늦어 유럽에서는 수렵 이외에 저격 등의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순발식은 방아쇠를 당기면 용두를 걸구하고 있던 용두걸쇠가 총기 속으로 들어가고, 용두가 풀려남에 따라 눌러있던 판스프링의 장력에 의해 용두가 화약접시에 곧바로 맞닿게 되어 작은 힘으로도 격발이 가능하였다. 격발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았으나, 격발할 때마다 방아쇠와 용두를 원위치로 돌려야 했고, 화승이 폭발가스에 직접 노출되었기에 화승에 붙은 불이 꺼져버리는 등 조작

3) 조선의 조총의 도입과 사회 변화 양상 등에 대해서는 박제광, 「임진왜란기 조·일 양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일고찰 : 화약병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 1996 ; 이왕무, 「조선후기 조총제조에 관한 연구-17~18세기를 중심으로-」, 『경기사학』 2, 1998 ; 노성환, 「조총을 통해 본 한일관계」, 『동북아문화연구』 20, 2009 ; 노영구, 「16-17세기 鳥銃의 도입과 조선의 軍事의 변화」, 『한국문화』 58, 2012 ; 유승주, 『조선후기 군수광공업사 연구 - 조총·화약·연환제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등이 대표적이다.

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순발식은 16세기 유럽 남부에서 개발되어 아시아에 진출한 포르투갈인에 의해 말라카를 거쳐 일본에 도입되었다.<sup>4)</sup> 이에 비해 완발식은 방아쇠와 용두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용두의 화승이 화약접시에 맞닿을 때까지 사수의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했다. 상당한 무게의 화승총을 들고 격발에 힘을 지속적으로 쏟아야 했기에 명중률은 순발식에 비해 낮았으나, 방아쇠를 놓으면 자동으로 용두가 원위치로 돌아갔기에 조작이 편하고 안정성이 높아, 유럽과 같이 평원지대에서 싸우기 위해 편성된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유럽 화승총의 동아시아 지역 전래와 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유럽 화승총은 두 가지 루트를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졌는데 그중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인도를 거쳐 극동지역에 이르는 해상 루트였고 또 하나는 터키 - 인도 - 중국을 연결하는 육상의 루트였다. 조총의 동아시아 전래는 일본의 경우에는 『鐵砲記』의 기록에 의하여 1543년 규슈(九州) 남단의 섬 타네가시마(種子島)에 표착한 포르투갈인을 통해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다양한 조총의 실물 조사와 세계 각지의 조총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 전해진 조총은 유럽형 緩發式 화승총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瞬發式 화승총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sup>5)</sup> 이에 더하여 일본에 조총을 전래한 것은 포르투갈인이 아니라 당시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적단으로 추정하는 의견도 나타났다.<sup>6)</sup>

중국의 경우에는 조총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중국에 기원이 있는 화기라는 설과 일본(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전해졌다는 설, 그리고 서양에서 직접 유입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sup>7)</sup> 중국 기원설은 근거가 약하여 현재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일본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전해졌다는 설에 따르면 16세기 초 유럽인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화기가 아시아에 전래되었다고 한다. 이 화기에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왜구 등 남중국해 일대의 해상세력으로서 이들은 신형 화기로 무장하고 중국 연안에 활동하였다.<sup>8)</sup> 이 설에 따르면 1548년 명군이 복건성 연해의 쌍서(雙嶼)의 왜구 근거지를 토벌할 때 노획하여 모방 제작하고 倭銃이라 불렀다고 한다.<sup>9)</sup> 실제 명나라에 있어서 첩포의 보급에 크게 공헌한 명나라 장군 척계광(戚繼光)이 『기효신서』에서 “이 무기는 중국에 원래 존재하지 않고, 왜구에게서 전해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쌍서(雙嶼)에서 얻었던 일본의 총[倭銃]이, 중국으로 조총이 전해진 최초의 사례라는 설이 유력하다. 만일 그 이전 포르투갈의 화승총이 중국의 일부에 알려져 있었다 해도, 화승총이 중국에서 널리 보급된 계기는 16세기 중반 명나라와 왜구의 전투 중에 왜구가 가진 화승총의 위력이 명나라 당국에 인식된 것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흥미로운 점은 동남아

4) 所 莊吉, 『圖解古銃事典』, 雄山閣, 1987 p.15~16

5) 洞 富雄, 『鐵砲-傳來とその影響』, 思文閣出版, 1991 pp.12~13

6) 宇田川武久, 『鐵砲傳來』, 中公新書, 1990 p.9

7) 王兆春, 『中國火器史』, 軍事科學出版社 1990 pp.134~137

8) 시노다 고이치(신동기 옮김), 『무기와 방어구: 중국편』, 들녘, 2001, 310-311쪽

9) 王兆春, 『中國科學技術史-軍事技術卷』, 科學出版社, 1997 p.204

10) 기시모토 미오(노영구 옮김), 『동아시아의 근세』, 플래닛미디어, 2018 90~91쪽

시아 지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14세기 이후 화약 무기에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16세기 들어 서양과 교류하자 화기를 구매하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하였다.<sup>11)</sup> 서양에서 직접 유입되었다는 설은 서역을 통해 터키식 총이 도입되었다는 것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해진 것보다 늦게 전달되었으므로 기존의 조총과 다른 체제의 우수한 화승총이 도입되었다. 이른바 노밀총(魯密銃)으로 이 총은 오스만 제국 계열의 완발식의 화승총으로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쏘는 것으로, 이 총이 중국에 전래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16세기 후반으로 보인다.

## 2) 조총의 개량 및 변용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승총이 유럽에서 개발된 이후 동아시아에 곧바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지역을 거치며 중국과 일본에 전래되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크게 두 경로를 따라 다양한 지역에 전파되었으므로 각지에서는 지역의 풍토에 적합하고 지역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하게 개량되었다. 개량의 과정에서 지역간 문화나 기술의 차이로 인한 격차도 적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543년 타네가시마에 신형 화승총이 전래되고 약 2년만에 자체 제작 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네고로(根來, 와카야마현), 사카이(堺, 오사카), 쿠니토모(國友, 시가현) 등 일본 조총의 3대 생산지가 되는 지역으로 제작 기술이 전해졌다.<sup>12)</sup> 일본의 조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총열을 주조(鑄造)가 아닌 단조(鍛造) 공법에 의해 제작되어 매우 견고하였다. 단조제 총열은 주조제 총열에 비해 다량의 화약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 사격에도 총열이 변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즉 보다 위력이 높은 탄환을 원거리까지 날릴 수 있고 빠른 발사 속도를 유지하며 사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총을 중심으로 부대를 편성하고 전술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일본에서는 1555년부터 전투에서 조총 즉 철폐(鐵砲)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전래 후 30년만에 일본의 군사제도 및 戰術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조총이 전투에 사용되던 초기에는 그 수량을 충분히 갖추어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는 무기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鐵砲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 알려진 長篠 전투(1573) 직후인 1575년 上杉謙信의 「軍役帳」에 의하면 39인의 家中의 武將이 거느린 군사 5,514명 중 장창병(鎗持)은 3,609명, 조총병(鐵砲持) 321명, 旗手(大小旗持) 368명, 기병(馬上) 566명, 그리고 각종 雜兵(手明) 65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즉 당시 전체 군사에서 조총병이 차

11) 리보중(이화승 옮김), 『조총과 장부-경제 세계화 시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와 상업』, 글항아리, 2018, 170~174쪽

12) 宇田川武久, 『東アジア兵器交流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3, 제2편 2장, 3장

13) 杉山博, 「中國·朝鮮·南蠻と技術の軍事力」,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8卷(中世4), 岩波書店, 1976, pp.80-82

14) 杉山博, 『日本の歴史』11(戰國大名) 中央公論社, 1965, pp.194-196.

지하고 있는 비중은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창병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기병의 비중도 10% 이상임을 고려한다면 16세기 후반 일본의 전술이 철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총이 전체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수치적 비중은 높지 않았으나 전술적 중요성은 도입 초기부터 상당히 높았다. 이는 조총의 구조적 특성 및 그 이전 일본의 대표적 장병기인 弓矢의 낮은 능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기존의 궁시에 비해 조총은 훨씬 원거리에서 사격하여 정확히 명중시켜 적군을 살상할 수 있었다.<sup>15)</sup> 이는 단조제 조총이 가진 구조적, 기술적 특성에 따른 것이었다. 조총은 구경에 비해 총열이 길어 추진력이 강하여 총탄이 곧바로 날아가고 관통력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조준기로 인해 명중률도 높았다. 따라서 조총으로 인해 야전에서 전투가 격화되면서 사상자 수는 크게 급증하였다. 특히 조총이 보급되던 초기에는 조총에 숙달되어 있지 않거나 인식이 낮아 조총을 제대로 장비하지 못한 적에 대해 조총을 대량으로 사격하여 일방적 승리를 거두는 예도 종종 있었다.<sup>16)</sup> 따라서 전체 무기체계에서 비중에 비해 조총의 그 전술적 중요성은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포르투갈인에게 전래된 이후 머지않아 일본의 주요 지역에 조총 제조 기술이 퍼졌지만 기술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한 타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철환을 발사할 수 있는 총통의 제조와 개발이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총이 일본에 전래되고 주요 지역에서 제작이 이루어지던 1553~4년(명종 9, 10), 조선에서 일본인 노부나가(信長), 히라나가(平長)가 조선에서 만들거나 가져온 총통과 화약을 시험한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일본인들이 만든 총통과 화약은 그 제도가 매우 정교할 뿐만 아니라 화약의 위력이 이전의 것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즉 조총 전래를 전후한 시기 일본에서는 철환을 발사하는 여러 계통의 총통 기술이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16세기 일본 조총의 경우 타네가시마 계층의 조총 이외에 크게 2종류의 조총이 개발되었고 아울러 외국에서 추가로 전해진 조총을 모방하여 생산한 계열도 존재하는 등 제작 지역별로 상당히 다양하였다.<sup>18)</sup> 아울러 조총 이외에 기존의 화기 제조법이 유지되는 등 다양한 양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조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견고한 총열 제작 기술은 습득하기 어려웠다. 『철포기』에 의하면 타네가시마에서도 전래된 직후 총열의 강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철제 총열의 뒤쪽을 막아주는 볼트 형의 부품인 尾栓의 제조에 성공하지 못하여 조총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1년이 지난 1544년 포르투갈인이 조총의 제조 기술을 알려주어 완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15) 전투용으로 주로 사용되던 구경 15.8mm 내지 18.7mm 조총의 경우 최대 사정거리가 500미터 이상에 달하였고 명중 정확도의 경우에도 30미터 떨어진 야구공 크기의 표적을 맞힐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가졌다. 사람 크기의 표적에 대해서는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있었다고 한다(洞富雄, 1991 『鐵砲-傳來とその影響』, 思文閣出版, p.79). 이에 비해 일본의 궁시는 그 유효사정거리가 그 절반에 불과하였다.

16) 久保田正志, 『日本の軍事革命』, 錦正社, 2008, pp.131-132.

17)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12월 甲申;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5월 甲寅

18) 所 莊吉, 『앞의 책』, 1987, pp.81~82

최초 일본에서 제조된 화승총이 주조제인지 단조제인지 대해서는 오래동안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존하는 조총 유물을 통해 전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조제 조총이 제작된 것은 분명하다.<sup>19)</sup> 당시 일본에서는 기존에 일본도를 만들던 도공(刀工), 금공(金工), 지물(指物) 등 도검 제작을 담당하였던 장인들이 있어 이들은 빠르게 조총 제작자로 변신하였다. 특히 이들은 일본도의 단련 기술을 활용하여 거친 표면이 없이 총열을 만들 철판을 평평하게 만든 이후 가늘고 긴 상태의 철판을 감고 용접하여 마무리하는 단조법을 고안하였다.<sup>20)</sup> 따라서 매우 견고한 총열을 가진 조총을 제작할 수 있었다.

한편 일본에 조총이 전래된 직후인 1546년 무렵 중국에서도 이미 철환을 사격할 수 있는 이른바 철환 화포를 보유하고 있었다.<sup>21)</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1548년 명군이 북건성 쌍서(雙嶼)의 왜구 근거지를 토벌할 때 조총을 노획하여 이후 모방 제작하였는데, 이미 관련 기술은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곧바로 조총 제작이 가능하였다. 10년이 지난 1558년에는 명의 병기 공장인 병장국(兵仗局)에서 1만 정의 조총이 제작되고 있었을 정도로 그 보급은 매우 급속한 것이었다. 실제 척계광의 절강병법에 따르면 다섯 개의 초(哨, 약 120명)로 이루어진 한 사(司)는 근접전 군사인 살수로 이루어진 4개 초와 조총병인 포수(砲手)로 이루어진 1개 초로 편성되었다. 포수대는 포수 10명이 대장 뒤에 2열 중대로 서서 교대로 사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16세기 중반 『기효신서』 편찬 당시 살수와 포수의 비율이 4 : 1로 조총병의 비중은 전체 전투병 중에서 20%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즉 1550년대 명 절강병은 일본보다 조총병의 비중은 약 3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에서 제조된 조총의 성능은 노획 당시 이른바 일본 조총인 왜총의 수준에 머물렀다. 명은 우연히 한 전투에 의해 이 무기를 획득하여 모방 제조하였기 때문에 개량의 여지가 적었다. 즉 명나라에서 조총은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전래되었지만 그 성능은 戰國時代를 통해 계속 개량된 일본의 것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591년 간행된 何良臣의 『진기陣紀』에 의하면 중국의 조총은 5~7발을 연발로 사격하면 총신 내부에 열기가 남아 불이 일어나 과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중국 조총의 제조가 단조가 아닌 주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sup>23)</sup> 조총병의 비중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것도 조총의 연속 사격의 한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임진왜란을 거치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였던 명의 趙士楨은 1597년 위력이 우수하고 야전에서 운용하기 편리한 터키계 화승총인 노밀총의 제작에 성공하기도 하였다.<sup>24)</sup>

19) 洞 富雄, 『앞의 책』, 1991 99쪽.

20) 도다 도세이(유준칠 옮김), 『무기와 방어구-일본편』, 들녘, 2004, 207~208쪽

21) 『명종실록』 권3, 명종 원년 4월 己酉

22) 『기효신서』 권1, 「編伍法」

23) 久芳崇, 『앞의 책』, 2010, p.22

24) 王兆春, 『앞의 책』, 1997, pp.208~209

## 2. 임진왜란 중 조선의 조총 제조법 도입과 변용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의 조총과 근접전에 크게 고전하였다. 아울러 1593년 1월초 평양성 전투를 계기로 척계광이 고안하였던 명군의 새로운 전술 체계인 이른바 浙江兵法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sup>25)</sup> 당시 명군은 평양성 전투에서 각종 중, 대형 화포와 화전, 그리고 조총 등의 화약무기를 사용하였고 특히 대형 화포는 평양성의 주요 시설을 직접 공격하여 타격을 주어 성을 탈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sup>26)</sup> 즉 조선은 일본의 조총과 명의 대형 화포 등 신형 화기에 대해 크게 주목하였다. 전쟁 초기 조선은 조총의 위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의 단병전 능력이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평양성 전투에서 명나라 군이 여러 화기(火器)를 다량으로 운용하여 일본군을 공격하는 전법을 목격한 이후 전쟁에서의 화기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점차 화기가 전투의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무기로 인식되고 일본군의 기존 장기인 근접전용 단병기(短兵器)도 화기로 제압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나갔다. 선조는 적이 번번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오로지 화포가 있기 때문이고 중국군이 적을 진압할 수 있는 까닭도 화포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은 바로 화포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여,<sup>27)</sup> 화포가 전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선조는 심지어 ‘일본군의 장기는 조총뿐이다’고 단언하기에 이르렀다.<sup>28)</sup>

조총 제작 기술의 도입은 우선 명을 통해서 시도되었다. 1593년 1월 말 벽제관 전투 이후 전쟁이 다소 소강 상태에 들어가자 조선은 조총과 화약 제조법을 알려준다는 중국인의 제의를 받아 장인을 보내어 이를 배우도록 하였다.<sup>29)</sup> 아울러 노획한 조총을 활용하다가 조총 제작 기술을 알고 있는 이른바 항왜(降倭)를 통해 그 제작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였다. 1593년 중반이 되면 조총 개발과 관련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이순신은 자체적으로 조총을 모방하여 이른바 정철총통(正鐵銃筒)을 개발하였는데, 총열을 단조로 만든 철인 정철로 제작한 이 총통은 그 위력이 조총에 버금갔다고 한다. 아울러 교서 정자(校書正字) 이자해(李自海)도 개성부에 있을 때 감독하여 조총을 만들었는데 그 정교함이 왜총(倭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선조도 그해 11월 일본의 조총을 개량하여 새로운 조총을 만들어 시험하기도 하였다.<sup>30)</sup> 즉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곳에서 조총 제작이 시도되고 어느

25) 절강병법의 체계와 조선의 도입에 대해서는 노영구, 「선조대 기효신서의 도입과 진법 논의」, 『군사』 34, 1997 참조.

26) 평양성 전투를 위해 명의 제독 李如松이 가져온 화기는 大將軍 80位, 滅虜砲 210門, 虎蹲砲 20位, 小砲 200箇, 快鎗 500桿, 三眼鏡 100桿 등 중대형 화포 510문과 개인화기 600정 등 1,110문에 달하는 대규모였다(『經略復國要編』 권4, 「檄李提督」, 12월 초8일). 이들 화기 이외에 조총도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다.

27) 『선조실록』 권39, 선조 26년 6월 壬子.

28) 『선조실록』 권45, 선조 26년 윤11월 壬午.

29) 『선조실록』 권35, 선조 26년 2월 乙未.

30) 『壬辰狀草』 「封進火砲狀」(萬曆 21년 8월); 『西厓集』 권6, 書狀 「再乞鍊兵且倣浙江兵器多造火砲諸具以備後用狀」(癸巳 6월); 『선조실록』 권44, 선조 26년 11월 壬戌.

정도 성과가 나타났으나 이들 조총이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었다.

먼저 조총의 제도가 이전 조선의 개인화기에 비해 상당히 정밀하고 견고한데 비해 단조 공법 및 천공(穿孔) 공법으로 총열을 가공하게 되므로 작업이 어렵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sup>31)</sup> 아울러 체계적인 연구와 제작을 통해 조총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개발과 제작이 이루어졌고 모방 생산이었으므로 조총의 위력이나 견고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명나라와 일본의 조총 기술이 함께 도입되어 오히려 성능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선조가 만든 조총의 경우 위력은 좋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 해 연말 선조는 조선에서 제작한 조총이 모두 거칠어 쓸 수 없으므로 일본의 조총을 기준으로 삼아 제조하도록 하였다.<sup>32)</sup> 따라서 충분한 조총의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1594년(선조27) 봄의 다음 자료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요사이 (훈련)都監에서 사용하는 조총은 다 왜인의 물건을 주워 모은 것이어서 그 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가끔 깨지고 낡아서 날로 소모되어 줄어들고 있으니 ... 그래서 포수 5백여 명이 가진 것은 태반이 三穴銃, 勝字銃뿐입니다.<sup>33)</sup>

1593년 가을 훈련도감이 창설된 지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 훈련도감에서 사용하는 조총은 거의 모두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이었으므로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부족한 것은 삼혈총(三穴銃)과 승자총(勝字銃)으로 보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조총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노획한 조총을 명군의 요구로 인해 상당수가 명군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었던 상황과<sup>34)</sup> 함께 이 시기까지 조선에서 제작한 조총이 일본 조총이 가진 위력을 갖추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자체적으로 조총의 체계적 개발의 필요성이 높았다. 특히 내구성과 위력이 높은 조총 제작을 위해서는 견고한 총열 제작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만 명군의 조총은 일본의 조총에 비해 주조 기술의 한계로 인해 견고함이 부족하였고 일본에 비해 개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많았다. 이에 조선은 명군의 조총 대신 일본의 조총 제조 기술 획득에 노력하게 된다. 이에 항복한 일본군[降倭] 중 조총 제조 기술을 알고 있는 자를 통해 일본 조총의 제조 기술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sup>35)</sup> 그 결과 조선의 조총 생산량은 1595년(선조 28)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인다.<sup>36)</sup> 정유재란 시기인 1598년 2월 명의 제독 마귀는 조선의 포수의 능력이 상당하지만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아직 충분한 조총의 제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37)</sup>

31) 『선조실록』 권62, 선조 28년 4월 辛酉

32)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辛亥

33) 『西厓集』 권7, 啓辭 「請訓練軍兵啓」(甲午春).

34) 『선조실록』 권48, 선조 27년 2월 己巳

35) 항왜를 통한 조총 제조 기술의 확보 양상에 대해서는 이장희, 「임란시 투항 왜병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6, 1971 ; 박재광, 「앞의 논문」, 1996 등 참조.

36) 박재광, 「임진왜란기 화약병기의 도입과 전술의 변화」, 『학예지』 4, 1995, 389쪽

조선에서 확보한 조총 제작 기술 중 단조로 총열을 제작하는 방법은 임진왜란 직후인 1603년 한효순(韓孝純)이 편찬한 화기 관련 병서인 『신기비결(神器秘訣)』 「조총해(鳥銃解)」에 그 일단이 보인다. 이에 따르면 정철을 마련하여 총열을 만드는데 두 쪽의 반원통철(半圓筒鐵)을 하나로 접합하여 총열을 일단 만들고 찬혈공(鑽穴工)이 조금씩 깎아 완성하도록 하였다.<sup>38)</sup> 그러나 조선의 조총은 그 성능이 일본 조총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단조 가공 기술이 일본에 비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광해군대 조선에서 상당한 양의 조총을 수입한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sup>39)</sup> 인조대에 들어서도 포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조총을 일본에서 도입하자는 논의와 함께 회답사 편에 조총과 염초, 환도 등을 구입하도록 하였다.<sup>40)</sup> 일본의 조총 수입 대신 조선이 조총의 수요를 충당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병자호란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이는 병자호란 직후 조총 중심의 군사체제가 갖추어진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전쟁 이후 포수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조총의 제작 기술이 발달하여 이전보다 조총 생산이 확대된 것을 반영한다.<sup>41)</sup>

조총과 같이 우수한 무기 제작 기술의 발달과정에서 획득되거나 개발된 여러 기술은 기존의 무기 체계의 개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명군의 소지하였던 주조식 조총과 삼안총(三眼鏡), 쾌창(快槍) 등의 기술 습득 과정과 함께 일본식 조총 제작은 조선의 기존 개인화기인 승자총통의 개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승자총통은 16세기 후반 김지(金墀)가 전라좌수사 재임 시 창안한 개인 화기로서 그 이전의 소형 총통을 개량하여 철환을 장전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총열을 이전의 소형 총통에 비해 2배 이상 길게 하여 사정거리를 늘리고 명중률을 높인 것이었다. 또한 이전의 격목(隔木) 대신 토격(土隔)을 사용하여 탄환을 발사함에 따라 장전 시간이 빨라졌다. 화살에 비해 소형인 탄환을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운용 효율도 높아졌다.

다만 승자총통은 손으로 심지에 불을 붙이는 지화식(指火式) 총통이었으므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화승식(火繩式) 소총인 조총과 같이 일제 사격이나 날아가는 새를 쫓아가며 맞힐 수 있는 능력을 갖지는 못하였지만 이전의 조선 화기에 비해 성능상 많은 발전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일본의 조총을 모방하

37)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丙寅

38) 이왕무, 「임진왜란기 조총의 전래와 제조」, 『학예지』 10, 2003, 126쪽. 반원통철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원형 철물 두 개를 합쳐 원형 통의 형태로 제작하는 방법이라는 설(김명훈, 박선숙, 2021 「조총의 등장과 원리」, 『소형화약무기』, 진주박물관)과 두 개의 원통을 위 아래로 합치는 형태라는 설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39) 예를 들어 1607년 조선통신사는 일본 체재 중 사카이에서 조총 500정을 구입하였고 1617년 통신사도 우수한 일본제 총검 구입을 논의하였다. 당시는 부산의 왜관 개시무역을 통해 일본제 총검이 조선에 유입되었다(윤유숙, 2008 「17세기 조일간 일본제 무기류의 교역과 밀매」, 『사총』 67, 95쪽).

40) 『비변사등록』 3책, 인조 2년 4월 24일

41) 노영구, 「앞의 논문」, 2012, 131~132쪽. 조선 후기 들어 금속가공에 주조와 단조 가공이 종합적으로 이용되고 17세기 침을 제조하는데 열처리 기술도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전보다 견고한 총열 제작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1996 『조선기술발달사5』(이조후기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39쪽).

여 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승자총통 제작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현존하는 승자총통류를 볼 때 조선에서 승자총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초 편찬된 『신기비결(神器秘訣)』에는 승자총통을 대·중·소로 구별하고, 병자호란 직전 편찬된 『화포식언해』에서 승자총통, 차승자총통, 소승자총통 등으로 분류한 것을 통해 임진왜란을 거치며 승자총통은 매우 다양하게 개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승자총통 계열 소형화기는 승자총통, 차승자총통, 소승자총통 이외에 별승자총통(別勝字銃筒), 별양자총통(別樣字銃筒), 소양자총통(小樣字銃筒),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 별조자총통(別造字銃筒) 등 더 많은 종류가 확인된다. 최초 승자총통 개발 이후 20여년이 지난 마지막 단계의 소승자총통은 가늠자와 가늠쇠, 그리고 총자루와 연결하는 고정 고리 장치가 모두 장착되어 조총의 바로 전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다.<sup>42)</sup> 즉 조총의 기술 습득 과정에서 익힌 여러 기술을 승자총통 제작과 개량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명군의 주조식 화기의 기술은 승자총통과도 상대적 친연성이 높아 적극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17세기 초 척계광의 『연병실기』의 전술을 참고하여 조선에 적합한 전차 활용 전술을 개발한 한교(韓嶠)의 『연병지남(練兵指南)』에서 중국의 창총수(鎗銃手)라는 용어를 ‘승즈총통도총노홀사람’이라 하여 승자총통 및 조총을 사격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창(鎗)을 승자총통(勝字銃筒)으로 풀고 있는데 여기서 창은 명나라의 소형 화기인 쾌창(快鎗)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쾌창은 길이 2척(尺)의 총신이 짧은 개인용 화기의 일종으로 5척의 곤봉(棍棒) 앞에 부착하여 사격하도록 한 것으로, 사격 후에는 돌려서 곤봉을 사용하여 적과 근접전을 할 수 있는 화기이다. 쾌창은 조준 가늠쇠인 성조(照星)도 없고 총열도 짧아 명중률과 위력에서는 조총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sup>43)</sup> 광해군대 화기도감에서 쾌창을 제작하지만 이보다 위력이 향상된 승자총통을 조총과 함께 운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승자총통은 14단계의 장전 동작이 필요한 조총에 비해 9단계로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사격이 가능한 것도 조총을 보완하는 화기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sup>44)</sup>

조선이 조총의 대량 제작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17세기 전반까지는 조총의 자체 제작과 함께 일본을 통해 대량 도입을 시도하고 아울러 보완적 무기로서 승자총통을 개량하여 조총과 함께 운영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병자호란 직후 승자총통 관련 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실과 포수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조총의 기술 발전(예를 들어 내구성, 대량 생산, 발사 속도 등)으로 승자총통이나 궁시, 각종 단병기의 보완없이도 전투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임진왜란 이후 추구하였던 조총을 가진 포수 중심의 군사체제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42) 허일권, 「조선 청동제 소형 총통의 제작 기술」,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65쪽

43) 노영구 역해, 『연병지남, 북방의 기병을 막을 조선의 비책』, 아카넷, 2017, 140~141쪽

44) 『신기비결』 「銃歌」

## 맺음말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은 새로운 화승총인 조총을 명나라군과 일본군을 통해 접하게 된다. 조선은 최초 명군에게서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나 어려움이 적지 않았고 명의 조총에 비해 우수한 일본의 조총을 기준으로 기술을 습득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 도입된 일본의 조총은 여러 계열이 있었고 아울러 전쟁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개량되었으므로 조선에 적합한 형태로 조총의 체제는 정리된다. 아울러 청과의 전쟁을 통해 기병을 저지하는데 조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17세기 전반 계속된 조총 기술 개발로 병자호란 직후 조선은 포수 중심의 군사체제가 갖추어진다. 조선의 조총 기술 확보 과정은 자연스럽게 금속 관련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민간의 다양한 제품 개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조총을 중심으로 하는 무기체계와 군사제도로의 변화는 조선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킨 주요 전투의 경우 화력(火力, firepower) 우위가 승패를 결정지었음이 확인되었다. 명군의 중무장 기병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은 전쟁 이전 10% 전후에 그쳤던 조총병[鐵砲兵] 비중이 전쟁 기간 꾸준히 증가하여 전쟁 직후인 1600년 일본의 패권을 놓고 벌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후쿠(東北) 지방의 다이묘(大名)인 다테 마사무네(伊達正宗)의 3천 군사 중 기병 420명 등을 제외한 보병 2,300명 중에서 조총병이 1,200명에 달하여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sup>45)</sup>

명나라의 경우에도 임진왜란의 참전을 계기로 일본의 조총을 노획하고 다수의 일본군을 포로를 잡은 것을 계기로 신식 단조제 조총 제조가 확대되었다.<sup>46)</sup> 아울러 임진왜란 참전을 통해 일본군으로부터 익힌 조총의 연속 사격술도 이후 명나라의 전술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sup>47)</sup> 조총 중심의 전술과 군사제도는 17세기 초 명나라에 위협이 되던 북방의 여진과 몽골 세력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전술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48)</sup> 이처럼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총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중요한 무기체계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제 화기가 전쟁을 주도하는 화약혁명의 시대로 동아시아 사회는 변화한 것이다. 각종 화기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개량은 동아시아 기술 발달과 각종 상품 개발, 그리고 상공업 발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

45) 舊參謀本部, 2009 『關ヶ原の役』, 徳間書店, p.295

46) 久芳崇, 2002 「16世紀末, 日本式鐵砲の明朝への傳播-萬曆朝鮮の役から播州楊應龍の亂へ」, 『東洋學報』 84-1, 東洋文庫, pp.40~41

47) 『神器譜』 「防虜車銃議」

48) 久芳崇, 2010 「일본군의 선박과 무기의 과학적 검토」,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pp.236~237



【종합토론】

## 종합토론

좌장 : 정호훈(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별 쇠 참 조





202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공동주최 학술대회

『동유라시아 물품의 복합성: 문명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다』

◎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10:0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회의실(444호)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NRF-2020S1A6A3A01054082)

◎ 본 자료집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2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과 규장  
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 '동유라시아 물품의 복합성: 문명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다'의 발표문을 모아 발간하였음.